

西歸浦文化院 研究叢書 IV-④

濟州島隨筆

石 宙 明 著

 西歸浦文化院



발 간 사

5·16도로변 서귀포시 토평동 입구 소공원에 세워진 흉상은 누구의 것일까?

그 분은 바로 나비 박사로 유명한 석주명 선생이시다. 나비 연구를 위해 2년간 서귀포시 토평동에 머물렀다. 바로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지금의 제주대학 부속 아열대 연구소다.

평양에서 태어난 선생은 개성 송도중학교와 일본의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인 송도중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12년간 나비에 관한 논문 79편을 발표하는 등,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가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6년 7,8월 곤충 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다녀가면서 부터다.

그로부터 7년 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책임자로 부임한 2년 1개월 간의 그 짧은 기간에 제주도학에 바친 열정과 그가 이룩한 업적에 실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는 곤충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 동식물, 인문, 민속, 향토사, 제주도 방언 연구 등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가셨다.

제주를 떠난 후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제주도 방언집』을 처음으로 출간했고(1947), 이어 『제주도의 생명조사』와 『제주도 관계 문헌집』을 펴냈다(1949). 그리고 그의 유고집인 제주도 수필(1968), 제주도 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 등 모두 6권이다.

그러나 유고집을 제외한 3권은 당시의 인쇄술이나 종이 재질(갱지)이 이제는 펴볼 수 없을 만큼 낡은 상태였다. 이에 우리 문화원은 2008년도 연구총서 발간사업으로 이를 복원하여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유고집을 포함한 6권을 묶어 문화연구총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올해가 그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제주사랑과 업적을 세상에 펴내어 선양하는 일과, 고인이 제주에 베푼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기에는 매우 의미있고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주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화총서 발간을 쾌히 허락해 주신 재미 석윤희님(석주명 선생의 따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문화원 정수현 부원장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도서출판 제주문화 홍성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일

원장 김 병 수

인사의 말씀

나의 아버지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와 업적은 이미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한번 몰두하면 전력을 다 쏟는 분이어서, 인생의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학자로서 아버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한국으로에서 중요한 역할로 기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사신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강요한 창씨개명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족의 성씨는 일본식으로 '세키' 라고 발음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국식 성인 '석' 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이른 봄이면 나비를 채집하기위해 집을 나서서, 봄과 여름이 다 지나도록 산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단지 층층이 물집으로 뒤덮인 발바닥을 치료하러 올 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달린 바늘로 물집 하나하나를 꿰어, 실 양쪽 끝을 잘라낸 후 실로 물집 하나 하나를 짜내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발을 치료하는 데는 보통 며칠씩 걸렸습니다. 며칠 쉬고, 회복되면, 아버지는 다시 나비를 채집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흑인같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은 '인디언 포대자루' 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주도 지역 방언과 인구조사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골과 도시 주변을

살살이 조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에도 억지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만일 5분 만에 잠들지 않는다면, 왜 계속 이불속에 있는 거야?” 하고 묻곤 하셨습니다. 나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를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시간관리 태도는 가끔 사회적으로 충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는 결혼식 피로연에도 겨우 5분 정도만 머무셨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직장 전근 때문에 초등학교를 6군데나 옮겨 다녔습니다. 내가 일곱 여덟 살쯤 되던 해에 아버지가 경성대학 생약연구소 시험장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어 제주도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시험장은 서귀포에서 여러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주 시험장 건물 건너편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주변엔 집도 건물도 없었고, 황량한 들판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의 전통 가족들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면, 나는 매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서귀포에 있는 일본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나면, 혼자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사를 돌보셨는데, 마당에 작은 꽃나무와 채소를 가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뱀들과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연구를 하실 때면, 서재에 “연구작업중” 이라고 붙여두곤 하셨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 나는 문을 두드려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종종 학생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의 연구시간임을 모르고 잘못 찾아오면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시간 연구 후에 5분씩만 쉬셨습니다.

다. 그럴 때면 줄넘기를 하거나 강아지와 같이 달리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중요한 건강관리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달변가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1946년 혹은 1947년 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에 열린 강연회에 초청 받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강연회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그중 많은 학생들이 미처 다 들어오지 못해서, 창문 밖에 서서 통해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학계의 매우 다양하고 명망 있는 많은 친구 분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셨습니다. 종종 친구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와 친구 분들은 밤이 늦도록 종전 이후의 국가의 권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하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술에 취해 코트, 양말 등을 우리 집에 남겨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 이주에 한 번씩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저명한 친구 분들과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천문만답” 이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 온갖 종류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뛰어난 학자였던 아버지는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병수 서귀포문화원장님과 그밖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 윤 희

Irvine California U.S.A

October 17, 2008

Greeting Address

My father's professional contributions and achievements are public knowledge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 will focus on my memories of my father during the early years of my life.

My father was an extremely driven man who was obsessed with his work, and felt that he could not afford to waste a single minute of his life. He was determined to leave important contributions to Korean society whenever there were opportunities given to him as a Korean scholar under the Japanese rule. He was a patriot in his own way. He refused to adopt Japanese sir name. We stayed with our own Korean last name, "Seok, or Suk" which was pronounced Seki in Japanese.

My father used to leave home to go to collect butterflies early spring every year, and live in the mountains throughout the entire spring and summer. The only time he would come back home was when he needed to treat the bottom of his feet. His feet would be covered with layers of blisters. He would pierce through each blister with a needle and thread, cut both ends of the thread, so that each blister would drain, and dry out. This process of the management of his feet

would take a few days. After a few days of rest and recuperation, he would start all over again. At the end of summer, he looked like a black (African) person. His nickname was Indian Crow.

He had the very same life style in Jeju Island dialect, and census figures. He would comb through all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towns.

He used to despise those who invite sleep at night. He used to say "If you cannot fall asleep within 5 minutes, why do you want to stay in bed?" "You are only wasting your time." As I remember, he used to sleep about five to six hours attitude toward his time management could have created some social conflicts. For instance, he would speak at a wedding, and then attend the reception for only five minutes.

I attended six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since my father was assigned to so many different job locations. I was around seven or eight years old when my father was assigned to go to Jeju Island as the director of agricultural station at Seogwipo. The agricultural station was a few miles away from Seogwipo. We settled in the residence across the agricultural station building. In those days, there was no house or any buildings around the area. The surrounding area was vast wild land.

Just as any traditional Korean families, my father's work

was the central focus of our family activities. My father would go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I attended a Japanese primary school in Seogwipo in a horse drawn carriage everyday. However, in the afternoon, I had to walk back to home by myself. My mother did the usual housework at home. We had a little flower and vegetable garden my mother attended. Occasionally, my mother had to battle with so many different kinds of snakes.

If he was to carry out his research at home, he used to have an "office hour" on the door of his study room. I used to knock on his door at dinnertime. Once in a while, some students would come to see my father, only to find out that they came at a wrong time; therefore, my father was not available. My father used to take 5 minute break for every one hour of study. He used to do "Jump rope" or run around with our dog.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his health.

My father was an exciting and entertaining speaker. He was often humorous also. I still remember that he was invited to do a l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round 1946 or 1947. I heard from somebody that there were so many students that some students had to look into the lecture room through windows from outside. He also had many renowned friends from all different academic fields. Once in a while, my father hosted these friends at our house. They would stay overnight

discussing all sorts of topics right after WWII(1946-1948). Some guests drank heavily, and left behind their coats or sox in our house when they left.

I also remember him participating a weekly(or bi-weekly) radio talk show with several other well renowned friends. They covered all kinds of topics. The program was called;천문만답.

I will always cherish the memories of my father as an extraordinary scholar who did so much in his short life.

Thank not only Mr Byeongsu Kim Director of Seogwipo Culture Center also all the other concerned persons who helped to make this publication possible.

석 윤 희

Irvine California U.S.A

October 17, 2008

目 次

발간사	3
인사의 말씀	5
I. 總 論	15
II. 自 然	27
1. 기상	27
2. 해양	29
3. 지질·광물	30
4. 식물(植物)	41
5. 동물(곤충을 제외)	59
6. 곤충(昆蟲)	71
III. 人 文	77
1. 전설·종족	77
2. 방언(方言)	85
3. 역사(歷史)	97
4. 외국인과의 관계	125
5. 관계인물	135
6. 민속(民俗)	145

7. 식의주(食衣住)	157
8. 일상생활(日常生活)	164
9. 지리(地理)	186
10. 도읍(都邑) · 촌락(村落)	201
11. 산악(山岳)	208
12. 도서(島嶼)	214
13. 지도(地圖)	221
14. 교통 · 통신	223
15. 농업	231
16. 임업(林業)	250
17. 축산(畜産)	254
18. 수산(水産)	270
19. 기타 산업	274
20. 정치(政治) · 행정(行政)	289
21. 사회(社會)	292
22. 인구 · 특수부락	305
23. 위생(衛生)	323
24. 교육 · 종교	336
25. 문화	346
跋 文	356

I. 總 論

「까치」와 「포플라」

이 두 가지는 우리 반도를 대표하는 동식물이다. 이 양자가 다 본도에 없으니 그 점으로 반도풍(半島風)에서 떠난 풍경을 나타낸다. 까치는 까마귀가 많은 이 섬에 부적(不適)할 것이고 포플라같은 높게 되는 나무는 바람이 많은 이 섬에는 부적할 것이다.

밭밟기(踏田)와 해녀(海女)

마군(馬群)으로 밭을 밟는 상황과 해녀의 풍태(風態)는 제주도 풍속의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인쇄물에는 대개 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섬의 계획(計劃)의 대략(大略)

일인(日人)들의 1924년 발표에 의하면

- ① 산업의 대개발(大開發),
- ② 어항(漁港)의 대수축(大修築),
- ③ 전기공업의 기획,
- ④ 수도(水道)의 계획,
- ⑤ 도로의 대개수(大改修) 단행,
- ⑥ 교통통신에 관한 계획,
- ⑦ 이민(移民)과 출가(出稼)에 대한 계획 등등.

동식물의 성립분자(成立分子)

일본분자(日本分子)가 물론 섞이기는 했지만 단연 반도의 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중요 분자의 대부분이 반도와 공통되어 생물학상으로도 제주도도 단연 한국의 속도(屬島)임을 알겠다.

헬만 · 라우텐자하(H. Lautensach) 박사

독일 기이센(Giessen)대학 교수로 1933년에 10개월 반이나 한국을 여행하고 「제주도와 울릉도」란 저서(1935년)에서 양도(兩島)를 아주 재미있게 비교 발표한 사람이다.

구한말경(舊韓末頃)의 산물(產物)

육산물로는 콩, 팥, 메밀, 조, 보리, 표고버섯, 소, 말, 계란, 각종 약재(藥材), 양태(涼太), 망건(網巾), 모자(帽子), 목면(木綿) 등, 해산물로는 전복, 해삼, 멸치, 상어, 고등어, 도미 기타의 어족, 우뚝가사리, 풀가사리 등의 해초.

「버스」에서 보는 풍경

일주도로(一周道路)를 달리면 때때로 길에서 풀 먹는 몇 마리의 말을 자연스럽게 보게된다. 대개는 조금 달아나다가 피하지마는 어떤 때는 수십리를 그대로 「버스」의 앞에 서서 달아나는 때가 있다. 또 다른 풍경은 옛부터 이풍(異風)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두기분(田頭起墳)과 여자배부(女子背負)의 사실(事實)이다.

400년전의 제주도 물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80)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산도(山稻), 서(黍: 기장), 직(稷: 꾀), 숙(菽: 콩), 두(豆: 콩), 교맥(蕎麥: 메밀), 맥(麥: 보리), 모(麩: 갈보리), 마(馬), 우(牛), 췌자(麋子), 미녹(麋鹿), 해달(海獺), 지달(地獺), 환(獾), 빈주(瓊珠: 진주), 대모(玳瑁: 거북), 패(貝: 조개), 앵무라(鸚鵡螺), 감(柑), 귤(橘), 비(榧), 유(柚), 치자(梔子), 울

(栗), 무환자(無患子), 무회목(無灰木),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노목(櫨木), 두충(杜冲), 지각(枳殼), 원박(原朴), 연실(棟實), 동근(棟根), 영능향(零陵香), 안식향(安息香), 향부자(香附子: 잔디뿌리), 청피(靑皮: 청귤피), 해동피(海東皮), 촉초(蜀椒: 조피나무), 진피(陳皮), 필징가(葦澄茄), 팔각(八角), 향심(香薷: 표고), 목의(木衣), 석곡(石斛), 석종유(石鍾乳), 백납(白蠟), 염(鹽: 소금), 괘(藿: 미역), 우모(牛毛), 해(蟹: 게), 나(螺: 소라), 복(鰓), 석결명(石決明), 황합(黃蛤), 해의(海衣: 김), 오적어(烏賊魚: 오징어), 은구어(銀口魚: 은어), 옥두어(玉頭魚: 옥돔), 사어(鯊魚: 모래무지), 도어(刀魚: 갈치), 고도어(古刀魚: 고등어), 행어(行魚: 멸치), 문어(文魚)

이상이 제주목(濟州牧) 산(産)이지마는 정의현(旌義縣)이나 대정현(大靜縣)에 모두 산(産)한다고 했으니 최근의 산물과 비교할 때 400년간에 제주도의 자원이 그 얼마나 파괴된 것을 알 수가 있겠다.

400년전의 제주도물산일람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곡물류(穀物類) : 산도(山稻), 서(黍), 직(稷), 속(粟), 속(菽), 두(豆), 교맥(蕎麥), 맥(麥), 모(麴).

과채류(果菜類) : 유(柚), 울(栗), 비자(榧子), 치자(梔子), 감(柑), 귤(橘), 무환자(無患子), 산유목(山柚木).

어개류(魚介類) : 은구어(銀口魚), 사어(鯊魚), 도어(刀魚), 고도어(古刀魚), 행어(行魚), 문어(文魚), 복(鰓), 해(蟹), 오적어(烏賊魚), 황합(黃蛤), 나(螺), 우모(牛毛), 해의(海衣), 괘(藿), 옥두어(玉頭魚).

조수류(鳥獸類) : 해달(海獺), 지납(地蠟), 마(馬), 우(牛), 궤자(麋子), 미늑(麋鹿), 미(麋).

광물류(鑛物類) : 석종유(石鍾乳), 백납(白蠟).

공산물(工產物) : 염(鹽).

약류(藥類) : 안식향(安息香), 향심(香蓴), 진피(陳皮), 두충(杜沖), 지각(枳殼), 원박(原朴), 연실(楝實), 연근(楝根), 영능향(零陵香), 향부자(香附子), 청피(靑皮), 해동피(海東皮), 촉초(蜀椒), 필징가(葍澄茄), 팔각(八角), 목의(木衣), 석곡(石斛), 석결명(石決明).

기타 : 빈구(蟻球), 대모(玳瑁), 껍(貝), 앵무라(鸚鵡螺), 무회목(無灰木), 이년목(二年木), 노목(櫨木).

산해진미(山海珍味)의 쌍벽(雙壁)

산중(山中)서 표고버섯을 사탕(砂糖)을 가(加)한 장(醬)으로 가미하여 생용(生茸)대로 구은 것과, 해안에서 전복을 회로 먹는 것은 실로 미각의 쌍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삼다(三多), 사다(四多) 혹은 팔다(八多)

제주도에 많은 것은 돌, 바람과 비, 혹은 말 혹은 여자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까마귀(烏), 진드기(蠶), 고사리(蕨) 등이다. 서울신문사 특과원 보고(1946.12.13)에는 삼다를 석다(石多), 풍다(風多), 송다(松多)라고 했지만 송다의 근거는 없다.

세계제일과 한국제일

세계제일

- ① 한라산은 300여의 기생화산을 가졌다.
- ② 제주도특산의 동식물이 있다.
- ③ 비림(樾林).
- ④ 김녕굴(金寧窟 ; 蛇穴).

한국제일

- ① 한국 남단에 소재한다.

- ② 1950m의 고봉(高峰)이 해안서 15km에 놓여 있다.
- ③ 감귤원.
- ④ 석다, 풍다, 우다(雨多), 우다(牛多), 마다(馬多), 여다(女多).
- ⑤ 켈다(蕨多), 오다(烏多), 만다(蝸多).
- ⑥ 아열대식물의 자생.
- ⑦ 해녀.
- ⑧ 장수자(長壽者).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1년간의 제주도

- ① 제주도에 관한 기사는 자유신문에 가장 많다.
- ② 한라산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산악회가 한라산학술조사대를 파견한 관계이다.
- ③ UP특과원, 미군최고지휘관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여러 관민의 시찰이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다.
- ④ 제주도(濟州島)가 제주도(濟州道)로 승격하였다.
- ⑤ 1946년 하절(夏節)에는 호열자(虎列刺: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특히 제주도에서는 환자가 매일 50명이나 발생한 비참사(悲慘事)가 있었다.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의 제주도

다음과 같은 줄편(拙篇)이 있다.

- ① 해방후 1년간의 기사; 학풍(學風), 제2권, 제1호, 100-101頁, 1949.
- ② 둘째해의 기사: 동상(同上), 제2호, 112-3頁
- ③ 세째해의 기사; 동상(同上), 제3호, 116-7頁

1880년경의 제주물산

이태왕(李太王) 시대에 집록(輯錄)된 각 읍지를 기초로한 「조선의 물

산」(1927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물산은 다음과 같다.

선(稙 : 메벼), 서(黍), 직(稷), 양(梁 : 기장), 대소두(大小豆), 녹두(菘豆), 대소맥(大小麥), 교맥(蕎麥), 마(馬), 우(牛), 궤(麀), 녹(鹿), 장(獐 : 노루), 저(猪 : 돼지), 리(狸 : 너구리), 해라(海螺), 지달(地獺), 빈주(瓊珠), 대모(玳瑁), 꾀(貝), 앵무라(鸚鵡螺), 향서(香鼠), 복(鰻), 황합(黃蛤), 옥두어(玉頭魚), 은구어(銀口魚), 교어(鮫魚 : 상어), 도어(刀魚), 고도어(古刀魚), 행어(行魚), 문어(文魚), 망어(望魚 : 삼치), 생어(生魚 : 생선), 염(鹽), 괘(藿), 우모(牛毛), 목의(木衣), 향심(香蓴), 감(柑), 유(柚), 금귤(金橘), 유감(乳柑), 동정굴(洞庭橘), 청굴(靑橘), 산굴(山橘), 당유자(唐柚子), 왜굴(倭橘), 비자(榲子), 치자(梔子), 적률(赤栗),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해동피(海桐皮), 안식향(安息香), 고련(苦楝), 팔각(八角), 원박(原朴), 석곡(石斛), 무환자(無患子), 향부자(香附子), 만형자(蔓荊子 : 숨비기나무), 반하(半夏), 백납(白蠟), 석종유(石鍾乳), 지각(枳殼), 진피(陳皮), 청피(靑皮), 오미자(五味子), 판기생(板寄生).

1880년경의 대정(大靜) 물산

선도(稙稻), 서직(黍稷), 양(梁), 대소두(大小豆), 녹두(菘豆), 대소맥(大小麥), 교맥(蕎麥), 우마(牛馬), 궤녹(麀鹿), 저(猪), 장(獐), 지달(地獺), 리(狸), 라(螺), 복(鰻), 은어(銀魚), 고도어(古刀魚), 망어(望魚), 생어(生魚), 염(鹽), 괘(藿), 우모(牛毛), 금귤(金橘), 산굴(山橘), 청굴(靑橘), 당유자(唐柚子), 적률(赤栗), 가시울(加時栗), 산유자(山柚子), 청양목(靑楊木), 안식향(安息香), 고련근(苦楝根), 해동피(海桐皮), 팔각(八角), 원박(原朴), 석곡(石斛),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무환자(無患子), 목곶자(木串子), 영능향(零陵香), 향부자(香附子), 반하(半夏), 백납(白蠟), 지각(枳殼), 진피(陳皮), 오미자(五味子), 송기생(松寄生).

1880년경의 정의(旌義) 물산

선(稔), 서(黍), 직(稷), 양(梁), 대소두(大小豆), 녹두(菘豆), 대소맥(大小麥), 교맥(蕎麥), 우마(牛馬), 퀘늑(麕鹿), 저(猪), 장(獐), 지달(地獺), 리(狸), 라(螺), 복(鰻), 은구어(銀口魚), 도어(刀魚), 고도어(古刀魚), 행어(行魚), 망어(望魚), 생어(生魚), 염(鹽), 괘(藿), 우모(牛毛), 감자(柑子), 금귤(金橘), 귤(橘), 산귤(山橘), 청귤(靑橘), 당유자(唐柚子), 적률(赤栗), 가시울(加時栗),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노목(櫨木), 만향목(蔓香木), 청양목(靑楊木), 안식향(安息香), 고련(苦楝), 해동피(海桐皮), 팔각(八角), 원박(原朴), 석곡(石斛), 촉초(蜀椒),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무환자(無患子), 목환자(木患子), 영능향(零陵香), 향부자(香附子), 만형자(蔓荊子), 반하(半夏), 백납(白蠟), 석중유(石鍾乳), 지각(枳殼), 진피(陳皮), 청피(靑皮), 회향(茴香), 오미자(五味子), 송기생(松寄生).

1880년경의 제주도물산 종류 일람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곡물류(穀物類) : 양(梁), 선(稔), 서(黍), 직(稷), 대소맥(大小麥), 교맥(蕎麥), 녹두(菘豆), 대소두(大小豆).

과물류(果物類) : 감(柑), 유(柚), 금귤(金橘),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 청귤(靑橘), 산귤(山橘), 당유자(唐柚子), 왜귤(倭橘), 비자(榲子), 산유자(山柚子), 가시울(加時栗), 무환자(無患子).

목죽류(木竹類) : 원박(原朴), 이년목(二年木), 치자(梔子), 노목(櫨木), 청양목(靑楊木), 만향목(蔓香木).

수류(獸類) : 우(牛), 마(馬), 저(猪), 향서(香鼠), 장(獐), 리(狸), 녹(鹿), 퀘(麕), 지달(地獺).

어개류(魚介類) : 해라(海螺), 생어(生魚), 빈주(璵珠), 대모(玳瑁), 껍(貝),

앵무라(鸚鵡螺), 복(鰓), 황합(黃蛤), 옥두어(玉頭魚), 은구어(銀口魚), 교어(鮫魚), 도어(刀魚), 고도어(古刀魚), 행어(行魚), 문어(文魚), 망어(望魚), 곱(藿), 우모(牛毛).

약류(藥類) : 반하(半夏), 해동피(海桐皮), 지각(枳殼), 향부자(香附子), 진피(陳皮), 만형자(蔓荊子), 목의(木衣), 안식향(安息香), 고련(苦楝), 팔각(八角), 석곡(石斛),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영능향(零陵香), 촉초(蜀椒), 회향(茴香), 고련근(苦楝根), 목환자(木患子), 청피(靑皮), 오미자(五味子), 송기생(松寄生).

광물류(鑛物類) : 석종유(石鍾乳), 백납(白蠟).

잡류(雜類) : 염(鹽).

1771년경의 제주도 물산

고사신서(故事新書; 1771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마(馬), 우(牛), 궤자(麋子), 미녹(麋鹿), 장(獐), 저(豬), 환(獾), 해달(海獺), 빈주(瓊珠), 지달(地獺), 대모(玳瑁), 패(貝), 앵무라(鸚鵡螺), 향서(香鼠), 향심(香草), 목의(木衣), 감(柑), 유(柚), 곡(斛), 비자(榧子), 치자(梔子), 무회목(無灰木), 용목(榕木), 노목(櫨木), 산유자(山柚子), 목(木), 이년목(二年木), 지각(枳殼), 안식향(安息香), 고련근(苦楝根), 해동피(海桐皮), 팔각담(八角覃), 징가(澄茄), 원박(原朴), 석곡(石斛), 촉초(蜀椒), 두충(杜冲), 무환자(無患子), 영능향(零陵香), 향부자(香附子), 백납(白蠟), 석종유(石鍾乳), 진피(陳皮), 청피(靑皮), 송기생(松寄生), 은구어(銀口魚), 해물(海物).

이상이 제주물산이지마는 대정이나 정의에도 모두 산(産)한다고 했다.

이상에서는 곡물은 제외되었고 해산물도 해물(海物)이란 일어(一語)로 될뿐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면 400년전의 산물과 대차(大差)가 없다.

1295년경의 제주도산물

고려 충렬왕 21년(1295) 4월에 제주도가 고려로 이관(移管)된데 대한

예(禮)로 고려에서 원(元)으로 보낸 제주도 토산물은 다음과 같다.

저포(苧布) 100필(匹), 목의(木衣) 40엽(葉), 포(脯) 6농(籠), 환피(獾皮) 76령(領), 야묘피(野猫皮) 83령, 황묘피(黃猫皮) 200령, 궤피(麋皮) 400령, 안교(鞍轡) 5부(副).

이조(李朝) 말경 일본에 수출하던 산물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內)에 의하면

- ① 축산(畜産) : 우(牛), 마(馬), 시(豕), 우피(牛皮), 우골(牛骨), 마피(馬皮), 녹피(鹿皮), 계(鷄), 계란(鷄卵).
- ② 해산(海産) : 간온(干鱈 : 마른 멸치), 천초(天草 : 우뭇가사리), 도포(搗布 : 감태), 약아(若芽 : 미역), 포(鮑 : 전복), 해삼(海蔘), 포해태(布海苔), 조(鯛 : 도미), 상기(觶鱸 : 상어지느러미), 사(沙), 간상(干鱸), 대도어(帶刀魚), 간해시(干海豕), 어유(魚油), 염(鹽), 포각(鮑殼).

③ 잡곡(雜穀)

이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멸(既滅)된 녹피(鹿皮)와 장래성을 내다보는 양계(養鷄)다.

1927년경의 특산품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에 의하면, 제주도 특산품은 마(馬), 추용(椎茸 : 표고), 춘유(椿油), 목줄(木櫛), 목탄(木炭), 조선모모자(朝鮮毛帽子), 입자(笠子), 탕건(宕巾), 돈모(豚毛), 포(鮑), 연초(煙草) 등등.

자연파괴(自然破壞)의 방지책(防止策)

한라산 중복(中腹) 지대 이하부는 경작과 목축으로 인하여 그 자연이 전면 파괴되고 말았다. 그 이상부도 현재 파괴를 당하고 있으니 지금 곧 금렵구(禁獵區)와 금목지(禁牧地)를 곳곳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

이런 책이 1905(明治38)년에 출판되었다. 저자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자의 1인인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 南冥)이고 동경 융문관(隆文館)의 발행이다. 동기(同期)의 융문관 발행도서를 보면, 섬라(暹羅)의 부원(富源), 남청(南淸)의 부원, 만주(滿洲) 및 시베리아(西比利亞)의 부원, 북미(北美)의 부원, 가라후토 안내(樺太島案内) 등이 있고 본안내서(本案內書)도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 附錄 濟州島經營論」이란 긴 표제어로서 당시의 일본의 팽창상(膨脹相)을 충분히 보여준다.

제주도(濟州島)의 자태(姿態)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으로 보아 제주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도 동부(東部)에 있는 구좌(舊左), 표선(表善), 남원(南元)의 3개면이다. 그러니 어떤 제목 하에 제주도를 조사하려면 이 3개면을 주로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구좌면의 한동리(漢東里)에서 상도리(上道里)에 걸쳐 연속한 대부락(大部落), 표선면(表善面)의 성읍리(城邑里)와 토산리(兎山里), 남원면(南元面)의 의귀리(衣貴里) 부근과 위미리(爲美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된다. 소위 시가지에서는 제주도의 참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제외하여야 한다.

제주삼기(濟州三奇)

제주도청편(濟州島廳編: 1927년)에 의하면

- ① 부락 곳곳에 있는 말방아.
- ② 파속종(播粟種)후의 우마군(牛馬群)의 답전(踏田).
- ③ 벌선(筏船)으로의 「자리」 어업.

주요산물

맥(麥: 보리), 속(粟: 조), 감저(甘藷: 고구마), 제충국(除虫菊), 켈(蕨: 고사리), 우(牛), 마(馬), 수산물(水産物), 임산물(林産物), 약초(藥草) 등

지척민빈(地瘠民貧)

고려 문종(文宗) 12년(1058)에 벌써 알려진 말이고 제주도(濟州道)가 절대로 남해(南海)의 보도(寶島)는 아니다. 실지로 옛날부터 기근(飢饉)이 심하여 근고(近古) 조정(朝廷)의 은휙(恩恤)만도 재삼(再三)에 그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지정된 것은 대만(大鰻; 西歸浦 天池淵), 문주란(舊左面 下道里), 나무고사리(西歸浦 森島), 김녕굴(金寧窟; 舊左面 金寧里) 등이 있고, 또 비단개구리(한라산 일대), 흑송(黑松; 西歸面 東烘里), 장수(樟樹; 中文面 道順川), 비림(樾林; 舊左面 漢東里) 등이 유명하다.

토지의 할당과 경관(景觀)

헬만·라우텐자하(H. Lautensach)(1935)에 의하면 농경-1/2, 목장-1/4, 삼림-1/4이 하부에서 상부로 배치되었는데 경관으로 볼 때는 순문화경관·반문화경관(純文化景觀·半文化景觀), 일부에 인공이 가해진 자연경관, 순자연경관으로 변이(變移)되었다고 한다.

토지이용경(利用景)의 타원환상대(橢圓環狀帶)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환상대 토지이용경을 정하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삼림지대 600m 이상 27,306 정보(町步:국유림)
- 산간지대 300m 이상 45,000 정보(1/3이 경지로 10년 1~2작)
- 중간지대 200m 이상 30,000 정보(1/2이 경지로 5년 2~3작)
- 해안지대 200m 이하 답(畓) 891 정보
- 전(田) 69,601 정보 (연중윤작(輪作))

토지 이용으로 본 지대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는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분류하였다.

- ① 삼림지대(森林地帶)
- ② 삼림지대(森林地帶)

화전지대(火田地帶)	산간지대(山間地帶)
목장지대(牧場地帶)	중간지대(中間地帶)
경작지대(耕作地帶)	해안지대(海岸地帶)

①은 구(舊)이고, ②는 신(新)이라고.

해방후 4년에 제주도를 일주하고 느낀 점

- ① 주민에게 활기가 있다.
- ② 분 바른 부녀자가 많다.
- ③ 경찰관이 많다.
- ④ 학교의 신축과 증축이 많다.
- ⑤ 간판들을 보니 조선이니 대한이니 하는 전국적(全國的)의 것은 없고 모두 제주도적(濟州島的)인 것일뿐.
- ⑥ 한림에는 춘향(春香)이발관이란 간판이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 ⑦ 제주전등(電燈)은 화력에 의한 것이니 석탄의 부족으로 동서이분(東西二分)되어 격일로 송전되고 서귀포 것은 수력이니 약하나마 매일 송전된다.

Ⅱ. 自 然

1. 기 상

강수량

표선면 산간지대(山奧地帶)인 녹산장(鹿山場)을 중심으로 3,000mm가 되고, 차차 타원형으로 강하하니 한림면 서부는 권외(圈外)로 되고 1,200mm밖에 아니된다. 그러니 한림면이 면(綿)의 산지란 것도 짐작할 수가 있겠고 녹산장은 목장지대로는 의심이 난다.

계절풍과 태풍

계절풍은 동계(冬季)의 북북서풍과 하계(夏季)의 남서풍이고, 태풍은 추동절(秋冬節)에 생긴다.

구름일외 선보림 우친다

「스무이레에 내리기 시작한 비, 눈은 다음달 보름날까지 그치지 않는다」란 말로 제주도의 기상을 말하는 이야기다.

기온

최고는 8월, 최저는 2월, 그러나 혹한 혹서가 없는 것은 해양성 기후인 관계요 하절에도 부채 없이 지낼 수 있고 동계에도 온돌 없이 지낼 수가 있는 정도이다. 동계에는 한라산 남북에 의하여 5~6도의 차가 있다. 남해안에서 산정까지의 변화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가라후토(樺太)의 남부 혹은 만주의 흑룡강 지방에 이르는 것과 같은 정도이다. 사계(四季)는 균등되어 있고 12~2월은 동절, 3~5월은 춘,

6~8월은 하, 9~11월은 추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12~2월은 난지(暖地)이지마는 분명한 동절(冬節)이다.

기후

기온은 인가 있는 곳에서는 월평균 0도까지 강하하는 일이 없고 절도(絶島)이니 하계에도 혹서(酷暑)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은 한국제일의 강한 지대이니 동계(冬季)에는 의외로 한기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난방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량도 많고 우천(雨天)이 1년의 1/3을 훨씬 넘으니 분명히 건강지대(健康地帶)는 아니다. 그러나 5월과 10월은 기온도 적당하고 풍우가 적을뿐 아니라 쾌청이 많으니 유쾌한 계절이다. 더우기 5월 하순~6월 상순은 가장 유쾌한 계절이다.

바람(風)

제주어로는 「바람」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이름이 있다. 셋바람(東風), 갈바람(西風), 마바람(南風), 하니바람(北風), 동마바람(東南風), 서마바람(西南風), 신셋바람=놉셋바람(東北風), 서하니바람(西北風).

이월 바람에 가문쇠뿔이 오그라진다

「이월강풍에 검은 소의 뿔이 꼬부라진다」의 뜻으로 제주도의 기후를 표시하는 이야기다.

최대의 폭풍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朝鮮の災害」(1928년)에 기재된 것은 186건인데 그중 제주도에 관한 것은 단 1건인 이조 숙종(肅宗) 39년(1713) 8월조(條)로 「濟州大風雨室屋頽圯死傷人物公私牛馬多致顛斃」라고 되어있다.

2. 해 양

무숫기

이 명사부터 제주어로는 다르고 「물떼」 혹은 「물끼」라고 하고, 날마다의 명칭도 다 다르다. 그러나 대조하면 좀 비슷비슷한 명칭이고 그 순서는 북부 지방은 육지와 일치하고 남부 지방은 1일이 더 빠르게 계산한다. 대정 지방에는 또 다른 명칭도 쓰인다(拙著 濟州島方言 155頁 參照).

연안정지(定地) 해양관측

1936년 현재로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에서 관측을 촉탁(囑託)한 장소는 전조선에 35개소인데 그중 제주도의 몫으로는 산지(山地)와 마라도의 양등대가 포함(包含)되었다.

조석간만(潮汐干滿)의 차

고가네(小金; 1916년)에 의하면 전도를 통해서 6척(尺)이라고.
 마수다(柁田; 1933년)에 의하면 1.8m.

해류

난류인 적도(赤道) 해류는 북진하여 대만의 동측(東側)을 지나 오키나와군도(沖繩群島) 북방에 이르러 분기(分岐)되어 일파(一派)는 큐슈(九州) 서단(西端)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츠시마(對馬)해류로 된다. 이 츠시마해류는 대한해협에 들 때 제주도 서남(西南)에서 다시 1소지류(小支流) 즉 소위 고토(五島)제주 해류가 생겨 황해로 가니, 제주도는 남측이 이 관계로도 일층 따뜻하여진다. 그리고 부근 해류는 시속 1~3리(浬)이다.

해수의 이용

- ① 보리 파종 후에 살포.

- ② 가축의 「진드기」를 제거할 때 살포.
- ③ 두부(豆腐)제조시 고염(苦鹽)대용.
- ④ 농작물 종자 선별에 사용.
- ⑤ 채소의 수세기 및 침지(浸漬)시에 사용.
- ⑥ 음(疥癬) 기타 피부병에 해수욕을 하여 치료.

3. 지질 · 광물

개사층(介砂層)

근세에 생성된 것으로 해중으로부터 죽은 개각(介殼) 미편(微片)이 바람에 불리어 올라와 형성된 세계 유일의 진사구(珍砂丘)이다. 협재리(挾才里), 표선리(表善里), 행원리(杏源里), 김녕리(金寧里), 함덕리(咸德里) 등의 백사구가 다 그것이고 섬 전체가 흑색의 현무암으로 되었다고 할만한 곳이니 보는 이에게는 기이한 감을 느끼게 한다.

고지질(古地質)의 자료

현무암 분출 이전의 지질을 알려주는 자료에 세 가지가 있다. 즉

- ① 한라산 정상 외륜산(外輪山) 서부의 알칼리 조면암(粗面岩).
- ② 서귀포층(西歸浦層)의 화석.
- ③ 별도봉하(別刀峰下)의 화강암(花崗岩) 각력(角礫)을 포함한 화산쇄설암층(火山碎屑岩層).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의 화산 고설(考說)

고려 목종(穆宗) 5년(1002)의 분화의 기록은 산에 4공(孔)을 개열(開裂)했다는 기사로 보아도 비양도(飛揚島)의 활동 내지 폭발(爆裂)이고 동10년(1007)의 분화는 집괴암(集塊岩)을 유출(流出)한 군산(軍山)의 활동이었다고 상정(想定)된다.

대답(大畚)

명칭대로의 큰 논이 있으니 유명한 장소다. 아마 제주도의 대답일 것이고 적어도 제주도 남측에선 제일 큰 논(水田)이다. 서귀포 근교(近郊)로 제주도는 논이 농토의 불과 1%이니 눈에 띈다. 직경(直徑) 1,200m의 화구원(火口原)이고, 부근에 있는 표고 165m의 삼매봉(三梅峰)은 그 외륜산(外輪山)의 최고점(最高點)이다.

바위

석다(石多)의 곳이라 모양에 따라 명칭이 많다. 보통 「바위」는 북부 어로는 「엉덕」, 남부어로는 「바우」, 평지에 있는 두상암(頭狀岩)은 「머들」, 「바윗그루」 혹은 반석(盤石)은 「빨레」 혹은 「빌레」 등 여러가지 명칭이 있다.

비현정질현무암(非顯晶質玄武岩)

제주도는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도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은 이 비현정질현무암이다.

사혈(蛇穴)

일명 김녕굴(金寧窟)이라고도 하고, 구좌면에 있다. 대사(大蛇)의 전설로 유명하고 탐라지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은상(李殷相)은 굴의 형상이 S자형으로 되었으므로 「배암굴」로 부르던 것에 이런 전설도 덧붙여 그 유래를 설명하게 된 것이겠더라고. 그런데 그보다도 학술적으로 더 유명해질 점이 있다. 즉 평균폭 6간(間), 높이 5간, 길이 300간인데 현무암의 굴로서는 그 장대한 점으로 세계 제일이라 한다.

삼도용암(森島熔岩)

삼도(森島)를 비롯하여 문도(蚊島), 호도(虎島), 호촌악(狐村岳) 및 사악(寺岳) 등을 구성하고 경상화산(鏡狀火山)을 이룬 암석이고 한라암(漢拏岩)과 산방암(山房岩)의 중간의 조성(組成)을 갖고 있다.

수성암(水成岩)

제주도 유일의 것. 서귀포층(西歸浦層)이 연외천(淵外川) 건너편 해안 절벽에 훌륭하게 노출되어 있고 다양다종의 개화석(介化石)이 보인다. 약 60m의 단안(斷岸) 중간에 2층의 화석층이 노출하여 있는데 각 화석층의 상부의 화석은 대개 불완전하나 하부의 화석은 대개 완전하다.

수원(水源) 및 지하수리(地下水理)

본도의 지질은 조면암(粗面岩), 조면질안산암(粗面質安山岩), 현무암 등 분출암류(噴出岩類)이고, 다공질(多孔質)이요 특유의 절리균열(節理龜裂) 및 용암수도(熔岩隧道)가 많으니, 비교적 많은 강수량의 대부분은 지하에 삼투(滲透)한다. 그런데 본지역은 생성시기가 비교적 새로워서 지형확상 소위 유년기에 속하여 상시(常時) 유수(流水)의 하천이라고 하여도 실지로론 해발 700m 이상부의 상류와 해안 가까운 저지(低地)에서의 유수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상류 하곡(河谷)은 V자형의 협곡이요, 중류 하곡은 U자형, 하류 하곡에는 충적층(沖積層)이 있는 관계이다.

수원(水源)의 분류(分流)

무로이(室井) 기타에 의하면 하천의 표류수(表流水) 및 복류수(伏流水)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 ① 분화구호(噴火口湖)
- ② 마제형요지(馬蹄形凹地)의 용수(湧水).
- ③ 용암수도(熔岩隧道)의 용수.
- ④ 용암류말단(熔岩流末端) 및 급구배지(急勾配地)의 용수.
- ⑤ 해안 용수.

암석과 문치(門齒)

미야미네 도키오(宮峰時雄; 1923년)에 의하면 제주도 아동 가운데 상

악전치부(上顎前齒部)의 절상(折傷)이 많은 것은 암석지대인 제주도에서 전도(轉倒)에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용암수도(熔岩隧道)

현무암의 수도(隧道)는 도내에 많다. 이것은 용암응고가 늦은 부분이 탈출(脫出)하여 된 공동(空洞)을 말함인데 명명되어 있는 저명한 것만도 김녕굴(金寧窟), 아굴(鵝窟), 재암굴(財岩窟), 탈한굴(脫旱窟), 각수굴(角秀窟), 정방굴(正房窟) 등이다.

원추산(圓錐山)의 수와 질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 1925년)에 의하면 지도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전도에 약 330. 지리학에 밝은 독일(獨逸)신문기자 『겐테』는 제주읍 남부에서 한라산과의 사이에 39개의 원추산을 헤아렸고, 나카무라는 정의(旌義) 북방 영주산(瀛州山)상에서 약 75개를 헤아렸다고 한다. 또 이 원추산의 대부분은 용암을 유출하는 활동과 폭발 작용(爆裂作用)으로 된 것인데 괴상(塊狀)이 아니고 화산포출물(火山拋出物)의 퇴적(堆積)으로 된 것들이다.

응용지질(應用地質)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은

1. 현무토(玄武土)로 물둥이(水甕), 기와(瓦) 및 굴뚝(煙管)을 제조하는 것.
2. 현무암을 여러가지 석재로 이용하는 것 뿐이나 또 장래 유망한 것은
 - ① 근해에서 항해중 기선(汽船) 나침반에 지장(支障)이 생긴다니 자침(磁針)으로 곳곳에서 측정하면 대규모의 자철광(磁鐵鑛)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 ② 무진장한 개사층(介砂層)의 이용을 연구할 것.
 - ③ 학술용 표본 및 학술적 가치 증진을 도모(圖謀)할 것.

제3기 화석

제주도 화산의 기반(基盤)을 형성하는 것은 제3기층(第3紀層)으로 서귀포 서쪽 연외천(淵外川) 건너편 해안절벽에 거의 수평으로 노출한 수성암층(水成岩層)이다. 그 두께는 약 40m이고 그 상부는 조면현무암류로 피복(被覆)되었다. 그 지층의 함개각화석층(含介殼化石層)은 삼단(3段)이요 사암(砂岩), 점토(粘土), 집괴암(集塊岩) 및 응회질사암(凝灰質砂岩) 등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흑색 현무암력(玄武岩礫)이 많이 끼어있으니 화산활동은 벌써 그때에 유기(誘起)된 것으로 고증된다.

제주도를 조사한 지질학자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장 가와자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 박사, 교토(京都)제국대학 교수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 조선총독부지질조사기사(技師) 하라구치 큐우망(原口九萬), 동소장(同所長) 다치이와 이와오(立岩巖), 도쿄제국대학조교수 타다 후미오(多田文男), 독일 기이센(Giessen)대학교수 헬만·라우텐자하(H. Lautensach)박사 등등.

제주도 육속설(陸續說)

다치이와 이와오(立岩巖; 1941년)에 의하면 별도봉에 있는 화강암각력(花崗岩角礫)을 포함한 화산쇄설암층(火山碎屑岩層)의 시사(示唆)로 식물분포 상태 등도 참조하니 츠시마(對馬)가 제3기의 젊은 중생대층(中生代層)의 육지로 조선·큐슈(九州) 등과 육속(陸續)했던 그 시대에 그 육지는 제주도까지도 연계(連繫)되었던 것으로 생각함이 온당하다고도 여겨진다고.

제주도의 화산암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 1925년)에 의하면 최초의 분출물은 조면암(粗面岩)이었다고 본다. 조면암으로 된 산방산은 펍 오래된 것임을 알겠고 한라산도 처음에는 3,000m에나 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

로 분출된 것은 염기성(鹽基性)의 조면현무암으로,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출하였고 서귀포 서쪽에서는 패화석(貝化石)을 가진 모래 및 점토층(粘土層)을 이것이 피복(被覆)하였다. 그후에 여러 종류의 현무암이 여러 곳에서 분출되었는데 그들의 용암류의 순서나 넓이는 측정기가 용이하지 않다.

지진(地震)

이조실록에 의한 것이 2회요. 최근 도청(島廳)의 조사로 제주읍에서 감지(感知)한 것이 5회 있다. 즉,

1. 단종(端宗) 갑술(甲戌)년 12월 갑진(甲辰; 1455년 1월 24일)-제주, 대정, 정의, 원옥퇴훼인다압사(垣屋頽毀人多壓死).
2. 현종(顯宗) 경술(庚戌)년 10월 정해(丁亥; 1670년 11월 15일)-전라도(全羅道) 제주지진유성여뢰(濟州地震有聲如雷). 인가장벽다퇴지자(人家墻壁多頽地者).
 ① 1916년 3월 26일. ② 1916년 10월 26일. ③ 1917년 5월 17일.
 ④ 1924년 2월 23일. ⑤ 1925년 4월 5일.

지질(地質)

본도의 화산 기반(基盤)은 아마 화강암류일 것이며, 화산의 활동은 제3기 말엽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면암류를 분기(噴起)하고 그후 서귀포층의 침적기(沈積期)를 지내 제4기(洪積世)에 이르러 조면질 안산암류를 분출했다. 다음에 활동은 침정(沈靜)하다가 최후에 현무암류의 대일류(大溢流)가 생기고 현무암의 활동은 유사 이래도 계속되었다. 대체로 용암의 분출 순서는 산성(酸性)에서 점차 염기성의 것으로 이화(移化)하였다.

지질조사(地質調査)

1933년 발행의 조선지질도(朝鮮地質圖) · 조선광상조사보고(朝鮮鑛床調

查報告) 및 조선탄전조사보고기재구역일람도(朝鮮炭田調査報告記載區域一覽圖)에 의하면 전조선의 도처가 조사되는데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연 미착수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1939년 발행한 것에 의해도 역시 그러하다.

지형(地形)

주도(主島)는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타원형으로 약간 동북-서남으로 경사되었다. 해안선은 단조(單調)하고 단애(斷崖)와 현무암초의 연속이므로 양항(良港)은 없다. 그러니 종래로 그 형상은 마령서(馬鈴薯), 해삼(海蔘), 잠두(蚕豆) 등으로 표현되어왔다. 섬 중앙에는 약간 남편(南偏)하여 한라산정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적인 등고선이 있으나 300여의 기생화산이 도처에 있어서 지형의 단조(單調)를 깨뜨린다.

지형(地形)의 특징(特徵)

제주도청의 기록(1924년)에 의하면

- ① 많은 소독립산(小獨立山)은 원추형이고 중앙에 화구가 있다.
- ② 하천에는 유수(流水)가 없고 지하수는 해안에서 용출(湧出).
- ③ 도민은 이 해안용수를 먹고 산간부락민은 저유(潑溜)의 오수(惡水)를 음용(飲用)한다.
- ④ 음료수의 관계로 부락은 해안에 생겼다.
- ⑤ 주민은 용암설(熔岩屑)을 주택, 도로, 전담, 성벽에 이용한다.
- ⑥ 용암은 해안에 연장되어 해산물의 서식지가 된다.
- ⑦ 패사(貝砂)는 도처에 있고 경지의 토지 개량에 쓴다.
- ⑧ 경지는 흑경화산회(黑輕火山灰)로 되어 파종후는 우마로 밭을 밟아 밭아를 용이케 한다.

1000m 이상의 고봉(高峰) 8개.

천하(天下)의 일대기관(一大奇觀)

지질학자 다치이와 이와오(立岩 巖; 1941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김녕굴은 평북(平北)에 있는 세계 굴지의 대석회동(大石灰洞) 동룡굴(蝮龍窟)과 함께 천하의 일대기관(一大奇觀)이라고.

천하절품(天下絕品)과 화구벽(火口壁)

백록담을 포함한 화구의 주위는 타원형으로 동서양반(兩半)이 전연 이질(異質)의 용암으로 되었다. 서반(西半)은 원래 그곳에 있던 오랜 화산암인 알칼리조면암의 의연(毅然)한 잔류산괴(殘留山塊)이고, 동반(東半)은 새로 분출한 흑색의 현무암류이다.

패사(貝砂)의 사막(沙漠)

이것이 있는 해안은 함덕리, 김녕리, 표선리, 협재리, 금능리, 한림리, 이호리 등이고 그 면적은 수정(數町)에서 수십정에 달한다.

하라구치 큐우망(原口九萬)

제주도 지질의 제1인자로, 『濟州島, 地質』(1931년)의 저자이다.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기사(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技師).

한라산 용암

조면암류에 속하고 초기에 분기한 용암이다. 본암(本岩)은 한라산 최고봉인 서측 화구벽으로 어승생악 부근과 오백나한에 걸쳐서 곳곳에 노출된 것이다.

한라산 정상외륜산(外輪山)

화산벽의 최고점은 화구저(火口底)에서 약 100m. 화구벽의 동서는 지질이 상이(相異)함이 극히 희귀한 예다. 즉 서부는 분출기가 비교적 오랜 알칼리 조면암으로 구성하여 회색을 띠고 참연(巖然)한데 대하여 동부는 오래지 않은 젊은 현무암으로 흑색을 띠며 둥그스름하다. 또

서부 최고봉의 일부에는 현무암이 조면암을 덮은 곳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산이 일층 높았던 것을 표시하고 있다.

한림면의 동굴

김녕굴에 대항키는 어렵겠지만 한림면에는 대소의 동굴이 많다. 미 조사의 것들로 조사만 한다면 의외의 수확(收獲)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옛날부터 인식은 되었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부근에는 분묘를 볼 수가 없다.

해안의 용수(湧水)

제주도의 지표는 화산회, 화산사(火山砂), 화산탄(火山彈), 화산암설(火山岩屑) 등으로 원층(原層)을 형성했으니 다량의 강수량도 지하로 침강하여 해안용수로 되어나오는 것은 상식화한 사실이다. 이 해안용천의 수는 미즈키 도라오(水城寅雄; 1935년)에 의하면 146개라고 한다.

행로(行路)

돌이 많아 길이 험한 관계로 특성이 보인다. 도보시(徒步時)는 돌을 차는 관계로 자연 제주도 사람은 다리를 높이 든다. 승마시(乘馬時)는 「트룻」으로만 가고 「깁롭」은 아니한다. 트룻이 장려되는 것도 돌때문이고 따라서 깁롭하는 말은 가치가 저락(低落)된다. 암야(暗夜)에 행보시(行步時)는 짙으로 만든 햇불을 흔히 쏜다.

현무암 분출시대 이후의 지층

본도 북안(北岸)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개사층(介砂層)과 우도(牛島) 서안에 있는 등호(藤壺; 따개비)층이다.

화산 구성상으로 본 4기

- ① 산성(酸性) 용암분출기-조면암
- ② 중성(中性) 용암분출기-조면질안산암
- ③ 염기성(鹼基性) 용암분출기-현무암

④ 파괴기(破壞期)-유년기(幼年期)

본도의 모암장(母岩漿)은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점차 분화(分化)하고 용암의 분출 순서는 대체로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이화(移化)하였다.

화산구조선(火山構造線)

하라쿠치 큐우망(原口九萬)가 상정(想定)한 7선(線)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선(우도-한라산-차귀도)
- ② 삼도선(森島線) ; 지귀도(地歸島)-삼도(森島)-문도(蚊島)-호도(虎島)-
형제도(兄弟島)-송도(松島)
- ③ 남해안선(사악(寺岳)-대답(大畚)-산방산(山房山)-모슬봉(募瑟峰))
- ④ 북해안선(별도봉(別刀峰)-도두봉(道頭峰)-비양도(飛揚島))
- ⑤ 비양도-마라도(馬羅島)선
- ⑥ 김녕-토산리(兎山里)선
- ⑦ 한라산-김녕선

화산암(火山岩)

세계 각지의 저명한 여러 화산에서와 같이 최초와 최후에는 현무암이 일류(溢流)하고 그 중간에 조면암이 분출했으니 제주도의 화산암은 대별(大別)하면 조면암과 현무암의 2종이고, 그 중간의 조성(組成)을 가진 조면안산암의 여러 계제(階梯)가 있다. 소위 한라암(漢拏岩)이란 이 조면암으로서 한라산 서측봉에서 북은 어승생악까지 남은 오백장군까지 널려있다.

화산으로서의 한라산

정상 부근은 급경사이지만 중복(中腹)으로부터 해안(海岸)까지의 광활한 구역은 경사각 3도 내외 혹은 그 이하의, 주로 현무암의 산록이고 전체로 예가 적은 아스피이테 형에 속한다.

화산의 기반(基盤)

별도봉 해안에서 볼 수 있는 각섬안산암(角閃安山岩)의 조약돌(礫)이 섞인 화산암 설층(屑層)중에 화강암편(花崗岩片)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화강암은 각섬화강암으로 거문도(巨文島)나 고토열도(五島列島)의 것과 같은 것이니 제주도(화산)의 기반도 이 각섬화강암으로 상정(想定)할 수가 있다.

화산탄(火山彈)의 채집지(採集地)

한림면 비양도나 성산이 알려졌지만 오히려 표선면 토산리 제1구(북토산)가 화산탄 채집에 더 용이한 곳이다. 각호(各戶)의 돌올타리마다 밭지아니한 화산탄이 포함되어 있다.

화석(化石)

화석이 산출하는 장소는 서귀포층이란 함화석층(含化石層)인데 서귀포 서교(西郊)에 있다. 화석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이매개(二枚介), 권개(卷介), 완족개(腕足介), 해삼(海膽), 산호(珊瑚), 교치(鮫齒) 등이 많다. 과거에 요코야마 마타지로(橫山又次郎; 1923년) 박사는 이 수성암층(水成岩層)에서 산출한 27종의 화석을 근거로 본도의 생성을 제3기 말엽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화석의 대부분은 Molluscs이고 Brachiopods도 약간 있다고 하며, 이 양군(兩群) 이외의 것으로는 Echinoids, Cirripedes, Bryozoans와 Tubicolous Annelids 等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후 하라쿠치 큐우망(原口九萬; 1931년)은 60여 종의 화석으로 논하여 본도의 생성기가 그보다도 젊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식물(植物)

고름쿨

「젓풀」의 뜻으로, 민들레 기타 일체의 젓 나는 풀의 총칭이다.

고사리

제주도는 고사리섬이라고 할만큼 많은 식물이 있지만 그 이용이 발달되지 않음은 부녀자의 과로(過勞)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손이 가는 고사리의 요리가 지방민에게 맞지 않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고등은화식물(高等隱花植物)

미야카와 루이키치(宮川類吉; 1935년)에 의하면 한국산 13과(科) 236종(種) 중 제주도산은 11과 149종이다.

고산식물(高山植物)

박만규(朴萬奎; 1942년)에 의하면 한국산 고산식물은 383종으로 그 중 224종의 관모산(冠帽山)을 필두로, 백두산의 197종, 북수백산(北水白山)의 172종, 두류산(頭流山)의 120종, 노봉(鷲峰)의 115종, 금강산의 87종, 묘향산(妙香山)의 86종, 한라산의 79종, 설악산의 67종, 지리산(智異山)의 54종의 순으로 되어있다. 그러니 한라산산(産)은 그 2할쯤 된다.

곰팡(黴)

산북인은 「곰생이」, 산남인은 「공생이」라고 하고 우기(雨期)가 긴 곳이니 하절에는 곰팡이가 대단하다. 그래서 하절생활에도 의외로 목탄이 많이 소용된다.

꼼치

제주어의 「꼼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먹는 꼼치」란 것은 「머위」이고, 「안 먹는 꼼치」란 것이 즉 「곰취」이다. 「안 먹는 꼼치」라도 제주

인이 요리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육지서는 「곰취」라고 해서 많이 이용된다. 요리가 발달되지 않은 곳이니 그럴 것이다. 『안 먹는 곰취』에는 또 제주어로 「공초」, 「박쿨」 등의 별칭이 있다. 이 야생의 「곰취」는 한라산 700~800m 상부에 가면 무진장으로 있으니 제주인들은 이것을 이용하길 바란다.

굴거리나무의 발육

이 나무는 도내에 풍산(豊産)하고 표고버섯 재배목인 「서나무」의 벌목(伐木) 뒤에는 주로 이 굴거리나무가 자생하여 어떤 곳은 굴거리나무의 순림(純林)을 형성한 곳도 있다. 이 나무는 보기에는 훌륭하나 용도는 별로 없다.

나카이(中井)박사의 식물의 수직분포표(垂直分布表).

(단위 m)

	남	북	비 교
해안식물대	250이하		
제1대	700 "	250	日本 長崎 부근
제2대	1,100 "	600이하	南海群島
제3대	1,300 "	1,000이하	全羅中部
제4대	1,600 "	1,300이하	서울 부근
제5대	1,800 "	1,600이하	平壤·義州
제6대	1,950 "		滿洲
제7대	1,950이상		黑龍江 지방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박사의 약력

메이지(明治) 15년(1882) 11월 9일 일본 기후(岐阜)시에서 출생. 본적지 야마구치(山口)중학, 야마구치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을 졸업. 1908년 동대(東大) 조수(助手), 1927년 동교(同校) 교수에 임명되어

근 40년간 동대(東大)에 봉직(奉職)하는 한편 독특한 식물분류학의 강의를 하였고, 발표 논문은 500편 이상에 달하였다. 더우기 한국 식물에 있어서는 최초 최고의 권위로 Flora Koreana I(1909), II(1911)를 발표하고 1914년에는 이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다. 그리고 동년에는 제주도 식물조사서를 발표하였다.

난대생(暖帶生) 상록활엽수(常綠潤葉樹)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 1928년)에 의하면, 한국산은 전부 63종인데 그중 61종이 제주도에 있다니 한국서 이 종류의 본거지는 분명히 제주도이다. 버금으로는 완도(莞島)의 29종, 대흑산도(大黑山島) 및 매가도(梅加島)의 각 30종씩이다.

녹나무(樟)

우에키 히데미키(植木秀幹; 1941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제주도에만 자생한다고 한다. 제주어로는 「롱낭」, 「농낭」 혹은 「우박」

느티나무

육지에서와 특히 다를 것은 없지만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다. 즉 굴목낭, 굴목이, 굴목낭, 굴목이, 늦기낭, 니끼낭 등등.

나물

대단히 넓게 쓰이는 말이다. 육지의 나물이라는 것보다 널리 채소를 의미하고 또 협의(狹意)로 배추(白菜)나 밭에 있는, 캐지 않은 무우를 의미한다. 또 「춤물」은 무잎, 「갯물」은 겨자, 「두머기물」은 나쁜 배추를 의미한다.

눔배

「무우」의 제주어이고, 몽고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외에도 약간의 별칭이 있다. 즉 「무수」는 이입어(移入語), 「눔물」은 밭에 있는 무우, 「춤물」이나 「츠마귀」는 어린 무우이다.

대죽

수수류의 총칭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강낭대죽(옥수수), 동지대죽=동기대죽(수수), 비낭대죽=빫대죽(비수수), 사탕대죽(사탕수수), 살래대죽(비수수의 1종), 누렁대죽(비수수의 1종), 썰대죽(쌀수수).

나무고사리의 학명

Neottopteris Nidus Smich, 아열대식물로 한국에서는 서귀면 삼도(森島) 만이 자생지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5월과 9~10월 즉 춘추 2회 발아하며, 춘엽은 12~13매이고 추엽(秋葉)은 6~7매라고 한다.

맹맹이덩굴

이 식물의 제주어 이칭(異稱)은 많다. 즉 정동, 춤정동, 고냉이정동, 정당, 고냉이정당 등.

돛박낭

돛박나무(樅)인데 제주도에서도 남부 특히 신·하효리에 많다. 그 부근 즉 상·신·하효리 및 토평리에 이 돛박낭을 많이 심었는데 30년만 지나면 한국의 돛박나무 명소가 되어 자손에게 큰 유산이 될 것이다. 아열대식물인 상록수의 홍화(紅花)가 겨울에 눈쌓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고 만발한 광경은 한국적 경치라고 할 수가 있다.

맹게낭

「청미래덩굴」의 제주어다. 전도에 요산(饒産)하고 도처에 그 독특한 근부(根部)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면마(綿馬)

일명 「관중」 혹은 「회초미」라고도 하고 뿌리는 조충구제(條虫驅除)에 쓰이는 약초요 양치식물(羊齒植物)이니 제주도에 많은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많다는 정도가 대단한 것으로 산동부 800~

900m 부근에는 더우기 많고 면마는 제주도에 무진장으로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곧 연구에 착수할 것이고, 곧 공업화하기를 기대한다.

모리 다메조(森 爲三)의 식물의 수직분포표(垂直分布表)

(단위 m)

	남	북
1. 해안식물대	50이하	
2. 산록대(山麓帶)	1,000이하	700이하
A. 평야식물대	350 "	250 "
B. 산야식물대	1,000 "	700 "
C. 난대림(상록활엽수림)	앞의 2대(帶)를 포함	
3. 교목대(喬木帶 ; 森林帶)	1,700 "	1,500 "
A. 온대림(낙엽활엽수림)	1,500 "	1,200 "
B. 한대림(침엽수림)	1,700 "	1,500 "
4. 관목대(灌木帶)	1,850 "	1,900 "
5. 고산식물대	1,850 "	1,900이상

「무릇」의 密度調査

대단히 많다. 더우기 남부 서귀면에는 극히 많다. 토평리에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구역 디기탈리스묘포(苗圃)

조사년월일 1945년 4월 9일

역토(逆土)년월일 1944년 8월 25일

구획(區劃) 각구(各區) 15평씩

조사결과(평당) 보통구(普通區) 414주(株), 0.5척(보통경작) 역토구(逆土

區) 693주 · 3척 역토구(逆土區) 48주, 4척 역토구 24주, 5척 역토구 25주. 즉 경작하면 한층 더 생기고 깊이 역토할수록 침입 속도는 지연되지만 4척 이상 역토하는데는 차이가 없다.

물룻

표준어른 「물룻」, 구황식물(救荒植物)의 대표라 하겠다. 도내에 요산(饒産), 더우기 산남에는 대단히 많다. 춘궁기 같은 때는 지방민도 잘 이용한다. 물룻 요리에는 산북어로는 「넙페」 산남어로는 「괘」란 해안 암초에 붙은 청흑색의 해조를 침입(添入)하여 무독(無毒)케 한다.

또 이 물룻은 제호(製糊)원료로도 훌륭하고 공업화하여도 좋을 것이다.

밀원식물(蜜源植物)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에 의하면 운태(雲苔), 동백(椿), 십자와식물(十字科植物), 자운영(紫雲英), 벗나무(櫻), 복숭아(桃), 오얏(李), 클로우버, 아카시아, 감귤류(柑橘類), 배(梨), 감(柿), 전단(梅檀), 메밀(蕎麥), 참깨(胡麻), 장도향(長刀薺), 유초(薔草), 밤(栗) 등. 그중에서도 장도향, 유초, 메밀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장도향과 유초는 동일식물일 것이다. 한국명은 향유(香薔)다.

물망

모자반인데 제주도에 가장 많은 해조(海藻)요 따라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료이다. 중앙시험소 분석성적을 보면 건조량(乾燥量) 100관(貫)중의 성분은 다음과 같은데 비교하기 위하여 콩의 것도 병기(並記)한다.

(단위 : 관)

	물망	콩
질소(窒素)	2.000	2.500
인산(磷酸)	0.800	0.400
加里(加里)	5.000	3.000

베염고장

사화(蛇花)란 의미이고 봉선화(鳳仙花)다. 봉선화를 심어두면 부근에 「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베염고장」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사신(蛇神)이 많은 섬이고 뱀을 살해하지 않는 풍습이 있는 관계로 섬 안에 뱀은 많아서 인가에도 흔히 살고 있다. 그러나 도민(島民)이 울안에 이 베염고장을 심는 것은 사실상 뱀을 좋아하지는 않는 증거이다.

복달낭

「복달낭」 혹은 「다간죽낭」이라고도 하고 표준어로는 「예덕나무」 혹은 「비당나무」라는 대극과(大戟科)에 속하는 목본(木本)이다. 돌작발이나 돌틈에도 생장하는 나무가 특히 눈에 띄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이 이 복달낭이다.

복금

동백나무의 병신(病身)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부분에 따라 여러 명사가 있다. 즉

- ① 썸복금 : 잎의 병신
- ② 꽃복금 : 꽃의 병신
- ③ 돌박복금 : 과실의 병신

식용으로 되고 맛은 ①②③의 순.

속

제주도의 「속」이란 명칭은 육지의 「쑥」에 해당하나 쑥보다도 일층 광의(廣義)의 것이다. 「속」에는 「신속」과 「본속」이 있는데 전자가 육지의 쑥의 총칭이요 후자 즉 「본속」은 도내에 많은 「풀솨나무」이다.

솔낭

솔나무의 뜻으로 흑송(黑松 : 일명 해송(海松) 혹은 곰솔)을 말한다. 제주도는는 평지인 해안지대에 있는 솔은 전부 이것이기 때문이다. 육

지평지에 흔히 있는 적송(赤松)은 제주도는 산에나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관계로 산송(山松) 혹은 색으로 인하여 황송(黃松)이라 하고 많지 않다.

야도다니(宿谷)가 본 제주도산 식용식물

제주도를 주산지로 한 종류는 쭈부장이(ヨメナ)의 46종인데 고사리나 곰취 등이 빠진 것을 보면 권위 있는 보고라기도 어렵다.

시로미

제주어로는 「시러미」, 암고란과(岩高蘭科)에 속하는 고산식물. 왜소 관목(矮小灌木)이고 군생(群生)한 곳은 융단(絨緞)을 깔 것 같다. 여름에 자흑색(紫黑色)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미미(美味)이다. 「들쭈」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로되 공업화시킬 정도의 분량은 못된다. 냉증(冷症)에 약효가 있다 하며 진시황(秦始皇)이 구해간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약이라는 것도 이것으로 생각된다.

식물

나카이(中井; 1914) 박사에 의하면 제주도산(濟州島産)은 140과 1317종 116변종(變種)이고 그중 특산종이 78종 69변종이다. 이것을 한국 및 일본의 저명한 산(山)의 종수들과 비교하면 백두산의 490종, 금강산의 773종, 후지산(富士山)의 1000종, 하코네산(箱根山)의 1188종 등 어느 것보다도 제주도산이 풍부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제주도의 식물경관은 복잡하게 다종(多種)의 식물이 평등한 세력을 갖고 있고 소수의 종류가 우월함을 불허하는 상태하에 있다.

식물관계(植物關係)

채집자: 프랑스인 타케(Emile Joseph Taquet), 포우리(Urbain Jean Faurie), 일본인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이시도야 츠토무(石戸谷勉), 나가타니 료케이(長谷了慶),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

進), 모리 타메조(森爲三), 미국인 윌슨(E.H. Wilson).

연구자 : 영국인 후커(W. J. Hooker), 벤넷(J. J. Bennet), 독일인 큐켄탈(Kükenthal), 슐레히터(R. Schechter), 슈나이더(Schneider), 윙클러(C. Winkler), 케네(Koekne), 프랑스인 레벨레(Léveillé), 바니오(Vaniot), 하메, 피네, 스위스인 크리스트(C. Christ), 도봐쉴우, 오스트리아인 학켈(E. Hachel), 일본인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미국인 윌슨(E. H. Wilson).

식물구분

미요시 마나부(三好學; 1931년) 박사에 의하면 제주도는 대만(臺灣), 오키나와(沖繩), 큐슈(九州), 츠시마(對馬) 및 시코쿠(四國)남부, 기슈(紀州), 이즈(伊豆)남부, 보오슈우(房州) 등과 함께 남대(南帶)에 속한다. 한국은 북위 38°를 경계로 중대와 북대로 나누인다. 그러나 이노우에 우메키치(井上梅吉; 1930년)에 의하면 미요시(三好) 박사의 것과 거의 같지만 제주도가 중대에 속한 것만은 다르다.

식물명

식물명에는 어미(語尾)에 대개는 「낭」 혹은 「남」, 「쿨」 혹은 「꿀」, 「고장」 혹은 「꽃」 등이 붙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많이 쓰인다. 또 제주도는 까마귀의 섬이라 까마귀가 들어있는 식물명이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까마귀똥」, 「까마귀막게」, 「까마귀바농」, 「까마귀술가락」, 「까마귀연줄」, 「까마귀외」, 「까마귀지장」 등. 또 가시가 많은 섬이라 가시가 들어있는 식물명도 적지 않다. 예 「가시룽낭」, 「가시리」, 「가시새」, 「가시엄낭」, 「가시틀」, 「긋가시낭」, 「긋가시낭」 등.

식물의 수직분포(垂直分布)에 관한 최고문헌(最古文獻)

제주도 식물에 관해서는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1914) 박사에 의할 것으로 되어있지만 나카이(中井) 박사의 조사서보다도 수년 먼저

논의된 문헌이 있다. 즉 日韓書房編輯部 : 最新朝鮮地誌, 217~218페이지, 메이지 45년(1912), 京城.

식물의 천연기념물

나무고사리의 자생지 : 삼도(森島)

녹나무(樟樹) 자생지 : 도순(道順)

문주란 자생지 : 구좌면 해안 토끼섬(兎島)

쌍쌍나무 군락 : 한라산 중복(中腹) 석파(石坡) 부근

고산식물 군락 : 한라산정(山頂) 화구벽(火口壁)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 자생지 : 서귀면

비자림(榲子林) : 구좌면

식물지리학상의 위치

마사무네 이와타카(正宗巖敬)는 나카이(中井) 박사의 연구를 기초로 제주도는 조엽수목대(照葉樹木帶)로 전북식물구계계(全北植物區系界)-동아구계역(東亞區系域)-중부 일본 지방에 속한다고 했다. 또 고유종이 많은 즉 독립률이 높은 점으로 하치조지마(八丈島), 오쿠지마(屋久島), 제주도, 울릉도 등을 들었다.

야생유독식물

도봉섭(都逢涉)·심학진(沈鶴鎭) 공저(共著)에 의하면 취급된 한국산 유독식물(有毒植物) 108종중 제주도에서 야생하는 종류만은 58종이다.

약용식물과 유용식물(有用植物)

후루우미 쇼후쿠(古海正福; 1921년)에 의하면 약용식물은 240종쯤이고 유용식물은 45종쯤이라고. 약용식물중 일본약국방 게재의 것은 자리공, 붉나무, 박하, 귀오좁풀, 민들레 등이고, 재배품은 비자나무, 무화과나무, 닥풀, 나팔꽃 등이고, 산액(産額)이 많은 것은 창포, 넓은잎천남성, 두루미천남성, 천남성, 납가새, 산초나무, 분지나무, 머귀나무,

시로미, 사철나무, 모형 등이다.

양치식물(羊齒植物)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1913년)에 의하면 제주도산은 12과 38속 139종으로 대별하면 평지산과 산지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

소메이 요시노(染井吉野)

벚꽃(櫻花)중 가장 고운 품종인 소메이 요시노(染井吉野) 일명 요시노 자쿠라(吉野櫻)의 원산지는 이 제주도로 되어 있다. 아직도 서귀서호근리 북방에 자생의 고목이 있지만 절멸에 직면했다. 그러나 고옥(古屋)에는 이 벚나무기둥(櫻木柱)의 유물(遺物)이 많이 보인다.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자생지의 확인

1939년 고이즈미 켄이치(小泉源一)는 아오모리(靑森)시에 있는 포우리(U. Faurie)의 석엽실(腊葉室)에 연구차 가는 고다마 신스케(兒玉親輔)에게 의뢰하여 Faurie 소장의 앵속(櫻屬) 전부를 빌려 갖고오게 해서 연구한 결과 그 중 제주도내 600m의 고지산(高地産) 표본이 본종임을 알고 처음으로 이 종류의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진출

원산지 제주도의 이 벚나무(櫻樹)를 난파선인(難破船人)들이 가져 갔는지 출어인(出漁人)들이 가져갔는지 판정키는 어려우나 일본에 들어 가서 전파되어 일본의 국화(國花)로까지 되었다. 그후에 다시 이 종류가 한국에 재수입이 된 것이다. 벚(櫻)에는 종류가 많지만 제일 미려(美麗)한 것이 이 종류이니 가속도로 각지에 진출하였다. 서울의 명물인 창경원(昌慶苑) 야앵(夜櫻)도 이 종류요 미국의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영국의 런던 등지에 진출한 것도 이 종류다.

예반초

석산과(石蒜科)의 문주란이고 일명 만년초(万年草)라고도 하고, 구좌

면 하도리 해안에 있는 토끼섬의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연변(緣邊)의 것은 잡인(雜人)의 반출로 많이 황폐되었지만 섬 중앙부에는 아직 대단히 많고 전멸(全滅)될 염려는 없다. 근안(近岸) 행원리(杏源里)에도 근년까지 있었지만 1928년까지 절멸되었다.

그 원인은 과도한 반출과 멸치공업화에 있었다. 한국산으로는 토끼섬의 것 뿐이니 진기하다고 할 수가 있다.

오랑캐꽃

모리 타메조(森 爲三; 1920년)에 의하면, Viola속(屬) 식물은 제주도에 4종이 있다고 한다. 즉 *Ovato-oblonga*, *Sieboldiana*, *Violacea*, *Boissieuana* 등인데 모두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 박사)의 명명(命名)에 의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 꽃은 일명 앓은방이꽃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에는 그 이칭(異稱)이 많다. 즉 물고장, 물코장, 물싸움고장, 물싸움고장, 습쿨, 아즌배기꽃, 아진배기꽃 등.

의주(義州) 금강산(金剛山) 삼림식물(森林植物)중 제주도산과 공통되는 종류

이시도야(石戶谷; 1919년)에 의하면, 금강산 소산(所産) 61종 중 17종의 분포지로서 제주도에도 산출한다고 기록하여 있다.

자굴

차풀이다. 도내에 요산(饒産)하여 제다(製茶)가 공업화하고 1943년에는 성내에 제다공장이 생기고 제주다(濟州茶) 일명 두다(豆茶)의 이름으로 상품이 나왔는데 곧 일본 군용으로 전관(專管)되고 말았다.

제주도식물과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

제주도가 다종의 종류를 포함할 소인(素因)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많은 신종도 발표되었고 또 그것들이 통일되지 않아서 후진들은 그 추종(追從)에 곤미(困迷)하고 있다. 이 의미에서 제주도의 식물연구는 연소한 박물학도(博物學徒)를 「대체 종이란 무엇일까」

란 제목에 인도(引導)하고 철학(哲學)의 문에 도달케 한다고 또 씨는 러시아인(露人) 식물학자 코마로프(V.Komarov)의 의견(1901년)을 인용하고 실례(實例)로 종, 아종(亞種), 변종, 변형의 개념을 발표하였다(1920년).

제주도에 분명히 부적(不適)한 수목족류(樹木竹類)

산오리나무, 물오리나무, 박달나무, 찰피나무, 가래나무, 들메나무, 분버들, 나도박달, 쪽버들, 개살구나무, 복장나무, 황벽나무, 당마가목, 잣나무, 전나무, 오갈피나무, 달피나무, 새양버들, 분비나무, 지뽕나무, 백양, 물황철나무, 가문비나무, 사스레나무, 낙엽송, 종비나무, 눈잣나무 등.

제주도의 대표적 수목

녹나무, 소귀나무, 담팔수, 목련, 초산호, 바람등침, 조롱나무, 섬노린재나무, 먼나무, 후피향나무, 비쭈기나무, 수정목 등.

제주 전도를 적지(適地)로 하는 수목족류(樹木竹類)

북가시나무, 새우나무, 의동(椅桐)나무, 참가시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동백나무, 푸조나무, 왕버들, 개서나무, 감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솜대, 이팝나무, 왕대, 오동나무, 가죽나무, 참중나무, 참느릅나무, 호도나무, 자귀나무, 물참나무, 때죽나무, 측백나무, 수유나무, 회화나무, 서나무, 은행나무, 싸리나무, 느티나무, 호깨나무, 쇠물푸레나무, 약밤나무, 생강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굴참나무, 풍개나무, 팽나무, 닥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풀싸리나무, 회양목, 소태나무, 향나무, 옷나무, 떡갈나무, 털윤노리나무, 개벗나무, 개나리, 스무나무, 오리나무, 산뽕나무, 소나무, 팔배나무, 신나무, 서울귀룽나무, 능스버들, 버드나무, 키버들, 까치박달, 두릅나무, 조록싸리, 쥐엄나무, 물푸레나무, 말채나무, 산철죽, 산돌배나무, 갈참나무, 노간주나무, 비술나무, 엄나무, 참싸리,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다릅나무, 진달래, 당단풍나무, 당버들,

떡느릅나무, 생얼귀나무 등.

한국 남부 도서산(島嶼産) 난대성 상록활엽수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 1920년)에 의하면 62종을 들 수가 있는데 그중 60종이 제주도에 산출한다고.

한국산 유류(柳類) 분포상황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 1921년)에 의하면 32종 중 제주도산으로는 2종을 들 뿐이었다. 그 종은 일명 다니가와야나기(Salix Thunbergiana, Blume)와 단나미네야나기이다.

한국식물조사의 공헌자

우찌야마 도미지로(內山富次郎), 프랑스인 타케, 포우리, 시로 카즈마(城 數馬), 우에키 히데미키(植木秀幹), 모리 타메조(森 爲三),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 勉),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정태현(鄭台鉉) 등 제씨(諸氏)를 들 수가 있다(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 1924년에 의함). 그 대부분이 제주도 식물도 조사하였고 더우기 제주도 식물로는 나카이(中井)박사와 타케 양씨(兩氏)가 큰 공헌을 하였다.

진달래

제주어로는 「전기꽃」, 산중에 많고 5~6월에 볼 수 있는 관목지대(灌木地帶)의 진달래꽃 발은 아마 한국 제일이요, 이것만 보려고도 갈 만하다.

짚레나무

대단히 많고 특히 산중에 많아서 길을 잘 못들었다가는 많은 고생을 한다. 제주어로는 독고리낭, 똥꼬리낭, 주레비낭, 새비낭 등 이칭(異稱)이 많고 도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짚레나무 섬이라고도 할만하다.

조밤낭

「모밀갓밤나무」이다. 나무 없는 중산지대에도 골짜기에도 이 나무가 무성해서 미관(美觀)을 나타내며 더우기 발아시(發芽時)는 미관이다. 그 열매는 소형일 뿐이지 밤(栗) 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열매를 따느라고 지방인은 가을에 나무를 거의 도벌하다싶이 벌지(伐枝)하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물론 영림서(營林署)의 감시를 피해서 하는 행동이다.

최초의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표본(標本)

지금은 고인(故人)인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로 제주도에 장기 체재한 「타케」가 1908년 4월 14일에 조천 윗쪽 해발 600m 즉 관음사(觀音寺) 부근서 한 그루의 벗나무에서 착화(着花)한 1지(枝)를 채취하고 자기의 채집번호 4638호를 붙여서 구주(歐洲)로 보냈었는데 「베를린」대학교수로 장미과(薔薇科) 식물의 대가인 「케네」 선생이 이것은 일본 에도(江戸)에 있는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1품(品)이라고 동정(同定)하였다.

표고버섯 천연발생지

한라산에 천연발생하는 표고버섯을 1906년경 일본인이 인공을 가하여 유리하게 재배한 것이 유명한 제주도 명산 표고버섯이다. 그러나 지리산과 강원도의 태백산맥은 표고버섯의 천연적 풍산지(豐產地)이니 이때까지 방치하다싶이 된 태백산맥의 것을 제주도에서와 같이 인공을 가하여 지방의 명산으로 하면 좋겠다.

Crinum Line

일본명(日本名)으로 하마오모도선(線)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시미즈 타쿠지(小清水卓二; 1938)에 의하여 제창(提唱)된 식물분포학상의 1선(線)이다. 이 선은 년최저온도(年最低溫度) 평균 -3.5°C 의 등온선과 일치하

여 그 분포가 최저온에 지배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식물의 분포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그 북단에 위치된다.

타케(Taquet)를 기념하여 명명된 제주도 식물

Allium Taquetii, *Aneilema Taquetii*, *Ardisia cripa* v. *Taquetii*, *Astilbe chinensis* v. *Taquetii*, *A. Thunbergii* v. *Taquetii*, *Boehmeria Taquetii*, *Carex Taquetii*, *Clinopodium multicaule* v. *Taquetii*, *Diplazium Taquetii*, *Garnotia Taquetii*, *Lingularia Taquetii*, *Melandrium Taquetii*, *Persicaria Posumbu* v. *Taquetii*, *Pilsa Taquetii*, *Platant hera Taquetii*, *Rhamnus Taquetii*, *Rhododendron mucronulatum* v. *Taquetii*, *Rosa asicularis* v. *Taquetii*, *R. nipponensis* v. *Taquetii*, *R. Taquetii*, *Rubus Taquetii*, *R. triphyllus* v. *Taquetii*, *Saussurea Taquetii*, *Taraxacum Taquetii*, *Thalictrum Taquetii*, *Trisetum Taquetii* etc.

「타케」와 「포우리」

1904~5년경에 제주도 기타 각지에서 전도하는 한편 식물채집을 하여 그 표본을 구라파에 보낸 프랑스 선교사인 데 양씨(兩氏)는 제주도에 장기간 생활하였고 양씨명(Taquet & Faurie)을 기념하여 명명된 제주도식물은 적지않다. 더우기 약용식물의 연구로는 양씨의 연구가 한국최초의 것이다.

탈

딸기의 제주어요 종류가 많다. 말하자면 감티탈=복달탈, 밀탈, 보리탈(보리 갈 때 먹는 딸기), 콩탈(黑色), 한탈(산딸기나무), 함박탈(大型) 등.

택목(宅木)

민가의 대부분은 택목을 가지고 있고 또 부지(敷地)가 대개는 택목을 갖게되어 있다. 그러니 고가(古家)일수록 훌륭한 택목을 가지고있

는데 대부분이 아열대식물이나 육지인이 처음 가서 보면 경탄한다. 그러나 이 훌륭한 택목에 둘러워 있는 주택의 빈약한데는 다시 일경(一驚)하게 된다. 택목의 종류는 대개 동백나무, 아왜나무, 까마귀쪽나무, 식나무, 생달나무, 무후박나무 등이다.

포우리(Faurie)를 기념하여 명명된 제주도식물

Adina Fauriei, Athyrium Fauriei, Carpinus Fauriei, Euphorbia Fauriei, Maackia Fauriei, Meliosma Fauriei, Polypodium Fauriei, Primula farinosa var. Fauriei, Tofieldia Fauriei etc.

풍낭

『팽나무』의 제주어다. 제주도에서는 고래(古來)로 『풍낭』을 정원목 혹은 풍치목(風致木)으로 하니 옛터에는 반드시 풍낭의 고목이 있고 이 나무의 특징으로 가지의 마디마디에 혹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지형(枝形)이 석다(石多)의 제주도에 어울린다.

한리산 상봉(上峰)을 제외한 전도를 적지로 하는 수목종류(樹木竹類)

Cinnamomum camphora 녹나무
Lithocarpus cuspidata 메밀жат밤나무
Machilus Thunbergii 후박나무
Sapindus Mukurosi 무환자나무 등.

한리산 상부를 적지로 하는 수목종류(樹木竹類)

Abies koreana 구상나무
Betula Schmidtii 박달나무
malus baccata v. manschurica 털야광나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나무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Taxus cuspidata 주목

Betula latifolia 자작나무

B. chinensis 개박달나무

B. costata 거제수나무

Populus tremula v. *Davidiana* 사시나무 등.

한리산식물의 최초의 채집가

일본인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가 1905년에 미국인 동물채집가 앤더슨(Anderson)과 동행하여 곤충과 62종의 식물을 채집하였다.

한리산의 대표적 고산식물

들쭉나무, 개들쭉, 좁양지꽃, 시로미, 암매, 좁까치밥나무 등.

해조(海藻)의 분포

오카다 키이치(岡田喜一; 1934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해조는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혼슈(本州)의 대부분의 해조와 같이 온대에 속한다. 그리고 중한(中韓)은 아한대(亞寒帶)에, 함남북(咸南北) 해안은 한대에 속한다.

향유초(香薷草)

표준어의 「향유」에 틀림없다. 10~11월에 개화되어 제주도에서 호밀원(好蜜源)의 하나이고 11월에 생산한 봉밀(蜂蜜)은 고가(高價)이다. 본 식물의 지방 속칭은 많아서 읍내서는 「물팡쿨」, 서귀면서는 「소스랑쿨」, 혹은 「쇠스랑쿨」, 중문서는 「노리자리」, 표선서는 「고요화」라고 한다.

5. 동물(곤충을 제외)

까마귀

제주도는 까마귀의 섬이라고 할만큼 까마귀가 많고 군비(群飛)할 때는 장관인데 더우기 오군(鳥群) 비하시(飛下時)의 소음(騷音)은 처연(淒然)해서 이를 바람까마귀(風鳥)라고 한다. 이 까마귀떼의 피해는 대단하고 농작물, 어업, 양계 등에 흑심하여 여기 재미있는 일화까지 있다.

수십년 전에 평양 출신의 한학자(漢學者)가 토평리에 수년간 이거하였고 그 유골은 그의 자손이 이장(移葬)한 사실이 있는데 그 선생의 제자가 허다하였고 그의 글은 아직 이 마을에 많이 남아있다. 동리(洞里)에서는 그 선생을 유평양(劉平壤)이라 불렀고 오씨동리(吳氏洞里)의 대표학자 오선생과의 어떤 날의 대화는 이러하였다.

吳 : 劉(酉)先生. 닭은 얼마나 길렀소?

劉 : 吳(鳥)先生때문에 기를 수가 있소?!

까마귀 똥케우리똥

까마귀 똥케치똥, 즉 일을 잘 못하는 것을 말함. 「케우리다」는 「헤치다」 「똥기다」의 제주어.

개구리의 종류

오카다 야이치로(岡田彌一郎; 1930년)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다음의 6종이 산출하고 모두 남한과 공통이다.

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

Hyla arborea japonica 청개구리

Rana temporaria ornativentris 산개구리

R. nigromaculata 참개구리

R. rugosa 움개구리

Cacopoides tornieri 망꽁이

게우리

거위(鰲虫)와 지렁이(蚯蚓)의 공통제주어 이름인데 회충(蛔虫)에는 「거수에」란 명칭이 또 하나 있다.

괴기

고기의 뜻으로 돈괴기(豚肉), 닭괴기(鷄肉), 바닷괴기(海魚), 괴기낙금(고기잡이), 괴기술(낙숫줄), 괴깃배(漁船) 등 육지의 「고기」와 같이 쓰인다.

꿩(鳩)

고려꿩으로 육지의 것과 동일하며 일본산과는 상이하다. 옛날부터 도내에 요산(饒産)하는 모양으로 옛날에도 닭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금전해(金錢蟹)

우에다 츠네이치(上田常一; 1935년)에 의하면 한국산 금전해(金錢蟹; 금발게) *Matutalunaris*(Forkal)에는 2형이 있고 그 중 1형은 서해안에, 다른 1형은 제주도에 한하여 산출한다고 한다.

담수어(淡水魚)

하천이라고 10여개를 열거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유수(流水)하는 것은 3~4개천(川)에 불과하고 이 유수천들이라도 극히 짧다. 여기서 사는 담수어로 저명한 것은 은어와 대만(大鰻)이다.

대만(大鰻)

서귀포 천지연에 있는 대만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종류는 인도양 및 난지(暖地) 태평양 연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본종의 세계분포의 북한(北限)이다.

동박생이

일명 「소낭생이」라고도 하고 동백나무나 소나무에 잘 앓는다고 그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이다. 표준어로는 동박새다. 육지에는 거의 없으나 제주도에겐 흔하고 울릉도에도 흔하다.

동물관계자(動物關係者)

채집자……앤더슨(Molcolm Playfair Anderson),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모리 타메조(森 爲三),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이노우에 치요타로(井上千代太郎), 마츠세(松瀬), 구리수에 타다오(栗末只雄), 원홍구(元洪九), 원병휘(元炳徽), 석주명(石宙明), 석주일(石宙一), 우종인(禹鍾仁).

연구자……토머스(Oldfield Thomas), 모리 타메조(森 爲三), 오길빅·그란트(W. R. Ogilvie-Grant), 쿠로다 초레이(黒田長禮), 시모고리아마 세이이치(下郡山誠一), 모미야마 도쿠타로(柊山徳太郎), 원홍구(元洪九), 타툼(T. Tatum),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석주명(石宙明).

동물명에 제주도가 포함된 제주도특산의 척추동물

오카다 아이치로(岡田彌一郎; 1938년)박사에 의하면 다음의 5종을 들 수가 있다.

Crocidura dsinezumi quelpatis 제주뒤쥐

Dryobates (Dryobates) leucotes quelpartenis 제주오색딱다구리

Horeites (Homochlamys) Cantans takahashii 제주휘파람새

Mustela (Lutreola) sibirica quelpartis 제주족재비

Rhinolophus quelpartis 제주관박쥐

동물분포상으로 본 대한해협(大韓海峽)

지질학상 제3기까지는 한국과 일본열도가 모두 연속되었던 것이 제3기말 또는 제4기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물의 분포상으로 보면

- ① 제주도·큐슈(九州)간

- ② 츠시마(對馬) · 큐슈간
- ③ 한반도 · 츠시마(對馬)간
- ④ 반도 · 제주간

의 순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동물의 천연기념물

무당개구리(한라산), 팔색조(八色鳥; 한라산), 대만(大鰻; 天池淵).

동물학사전과 제주도

권위 있는 이와나미동물학사전(岩波動物學辭典; 1935년)에 수집된 약 2만어중 제주도 관계의 것이 3어(語)가 있는데 즉 제주뒤밥고등, 제주 큰오색딱다구리, 제주휘파람새이다.

Duke of Bedford의 동물학탐검(動物學探檢)

Duke of Bedford는 영국의 저명한 귀족이지만은 실제로 탐검에 종사한 사람은 미국인 Malcolm Playfair Anderson으로 1904~1911년에 실행되었다. 그 행정(行程)은 일본 후지(富士), 동북지방, 홋카이도(北海道), 시즈오카현(靜岡縣), 아이치현(愛知縣), 나라현(奈良縣),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다네가시마(種子島), 오쿠지마(屋久島), 오키(隱岐), 제주도, 한국, 필리핀, 가라후토(樺太), 한국, 츠시마, 이키(壹岐), 고토(五島), 북중국(北中國), 남중국(南中國) 등의 순으로 주로 소수류(小獸類)의 채집이 목적이었다.

멩마구리

「멩퐁이」의 제주어. 제주도에도 멩퐁이가 많으니 이것만으로도 제주도가 한국의 섬임을 알 수가 있다(멩퐁이가 일본에는 없으니까). 이 종류의 이름은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육지에서는 멩퐁이가 멩퐁멩퐁 운다고 하는데 제주도서는 멩마구리가 멩막멩막 운다고 한다.

무낭

흑산호(黑珊瑚)의 제주명이고 부근 바다에서 많이 산출하므로 공예 품 제작이 발달되었고 특히 담배파이프용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난획(亂獲)한 결과 근년엔 상당히 근해저(近海底)에 나가야 따올 수가 있다고 한다.

백록담(白鹿潭)의 어류(魚類)

이마무라 도모(今村 鞠; 1931년)는 어류가 정영(靜泳)하는 것을 본 것으로 써있지만 그 후 절멸했는지 요새는 볼 수 없다. 그는 도롱뇽(山椒魚)은 못보았다고 하며 아직까지 기록된 바도 없다.

「버랭이」와 「생이」

전자는 「벌레」의, 후자는 「새」의 제주어요, 동물명하에 붙을 때는 대개 「버랭이」는 「베랭이」로 변하고 충(虫)의 뜻을, 「생이」는 조(鳥)의 뜻을 표시한다.

복

제주어로는 「복쟁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몇 종류가 알려져 있다. 나부복쟁이(蝶斑, 不食), 책갑복쟁이(冊櫃模樣, 不食), 밀복쟁이(미끄럽고 식용), 든물복쟁이(淡水産 不食).

무당개구리

한라산의 무당개구리는 중국 운남성(雲南省) 고산(高山)에 산출하는 무당개구리와 같이 이 종류의 세계 분포 남한(南限)이 된다.

비둘기(鳩)

제주인 사이에는 비둘기를 잡아 먹으면 망각증(忘却症)이 생긴다는 속언이 전해지고 있다.

사카이(酒井 恒)의 일본해류도설(日本蟹類圖說)

1935년에 발행되었는데 기재된 279종중 제주도산이라고는 다음의

3종이 있다.

Micippa cristata granulipes

Lambrus melanus

Friocheir japonicus

삼천발이(三千足)

한방약의 명칭인데 사미류(蛇尾類)에 속하는 동물이다. 다른 약물과 합하여 강장제(強壯劑)로 쓰는데 한국의 산지는 제주도로 되어있어 매년 서울 방면에 이출(移出)된다.

앤더슨

미국 Stanford대학 출신이고 그의 부친은 동 대학 영문학 교수로 「단테」에 관한 저술이 있다고 한다. 이 아들은 동물학자요 탐험가로 London 동물학회 및 대영박물관이 기도(企圖)한 동물학탐검에 채집가로 파견되어 동부아세아의 소형포유류(小形哺乳類) 채집을 주안(主眼)으로 1904~11년에 일본, 중국, 한국, 제주도, 남양(南洋) 등을 편력(遍歷)한 사람이다. 그후 구주대전중(歐州大戰中) 자진하여 조선소(造船所)의 노동에 응모해서 오오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발판이 떨어져 부려(不慮)의 죽음을 당하였다. 향년 41세. 그는 열심이고 정의를 사랑하며 의지는 강하고 수수한 성격의 건강한 사나이였다.

앤더슨과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의 채집품

양씨(兩氏)의 2개월간의 채집결과는 족제비 3, 쥐 3, 새종류 약 30, 곤충류 약간으로 그 성적은 극히 불량하였다. 그 성적이 불량한 원인은 시기가 늦은데 연일 우천(雨天)이 계속되어 천막생활에도 극히 불편을 겪는 등 채집조건이 극히 불량한 때문이었다.

원숭이의 사육

원숭이가 한국에 최초로 수입된 것은 이태조(李太祖) 3년 6월에 한

마리, 그후 세종왕시(世宗王時)에 말이 많이 병사(病死)하는 관계로 동 8년에는 일본에 원숭이와 말을 주문하여 갖고왔다. 이어 일본 곳곳에서 또 보내왔고, 류큐국(琉球國)으로부터서도 왔다. 세종 17년에는 제주목사에게 명하여 6쌍을 한라산에 방목하고 번식을 꾀하였지만 실패에 돌아갔다. 그후도 또 원숭이가 수입되었지만 연산군(燕山君) 이후에는 정지되었다.

유미류(有尾類)로 본 제주도

사토오 이키오(佐藤井岐雄; 1943년)에 의하면 제주도는 한국 남부와 일괄하여 한 무리를 이루나 츠시마와는 격리(隔離)되어 상위(相違)가 있다고

전멸된 수류(獸類)

한라산에는 산돼지와 사슴이 있었으나 20여년 전에 전멸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일본인이 표고버섯 재배로 입산하여 총포를 사용함에 있다한다. 1905년에 발행한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에도 우마늑저토(牛馬鹿猪兎) 등 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토끼까지 있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제비

제비를 잡아먹으면 벌받는다고, 그러나 육지에서와 같이 학질에 걸린다는 말은 없다.

제견(濟犬)

제주도재래종이고 현재는 순종은 극히 드물다. 진도견(珍島犬)과 흡사하나 상이점(相異點)은

- ① 거대하고,
- ② 귀가 크나 끝이 용립(聳立)치 못함으로 보통은 끝을 절단한다.
- ③ 체구에 비하여 장각(長脚)이고 골조(骨組)가 경고(硬固)하여 주력(走力)이 강하다.

- ④ 성질이 맹흥(猛兇).
- ⑤ 조식(粗食)에 견딘다.
- ⑥ 이상의 형질 외에 시·후각(視·嗅覺)이 발달되었으니 엽견(獵犬)으로는 일등이라 한다.

제마(濟馬)와 재마(才馬)

제마(濟馬)가 제주마(濟州馬)의 뜻임은 곧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재조(才操)거름을 하는 관계로 재마(才馬)라고도 한다. 재조거름이 제주거름으로 될 수 있겠고 재마(才馬)가 제마(濟馬)로도 될 수가 있겠다. 이 재조(才操)거름이란 것은 상하동(上下動)이 적은 보법(步法)인데 최근 많이 장려되는 것으로 제마(濟馬)에도 출생하면서 가진 본재(本才)도 있고 훈련시킨 순재(馴才)도 있다.

제주도 남단부(南端部)의 동물상(動物相)

이 지역의 육지는 그 자연이 거의 파괴되었고 또 폭풍지대이니만큼 육산(陸産)동물상, 그 중에도 더우기 곤충상은 실로 빈약하다. 그러나 연안의 해산(海産)동물상, 더우기 마라도 부근의 그것은 풍부하다.

제주도에 갈뻘한 공작(孔雀)

이조 태종(太宗) 5년(1405)에 츠시마도주(對馬島主) 무네 사다시게(宗貞茂)가 토산(土産)과 침향(沈香), 소목(蘇木), 염료(染料) 등을 공작(孔雀) 1마리와 함께 헌상하였다. 그 사자가 이것은 남번선(南蕃船)으로부터 약탈한 것이라고 공언한 관계로 사간원(司諫院)은 상소하여 이런 부정품은 받지 않고 반송토록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심고(深考)하고 이를 거절하면 츠시마와 절연(絶緣)되어 왜구(倭寇)의 염려가 있다하여 이를 수납(受納)하고 제품(諸品)은 신하에게 반여(頒與)하고 공작은 제주도에 풀어놓으려 했지만 비용관계로 진라해도(海島)에 방식(放釋)하였다.

제주도에 온 공작

선조 22년(1589) 가을 7월 12일에 츠시마도주로부터 공작 1쌍을 보내 온 것을 8월 1일에 제주도에 갖다가 생방(生放)한 일이 있었다.

제주도의 포유동물구계(哺乳動物區系)

키시다(岸田)·모리(森) 양씨(1931년)에 의하면 「털보박쥐」 등 겨우 10종 내외가 있을 뿐이고 이것들은 거의 전부가 반도산(半島産)과 동일종이요 특산종으로는 「제주족제비」가 있을 뿐이니 제주도는 지나(支那: 중국)지방중의 조선 주부구(主部區)에 속하고 다시 일소구별(一小區別)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조류(鳥類) 분포상으로 본 제주도

쿠로다 초레이(黒田長禮; 1929년)에 의하면 유조(留鳥)로 보아 제주도는 츠시마와 함께 조선반도에 속하여 고북(古北)구역의 조선구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 특산은 4아종(亞種)이라고 한다.

종달새

도내에 적지 않고 제주어로는 「하늘생이」이라고 하는데 그 습성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또 그 외에 그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쩍이 빗죽새」란 이름도 있다.

지네종류

다카구와 요시오키(高桑良興; 1943년)에 의하면 다음의 4종이 알려졌을 뿐이다.

Prolamnonyx holotii

Seolopendra subspinipes multilans

Otostigmus politus

Otocryptops rubiginosus

이 4종의 순족류(唇足類) 중 제3의 1종은 아주 한국계로 북지(北支)

에서부터 전한국에 걸쳐 산출하고 일본에는 없다.

진드기

제주도는 진드기의 섬이랄 만큼 진드기가 많은데 그 종류는 세 가지다.

- ①은 환형(丸型)이고 제주말로 「부구리」,
 - ②는 편형(扁型)으로 「진독」 혹은 「진독」,
 - ③은 소형이고 발이 약간 긴 것으로 「서미역」이라고 한다.
- ①, ②는 표준어로 「진드기」요 ③은 「진디」라고 한다.

진조(珍鳥) 「팔색조(八色鳥)」

8색으로 되었다고 해서 팔색조인데 희귀하기로도, 또 미려(美麗)하기로도 진조(珍鳥)이다. 이 팔색조는 팔색조과에 속하는데 동과에 속하는 종류는 약 60종으로 모두 열대산의 미조(美鳥)들이다. 그 중 이 팔색조(八色鳥)만이 한국과 일본에 산출하는데 한국이라고 해도 제주도뿐이다. 매년 5월경에 남중국으로부터 비래(飛來)하여 한라산 남록(南麓) 일대 삼림(森林) 중에서 번식하고 9월 하순에 새끼가 성장한 후 다시 중국 방면으로 비거(飛去)한다. 먹이는 갑충(甲蟲), 지렁이 등 동물성이다. 본종의 최초 기록은 약 100년전의 시이볼드(Siebold)의 일본 동물지에 있는 「템핑」 「슐레·젤」 양씨의 기재이다.

참새

제주도는 참새가 많은 섬이요 그 해(害)도 적지않다. 종류도 단일종이 아닌 것 같고 이칭(異稱)도 많다. 즉 생이, 밥주리, 밥주리생이, 줍생이, 참새 등등.

척추동물로 본 제주도의 위치

무당개구리, 맹꽂이, 줄장지뱀, 누룩뱀, 실뱀 등은 본토와 공통이고 일본에는 없으니 분명히 제주도는 한국에 가까운 섬이다. 이 점은 벌써 모리 다메조(森 爲三; 1928년)도 지적한 바이다.

최초에 기록된 포유류

Anderson의 채집품을 Thomas가 기록한 것(1906년)은 다음의 2종류이다.

Putorius sibiricus Pallas

Miomomys agrarius mantchuricus Thomas

최초의 학술조사반

1905년 여름 런던동물학회로부터 동물채집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파견된 미국인 앤더슨은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를 동반하여 입도하였다. 40여일간이나 천막생활을 하면서 앤더슨은 포유류·조류를 채집하고 이치카와(市河)는 앤더슨을 도우면서 주로 곤충 채집을 하였는데 이것이 제주도의 학술조사대(學術調査隊)로는 최초의 것일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탐라전복

고래로 유명한 제주도산물이다. 동방제국(東方諸國)의 고서(古書)에는 탐라국으로부터의 조진물(調進物) 중에는 반드시 탐라복(耽羅鮑)이 있었고 현재도 육지에 선물로 가져온다면 흔히 이 제주도산의 전복을 택한다.

파충류(爬蟲類)와 양서류(兩棲類)

뱀이나 개구리종류로 보면 제주도는 육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접류(蝶類)로 본 것과 같다. 육지와 츠시마(對馬)와의 관계보다도 일층 관계가 깊으니 제주도는 츠시마보다도 일층 오래 육지와 연계되어 있던 점임을 알 수가 있겠다.

포경(捕鯨)

서귀포는 포경의 근거지이다. 1934년도의 한국 전 연안의 획경(獲鯨)수는 장수경(長鬚鯨)이 100여두인데 어장별로 본다면 제주도가 27,

대흑산도(大黑山島)가 47, 황해대청도(黃海大靑島)가 7, 울산(蔚山)이 20, 장전(長箭)이 20두였다. 고래의 해부(解剖)는 신속(迅速)을 요한다. 더우기 장수경과 같이 식용고래는 해부가 지연되면 기름으로 인하여 고기가 부패하니 쾌속(快速) 처리한다. 즉 근해에서 포경하면 무전으로 제주에 보고하고 제주서 전보로 서귀포에 알리면 사무장은 대기하고 있다가 해부부(解剖夫)를 독려하여 곧 해부를 시작한다.

한라산의 조류

원홍구(元洪九; 1932년)에 의하면 한반도 내에 있는 고산(高山)만큼은 종류가 없다. 제일 많은 종류는 「동박새」이고 다음으로 「제주근줄박이」 「제주박새」, 「제주직박구리」, 「큰유리새」, 「제주휘파람새」, 「삼광조」, 「산솔새」 등이다.

해류(蟹類)

우에다 츠네카즈(上田常一; 1936년)의 보고에는 36종이 기재되어 전(全) 조선산 121종, 동(東)조선산 35종, 남(南)조선산 101종, 서(西)조선산 54종과 비교하여 대단히 적은 것을 알겠다. 그후 (1941년) 그는 제주도산으로 약 40종을 보고하고 남방계가 많다고 하였다. 앞으로 더 채집하고 심해산(深海産)까지 조사한다면 꽤 많은 종류가 추가될 것이다.

회유어류(回游魚類)

회유어류가 일단 본도 연안에 내유(來遊)하여 어민들에게 풍어의 기쁨을 주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곧 불어(不漁)의 한탄을 하게한다. 이것은

- ① 해안선 굴곡의 빈약
- ② 도서가 적음
- ③ 해수 혼탁기(混濁期)의 짧음

등으로 어류의 체류기를 짧게하기 때문이다.

6. 곤충(昆蟲)

「고치젤」과 「왕젤」

‘고치’는 ‘고추’의 제주말인데 여기서는 ‘작은’의 뜻이요, ‘왕’은 ‘큰’의 뜻이요, ‘젤’은 ‘매미’의 뜻이니 ‘작은 매미’와 ‘큰 매미’의 제주말이다.

곤충류로 본 제주도의 위치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1924년)에 의하면

- ① 제주도특산종은 15
- ② 제주도와 한반도에만 특산하는 종 29
- ③ 제주도, 한반도, 만주 등지에 산출하고 일본에 산출치 않는 종 55
- ④ 제주도와 일본에 산출하고 한반도에 산출치 않는 종 5

이니, 그 동물분포가 역시 한국계이라고.

곤충채집의 코오스

제주읍을 출발하여 관음사(觀音寺), 산북의 표고버섯재배소, 정상, 산남의 추용장(椎茸場)을 경유하여 서귀포에 하산(下山), 다시 서귀포를 출발하여, 남북횡단도로를 경유해서 제주읍으로 돌아오면서 채집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상의 코오스는 3일 이상의 노정(路程)인데 그 이상 장기일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해안도로를 일주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곤충학관계의 내도 구미인(來島 歐美人)

성명, 국적, 생존기간, 직업, 내도년, 내도자격, 채집품 등을 기입하면 다음과 같다.

Arthur Adams, 영(英), 1820~1876, 의사 겸 패류학자(醫師兼貝類學者), 1845, Samarang호 군의(軍醫), 초시류(鞘翅類) · 반시류(半翅類) · 인시류(鱗翅類).

Malcolm Plafair Anderson, 미(美), 1879~1919, 동물채집가, 1905, Bedford탐검(探檢), 슬류(蝨類) · 인시류.

Sten Bergman, 스웨덴, 조류채집가, 1935, Stockholm 박물관원, 막시류(膜翅類).

Emile Joseph Taquet, 프랑스, 1873~, 선교사, 1913, 포교(布教), 초지류.

대학시험장 부근의 접류(蝶類)

대표적 종류는 다음의 3종이다.

Argynnis hyperbius 암끝검은표범나비

Zizera maha 남방부전나비

Pieris rapae 배추흰나비

쓰르라미

제주도에 가장 많은 매미이고 이칭(異稱)도 많다. 즉 고삭젤, 고시약재, 그셋젤, 극삭재열, 고치젤, 팔재열 등. 이 매미의 울음소리는 「오노오오오시」라고 한다고. 젤, 재열 등은 매미의 뜻이고 고삭, 고시약, 그셋, 극삭 등은 울음소리에서 유래하고 고치는 고추로 적색을 의미하고 팔은 소두(小豆)의 뜻으로 소형을 의미한다.

말촉

제주어로 메뚜기의 총칭. 「방아깨비」는 산북서는 「심방말촉」, 산남서는 「산전발락」이라 하고 특히 큰 메뚜기 즉 풀무치는 「득다구리」라고 한다.

매미의 종류

카토 마사오(加藤正世; 1932년)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는 다음의 4종이 산출하고 모두 남한과 공통종이다.

Platypleura kaempferi 쌍쌍매미

Graptopsaltria colorata 유지매미

Tanna japonensis 쓰르라미

Meimuna opalifera 애매미

반모속곤충(斑蝥屬昆虫)

조복성(趙福成; 1932년)에 의하면 다음의 종류가 산출한다고 한다.

Cicindela chinensis 비단길앞잡이

C. ch. f. japonica

C. japana 좀길앞잡이

C. gemmata

C. hybrida japonensis 길앞잡이

C. lewisi

C. gracilis 깔따구길앞잡이

C. elisae

C. laetescripta 강변길앞잡이

보통기생충(普通寄生虫)

이와 벼룩은 극히 많다. 이는 자주 경의(更衣)치 않는 관계요, 벼룩은 다우(多雨)로 다습(多濕)한 관계다. 그러나 다습한 관계로 빈대만은 희귀하다. 빈대는 항구나 대처(大處)의 여관 같은 곳에 있을 뿐으로 우려할 바가 아니다.

복잡한 접상(蝶相)

동일한 한라산에라도 정상에는 북방계의 「가락지장사」, 「산부전나비」(*f. putealis*)가, 산록에는 남방계의 「제주도 꼬마팔랑나비」, 「암끝 검은 표범나비」가 많음은 제주도의 접상이 복잡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산방산의 접상

식물이 무성한 산방산의 접상이 의외로 빈약하다. 이것은 부근이

모두 경지화(耕地化)하고 한라주산(漢拏主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해안에 홀립(屹立)한 관계이다.

쉬

제주어로 「쉬」 혹은 「썬」라고 하여 「쉬」(蠅卵)와 서캐(蝨卵)를 말한다.

심방나비

호랑나비의 제주어. 「심방」은 「무당」의 제주어이니 「심방나비」는 화려한 것을 뜻할일까. 종교적 의의의 명칭일까 혹은 양자를 겸한 명칭일까. 이 심방나비 이외에는 나비의 이름은 더 들어볼 수가 없다. 생활에 여유없는 곳이라 직접 관계가 없는 나비에까지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다. 그러나 수많고 눈에 띄는 호랑나비에만은 몰교섭(沒交涉)일 수가 없었던지 심방나비의 이름이 생겨있다.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제주도 곤충의 제일인자요 The Insect Fauna of Quelpart Island, 1924년(제주도의 곤충상)의 저자. 전(前) 조선 총독부권업모범장(總督府勸業模範場) 기사요 농학박사이며 북해도대학 출신.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메이지 33년(1900) 5월 동경일중(東京一中) 재학시에 동지 12명과 발기하여 「하쿠부츠 노 도모(博物之友)」를 발간하고 그후 1911년 3월 제 11권 제81호로 중단되었다. 앤더슨과 함께 제주도에 채집여행을 한 것은 그가 일고(一高) 재학시요 그 여행기는 「博物之友」 메이지 39년(1906) 1,3,5월호에 연재되었다. 그후 동대(東大)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유학도 하였고 오랫동안 동대교수 겸 동대학 도서관장을 지냈다. 저서도 많다.

잠자리

이칭(異稱)이 많은 곤충이다. 즉 곰밥주리, 밥주리, 밤버리, 꽃자리,

물새 등등.

제주도를 조사한 곤충학자

전문가는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1924)와 필자(1937, 1947)를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단편적으로 조사 발표한 이로는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1906년), 타툼(1947년), 디스탄트(1911년), 마츠무라 마츠도시(松村松年; 1927년), 모리 다메조(森爲三; 1928년) 등이 있다.

진접(珍蝶) 암붉은 오색나비

이 나비는 남양에서는 보통 있는 종류이지마는, 일본 큐슈(九州)에서도 매우 드문 남방계의 나비이다. 이것이 한국서는 그 사이 자웅(雌雄) 1개씩 잡혔는데 이 자웅이 동년동월동일에 별장소(別場所)에서 잡혔다. 즉 수컷(雄)은 필자가 제주도 서귀면 미악(米岳) 정상에서, 암컷(雌)은 필자의 제자 박주현(朴周鉉)군이 개성(開城) 쌍폭동(雙瀑洞)에서 1936년 8월 19일에 잡은 것이다.

줄재기(蠶蛭科昆虫)

조오조 나리아키(上條齊昭; 1934년)에 의하면 다음의 3종을 산출한다고 한다.

Anechura japonica 좀집개벌레

A. quelparte 제주좀집개벌레

Labidura japonica 왕집개벌레

천우과(天牛科)로 본 제주도

사이토 코오조(齋藤孝藏; 1932년)에 의하면 제주도는 일본에보다도 한반도와 관계가 더욱 깊다고 한다.

최초로 기록된 곤충

영국군함 Samarang호가 1843~46년에 학술탐검(探檢)을 할 때, 제주도에 기항(寄港)했을 뿐만 아니라 황해(黃海)중의 미지의 많은 섬에도

기향한 모양으로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 1924년) 박사의 고증에 의하면 *Carabus monilifer*=*Coptlabrus*)가 제주도산 곤충으로는 최초라고 하지만 Tatum의 원문(1847년)에는 “in the Korean Archipelago”라고 있을 뿐이니 오카모토(岡本)박사의 고증도 100%로 신뢰키는 어려운 일이다.

최초에 기록된 노린재(椿象科)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의 채집품을 Distant가 기록한 것(1911)인데 다음의 2종이다.

Okeanos (gen. n.) *quelpartensis* Distant(sp. n.)

Gudea (gen. n.) *ichikawana* Distant (ap. n.)

단 후자는 *Pentatoms semiannulata* *Motschulsky*(왕노린재)의 Synonym이다.

Ⅲ. 人 文

1. 전설 · 종족

가와자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 박사의 삼신인관(三神人觀)

제주도는 본래 신인들이 살던 무릉도원(武陵桃源) 같은 고도(孤島)였는데 잔존(殘存)했던 화산력(火山力)으로 인한 대분화로 용암의 바다가 되고 화산회(火山灰)의 강하로 전도가 참화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바위그늘 또는 동굴에 피난한 3신인만이 생(生)을 얻고 후에 나왔지만 사면의 광경은 일변하여 우마(牛馬) 전답이 전멸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해안을 배회하며 해조 어개(魚介)로 연명하다가 우연히 일본 큐슈(九州) 고토(五島) 부근의 해녀의 배가 표착하여 배필을 얻게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능청스런 제주 목사의 이재법(理財法)

영조(英祖)대왕때의 일로 제주 목사(牧使)가 불치(不治)에다가 탐녀(貪賂)행위로 파면당한 뒷자리를 두고 별군직(別軍職; 侍從武官) 군막에서 무관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중 김모(金某)가 적임(適任)으로 자신을 천거하는 말이 상감께 알려지자 임명되어 부임하고는 참말 청렴한 관리 생활을 하였다. 임기 4년이 되기 전에 병을 빙자삼아 제주산 우황(牛黃)을 많이 얻어가지고 귀임하였으니 천석치부(千石致富)한 청백리(清白吏)로 되었다.

도민의 유래(由來)

시조 3신인의 전설로는 고유도민(固有島民)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 모인 것일 것이다. 다소나마 존재가 있다는 사람을 보면 대개는 22~23대조가 입도하였으니 여말기(麗末期)이리라. 그러니 망명은 사람, 정배(定配)은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외에 표류해온 사람의 자손도 적지않을 것이다.

도민의 혈통

여말(麗末)에 망명은 사람, 정배은 사람의 자손이 중견임은 분명한데 언어·풍속으로 보아 평안도 사람도 많다고 해석이 된다. 그밖에 표류해 온 사람들도 섞였으니 일본, 류큐(琉球), 중국, 안남(安南), 여송(呂宋) 등지의 족혈(族血)도 섞였다고 생각된다.

산방덕(山房德)

산방굴 주인공(山房窟主人公)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전설의 로맨스가 있다. 즉 옛날 산방덕(山房德)이란 처녀가 있었는데 절세가인(絕世佳人)으로 사실은 이 산방산 암굴(岩窟)의 여신이였다. 기왕 무슨 인연으로 왔던지 인간계로 나온 이상 이성(異性)이 그림지 않을 수가 없어 주인(州人) 고승(高升)이라는 이와 가연(佳緣)을 맺고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호색가인 주관(州官)이 산방덕의 미모를 듣고는 고승에게 죄명을 둘러씌우고 여신을 뺏으려하매 산방덕은 인간계에 나왔던 것을 한탄하고 다시 암굴에 들어가 화석이 되고 솟는 눈물이 지금의 샘이 되었다고 한다.

삼성혈(三姓穴)

속칭 「명굴」이고 문헌에 있는 모흥혈(毛興穴)이다. 전설에 있는 본도의 개조(開祖) 3신인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가 나왔다는 이 삼혈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이 삼성의 후손이 제사하는

사당(祀堂)이 있고 부근에는 아열대 과수도 재배하고 주위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자연경승을 이루어 제주도 제일의 명소가 되었다. 즉 내궁(內宮)이라고도 불리우는 삼성사(三姓祠)가 이곳이다. 그리고 모흥(毛興)의 모(毛)자는 삼을나의 삼을(三乙)을 합한 것으로 모흥은 삼을나가 흥(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삼신인명고(三神人名考)

이은상(李殷相)에 의하면, 양을나(良乙那)는 「으니」, 고을나(高乙那)는 「굴니」, 부을나(夫乙那)는 「불니」일 것이고 「올」, 「굴」, 「불」은 신성(神聖), 광명(光明), 통어(統禦)의 뜻이고 「니」는 인격을 표시하는 「네」이니, 올니는 올구역 즉 제일도(第一徒)에 계신 분, 굴니는 굴구역 즉 제이도(第二徒)에 계신 분, 불니는 불구역 즉 제삼도(第三徒)에 계신 분, 즉 각 구역의 통치자를 말함일 것이라고. 그 외에도 본도내 여러 곳 지명들이 올 굴 불로써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많은 인례(引例)를 들었다.

삼신인설화의 일설(一說)

고(高), 양(良), 부(夫)의 순이고 고을나의 거소를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지금의 제주, 양을나의 거소를 제이도라 하고 지금의 대정, 부을나의 거소를 제삼도라 하고 지금의 정의를 의미한다는 일설이 있지만 이것은 보편화한 것이 아니며, 상식화한 전설은 양, 고, 부의 순이요 그 거소는 제주읍에 있는 일도리(一徒里), 이도리(二徒里), 삼도리(三徒里)라 한다.

상하국(常夏國)

감귤류의 재배지로는 제주도가 한국 유일의 장소이다. 도내에서도 산남부 서귀면을 중심으로 하여 감귤원이 있는데 짙은 우량하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국 유일의 산지이니 난지(暖地)임이 분명하고 한국인은 제주도를 상하국(常夏國)이라고 할만도 하다. 사실은 일본

전설에도 상하국의 굴이 이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요시노 자쿠라(吉野櫻)의 관계를 보아도 옛날 일본과는 상당히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

상하국의 굴

일본 전설에 나오는 말인데 옛적 수이징천황대(垂仁天皇代)의 충신이 도코요노구니(常盤國) 즉 상하국의 굴을 구해가지고 귀조(歸朝)하니 제(帝)는 이미 붕어(崩御)하여 굴을 제능(帝陵)에 바치고 자살하였다고. 일본적인 전설인데 그 상하국이 제주도로 추정된다고 논하는 자가 있다. 또 일본서기에 이치조천황(一條天皇) 때 상하국에 굴을 가지러 간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제주도로 고증(考證)된다고 한다.

성주(星主) · 왕자(王子)의 칭호

제주도 고씨의 15대손, 3형제가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후에 배진(拜進)하여 국호 탐라와 함께 받은 칭호인데 고려조에서도 답습하였고 이조 태종 2년에 이르러 성주 · 왕자는 그 명호(名號)가 왕자(王者) · 인주(人主)의 뜻이 된다고 자칭(自請)하여 좌도지관(左都知管), 우도지관(右都知管)이 되어 성주 · 왕자의 칭호는 소멸되었다.

연날리기(放鳶)의 기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겨울서부터 정월 15일까지 연을 날리는 것은 고려의 최영(崔瑩) 장군이 탐라를 치던 전역(戰役)때부터 시작된 풍속이라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다.

오다 쇼오고(小田省翫)의 탐라건국전설관

고려사(高麗史)에 있는 고기(古記)를 기초로 고씨의 15대손 3형제가 신라에 조공한 것을 근거로 함인지 오다는 일본과의 교통이 성하였던 신라인의 작(作)일거라고 하였다.

오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의 한민족 도동설(渡東說)

오오하라(大原; 1920년)에 의하면 한민족은 북방 혹은 남방 한쪽으로만 도래한 것이 아니고 양방으로 도래한 것이라고 즉

- ① 북방으로부터 온 민족……중국 동부 및 몽고 방면으로부터 만주를 거쳐 반도에 이주한 것.
- ② 남방으로부터 온 민족……복건(福建), 광둥(廣東), 안남(安南), 피립핀(比島), 남양제도(南洋諸島) 혹은 시암(暹羅), 마래반도(馬來半島)로부터 난류에 의하여 북상, 류큐(琉球)를 거쳐 츠시마(對馬) 해협에 들어와 제주도, 전남 해안, 경남 해안에 표착하였다.

제주혼(濟州魂)

최남선(崔南善)이 말한 바로는 제주인은 모험과 원정(遠征)과 견인(堅忍)과 기민(機敏)만이 그들에게 부족한 자연의 은택(恩澤)을 보낼 수가 있어서 남자는 널조각을 타고 해외로 나가고 여자는 뒤옹박을 차고 바닷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에 어느덧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결기있고도 영악스러운 제주도민의 성격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온 남양흑인(南洋黑人)

순조(純祖) 신유(辛酉; 1801년)에 서양대선(西洋大船) 1척이 대정 당포(唐浦)에 들어와서 흑인(黑人) 5명을 내려놓고 갔는데 그네들은 안색(眼色), 언어, 문자 등이 기괴(奇詭)를 극(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종족(種族)

인류의 원생지(原生地)로부터 동방으로 향하는 데는 3코오스가 있으니 1은 북방으로서 아세아 대사막의 북쪽을 돌아서 시베리아, 몽고, 만주, 한반도로 떨어지는 줄기고, 2는 곤륜산(崑崙山) 밑으로부터 황하(黃河), 양자강(揚子江) 두 사이로 들어서서 이른바 지나중원(支那中原)

으로 들어온 줄기고, 3은 아세아남방 해변으로부터 해상에 걸치 태평양 양군도에까지 뻗치는 줄기로서 제주도는 꼭 그 말단에 위치되어있어 혼혈종족을 형성할 운명지점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사실 문헌에만 의한대도 왜(倭), 몽고, 한(漢), 류큐(琉球), 여송(呂宋) 등 제민족(諸民族)이 들어와 혼혈이 되었고 이런 사실은 전역사를 통해서 항상 되풀이된 것이다.

좌씨(左氏)

이 성은 희성(稀姓) 중에서도 희성이다. 본은 청주(淸州)라지만 충청도의 청주가 아니고 중국에 있다는 청주(淸州)라고 한다. 한국서는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고 제주도에서도 서단부(西端部)에 한재(限在)할 뿐인데 혹시 반도에서도 볼 수가 있다면 다 제주도 서단부 출신들이다. 분명히 그들의 조상은 중국으로부터 온 모양인데 제주도가 원(元)의 관할하에 있을 때에 목마관(牧馬官)으로 왔던 사람의 자손으로 생각된다.

주호(州胡)

제주도의 최고칭(最古稱)이요 삼한(三韓)시대에 벌써 알려진 지명으로 먼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곳으로 되어 있었다.

창세신화(創世神話)

제주도에는 본래 인간이 없었는데 3신인이 땅 속으로부터 용출(湧出)하였고 그 용출한 흔적을 모홍혈이라 하고 현재의 삼성혈이 그것이라고 한다. 3신인중 장(長)은 양을나(良乙那), 중(中)은 고을나(高乙那), 삼(三)은 부을나(夫乙那)이고, 피의육식(皮衣肉食)하였다. 3인이 하루는 동해빈(東海濱)에 자이봉목함(紫泥封木函)이 표착한 것을 발견하고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석함(石函)이 있고 홍대자의(紅帶紫衣)의 사자가 따라왔다. 사자는 그 석함을 열어 3인의 청의처녀(靑衣處女)와 계구독오곡종(諸駒犢五穀種 : 말·소·오곡씨앗)을 내놓고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碧浪國; 일본) 사자인데 나의 왕이 이 3왕녀를 낳으시고 이르시기를 서해 중악(中岳)에 신자(神子) 3인이 강하(降下)하시고 개국하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신에게 명하사 3왕녀를 모시고 온 것이니 작배(作配)하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이 말이 끝나자 그 사자는 구름을 타고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3신인은 연령에 따라 차례로 장가들고 천수(泉水)가 좋고 비옥한 땅을 골라 사시복지(射矢卜地)하여 양을나(良乙那) 거소를 제일도(第一徒(都)), 고을나(高乙那) 거소를 제이도(第二徒) 부을나(夫乙那) 거소를 제삼도라 하고 농업과 목축을 시작하였더니 날로 번성하여 졌다. 이때의 유적이라고 하는 「시사석(矢射石)」이란 것을 성내에서 동으로 12리쯤 되는 곳에서 볼 수가 있다.

탐라(耽羅)와 탐진(耽津)과 탐주(耽州)

탐라는 제주도의 고명(古名)인데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3형제가 신라에 조공하고 받아온 국호라는데, 탐진으로 출입했다고 해서 된 국명인듯. 탐진은 현재의 전남 강진(康津)의 별호(別號). 탐주는 탐주(探州, 현재의 만주 돈화(滿洲敦化)인듯.

탐라족(耽羅族)

이창환(李昌煥)에 의하면 태고의 조선족인 환족(桓族)은 거주하는 지방을 따라서 조선, 북부여(北扶餘), 예맥(獺狛), 옥저(沃沮), 숙신(肅慎) 등의 5족으로 분파(分派)되었다. 그중의 조선족은 한족(韓族)에 전(傳)하고 한족은 한족(漢族)과 합하였다. 기조(箕朝)의 후인 한족(漢族)은 마한족(馬韓族)에 전하고 마한족이 한족(韓族)에서 유래한 변한족(弁韓族)과 합하여 다시 삼분파(三分派)하였는데 그중의 일파가 탐라족(耽羅族)이라 한다.

탐라(耽羅) 중흥조(中興祖) 삼고씨(三高氏)

탐라 시조 3신인의 전설에는 이론(異論)이 별로 없지만 그 3씨의

순서에 대해서는 양고부(良高夫)라는 이와 고향부(高良夫)라는 이의 2
 파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분명히 양고부의 순이지만 고을나의 15대
 손 고후(高厚), 고청(高淸), 고계(高季; 季失其名) 3형제가 신라 애장왕(哀
 莊王) 2년(801)에 입조하여 왕으로부터 장(長)은 성주(星主), 중(中)은 왕
 자(王子), 계(季)는 도내(徒內 또는 都內)의 칭호를 받고 또 탐라란 국명
 을 받고 온 뒤로 자연히 고향부의 순으로 되었을 것이다. 삼성사(三姓
 祠)에는 탐라성주, 탐라왕자, 탐라도내(耽羅徒內) 삼고씨의 위비(位碑)가
 있다.

한라산옹(漢拏山翁)

백록(白鹿)을 타고 놀던 선인(仙人)이라고 하고 백록담(白鹿潭)의 대
 표적 전설의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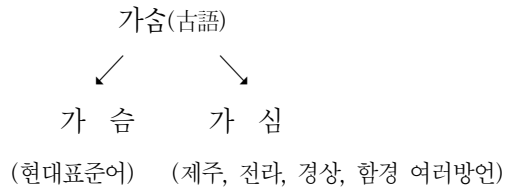
해신족(海神族)

이와모토 요시부미(岩本善文)의 상고지 통치 이면사(上古之統治裏面
 史; 1925년)의 상고지 일선민족 이동 약도(上古之日鮮民族移動略圖)를 보
 면 제주도 주민은 해신족으로 되었다. 이 해신족은 남방으로부터 와
 서 일부는 제주도를 지나 변한(弁韓)으로 들어오고 또 일부는 기타큐
 슈(北九州)로 들어가서 츠시마(對馬)를 경유하여 변한으로 들어온 것으
 로 되어 이 해신족은 제주도, 고토(五島), 기타큐슈, 츠시마, 변한에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모토(岩本)의 저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분명히 광언(狂言)이다. 아마 이 해신족이란 마래족(馬來族)
 을 의미할 것이다.

2. 방언(方言)

‘가슴’의 어원

‘한산거스’ 원저(原著)의 한양가(漢陽歌)를 보면 고어가 ‘가슴’이니 이 ‘가슴’이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개차반

이 말은 품행이 나쁜 사람의 별칭임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차반’이란 말은 고어의 음식이란 말이니 ‘개차반’이라면 ‘개의 음식’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제주어로는 ‘개차반지’라고 ‘지’가 붙는데 ‘지’는 한국말의 인(人), 동물(動物), 물(物)의 어미를 말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거지, 강아지, 망아지, 오이지 등의 ‘지’일 것이며 따라서 ‘개차반지’는 원시적으로 표현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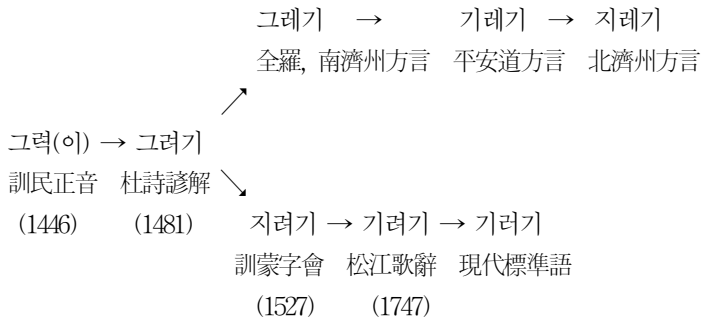
곰배

제주어로 ‘흙방망이’를 ‘곰배’라 하고 정자(丁字)를 ‘곰배정’이라 한다. 그런데 ‘곰배’는 고어로 ‘곰비=빚고물’(舂)에서 온 것 같아서 이 ‘곰비’란 말이 제주도에서는 모양이 유사한 흙방망이에까지 전용(轉用)되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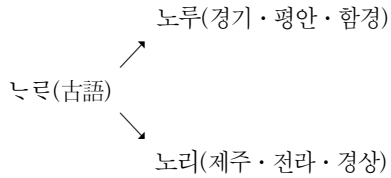
기러기(雁)의 어원

이 말의 고어를 찾아보면 그럭, 그러기, 기러기, 기러기 등이 있고

제주어로는 그레기, 지레기 등이다. 그들의 변천을 도해(圖解)해 보면 재미있을상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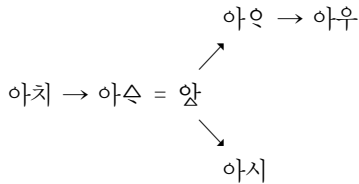


노루의 어원과 변천



동생(弟)의 語源

이 말의 고어(古語)를 찾아보면 아퇴(亞退; 鷄林類事, 宋代, 13세기), 알지(闕智; 三國遺事, 高麗 忠烈王代, 13세기), 아스=앗(龍飛御天歌, 1445), 아으(訓蒙字會, 1527) 등이 있고 제주어로는 ‘아시’, 현대표준어로는 ‘아우’이니 이제 그것들의 관계 내지 변천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되미’의 고어

이 말의 고어와 지방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돛……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방언

도미……회령(會寧)방언, 한양가(漢陽歌) : 1880

되미……현대표준어

그러나 이 3어의 관계를 보면 ‘돛→도미→되미’로 변천한 것 같으니 ‘돛’이 대형(大型)이고, ‘도미’가 중고형(中古型)이고 ‘되미’가 현대형인 것 같다.

독새기

‘독’은 ‘닭’의 고어 ‘돛’에서, ‘새기’는 ‘새끼’에서 유래된 것이니 ‘독새기’는 전체로 고어라고 볼 수 있는 ‘계자(鷄子)’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겠다.

‘ㅈ’음의 변천

고어에 나오는 ‘ㅈ’음은 육지에서는 대개 ‘ㄷ’로 변하는 한편 제주도에서는 ‘ㅌ’으로 변하였는데 예외로 ‘ㅊ’으로도 변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고어	표준어	제주어
뻥=ㅈ때	때(垢)	테
떠듭	떨어짐	티라짐
떠디다	떨어지다	티라지다
떨다	떨다	털다
떼	떼(筏)	테
뛰	떼(茅)	테역, 퇴역
뛰다	뛰다(超)	튀다
뛰노다	뛰놀다	튀놀다
뜨다	뜨다(浮)	트다
뜯다	뜯다	틀다
띄우다	띄우다(浮, 籠)	티우다
떠다	찌다(蒸)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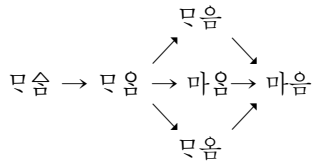
딸 폰다

직역하면 ‘낭매(娘賣)’의 뜻인데 즉 ‘딸시집 보낸다’라는 말로 고풍(古風)이 유전(遺傳)된 말이다. 이 풍습은 육지에서도 아직 그 잔재(殘滓)를 볼 수가 있고 소미국(小美國)의 관(觀)을 나타내는 필리핀(比島)에서도 촌락에서는 아직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아들 장가 보낸다’는 것도 ‘아들 폰다’고 한다.

마음(心)의 고어와 제주어

고어, 현대어 및 제주어를 게재하고 그 여러 말의 관계를 도해(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 ㅅ슴(龍飛御天歌, 1445)
- ㅅ음(? 中古語)
- 마음(? 中古語)
- ㅅ음(濟州島方言 : 金三賢時調, 肅宗朝)
- ㅅ음(杜詩諺解, 1481)
- 마음(現代語)



‘말삼’의 고어와 제주어와의 관계

- ↗ 말삼(현대어)
- 말삼(고어) → 말삼(고어) → 말삼(경기, 평안)
- ↘ 말삼(제주, 전라, 함경)

문독

제주어로 ‘문독’은 그 발언(發言)이 거의 ‘문독’이고 그 뜻은 먼저(塵)인데

‘몬독’은 타갈록(Tagalog)어(比島語)로 ‘山’의 뜻이니 제주어의 ‘몬독’과 필리핀어(比島語)의 ‘몬독’은 ‘진합태산(塵合泰山)’으로나 통하는 말일까.

바람(風)의 고어와 제주어

졸저(拙著) ‘제주도방언(濟州島方言)’(1947년)을 발표한 이후에 ‘바람’의 고어와 제주어를 또 발견하였기에 이제 그 말들을 들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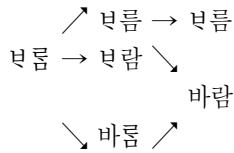
ㅂ름 :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

ㅂ람 : 제주어, 속미인곡(續美人曲) : 1587~88.

바름 : 중고어(中古語).

ㅂ름=ㅂ름 : 제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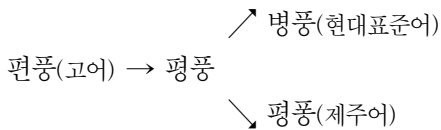
바람 : 현대어, 김수장(金壽長)시조 : 1691~?



방상

제주어로 ‘친척’을 ‘방상’ 혹은 ‘일가방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래어(馬來語)에서는 범어(梵語 ; Sanskrit)에서 유래한 방사(bangsa)란 말이 동포(同胞), 문족(門族), 가족(家族) 등의 뜻으로 쓰이니 우리 제주도의 방상도 거기에 기맥(氣脈)이 통한다. 역시 근본은 Sanskrit에서 온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병풍의 변천



뽕콩이

탄환(彈丸)을 제주어로 ‘뽕콩이’라고 한다. ‘총알’은 ‘총뽕콩이’이다. 이 ‘뽕콩이’는 같은 뜻의 포르투갈어(葡萄牙語)에서 유래한 마래어(馬來語)의 ‘뽕루우르’(Peloor)에서 온 것 같다. 근원은 역시 포르투갈어(葡語)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 같다.

뽕그다

이 말은 제주어로 얻다(得, 拾, 集)의 뜻으로 마래어의 ‘뽕굿’ (Pungut)에서 유래한 것 같다.

비낭대죽

‘비수수’의 제주어로 마래어의 ‘삐낭’(Pinang ; 檳榔子)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대죽’은 제주어로 ‘수수’의 뜻.

비사아어

Visaya어는 300여개의 필리핀 제어(諸語) 중에서 Tagaloc어의 다음으로 가는 세력있는 말인데 그 말 가운데는 제주어 내지 한국어와는 공통되는 것이 필리핀 여러 언어 중에서는 가장 많고 더우기 형용어에는 특별히 많아서 Visaya족의 감정이 우리 한국과 통하는 바가 많음을 알 수가 있겠다. 사실 그곳에서 수십년 간 생활한 최무읍(崔武揖)에 의해도 그러하다고 한다.

‘사람’의 고어

먼저 연대순으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사름 :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 관동별곡(關東別曲), 1580 ; 노계가(蘆溪歌), 1630경.

사름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1565. 제주도 방언.

살름 : 고산구곡(高山九曲), 1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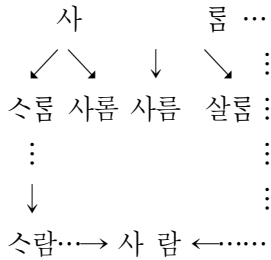
스람 : 강촌별곡(江村別曲), 선조조(宣祖朝), 1590경.

스름 : 한양가(漢陽歌), 1880.

사름 : 제주도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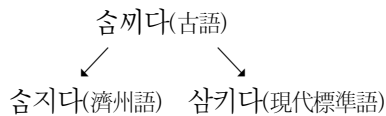
사람 : 현대표준어.

이제 이상 7어의 관계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삼키다

이 말의 고어는 ‘숨씨다’이고 제주어로는 ‘숨지다’이니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을 것 같다.



‘소’의 변천

고어와 여러 지방어(諸地方語)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쇼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5 ;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 ; 동해가요(東海歌謠), 1763.

쇠 : 한양가(漢陽歌), 1880.

쇠 : 제주도, 함경도방언.

소 : 현대표준어.

그러니 ‘쇼→쇠→쇠→소’로 변천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시루(甌)의 어원

이 말의 고어를 찾아보면 ‘실의’ ‘시르’ 등이 있고 제주어로는 ‘시리’라고 하니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의	→	시리	→	시르	→	시루
두시언해(杜詩諺解) (1481)		제주, 전라 경상, 함경 제방언		老乞大諺解 2卷 (중종대 1506~44) 훈몽자회(1527)		현대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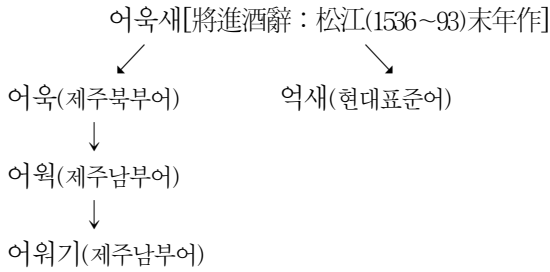
심방

육지의 ‘무당’의 뜻이고 남녀가 다 있어 세습적 직업이며 천민에 속한다. 무라야마 도모즈미(村山智順)에 의하면 ‘심방(尋訪)(Shim pang)은 ‘신방(神房)(Shin pang)에서 유래하였고, ‘신방(神房)은 ‘승방(僧房)’이 전(轉)한 것 같다고 하고 이 명칭은 함북, 제주도 등지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히 ‘심방’이고 또 ‘신방’이 함북에서 쓰인다고 하나, 함북 어느 지방에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어원은 동음어인 마래어(馬來語)의 Simbang(不可信의 뜻)일 것으로 생각된다.

‘쌀’과 ‘비바리’

옛말에 ‘제주비바리는 쭈무살에 씨집갈 때까지 쌀 서말 못먹어’란 말이 있다. ‘비바리’는 처녀, ‘쭈물’ ‘씨집’은 ‘스물’ ‘시집’, ‘쌀’은 ‘쌀’. 쌀이 그렇게 귀한 곳이다.

'억새'의 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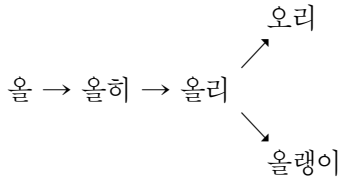
오리(鴨)의 어원 및 그 변천경로

울 : 악장가사(樂章歌詞), 연대(?)

올히 : 두시언해(杜詩諺解), 1481년 ;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년

올리 : 올랭이 : 제주도방언

오리 : 현대표준어



이승녕(李崇寧)의 「음고(音攷)」

그의 대저(大著) 조선어음운론연구(朝鮮語音韻論研究) 제1집(1949년)에 의하면

(5쪽) ㅁ음 연구와 제주도 방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ㅁ음가(音價)의 최후적 결정은 제주도 방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80쪽) ㅁ음가 추정과 제주도 방언의 ㅁ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것으로 언어지리학에서 중시되어야 될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227 ; 276쪽) ㅁ음은 아오의 간음(間音)이라.

볼 수 있는 것 33어를 뽑았지만 전동어(全同語)는 게(어미), 아리, 우박 등 3개어뿐이다. 그러나 이 마래어가 제주어에 미친 관계는 필리핀어(比島語)보다는 분명히 깊다.

제주도방언과 필리핀어(比島語)

필리핀어에는 3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세력있는 것은 Manila를 중심으로한 여송도(呂宋島 ; Luzon)에서 쓰이는 Tagaloc어와 세부도(島)(Cebu ; Zebu)를 중심으로 하여 쓰이는 Visaya어인데 근년에는 Tagaloc어가 Philippine 국어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단연 전성(全盛)이다. 그러나 제주도 방면과 관계있는 정도는 북방의 Tagaloc어보다도 남방의 Visaya어가 일층 인연이 많다.

조다(刻)와 쪼다(啄)

고어로는 모두 같이 ‘쫘다’요 제주어로는 같이 ‘조스다’이니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서 변화했을 것 같다.

쫘다 → 조스다 → 조다(刻) → 쪼다(啄)

(고어) (제주어) (현대표준어) (현대표준어)

‘짐승의’ 변천

여러 고어와 제주어를 포함시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성성 → 증성 → 증승 → 짐승(현대표준어)

중성(衆生) → 중생 → 중심

↘ 중승(제주어)

ㅃ 음의 변천

고어에 나오는 ㅃ음은 육지에서는 대개 ㅈ로 변하는 한편 제주도에서는 ㅈ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어 표준어 제주어

ㅃ다 짜다(鹹) ㅈ다

딱	짝(雙)	착
블뵈다	블쪼다(焔)	블헤우다

찰떡

고어로는 ‘춧떡’이요 제주어로는 ‘출떡’이니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고 변화했을 것 같다.

춧떡 → 출떡 → 찰떡
 (고어) (제주어) (현대표준어)

참쌀

고어로는 ‘춧쌀’ 혹은 ‘춧쌀’이요 제주어로는 ‘츨쌀’이니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고 변화했을 것 같다.

춧쌀 ㄱ
 ↓ | → 츨쌀 → 참쌀
 츨쌀 ㄴ (제주어) (현대표준어)
 (고어)

첩(娵)의 고어의 변천.

식앗 → 씨앗 → 씨왓 → 씨왓
 (고어) (육지어) (경상도 및 남제주어) (북제주어)

파리(蠅)의 어원과 그 변천

고어로는 ‘폴’, 제주어로는 즉 ‘포리’인데 그 양어(兩語)의 중간에 ‘폴이’의 계단(階段)이 있었을 것이다.

폴 → (폴이) → 포리 → 파리
 훈민정음 추상어 제주어 현대표준어
 (1446) (推想語)

하늬바람

제주도에서는 ‘한이브름’은 북풍(北風)이고 ‘서한이브름’은 서북풍이

니 ‘한이’란 말은 ‘北’이란 뜻으로만 알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한림면 저지리에 있는 북촌을 ‘하니꼴’이라고하니 ‘하니’ 혹은 ‘한이’는 분명히 북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늬바람’의 원말은 ‘하늬’요 ‘하늬’는 ‘한의’ 즉 한의(寒意)에서 유래된 모양이니 ‘하늬바람’은 ‘찬바람’의 뜻도 된다. 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한풍(寒風)은 북에서 불어오는 것이니 한풍(寒風)이자 북풍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3. 역사(歷史)

감귤과림(柑橘科斂)의 폐(弊)

이조 세조조(世祖朝)에 벌써 관원(官園)의 부족을 보충키 위하여 사(私)의 것을 과림(科斂)하므로 심한 자는 뽑아던지는 예를 들고, 성종조(成宗朝)에도 발수거근(拔樹去根)의 민폐(民弊)를 지적하였고, 영조는 1748년에 민가가 과림을 두려워서 만일 감귤이 열리면 탕수(湯水)로 요살(澆殺)하는 폐(弊)있음을 듣고 제주에서 상납한 지실(枳實)이 예납(例納)이 될까 염려하여 특히 맛보지 않고 환송(還送)한 일도 있었다. 이 감귤은 제주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고 전라·경상도 연해지(沿海地)의 공통의 문제였는데 이지봉(李芝峰), 유반계(柳磻溪), 정다산(丁茶山) 등도 그 폐를 다 지적하였다.

고려때의 도요(島擾)

문헌에서 다음의 10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려가 차차 망해가는 과정을 명시하는 것 같다. 더우기 고려 말년에는 원(元)의 간섭이 많았고 제주는 명산(名産)인 말로 인하여 화(禍)를 많이 보았다.

- ① 의종(毅宗) 22년 겨울 11월(1168년)

- ② 신종(神宗) 5년 겨울 10월(1202년)
- ③ 원종(元宗) 8년(1267년)
- ④ 원종(元宗) 11~14년(1270~73년, 삼별초의 난)
- ⑤ 충숙왕(忠肅王) 5년 2월(1318년)
- ⑥ 공민왕(恭愍王) 5년 겨울 10월(1356년)
- ⑦ 공민왕(恭愍王) 11년 8월(1362년 목호난(牧胡亂))
- ⑧ 공민왕(恭愍王) 18년 9월(1369년, 목호난(牧胡亂))
- ⑨ 공민왕(恭愍王) 21년 여름 4~6월(1372년)
- ⑩ 신우(辛禰) 원년 겨울 11월(1375년)

고려 때의 제주도 관리

국가가 건전할 때는 이런 지방관리에는 특히 선(善)한 관리, 특히 악한 관리(官吏)랄 것이 없을 것이다. 고려도 후반기 특히 말기에 이르러서는 제주도 관리가 대부분이 학정(虐政)을 했다는 것보다 도둑질들을 하였었다. 제주도의 도요사(島擾史)가 이것을 명백히 교시(敎示)한다. 이런 때에 현관(賢官)도 나타나는 것이며 최척경(崔陟卿), 김구(金丘), 경세봉(慶世封)과 김지석(金之錫), 이백겸(李伯謙)과 송영(宋英), 임박(林樸) 등은 그 예들이다. 대부분의 학정한 관리 중에서도 그 대표될 자로는 라득황(羅得璜)을 들 수가 있겠고 원종(元宗) 원년 정월에 제주부사 라(羅)가 제주방호사(濟州防護使)를 겸하였는데 도민들은 그를 대도(大盜)라고 하였다.

고려 성종(成宗)의 지방관제

성종 2년(983년)에 외관(外官)을 두었는데 동14년에 개혁(改革)하고 왕경 개주(王京 開州)를 개성(開城)으로 개칭하고 경기(京畿) 외를 10도로 분할하였다. 그런데 영주(瀛州)는 현재의 전북 전부와 전남 일부로 된 강남도(江南道)에 속하였고 나주, 광주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남

대부분으로 된 해양도(海陽道)에 속하지 않았었다. 그후 현종(顯宗) 9년 (1018년)에는 강남도와 해양도의 2도를 합해서 전라도로 하였다.

고사(古史)에 있는 기록

서기 3세기반 경 진(晉)의 진수(陳壽)가 쓴 위지(魏志)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호(州胡)란 것이 있는데, 마한(馬韓) 서해 중 대도상(大島上)에 있다. 그 사람은 약간 단소(短小)하다. 언어는 한(韓)과 부동(不同). 모두 곤두(髡頭)인 것은 선비(鮮卑)와 비슷하고 위(韋 : 가축)를 입는다. 우(牛) 및 저(猪)를 호양(好養). 그 옷은 유상무하(有上無下). 선박으로 왕래하고 중한(中韓)과도 교역한다. 주호란 제주도의 별칭으로 이것이 최고(最古)의 기록이겠다.

공마(貢馬)

대개는 3세의 장마(壯馬)를 마감감독하(馬監監督下)에 수인(數人)의 목자(牧子)가 따라 마선(馬船)이란 큰 선박에 적수(積輸)하였다. 발선지(發船地)는 왕시(往時)는 함덕(咸德), 조천(朝天), 별도(別刀), 명월(明月), 애월(涯月), 강정(江汀) 등의 포구였지만 후에는 조천, 별도, 함덕 등이 주로 되었었다. 상륙지는 해남(海南), 강진(康津)지방 연안이었고 육로로 서울 동대문(東大門) 밖 국립목장(國立牧場)에 끌어들여 공납수속(貢納手續)을 마치고는, 이 국립목장에서 그 용도를 결정하고 조교(調教), 장제(裝蹄)를 행하였다.

관덕정(觀德亭)

이 이름의 누정(樓亭)이 제주도에도 있다. 세종(世宗) 무신(戊辰 ; 1448년)에 목사 신숙청(辛淑淸)이 건설하고 그후 여러번 중수(重修)한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최고(最古) · 최대(最大) · 최장(最壯)의 것이지만 대수롭지는 않다.

국가성(國家性)

제주도가 절해고도요 도민의 시조(始祖)가 전설로 시작되었고 그 밖에도 전설, 기문(奇聞), 기록과 시설(施設)이 많아서 소형이나마 일국가의 체재를 구비한 섬이었다. 그러나 소국가(小國家)의 체재로 침략 받은 사실과 기록이 많고 도요(島擾)도 누차(屢次) 있었고 또 천재(天災)로 곤란(困難)당한 사실도 많았다.

군비(軍備)

성곽(城廓)이 15개나 있었고, 육해군의 시설인 방호소(防護所)의 10진(鎭), 수전소(水戰所)의 10포(浦)가 대개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봉수(烽燧)는 50여 처에 있는 등 제주도가 일국가의 체재를 가졌었다.

노정(盧正)

제주도 삼기(三奇)의 하나인 유명한 말이다. 정조(正祖) 정사(丁巳; 1797년)에 어승생악(御乘生岳) 하(下)에서 말이 용종(龍種)을 낳았기 때 문에 목사 조명즙(曹命楫)이 이를 왕께 헌납하였더니 상(上)이 노정(盧正)이라 사명(賜名)하시고 가자(加資)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대기(大饑)

고려 때의 기록적 대기(大饑)는 충렬왕(忠烈王) 3년 3월에 있었고 사자(死者)도 적지않은 모양으로 국가적 기록이었다.

도민의 기질(氣質)과 이조의 쇄국정책(鎖國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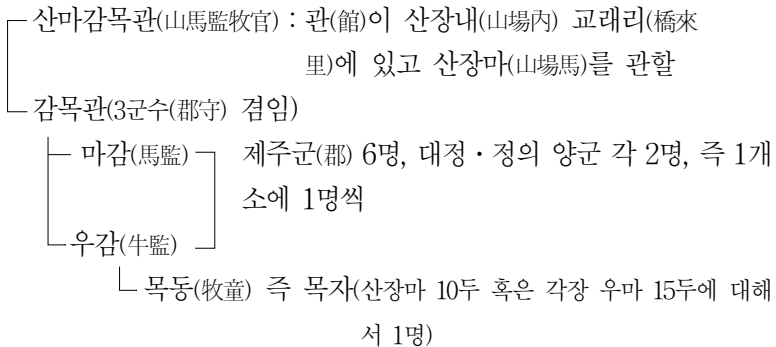
이조 때에 외국무역을 만일 허용했던들 도민은 용한유위(勇悍有爲)의 항해업자가 되어 남북지나(支那), 류큐(琉球), 일본, 남양(南洋) 간(間)을 왕래하여 거리(巨利)를 접했을 뿐만 아니라 도풍(島風)도 현재와는 다를 것이고 한국 전체의 역사가 별도(別途)를 걸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는 한일합병후에 오사카(大阪) 등지에 있는 한국인 부락은 대부분 본도민이 형성한 것이다.

유배지(流配地)

고래(古來)로 제주는 정배(定配)가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사실상 많은 인사(人士)가 이곳에 유배되었고 인조(仁祖) 19년(1641년)에는 폐주(廢主) 광해군(光海君) 같은 이도 이곳서 졸(卒)하여 왕은 3일간이나 휴무(休務)하고 예조(禮曹)관원을 보내어 일등의 예(禮)로 호상(護喪)하였다. 그에 앞서 명종조(明宗朝)에는 승(僧) 보우(普雨)를 귀양보냈다가 죽였고(1565년), 그후 숙종(肅宗) 15년(1689년)에는 송시열(宋時烈), 융희(隆熙) 원년(1907년)에는 박영효(朴泳孝)같은 이도 이곳에 정배왔었다.

목관(牧官)

하기(下記)의 계급(階級)이 있었다.



목마(牧馬)

고려 의종(毅宗 ; 1147~70년)때에는 축마요식(畜馬料式)을 정하고 목마(牧馬)에 유의(留意)하였는데 그후 또 제도(諸島)에 말을 방목하였다. 탐라는 가장 성적이 좋아서 원(元)의 세력이 한반도에 침입하면서부터는 탐라마는 원으로 많이 가게되고 얼마동안은 탐라가 원에 직할되게까지 되었다. 그후 이조 숙종 갑신(甲申 ; 1704년)에는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10개소로 정리하고 각소에 마감(馬監)을 배치하였었다. 1~6

소는 제주에, 7~8소는 대정현에, 9~10소는 정의현에 소재하였다.

목사(牧使)

이태왕(李太王) 이전 관제(官制)에 있던 지방문관(地方文官)의 직명으로 지방문관의 순서는

- ① 유수(留守),
- ② 감사(監司; 觀察使兼巡察使),
- ③ 부윤(府尹),
- ④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⑤ 목사(牧使),
- ⑥ 군수(郡守),
- ⑦ 찰방(察訪),
- ⑧ 교수(教授),
- ⑨ 훈도(訓導) 등.

목사는 지방(地方)에 20원(員), 그중 전라도에는 4목(牧)으로 나주목(羅州牧), 제주목(濟州牧), 광주목(光州牧), 능주목(綾州牧) 등이었다. 이 목사의 관직은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고려 성종(成宗)은 목사 12인을 두게하고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게 하였다. 그후 이조 태종조에 와서는 목(牧)이 군(郡)으로 강등하였고, 세조(世祖) 11년에 이르러 목으로 복구(復舊)되었다가 이조말에 와서는 제주도에만 목사를 남기었다. 아직도 제주도민은 도사(島司)를 현재의 목사라 하고 도청소재지인 제주는 옛날 목사 즉 목관(牧官)이 있던 곳이라 해서 그대로 지명이 되었고 그것이 약간 변해서 '모관'으로 되었다. 옛날의 목사는 최근까지의 도사와 다르고 그 직권이 일층 강했고 말하자면 제주왕이였었다. 이조의 목사의 관등(官等)은 정삼품(正三品)이었다.

목사배(牧使輩)의 악마적(惡魔的) 향락

옛날의 제주 목사는 제주왕이었다. 전권(專權)을 가졌던 관계로 악한 목사는 악행을 많이 하였는데 그 대표가 될 악마적 향락은 중문원관폭(中文院觀瀑) 고사(故事)이다. 즉 중문원은 천제연(天帝淵) 동안(東岸)에 있었고 목사가 도내를 순행하다가 쉬던 곳인데 무사(武士)를 모아 활을 쏘게하고 사람을 시켜 허공에 걸린 장삭(長索)에 매달려 화살을 주어오게 하였다.

목사의 사진(寫眞)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 1905년)에 있는 사진판 중 제주 목사 홍종우(洪鍾宇)의 사진이 있다. 아마 이것이 목사의 사진으로는 처음으로 소개된 것일 것이다. 홍목사는 또 이 안내서에 서문도 썼다.

목호난(牧胡亂)

고려 공민왕 11년(1362년) 8월, 동 18년(1369년) 9월에, 몽고인으로 낙재(落在)하여 목축을 업으로 하는 소위 목호가 원나라의 강요에 의하여 하는 정부의 과도한 징마(徵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 목호의 반란을 평정하고 잔당을 체포(逮捕)하여 관아의 노예로 삼으니 관노의 수가 대증(大增)하였다.

백록담(白鹿潭)에서 처음으로 수영한 사람

1905년 9월 13일 일인(日人) 이치카와 상키(市河 三喜)와 그의 통역인 김용수(金龍水)의 양씨(兩氏)는 입도 월여(月餘)만에 이날의 청천(晴天)을 이용하여 산중의 천막(天幕)에서 산정(山頂)을 처음으로 왕복함에 성공하였고 또 백록담에서는 수영까지 하였다.

별공(別眞)

이조 때에는 지방의 물산을 현물(現物)로 중앙에 진상케 하여 이것

을 공(貢)이라 이르니 공(貢)은 지방민의 일대(一大) 부담(負擔)이요, 또 일대 고통이었다. 공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의 두 가지가 있는데 상공은 어디서나 산출하는 것을 공헌하는 것이고 별공은 제주의 감귤과 같은 지방의 특산물을 공납하는 것이었다.

봉수(烽燧)

제주도에는 약 60개소의 요지(要地)에 연대(煙臺)가 있었고 그중 직봉(直烽)은 25, 간봉(間烽)은 38이었고 방원(防員)은 5일마다 교대(交代) 하였으니 그 연인원(延人員)은 실로 막대하였다. 그때(이조)의 한국 본토의 수소(燧所)도 700은 되었었다고 한다.

산장마(山場馬)

이조 현종(顯宗)대왕 유세(酉歲; 1669년)에 김만일(金萬鎰)의 아들 대길(大吉) 및 손자 축(囑)의 2인은 양마(良馬) 208두를 헌납하였는데 이것이 즉 산장마이다. 이때의 목사 이회(李檜)는 대길을 감목관에 선발하고 왕의 칙재(勅裁)를 받아 그 자손에게 그 직을 세습케 하고 제주·정의 양군계(兩郡界)에서 한라산에 걸친 산장(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을 창설하였는데 감목관의 관(館)은 교래리(橋來里)에 두었다. 이것이 본도의 감목관 및 산장의 효시이다. 이후부터 마필이 성(盛)히 번식하고 10년 후에는 100여두에 달하고 매 3년에 200두씩을 왕에게 헌납하였다.

삼국시대의 주거

삼국이 다 조와술(造瓦術)이 발달했지만 와옥(瓦屋)이 많은 곳은 신라였고 고구려에는 초옥(草屋)이 많았었다. 탐라에서는 여름은 혁옥(革屋)을, 겨울은 굴실(窟室)을 사용했다는 고기록이 있다(임태보(林泰輔), 1892년). 이 혁옥이란 것은 흥미있는 것으로 이 섬에 몽고풍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수피(獸皮)를 많이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삼군(三郡)시대의 군세비교(郡勢比較)

요시다 에이자부로(吉田英三郎; 1911년)에 의하면 제주군은 크고, 정의·대정 양군은 작았다. 즉 제주군은 전라남도 29군 중의 제5위요 양군은 말위(末位)의 제28, 29위였다. 이제 3군을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산림 : 목장 : 경지	호수	한국인수	일본인수
제주	3 : 1 : 6	2만1천 여	78,000여	170
정의	4 : 1 : 5	7천 여	30,100여	-
대정	3 : 1 : 6	5천 여	17,800여	50여

삼기사절오호(三奇四絶五虎)

삼기(三奇)는 승 혜일(僧 慧日), 기 만덕(妓 萬德), 마 로정(馬 盧正)이고, 사절(四絶)은 고흥진(高弘進), 진국태(秦國泰), 양유성(梁有成), 문영준(文榮俊)이고, 오호(五虎)는 양정훈(梁廷勳), 부도일(夫道一), 김용우(金用雨), 신성흠(愼性欽), 이최영(李最榮)이었다.

삼별초(三別抄)

고려 때 최우(崔瑀)가 국중(國中)에 도적이 많음을 걱정하고 용사(勇士)를 모집하여 밤마다 순행경위(巡行警衛)케 하고 이를 야별초(夜別抄)라 칭하였는데 후에 도적이 각도(各道)에 봉기(烽起)하므로 별초를 나누어 보내 체포(逮捕)케 하였다. 그 병수(兵數)가 지나치게 많아지자 드디어 좌우(左右) 이부(二部)로 나누고 그 위에 몽고에서 도귀(逃歸)한 자를 모아서 이를 신의군(神義軍)이라고 호(號)하여 소위 삼별초의 명(名)이 생겼다. 유명한 삼별초의 난은 제주도에서 끝나치었다.

삼별초란(三別抄亂)의 경과(經過)

편의상 전후 양기(兩期)로 나누어 볼 수가 있으니 전기는 즉 배중

손(裴仲孫), 노영희(盧永禧) 등이 중심이 되어 승화후(承化侯)를 추대(推戴)해 가지고 진도(珍島)에 입거(入據)하여 한 국가의 체제로써 항전(抗戰)하던 때이며 후기는 진도가 공함(攻陷)된 후에 김통정(金通精) 등의 새로운 중심인물이 출현하여 제주로 들어가 항전하던 시기이다. 원래 이 전후의 양기는 서로 계속된 것으로 그들의 목표와 동향에는 하등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체제상으로, 또는 세력상으로 보면 후자 즉 후기에 이르러서는 벌써 삼별초의 위세는 옛날의 모습을 잃게 된 것이었다.

삼별초의 난

고려 제19대 명종(明宗) 26년(1196년)에 장군 최충헌(崔忠獻)이 경계(庚癸) 이래의 위권(威權)을 전횡(專橫)하던 이의민(李義旻)의 당족(黨族)을 진주(盡誅)한 후 명종을 폐(廢)하고 신종(神宗)을 세워 정권을 전집(專執)하고 그 아들 우(瑀; 怡), 손자 항(洸), 증손(曾孫) 의(堧)의 4세(63년간)에 걸쳐 전정(專政)이 계속되었다. 삼별초는 좌우군(左右軍)과 신의군(神義軍)을 말함이니 원래 최우(崔瑀)가 용사를 모집하여 편성한 것인데 제24대 원종(元宗)에 이르러는 군정(軍情)이 위외(危疑)하여 장군 배중손(裴仲孫), 김통정(金通精) 등이 그 병(兵)으로써 대항하여 진도(珍島)를 경유해서 탐라에 찬입(竄入)한 것을 12~14년(1271~73년)에 여장(麗將) 김방경(金方慶), 나유(羅裕), 원장(元將) 혼도(忻都; 篤), 홍다구(洪茶丘) 등의 대병(大兵)이 평정하였다.

삼별초의 제주입거(入據)

고려 원종 12년(1271년) 5월에 진도가 함락(陷落)되어 김통정이 삼별초의 잔당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년(1270년) 11월초 3일에 삼별초의 장(將) 이문경(李文京) 등이 명월포(明月浦)로부터 상륙하여 동제원(東濟院; 州東9里)에 진(陣)을 베풀고 방어군(防禦軍)을 송담천(松

淡川；州東13里)에서 역습하여 병 200으로써 제주를 지키던 영암부사(靈岩副使) 김수(金須)와 병 70을 거느리고 입도한 장군 고여림(高汝霖)을 비롯하여 전군(全軍)을 섬멸(殲滅)하고 수륙 교통의 요지인 조천포에 웅거(雄據)케 되었다.

신축민요(辛丑民擾；1901년)

천주교도가 프랑스 선교사 구마슬(具瑪瑟), 문재만(文在萬) 양인(兩人)을 믿고 횡포(橫暴)함을 도민들이 응징하려고 오대현(吳大鉉), 강우백(姜佑伯), 이재수(李在守) 삼인이 선봉(先鋒)이 되어 제주도 유사(有史) 이래 최대의 난을 일으켰다. 서로 많은 희생을 내고 결국 도민측의 승리으로써 천주교도의 횡포가 없어졌다. 그때의 교도의 희생은 600명에 달하였고 프랑스 및 일본군함 각 1척이 내항(來航)하고 한국정부로부터 진영대(鎭營隊) 1중대(中隊)가 파견되어 왔지만 벌써 폭도진정(暴徒鎭定) 후의 일이었다.

역사적 특산물

옛날부터 상수(上需)에 제공한 것은 전도에 방목된 준마(駿馬)와 집집이 재배한 감귤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국영(國營)의 시설이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또 제주도의 형승(形勝)도 만든다.

염한(鹽漢)

옛날에 제주의 두모(頭毛), 대정의 일과(日果), 정의의 종달(終達) 등 3처(處)에서 관염(官鹽)을 만들던 사람.

오다(小田)의 조선소사연대표(朝鮮小史年代表)에 있는 제주도에 관한 기록

고려 원종(元宗) 10년(1269년)에 몽고가 탐라를 토평(討平)하다라는 기록뿐이 있으니 이 사건이 제주도에 관한 사건중 국가적으로 볼 최대의 사건일까. 이것은 삼별초의 난(원종 11~14년, 1270~73년)을 토평한 것으로 생각되니 연대는 원종 14년(1273년)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유배된 양반의 생활

이조에 들어서서 제주도는 유배지로 되었다. 양반들이 섬에 오면 어떤 집에 기숙(寄宿)하고 특히 중직죄인(重職罪人)이나 목사에게 원(怨)이 없는 사람은 구속(拘束)을 아니 받았다. 일용의식(日用衣食) 거리는 가향(家鄉)의 자력(資力)이 넉넉할 때는 송래(送來)되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근 자제(子弟)에게 독서시문(讀書詩文)을 교수(教授)하여 지내게 되었는데 대개 그들은 명문(名門)의 경인(京人)이니 제주 양가(良家)에서도 그들을 선대(善待)하고 그 자제들을 사환(使喚)으로 까지 제공(提供)하였다.

육지와와의 최초의 교의(交誼)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년)에 세공(歲貢)을 들이다. 당시 백제의 국도(國都)는 웅진(熊津) 즉 현 공주(公州)인데 문주왕이 즉위하고 곧 광주(廣州)로부터 이곳에 이도(移都)한 익년(翌年)의 일이다.

이조때의 도요(島擾)

문헌에서 다음의 5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려 때의 도요와 같이 말조(末朝)에 많았다.

- ① 철종(哲宗) 13년(1862년)-임술요(壬戌擾)
- ② 고종(高宗) 태상(太上) 27년(1890년)-경인요(庚寅擾)
- ③ 고종 건양(建陽) 원년(1896년)-병신요(丙申擾)
- ④ 고종 광무(光武) 2년(1898년)-무술요(戊戌擾)
- ⑤ 고종 광무 5년(1901년)-신축요(辛丑擾)

이조말경까지 남아 있던 성내(城內)의 누정(樓亭)

관덕정(觀德亭), 망경루(望京樓), 제주루(濟州樓), 정원루(定遠樓), 공진루(拱辰樓) 등이 있지만 현재는 관덕정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조말경의 관리의 봉급(俸給)

목사는 1개년 1만냥(萬兩)(2千圓), 검률(檢律), 군수(郡守) 등은 4,500냥(900원)이고, 주사(主事; 書記)는 1개월 15원 내외였다. 그리고 이 봉급은 전도의 수세(收稅) 중에서 지출하는데 전도의 각세는 6만냥이니 관리의 봉급을 지불하고 서울 탁지부(度支部)에 납입(納入)하는 잔액은 2만냥 내외였다.

이조말경의 부군(府郡)의 등급

전라남도에는 등급이 1~5가 있었는데 1등급은 6개중 제주(목)이 그 하나이고, 5등급은 2개인데 대정과 정의뿐으로 5등급의 군은 제주도에만 있었다. 뿐만아니라 당시 있던 9부 1목 331군중 5등급의 군은 대정과 정의의 2개 뿐이었다.

이조말경의 3읍(邑) 8진(鎭)

3읍 : 일성내(一城內), 정의, 대정 등.

8진 : 조천(朝天), 화북(禾北), 별방(別防), 해방(海防), 명월(明月), 애월(涯月), 서귀(西歸) 등.

이조말경의 어법(漁法)

양승(鱉繩), 조승(鰯繩), 잠수기(潛水器), 건망(建網), 일본조(一本釣), 나체정(裸體艇).

이조말의 도정(島政)

1부(府) 3군(郡)으로 제주부(府·郡), 정의군, 대정군이요, 부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와 검률(檢律)이 있고 각각 그 관청(官廳)을 목사아문(牧使衙門), 군아문(郡衙門), 재판소(裁判所)라고 하였다. 그리고 목사는 행정·사법의 전권(全權)을 갖고 도민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까지 수중에 둔 말하자면 제주도의 왕이었다. 형식으로는 도민이 목사에게 불복(不服)할 때는 서울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 실례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조말의 외척전횡(外戚專橫)

철종은 1녀를 두었을 뿐이요 후사(後嗣)가 없었으므로 일찍부터 다음 왕위 문제에 대하여 김족(金族)들 사이에 여러가지 의논(議論)이 비등(沸騰)하였던 동시에 그네들은 자파(自派)의 장래를 위하여 음험(陰險)한 수단으로 먼저 왕족 중에 현명하고 인망있는 인물을 제거코저 하게 되었는데 그 독수(毒手)에 희생당한 대표적 인물은 이하전(李夏鎭)이고 끝끝내 역적도모(逆賊圖謀)라는 억울한 죄명으로 원사(冤死)케 되었다. 또 왕족의 1인인 경평군(景平君) 옥(昱)은 제주도로 유배케 되어 당시 왕족이나 반외척(反外戚)의 상당한 인물로서는 어느때 어떤 죄명으로 하전이나 옥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될는지 모를만치 공포시대를 이루었다.

이조 성종(成宗) 때의 관제

경국대전(經國大典; 성종 2년, 1471년)에 의하면 외관직제는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

목사(牧使) 1원(員) 정삼품(正三品)(제주)

판관(判官) 1원 종오품(從五品)(제주)

현감(縣監) 2원 종육품(從六品)(대정, 정의)

심약(審藥) 1원 종구품(從九品)(제주)

검률(檢律) 1원 종구품(從九品)(제주)

병전(兵典)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1원 정삼품(正三品)(제주진)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4원 종육품(從六品)(제주진, 제주진관(鎭管), 대정, 정의)

공전(工典)

야장(冶匠) 2원, 궁인(弓人) 1원, 시인(矢人) 1원, 목장(木匠) 1원, 피장

(皮匠) 1원, 칠장(漆匠) 1원, 유장(鑪匠) 1원, 갑장(甲匠) 1원(제주)

이조시대의 도민의 탄가(嘆歌)

日出而作日入而息

帝力何有於我哉

擊壤以食鑿井以飲

帝力何有於我哉

낮이 밝으니 농사 짓고

해가 지니 들어가 쉰다

나라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나

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나라의 힘이 나에게 무엇일까

이조시대의 제주도

일국내(一國內)의 일지방시(一地方視)하지 않고 일속령(一屬領)으로 다루어졌으며 중범(重犯)의 정배처(定配處)였다. 골림서원(橋林書院)에 향사(享祀)한 김충암(金沖庵), 송규암(宋圭庵), 김청음(金淸陰), 정동계(鄭桐溪), 송우암(宋尤庵) 등 5인중 충암, 동계, 우암의 삼인은 유인(流人)이었고 최근에 이르러 유명한 제주 유배의 양반은 김정희(金正喜), 김윤식(金允植), 이승오(李承五), 박영효(朴泳孝) 등의 4사(士)가 있다.

이조의 구휼(救恤)

신정언(申鼎言)저 구휼국사(救恤國史; 1946년)에 기재된 구휼은 다음과 같은 이조의 구휼뿐이다.

인조 7년(1629년), 효종 10년(1659년), 현종 13년(1672년), 숙종 2년(1676년), 동 7년(1681년), 동 40년(1714년) 정종 7년(1783년), 철종 2년(1851년) 등 8차의 구휼만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 8차의 재앙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조의 최초의 군마징용(軍馬徵用)

인조 5년(1627년) 정월에 변비사(邊備司)가 계(啓)하여 왈(曰) 제주인 김만일(金萬鎰)은 축마(畜馬) 1만에 이르러 한라산의 태반(殆半)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국토에서 풀을 먹게 하여도 국가의 사(賜)아님이 아니요 십중기구(十中其九)를 징용한대도 불가라 할바 아니니 만(萬)중 천(千)쯤 취함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주에 명하여 먼저 장마(壯馬) 천필을 상송(上送)케하여 군마에 보충코저하니 왕은 명하여 사오백필에 한하여 헌납케 하였다.

1845년(헌종 11년 을사)경의 주요 관원

관찰사(觀察使)와 동권(同權)의 정삼품(正三品)인 제주 목사를 최고관(最高官)으로, 정의, 대정 양현에는 종육품의 하급 군수인 현감이 있고 기타 제주부에는 판관, 교수(教授) 각 1명, 정의, 대정 양현에는 훈도(訓導) 각 1명이 있었다. 목사는 안무사(按撫使),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라고도 했다.

1911년 6월 13일 현재의 지방행정구역

12부 317군 4,356면중 제주도는 3군 12면이 있다. 즉

제주군 : 구좌(舊左), 신좌(新左), 중(中), 신우(新右), 구우(舊右)의 5면.

정의군 : 좌(左), 동중(東中), 서중(西中), 우(右)의 4면.

대정군 : 좌(左), 중(中), 우(右)의 3면.

1912년 1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

제주군 5면 88동리(洞里)

정의군 4면 44동리

대정군 3면 35동리

합 3군 12면 167동리

일문쌍절(一門雙節)

조정철(趙貞喆)의 문구인데,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자기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홍의랑(洪義娘)과 그 언니 이참판(參判) 형규(亨逵)의 부실(副室)이 참판의 죽음에 순(殉)하여 음독자살(飲毒自殺)한 것을 일컬어 일문쌍절이라 하였다.

제주도의 주마기(走馬技)

이능화(李能熙; 1927년)에 의하면 제주에는 몽고 때부터 목장이 있었고 말을 다산(多産)한 때문에 주기(州妓)는 주마지기(走馬之技)를 가진 것이 풍토에 의한 것으로 그럴듯하다고 하였다. 현재는 제주기(濟州妓)란 특색있는 존재는 없고 제주도에 있는 기생(妓生)이라면 육지로부터 건너간 여자가 대부분으로 고풍(古風)의 제주기(濟州妓)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도 결혼식에는 여무(女巫)가 주마(走馬)하는 풍(風)을 보이니 옛날 제주기의 주마기를 연상시키는듯 하다.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 李太王 10년 병오(丙午) 손(孫) 관휴(觀休) 간행)에는 ‘제주성관기주마(濟州城觀妓走馬)’라고 해서 2편의 노래까지 실려있다.

제주도 약사(略史)

최고(最古) 문헌에는 주호국(州胡國)이란 독립국으로 그 종족과 문화가 한(韓)과는 상이(相異)하다고 알려져있고 후에는 탐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글짜로 쓰이는 일국(一國)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양고부(良高夫) 3성의 분치(分治) 하에 있다가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년) 조공(朝貢)을 바치기 시작하고 이어 신라에 항속(降屬)하였다.

고려가 신흥(新興)하매 태조 21년(938년) 즉 통일후 2년에 탐라 국주(國主)의 태자(太子) 말노(末老)가 와서 그 부자(父子)가 수작(受爵)하고는 신라에 대한 것 이상의 성의로 고려에 복사(服事)하여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졌다. 고려의 팔관회(八關會)에는 반드시 궂(橋), 전복(全腹)의

토산(土産)을 내헌(來獻)하고 여진(女眞), 왜(倭)와 병렬(併列)하여 외국 손님으로 참례하더니 숙종 10년(1105년)에는 탐라군(耽羅郡)으로 만들어 비로소 내지(內地)의 군현(郡縣)에 열(列)케하고 의종(毅宗)때에는 군을 현(縣)으로 하고 충렬왕(忠烈王) 21년(1295년)에는 탐라를 제주로 개칭하여 목사의 치(治)를 보게되었다. 이조에 와서는 그것을 계승하여 대체로 제주에 목사를 두고 그 아래에 대정, 정의의 양현을 설치하였더니 일정(日政) 시에는 다이쇼(大正) 4년(1915년)에 도제(島制)가 실시되어 도사(島司)가 전라남도장관 하에 관할하다가 해방후는 얼마 안되어 1946년에 도제(道制)가 실시되어 지사(知事)가 임명(任命)되었다.

제주도와 고구려(高句麗)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북방에 위치되었으니 제주도와는 가장 관계가 적었다는 것보다 거의 없었다. 다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 9, 문자왕(文咨王) 13년 여름 4월조에 ‘가(珂)는 섭라(涉羅)의 산(産)’이란 문구와 ‘섭라(涉羅)는 백제(百濟)의 병(併)한 바’란 것이 보일 뿐이다.

제주도와 고려(高麗)

신라 경애왕(景哀王) 원년, 후백제 33년, 즉 고려천수(天授) 7년(924년) 11월에 탐라는 방물(方物)을 고려에 바쳤고 그후 12년 즉 태조 19년(936년)에 태조는 천하를 통일하였다. 천하를 통일한 2년후 즉 태조 21년(938년) 겨울 12월에 탐라성주(耽羅星主), 왕자에게 작(爵)을 하사하여 번신(藩臣)을 작(作)한 것만으로도 제주도는 삼국시대에 비해서 꽤 중요시되고 따라서 거래도 많았다. 여사제강(麗史提綱)에 기재된 제주도 관계건만도 약 50이고 본도 출신으로 고관(高官)에 취임한 이도 있었다.

제주도와 백제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왕(文周王) 2년(476년) 여름 4월조에 탐라국이 방물(方物)을 바침에 왕은 기뻐하시고 사자(使者)를 배(拜)하여 은술

(恩率)로 했다는 구(句)가 있고, 동성왕(東城王) 20년(498년) 8월조에 탐라(耽羅)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므로 왕이 친정(親征)하여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耽羅, 즉 耽牟羅國)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 이를 막았다는 구(句)가 있고, 위덕왕(威德王) 36년(589년)조에는 수(隋)의 전선(戰船) 일척(一隻)이 탐모라국(耽牟羅國)에 표착(漂着)한 것을 후대(厚待)하여 환송(還送)한 기록 등이 있다.

제주도와 신라

삼국사기에 의하면, ① 문무왕(文武王) 2년(662년)조에 탐나국주좌평도동음률(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一作津)이 내항(來降)하고 백제가 망했으니 이로부터 신라의 속국으로 되었다는 구(句)가 있고, ② 문무왕(文武王) 5년(665년)조에 유인궤(劉仁軌)가 신라, 백제, 탐라, 왜인(倭人)의 사국사(四國使)를 받아들이고 부해서환(浮海西還)했다는 구(句)가 있고, ③ 문무왕 19년(679년) 2월조에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약(略)했다는 구(句)가 있고, ④ 애장왕(哀莊王) 2년(801년) 겨울(冬) 10월조에는 탐라국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했다는 구 등이 있다.

제주도와 외지(外地)와의 관계

제주도는 본래는 일독립국(一獨立國)이었는데 백제 문주왕 때 조공을 하여 백제의 속(屬)이 되었다. 백제가 신라에 병합됨에 따라 신라에 속하게 되었고 신라 후기에 30여년간 일본과 사신의 왕래가 있었지만 정지되었다. 그후 신라에 전속(專屬)되었고 신라가 고려에 인계됨에 따라 탐라도 고려에 속하게 되었고, 김통정(金通精) 등 반적(叛賊)의 난을 원(元)의 원병(援兵)으로 토평(討平)하고는 탐라는 원에 속하게 되고, 세조(世祖) 후비라이(忽必烈)의 사후(死後)에는 고려에 환부(還付)되었지만 도민(島民)이 원(願)해서 다시 원(元)에 속(屬)하게 되었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수복(收復)되었다.

제주도의 고관리(古官吏)

백제, 신라, 고려, 원, 명 등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고려로부터는 안무사(按撫使), 선무사(宣撫使), 순문사(巡問使), 지휘사(指揮使), 방호사(防護使), 부사(副使), 목사(牧使) 등을, 원으로부터는 초토사(招討使), 다루가치(達魯花赤), 정치사(整治事), 단사관(斷事官), 만호(萬戶), 초무사(招撫使) 등을 파견하였으며(백제, 신라는 미상), 이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첨절제사(兼節制使), 안무사(按撫使), 목사 등을 파견하여 지배하다가 태종 2년 임오(壬午; 1403년)에 이르러 영구히 조선 속(屬)으로 되었다.

제주도의 예속사(隸屬史)

본래는 탐라국이란 독립국이었고 후에는 영주(瀛州)라고 불리워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동(漢東), 한서(漢西)로 분할되었었다. 후에 백제, 신라 혹은 원조(元朝)에 예속되었다가 고려 충렬왕(忠烈王) 20년(1294년)에 고려에 이속(移屬), 동 28년(1302년)에 다시 원에 예속(隸屬)하고, 공민왕(恭愍王) 16년(1367년)에 원이 망하고 명태조가 즉위하자 다시 고려에 이속(移屬), 명태조 25년 즉 이조(李朝) 개국 원년(1392년)에 이조에 합병, 후에 1군 2현이었다가 3군으로 변경, 다이쇼(大正) 4년(1915년)에 폐군(廢郡)하고 도제(島制)가 생겼다.

제주의 분례(分隸)

태종 16년(1416)에 제주에 대정, 정의를 두고 17현을 분례하다.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 고려시대의 탐라에 관한 기록

- ① 문종 7년(1053년 정월) 탐라국의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기자배용(其子陪戎) 교위고물(校尉古物) 등을 보내어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櫃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을 바치니 왕은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을 수(授)하고 공복(公服), 은대(銀帶), 채단(彩段), 약물(藥物) 등을 하사하다.

- ② 고종 45년(1258년) 4월 ; 제주공마(貢馬) 및 최의(崔瑄)의 축마(畜馬)를 문무(文武) 삼품(三品) 이상에 분사(分賜)하다.
- ③ 원종 원년(1260년) 7월 ; 제주의 공마(貢馬)로써 동서(東西) 사품(四品) 이상에 하사하다.
- ④ 충렬왕(忠烈王) 2년(1276년) 8월 ; 원은 탐자적(塔刺赤)을 보내어 탐라의 다로가치(達魚花赤)로 하고, 말(馬) 166필을 가져다 방목하다.
- ⑤ 동년(1277년) 3월 ; 탐라대기(耽羅大饑)로 백성은 호(戶)를 함(闔)하고 죽은 자가 있다.
- ⑥ 동9년(1283년) 정월 ; 원은 백자개(伯刺介)를 파견하여 탐라에 향장목(香樟木)을 구하다.
- ⑦ 동20년(1294년) 5월 ; 왕은 원에 탐라를 돌려주기를 청하였고 허락되어 다시 제주로 호(號)하였다. 그때부터 원은 탐라에 목마(牧馬)하였는데 그 경토(境土)는 비록 반환했어도 마공(馬貢)은 예전같이 폐(廢)치 않다.
- ⑧ 충숙왕(忠肅王) 5년(1318) 5월 ; 상호군(上護軍) 배정지(裴廷芝)를 보내어 탐라존무사(耽羅存撫使)로 함.
- ⑨ 충정왕(忠定王) 원년(1349년) 8월 ; 원은 사신을 보내어 유유(糶油)를 제주에 구(求)하다.
- ⑩ 공민왕(恭愍王) 18년(1369) 9월 ; 왕은 원조(元朝)의 재인(梓人) 원세(元世)를 제주에 불러 영전(影殿)을 영위(營爲)케 함(後略)
- ⑪ 동21년(1372년) 11월 ; 대호군(大護軍) 김갑우(金甲雨)를 보내어 탐라의 말(馬) 50필을 경사(京師 ; 명(明)의 수도(首都))에 헌납함.
- ⑫ 동23년(1374년) 4월 ; 명의 태조 예부주사(禮部主事) 임밀자(林密孛)등을 보내어 탐라의 말(馬) 2,000필을 징(徵)함.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에 있는 제주도에 관한 기록

삼국시대에는 전무(全無)하고 고려 시대에는 12건, 이조에 들어서는 43건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교류가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 이조시대의 기근(飢饉)과 진정(賑政)에 대한 기록

- ① 인조(仁祖) 7년(1629년) 10월,
- ② 효종(孝宗) 10년(1659년) 3월,
- ③ 현종(顯宗) 11년(1670년) 8월,
- ④ 동12년(1671년) 정월,
- ⑤ 숙종(肅宗) 2년(1676년) 9월,
- ⑥ 동8년(1682년) 정월,
- ⑦ 동39년(1713년) 10월,
- ⑧ 동40년(1714년) 3월,
- ⑨ 동년 4월,
- ⑩ 동42년(1716년) 정월,
- ⑪ 동년동월,
- ⑫ 동년 3월,
- ⑬ 경종(景宗) 2년(1722년) 11월,
- ⑭ 영조(英祖) 8년(1732년) 11월,
- ⑮ 동 20년(1744년) 정월,
- ⑯ 동 22년(1746년) 정월,
- ⑰ 동 33년(1757년) 10월,
- ⑱ 동 44년(1768년) 6월,
- ⑲ 동 46년(1770년) 11월,

- ⑳ 정조(正祖) 8년(1784년) 11월,
- ㉑ 동 16년(1792년) 12월,
- ㉒ 동 18년(1794년) 4월,
- ㉓ 동19년(1795년) 윤(閏) 2월,
- ㉔ 동 20년(1796년) 정월,
- ㉕ 동년 2월,
- ㉖ 헌종(憲宗) 10년(1844년) 11월,
- ㉗ 철종(哲宗) 2년(1851년) 12월 등 27회의 기록이 있다.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 이조시대의 제주도에 관한 기록
기근과 진정(賑政)에 관한 27건과 제주마(馬)에 관한 4건을 제하고
도 다음의 11건이 있다. 즉

- ① 태종(太宗) 13년(1413년) ; 제주의 전(田)을 양(量)함.
- ② 중종(中宗) 16년(1521년) 정월 ; 제주의 목사 이운(李耘) 계청(啓請)
하여 둔전(屯田)을 개(開)하고 써 황정(荒政)에 비(備)하고 또 공
물(貢物)을 축제(鑿除)하여 목졸(牧卒)을 관(寬)케 하라고 하니 왕
은 차(此)에 종(從)하다.
- ③ 숙종(肅宗) 40년(1714년) 4월 ; 제주의 공인(貢人)을 또 차비문외(差
備門外)에 초치(招致)하여 진정(賑政)의 형편(形便)을 듣고 또 사오
일(四五日) 와병(臥病)으로 1삭내(朔內)에 4백여 명이 죽은 것을
듣고 극경(極驚)하여 의사(醫司)로써 많은 약물(藥物)을 급송(急送)
케하다.
- ④ 경종(景宗) 즉위년(1721년)에 제주, 정의, 대정 3읍민 백여인이 와
서 복역(服役)을 청(請)하고 토산(土產)을 헌(獻)함.
- ⑤ 영조(英祖) 10년(1734년) 4월 ; 제주목이 지(枳)를 공(貢)함. 왕은 불
시(不時)를 불식(不食)이라고 또 민폐(民弊)를 이(貽)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송(下送)시키고 다시 봉진(封進)치 말라고 함.

- ⑥ 동년 7월 ; 전라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의 계장(啓狀)에 농우 결핍(農牛缺乏)하므로 제주의 우(牛)를 득(得)함을 특히 허시(許施) 하라고.
- ⑦ 동44년(1768년) 12월 ; 탐라의 공감선(貢柑船)이 엄익(滄溺)함(後略).
- ⑧ 정조(正祖) 즉위년(1777년) 7월 ; 제주목에 유(諭)해 민인(民人)의 산릉(山稜)의 역(役)에 부(赴)하는 규(規)를 과(罷)함.
- ⑨ 동 5년(1781년) 6월 ; 윤음(綸音)을 제주삼읍에 반(頒)해 민막(民瘼)을 순(詢)함 云云.
- ⑩ 순조(純祖) 22년(1822년) 10월 ; 탐라에 여질(疹疾)이 치행(熾行)하여 사자(死者) 수천에 달(達)하다. 윤음을 하(下)하고 어사 조정화(趙廷和)를 건(遣)하여 위유(慰諭)케 하고 또 위제(慰祭)를 행하고 겸하여 민은(民隱)을 방(訪)하다.
- ⑪ 동 31년(1831년) 11월 ; 주원(廚院)은 제주의 공과(貢果) 부상(腐傷)하므로써 봉진관(封進官)에게 문죄(問罪)함을 청했지만 왕은 불허하다.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 이조시대의 제주도에 관한 기록

- ① 인조(仁祖) 5년(1627년) 정월, ② 숙종조(肅宗朝), ③ 영조(英祖) 37년(1761년) 12월, ④ 동 46년(1770년) 윤5월. ⑤ 정조 7년(1783년) 9월 등 5회의 기록이 있다.

조선농정사고(朝鮮農政史考)중 제주도에 관한 최대의 기록

인조 5년(1627년) 정월조 전출(前出) '이조의 최초의 군마장용' 참조.

조선사대계연표(朝鮮史大系年表)중 고려 시대의 탐라에 관한 기록

- ① 현종(顯宗) 13년(1022년) 탐라래공(耽羅來貢).
- ② 동15년(1024년) ; 탐라 국왕 주물(周物) 및 자고(子高)에 사작(賜爵).

- ③ 의종(毅宗) 22년(1168년) ; 탐라 양수(良守) 등이 모반(謀叛)하매 차(此)를 평정(平定).
- ④ 원종 12년(1271년) ; 삼별초난에 여당(餘黨)이 진도(珍島)로부터 탐라에 입(入).
- ⑤ 동13년(1272년) ; 삼별초가 탐라에 거(據)해서 근해를 초략(抄掠)하다.
- ⑥ 동14년(1273년) ;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원장(元將)과 함께 탐라의 적(賊)을 평정하였고 원은 다로가치(達魯花赤)을 탐라에 둬.
- ⑦ 충렬왕(忠烈王) 8년(1282년) ; 원은 군을 파견하여 탐라를 벌(伐)함.
- ⑧ 동20년(1294년) ; 왕은 원에 탐라의 반환을 청하여 허락되매 탐라왕자 성주(耽羅王子 星主)에게 홍정아홀(紅靛牙笏) 등을 하사.
- ⑨ 동21년(1295년) ; 원은 마(馬)를 탐라에서 취(取). 동년에 탐라(耽羅)를 제주(濟州)로 개칭.
- ⑩ 동27년(1301년) ; 원이 탐라의 총관부(總管府)를 파(罷)해 본국에 예(隸)함을 청(請).
- ⑪ 충숙왕(忠肅王) 5년(1318년) ; 제주민이 반란(叛亂)하여 성주(星主)왕자(王子)를 축(逐)하매 송영(宋英)을 견(遣)하여 안무(按撫)하다.
- ⑫ 공민왕(恭愍王) 11년(1362년) ; 탐라 반(反)해서 원에 부(附).
- ⑬ 우왕(禰王) 12년(1386년) ; 사(使)를 탐라(耽羅)에 견(遣)해서 초유(招誘)함.
- ⑭ 동13년(1387년) ; 탐라성주 고신결(高臣傑)이 입조(入朝).

조선시대계년표(朝鮮史大系年表)중 삼국시대의 탐라에 대한 기록

- ① 백제 위덕왕(威德王) 36년(589년) ; 수(隋)의 전함이 탐라에 표착(漂着)하니 백제 사(使)를 수(隋)에 견(遣)하여 평진(平陳)을 하(賀)함.
- ② 신라 문무왕(文武王) 2년(662년) ; 탐라가 신라에 항(降)함.

조선사대계년표(朝鮮史大系年表)중 이조시대의 제주에 대한 기록

- ① 세종(世宗) 26년(1444년) ; 해구(海寇)가 제주를 범(犯)함으로 차(此)를 대마(對馬)에 고(告)하니 도주(島主)는 적(賊)을 집행(執送)하다.
- ② 성종(成宗) 원년(1470년) ; 탐라가 진주(眞珠)를 헌(獻)하니 차(此)를 극(郤)함.
- ③ 명종(明宗) 20년(1565년) ; 승(僧) 보우(普雨)를 제주에 유배하고 이를 살(殺)함.
- ④ 숙종(肅宗) 15년(1689년) ; 송시열(宋時烈)을 제주에 찬(竄)함.
- ⑤ 동45년(1719년) ; 다시 제주의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을 설(設)함
- ⑥ 순조(純祖) 13년(1813년) ; 제주 민란을 모(謀)하므로 수신(守臣)이 그 괴(其魁)를 포(捕)함.

한국역사상 최대사건

한국역사상 제주도에 관한 최대의 사건은 고려 원종 때의 삼별초의 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수령(首領) 배중손(裴仲孫) 등이 그 군사(軍士)로써 반(叛)하여 진도(珍島), 탐라 등지에 웅거(雄據)하고 관군(官軍)과 겨누다가 4년만에 평정(平定)된 사실은 아무리 간략(簡略)한 한국 역사책에도 게재되어 있다. 대다수의 간략한 역사책에는 제주도 관계 기사로는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다.

최근의 유배지

이조말 광무(光武) 9년(1905년)에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시행(施行)되면서 유형수(流刑囚)는 원칙(原則)으로 도지(島地)에 압송(押送)하는 것이라고 하여 육지내의 각소(各所)에도 배(配)한 고래(古來)의 예(例)를 폐(廢)하고 제주도, 지도(智島), 진도(珍島), 추자도(楸子島), 완도(莞島) 등을 유배지로 사용케 된 것이다.

출판업(出版業)과 역관(譯官)

제주읍은 제주도의 문화의 중심이고 옛날부터 문적(文籍)의 출판으로도 알려져 있고 고래로 동서(東西) 여러 선박(船舶)의 조난(遭難)장소이니 역학제도(譯學制度) 즉 외국어 학습의 제도(制度)로도 알려져 있었다. 고구라 신편이(小倉進平)가 1930년에 도도(渡島)했을 때도 그것들의 유물(遺物)을 적지않게 보았다고 한다.

최남선(崔南善)저 역사일감(歷史日鑑) 중의 주요 제주도 기사

3월 9일 : 탐라(고려 문종 17년, 1063년)

3월 23일 : 제주 진휼(賑恤)(선조(宣祖) 37년, 1604년)

5월 21일 : 제주 해중 화산분출(고려 현종 5년, 1014년)

5월 23일 : 탐라통(通) 일본(일본 사이메이왕(齊明王) 7년, 661년)

7월 28일 : 제주인 극원도(極遠島) 표류(고려 현종(顯宗) 20년, 1029년)

8월 28일 : 제주난(亂) 토평(討平)(고려 공민왕 32년, 1374년)

11월 24일 : 제주교화(濟州教化)(선조 31년, 1598년)

11월 30일 : 동상(同上)(영조 9년, 1734년)

12월 25일 : 제주 감귤 배양(培養)(세조 원년, 1456년)

탐라고사(耽羅古史)

고려사에 있는 삼신인(三神人)의 출현기(出現記)는 물론 전설이고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삼형제의 기사(記事)도 전설의 역(域)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주도는 고대에는 독립국으로 타국과의 최초의 교섭기록은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년)에 백제에 방물(方物)을 헌상한 것이고 그후도 백제의 한 속국으로 있으면서 신라, 일본, 중국에 누차(屢次) 입공(入貢)한 일이 있었고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한 후에는 그대로 신라에 인계되었고 후에 다시 고려에도 그대로 인계된 것이었다.

탐라 사자(使者)

백제 문주왕 2년(476년)에는 탐라의 사자를 은솔(恩率)이라 하였고 신라 문무왕(文武王) 원년(661년)에는 탐라의 좌평(佐平) 은솔이 항복(降服)하여 신라에 속하였다. 고려 태조 21년(938년)에는 탐라왕태자 말로(末老)를 보내어 입조(入朝)케 하니 성주태자(星主太子)에게 작(爵)을 하사하였다.

탐라지(耽羅誌)

이조 효종 최초의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편(編)한 것을 신찬(申鑠)이 효종 계사(癸巳; 1653년) 즉 Hamel 일행이 제주에 표착한 그 해에 발문(跋文)을 부쳐 출판하였는데 초판은 물론 목판쇄(木版刷)인듯 하나 실물은 어디서나 볼 수가 없다. 그후에는 몇 사람의 증보판이 나왔는데 탐라지(耽羅誌)라고 한 것도 동일물(同一物)에 틀림이 없다.

헌마(獻馬)

고대로 준마(駿馬)가 산출되면 원조(元朝)에 헌상(獻上)하는 관례였으나 이조 개국 후에는 조선 정부에 헌상하게 되어 매년 각장마(各場馬)에서 선발하여 300두, 3년째에는 500두(그 중 200두는 산장마(山場馬))씩을 궁내부(宮內部)에 헌상하였다.

홍이섭(洪以燮)의 조선사도해표(朝鮮史圖解表)에 오른 제주도 관계 기사 고려조

1272년 삼별초군이 탐라에 거(據)하여 근해를 초략(抄掠)함.

1273년 원은 다로가치(達魯花赤)을 탐라에 치(置)함.

1317년 원의 위왕(魏王)은 아목가(阿木哥)를 탐라에 유배후 대청도(大靑島)에 옮김.

1318년 제주에 민란이 일어남.

이조

1565년 승(僧) 보우(普雨)는 제주에 유배되어 치살(致殺)됨.

1813년 제주는 민란을 계획

황감제(黃柑製)

열량세시기(冽陽歲時記)에 의하면, 제주는 고시(古時) 탐라국인데 토산(土産)으로 감귤이 특종(特種)이니 매년 동지(冬至), 장월(臟月) 두달에는 이 감귤을 진공(進貢)하였다고 한다. 이 감귤이 경사(京師)에 이르면 먼저 태묘(太廟)에 천(薦)하고 그 다음으로 관학생(館學生)들에게도 영사(領賜)된다. 이날에 과(科)를 설치하고 시취(試取)하여 거주자(居首者) 즉 우수한 자로 자격을 주고 이날을 황감제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황룡사 구층탑(皇(黃)龍寺九層塔)

신라 제27대 선덕왕조(善德王朝)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서학(西學)하고 귀임(歸任)하여 왕께 진의(進議)하고, 백제의 아버지(阿非知)란 명장(名匠)을 청(請)하여 세운 것으로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로 되었다. 이 탑(塔)은 선덕여왕(善德女王)이 덕(德)은 있어도 위(威)는 없는고로 인국(隣國)의 침해(侵害)를 받을까 두려워 불법(佛法)에 의하여 예방(豫防)의 뜻으로 건립한 것으로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中華), 제3층은 오월(吳越), 제4층은 탁라(托羅), 제5층은 응유(鷹遊), 제6층은 말갈(靺鞨), 제7층은 단국(丹國), 제8층은 여적(女狄), 제9층은 예맥(獺狍)을 의미한다. 제4층의 탁라(托羅)는 탐라 즉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4. 외국인과의 관계

고려 문종(文宗)의 친송책(親宋策)

12년(1058년)에 왕은 탐라의 영엄사(靈嚴寺)등의 재(材)를 배어 조선

(造船)해서 송(宋)에 통(通)하려 했지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의 충고(忠告)에 의하여 북조(北朝) 글안(契丹)과의 관계와 제주도민의 노폐(勞弊)를 생각하고 중지하다.

고려시대의 왜구(倭寇)

고려 말기의 왜구는 극히 빈번(頻繁)하였고 전국에 걸쳤으므로 이 왜구가 고려 멸망(滅亡)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더우기 충정왕(忠定王) 이후에 경상, 전라, 충청, 경기의 순으로 그 피해가 심하였다. 그런데 제주도는 의외로 피해가 적고 기록으로는 신우(辛禩) 3년(1377년)의 1차 밖에 없다.

낭가삭기(郎可朔其)

효종 4년(1653년)에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목사 이원진(李元鎭)은 대정현감 권극중(權克中)과 판관 노정(盧鏡)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는데 대담(對談)중 난인(蘭人)들이 정동방(正東方)을 일본 혹은 나가사키(長崎)라고 대답한 모양인데 당시 나가사키를 낭가삭기(郎可朔其)라고 효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난선(蘭船)의 조선 표착

인조 5년(1627년)에 Jan Janse Weltevree(박연(朴燕)) 등의 표착과 효종 4년(1653년)에 Hendrik Hamel 등의 표착한 2건인데 하멜 일행의 사건은 그의 표류기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다루가치(達魯花赤)

원에서 조선에 파견한 관리의 하나로 몽고감독관이다. 그 발음은 일본문서에 タルフワチ(다루후와찌) 혹은 ダルガチ(다루가찌)로 달려 있다. 제주도도 원의 치하에 있을 때는 이 다루가치가 와있었다.

난인(蘭人)과 명인(明人)의 대량표도(大量漂到)

이조 효종 4년(1653년)에 화란인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조선에 머물기를 14년에 이르고 가진 고초(苦焦)를 다 겪고서 현종(顯宗) 7년(1666년)에야 몇 사람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어 현종(顯宗) 8년(1667년)에는 명인(明人)이 100여 명이나 제주도에 표도(漂到)하여서 조정(朝廷)서는 이들을 청조(淸朝)에 박송(縛送)하였다. 당시의 외국인의 취급을 생각하면 그때의 형편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류큐세자(琉球世子)의 횡사(橫死)

류큐인(琉球人)의 표도(漂到)는 많았고 그중 대서(大書)할 것은 광해군 13년(1621년)에 세자가 표도했다는 일이다. 류큐국 세자는 일본에 사로 잡혀간 부왕(父王)을 구속(救贖)하려고 국보(國寶)인 주천석(酒泉石)과 만산장(漫山帳)을 배에 싣고 떠나 불행히 제주에 표도하였는데 그때에 탐(貪)많은 목사 양호(梁護)로 말미암아 보물은 해중에 투입하고 뜻도 못 이루고 원통하게 죽게 되었다. 임사(臨死)에 애시(哀詩) 1편을 남겼다.(일전설(一傳說)로 후출(後出) '표착선(漂着船)에 대한 목사의 물욕(物慾)' 참조).

삼포왜란(三浦倭亂)의 원인(遠因)

삼포(三浦) 개시(開市) 이후에는 조선이 일본에 사신은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의 사신이 오면 오직 접대할 뿐이러니 연산주(燕山主) 말년에 일본 병선이 전라도를 노략질하며 제주도의 공선(貢船)을 빼앗으므로 윤은보(尹殷輔)를 츠시마(對馬)에 보내 도구(島寇)를 금(禁)하라 하되 막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중종 5년(1510년)에 부산첨사(釜山僉使) 이우증(李友曾)이 거류(居留)의 왜호(倭戶)를 학대(虐待)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난이 생겼다.

서양인 입국의 시초

임진왜란(壬辰倭亂)보다도 10년이나 앞서서 이조 선조 15년(1582년) 가을에 스페인인(西班牙人) 풍(마)리이(馮(馬)里伊)란 자가 복건인(福建人)

진원경(陳元敬) 등과 여송인(呂宋人) 막생가(莫生哥)와 더불어 제주에 표도하였다. 뒤에 조정에서는 명나라 가는 사신편에 일행을 환송하였다.

스페르웨어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던 때의 파선(破船)한 선명(船名)으로 Sperwer는 새매(雀鷹)의 화란어(和蘭語)이다.

역관(譯官)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당시 역관의 외임(外任)으로는 역학훈도(譯學訓導) 외에 역학 겸 군관(譯學兼軍官)이 있었는데 제주에는 후자가 2명 있었을 뿐이었다. 1명은 왜학(倭學), 1명은 한학(漢學)이었다. 그리고 그후 한일합병 이전까지 제주에는 역학훈도가 있어서 학생(學生)이라고 불리웠고 학생에는 역학(한학생), 왜학생, 류큐학생의 3종이 있는데 제주에는 정원(定員)이 1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역관 2명은 전임(專任)이 아니었고 겸하여 호적계(戶籍係)의 일을 하는 호적리(戶籍吏)가 있으니 그들의 어학의 실력이란 짐작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외국선이 표착했을 때의 목사의 불편이란 대단하였다.

역학(譯學)

이조 사역원(司譯院)의 외관(外官) 즉 지방직원(職員)의 직명으로 주로 통역에 종사하였는데 제주에는 왜학(倭學)과 한학(漢學)의 역학이 1인씩 파견되었을 뿐이었고 청학(淸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 등에 관한 관리는 없었다.

원구(元寇)

일인(日人)이 말하는 소위 원구(元寇)란 것은 고려가 삼별초의 난을 원(元)의 힘을 빌어 평정한 관계로 제주도가 원에 예속(隸屬)이 되어 원은 아마 한라산의 재목(材木)으로 별도포(別刀浦)에서 백척(百隻)의 배를 만들었다고 전해졌는데 원종(元宗) 15년(1274년)에 원은 일본을

공격했지만 풍랑(風浪)으로 인하여 완전 실패하였다.

원(元)의 제주도 진출의 원인(遠因)

원의 후비라이(忽必烈)가 홍안(弘安)의 역(役)에서 일본에게 패하고 후일의 재공(再攻)의 일책(一策)으로 이 섬에 목마(牧馬)를 시도한 것은 제주도의 위치와 지세(地勢)의 관계를 이용한 때문이다.

이조 현종조(顯宗朝)에 제주에 표착한 명인(明人)

현종 8년(1667년)에 명인(明人) 백여 명이 제주도에 표도함에 포박하여 청조(淸朝)에 보내었다. 명인 등은 스스로 말하기를, 천장간(泉潼間) 동남(東南)의 일우(一隅)에 있어 명(明)의 황통(皇統)이 상존(尙存)하다고 말하며 의관(衣冠)을 개(改)치 않는다고, 그리고 청국(淸國)의 정신(廷臣)으로 밀언(密言)하는 자(者) 있었지만 드디어 돌보지 않고 이들을 박송(縛送)하였다.

1908년(융희(隆熙) 2년) 경의 제주내 재주외국인(在住外國人)

일본인 45호 157인, 청국인(淸國人) 3호, 프랑스인(佛國人) 1호.

노일전쟁(露日戰爭) 돌발 전년(前年)에 진출한 일인수(日人數)

성산포(城山浦), 비양도(飛揚島)를 비롯하여 전도 연안에 침입한 어부의 수는 530명, 그외 성내 재류자(在留者)만 300여 명에 달하였다.

일본 견수사(遣隋使)의 순로(順路)

다니와즈(難波津)—츠쿠시(筑紫)—이키(壹岐)—츠시마(對馬)—제주도(탐라국)—백제국(百濟國)—요동반도 남안(遼東半島南岸)—황해횡단(黃海橫斷)—산동성 등주(山東省 登州) 부근—청주(靑州)—연주(兗州)—조주(曹州)—변(汧)—황하 남안(黃河 南岸)—낙양(洛陽)—국도(國都) 장안(長安). 후에 견당사(遣唐使)로 되고도 전기(前期)에는 이 경로를 취하다가 후에는 이 북로(北路)는 포기하고 남로(南路)를 취하였다.

일본의 이주어민(移住漁民)

융희 3년(1909년) 경까지의 이민(移民)어촌의 주요한 것은 전국에 38 개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고오치현(高知縣) 경영(經營)의 것이 하나 있었고, 그것이 최근까지 계속되었지마는 도저히 일류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전년(1908년) 한국농상공부(韓國農商工部) 수산국장(水産局長) 아마하라 붕이치(庵原文一)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는 장소가 넓어서 제일 많아 50호 25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일본인의 근거지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 제2집(1924년)에 의하면 도내 일본인 이주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

	호수	남	여	계
제 주	90	153	185	338
조천리	3	4	8	12
김녕리	4	7	10	17
모슬포	12	15	9	24
서귀포	31	50	52	102
성산포	11	37	25	62

이 통계로 보아 일본인이 근거로 한 곳은 수도(首都)인 제주가 주(主)요 다음으로 살기좋은 서귀포다. 그 다음이 성산포(城山浦)와 모슬포(慕瑟浦)인데 근년에는 한림(翰林)에도 많이 진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전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일본 제정(帝政)하의 도제(島制)

1915년 5월 지방관 관제(地方官 官制) 개정(改正)때에 도제(島制)를 창설하고 제주도(濟州島) 및 울릉도(鬱陵島)의 2도에는 종래의 군청(郡廳)을 폐(廢)하고 도청(島廳)을 두어 도사(島司)로서 섬 전체의 행정사무와

경찰행정을 합관(合管)시키고 도령(島令)을 발(發)할 권한을 주었다.

일인이민수(日人移民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1926년말 현재로 호수 299, 인구 1083, 그 출신 현별(縣別)로 보면 오이타(大分), 야마구치(山口), 구마모토(熊本), 기타의 순이다. 그러니 동년의 제주인의 일본에 출가(出稼)한 사람 23,584인에 비교하면 1/20에 불과하다.

일인이주어촌(日人移住漁村)

도청 기록(1924년)에 의하면, ① 추자도에 30호 예정인데 12호 이주했고, ② 성산포에 50호 예정인데 30호나 벌써 거주하고 있고, ③ 서귀포에 50호 거주하는데 해를 따라 증가한다고. 또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추자도 대서리(大西里)(10여호), 서귀포(50여호), 성산포(30여호) 등이 있다고.

임자왜변(壬子倭變)

중종 5년(1510년)에 일어난 삼포왜변(三浦倭變; 庚午倭變) 이후 선조 25년(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까지에 또 5차의 왜변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왜구(倭寇)가 명나라 연안(沿岸)을 목표로 다니다가 한 작난들이고 이 임자왜변도 그중의 하나로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그 5차의 왜변을 열기(列記)하면,

- 중종 39년 갑진(甲辰; 1544년)의 사랑(蛇梁)
- 명종 9년 임자(壬子; 1552년)의 제주
- 명종 8년 계축(癸丑; 1553년)의 진도(珍島)
- 명종 10년 을묘(乙卯; 1555년)의 영암(靈巖)
- 선조 20년 정해(丁亥; 1587년)의 손죽도(損竹島)

제주도와 몽고(蒙古)

고려와 몽고는 일찌기 국교가 이루어져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다가

고종때에는 일시 국교가 단절된 때도 있고 원중에 이르러서는 많은 간섭을 받았다. 원종 14년(1273년) 삼별초의 난을 원(원종 12년에 몽고는 국호(國號)를 元이라고 바뀐)과 합력(合力)하여 평정하고는 원은 원종 14년 윤6월부터는 탐라에 다로가치(達魯花赤)를 두었다. 그후 충렬왕(忠烈王) 20년(1294년) 여름 5월에 정식으로 원은 탐라를 고려에 돌리고 제주로 개칭되었지만 실제로 그간의 22년간도 고려와는 주종관계를 끝내지 않았었다. 그간 원은 몽한군(蒙漢軍)도 주둔시키고 탐라주(耽羅珠)나 말도 가져갔고 그 후도 말은 계속하여 많이 가져갔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년) 8월에는 목호난(牧胡亂)이 생겨서 원은 다시 만호관(萬戶官)을 두어서 영(領)했다가 16년(1367년) 2월에는 다시 고려에 되돌렸다. 그간에도 고려와 제주와의 주종관계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후도 원은 많은 말을 징발(徵發)하였다. 공민왕 23년(1374년) 여름 4월에는 원이 탐라말 2000필을 징(徵)하려 하되 순조로히 아니되므로 8월에는 상(上)이 최영(崔瑩) 장군까지 출동시켜 제주를 대토벌(大討伐)하였다.

제주도의 자원(資源)과 일본인의 진출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2집 「朝鮮に於ける内地人」(1924년)에 의하면, 산업의 각 분야에 걸쳐 제주도는 전연 도외시되어있다. 울릉도에 까지 이주어촌(移住漁村)이 있는데 제주도에 없다는 것은 제주도가 불편한 장소인 관계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자원이 보잘 것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제주인의 해외표류

인종 원년(1545년)에 류큐(琉球)로 갔던 박손(朴孫), 숙종 13년(1687년)에 안남(安南)까지 갔던 고상영(高尙英), 정조 21년(1797년)에 팽호도(澎湖島)로 가서 대만(臺灣), 하문(廈門)으로부터 남중국 지방을 두루 밟고

돌아온 이방한(李邦翰) 등은 저명(著名)한 이들이다.

탐라와 일본

모리 준자부로(森 潤三郎; 1904년)에 의하면 백제가 망한 뒤해,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7년(661년) 5월에 당(唐)에 갔던 왜사(倭使) 츠모리(津守), 깃쇼(吉祥)가 조난(遭難)하여 탐라에 표착한 것을 탐라왕은 이를 구호(救護)하고, 왕자 아파기(阿波岐) 등 9인으로 호송하면서 방물을 바친 것이 최초이고 그후 지토천황(持統天皇) 5년(694년)에 왕자 궤명(闕名) 등으로 조공(朝貢)한 것이 최후로 그간 신라 문무왕(文武王) 원년으로부터 효소왕(孝昭王) 3년까지 34년간에 10차나 조공하였고 일본서도 사신을 탐라에 파견하였었다고 한다. 그후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 간녕(寬仁) 2년(1018년)에서 후지와라 요리즈네조(藤原賴經朝) 강경(寬元) 원년(1243년)까지 우리측으로는 고려 현종 9년으로 고종 30년까지 226년간에 5차나 고려국 탐라도인이 일본에 표착한 것을 방송(放送)했다는 기록이 있다.

표류

제주도가 절해의 고도이니 도민으로 외지에 표착한 자, 외인으로 제주도에 표도한 자가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가 화란인(和蘭人) ‘하멜’의 일행으로 대체로 제주도가 해외로 알려진 것이 이 ‘하멜’의 표류기(1668년)로 인함이다. 기타 물산에도 표유교착(漂流交錯)된 사실이 적지않고 특히 류큐(琉球)와의 교류가 많았다.

표착선에 대한 목사의 물욕(物慾)

이조 해사법(海事法)에는 표착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동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광해군 5년(1613년)에 제주 목사 기빈(箕賓)은 부하관관 문희현(文希賢)에게 유혹(誘惑)을 받고 당, 왜, 류큐 3국인의 대상인(大商人)이 표착한 것을 수일간 포위, 전원을 죽이고 보석(寶石), 황견사(黃繭糸), 직물(織物) 등 전부를 탈취(奪取)하여 분배하고 국왕에게는

해적이었다는 보고를 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처분되었다. 이 배에는 류큐 관리가 타고 있었는데 비통(悲痛)한 글을 목사에게 보냈다. 또 당상(唐商)은 목사와 협동하여 왜인만을 죽이기로 밀의(密議)했지만 물욕이 많은 목사는 끝내 전원을 죽였다. 본건이 후세에 전설화하여 류큐왕자의 만산장(漫山帳)과 주천석(酒泉石)의 이야기로 되었다.

하멜 일행의 표도(漂到)

이조 효종 4년(1653년) 8월 16일 풍우 심한 심야, 대정 해안에 ‘벽안고비(碧眼高鼻), 황발단수(黃髮短鬚)’의 이양인(異樣人) 36명이 노도(怒濤)를 헤치고 올라 왔다. 이들은 화란인(和蘭人)으로 그해 초에 본국을 떠나 이곳 저곳에 들르고 후에 대만(臺灣) 해협에서 폭풍을 만나 조난당한 상선 Sperwer의 선원들인데 64명 중의 생존자들이다. 그들은 1년간 제주에서 지내고 서울 기타에서 전후 14년이나 조선에 거주했으니 다수의 외국인이 다년 입거(入居)하기로는 처음되는 일이다. 다 죽고 16인쯤 남았다가 그중 8명은 나가사키(長崎)로 도망가서 일본에 청하여 남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서기(書記) Hendrik Hamel은 끝까지 살아서 ‘암스테르담’에서 조난기(遭難記; 1668년)까지 출판하였다.

하멜표류기

화란인(和蘭人)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의 저(著). ‘난선(蘭船) 제주도 난과기’ 및 그 부록인 ‘조선국기(朝鮮國記)’를 말함인데 하멜 일행의 조선에서의 14년간의 포로(捕虜)생활시에 견문한 자료로 엮은 것이다. 난문(蘭文) 원저의 최초 간행은 저자가 고국에 도착한 1668년에 되었고 그후 중간(重刊)은 물론이요 불(佛), 독(獨), 영어의 역서도 간행, 조선을 처음으로 비교적 정확히 서양에 소개한 저서이다.

5. 관계인물

고조기(高兆基)

제주 출신으로 고려사에 기록된 유일한 관리이다. 초명(初名) 당유(唐愈), 부친은 유(維)요 우복야(右僕射), 성(性)이 강개(慷慨), 경사(經史)를 섭렵(涉獵)하였고 오언시(五言詩)에 능하였다. 예종(睿宗) 초에 등제(登第)하여 남수(南守)를 출수(出守)하매 청백(清白)의 명(名)이 있었고 인종조에 시어사(侍御史)가 되어 이자겸(李資謙)의 당(黨)을 논박(論駁)함에 힘썼고 의종(毅宗) 12년 2월 3일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졸(卒)하다. 졸후 시(諡)를 하사받음. 무자(無子).

구마슬(具瑪瑟)

프랑스인선교사(佛人宣教師)로 제주도 유사 이래 제일 큰 민란을 일으킨 근원이 된 사람이다. 구씨는 광무(光武) 5년(1901년) 2월에 돌연히 도도(渡島)하여 선교하다가 드디어 유명한 신축민요(辛丑民擾)를 유야(誘惹)하고 난후(亂後) 일시 서울에 인퇴(引退)하였다가 2년 뒤(1903년) 초여름에 다시 도도(渡島)하여 서귀면에 본거(本據)를 두고 포교를 계속하였다.

김구(金垢)

고려 때의 사람으로 판관으로 왔던 이. 당시(고종 21년, 1234년) 밭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힘 없는 백성들의 고통이 대단하였다. 김판관의 명으로 ‘돌담’을 쌓아 경계를 분명케 하고는 편하게 되었다는데 후세에 와서 돌담의 효용을 생각하면 김구는 제주도의 은인이다. 그러나 이 일이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자(字)는 차산(次山), 초명(初名)은 백일(百鎰), 부령인(扶寧人), 어려서부터 시문(詩文)을 잘하며 무화과언(無華寡言)하고 국사(國事)를 논할 때는 솔직하고 용감하였다. 그가

작성한 표사(表詞)는 아름다워서 원(元)의 학사(學士) 왕악(王鶚)은 김구의 면(面)을 못보는 것을 한탄했다. 참문학사(參文學事)로 졸(卒)년 68세.

김만일(金萬鎰)

이조 선조대왕 33년(1600년)에 정의군 김만일은 양종국마(良種國馬)의 핏절(乏絶)을 분개(憤慨)하고 자기의 양마(良馬) 500두를 선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헌상(獻上)하였다. 이를 동별목장(東別牧場), 서별목장(西別牧場)(정의 10場內)의 국마(國馬)라고 하였다. 이 공(功)으로 인하여 김만일은 포상(褒賞)받고 종일품(從一品) 승정대부오위도총부도총관(崇政大夫五衛都總府都總官)에 임명되었다.

김방경(金方慶)

고려 원종 때의 사람인데 절조(節操)가 있고 도량(度量)이 넓었다. 당시 삼별초의 난에 있어서 별초군이 진도에 웅거(雄據)하매 방경이 군사 6천을 거느리고 치러다가 형세(形勢)가 불리하여 바다에 투신(投身)까지 하려는 것을 부하들이 막고서는 다시 적(敵)을 진도에서 대파(大破)하고 위주 온(僞主 溫)을 베니 잔당이 제주도로 도주하여 반항하였다. 그래서 왕은 방경을 원수(元帥)로 삼으니 방경은 군사 만인(萬人)을 통솔하고 제주도를 공격하매 적괴(敵魁)는 자결하고 남은 무리는 다 항복하였다.

김정(金淨)

1519년에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가 임금이 그의 최후의 왕후(王后)를 배척(排斥)하였음에 대하여 간언(諫言)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유적(流謫)되고 참살(斬殺)당하였으며 그의 학우(學友) 김안국(金安國)은 유적(流謫)되었다가 겨우 1537년에야 도로 소환(召還)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 김정(金淨)도 태형(笞刑)을 받은 후 제주도에 유적(流謫)되었으나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의정부(議政府) 소속 관리인 이자(李紆)는 같이 유적(流謫)되었던 것이 후에 사면(赦免)되었다가 또다시 유적되었다.

김지석(金之錫)

김지석은 고려 고종 말에 제주부사(濟州副使)로 된 이요 청렴한 이로 그때까지의 학정(虐政)을 일소하고 선정하므로 이민(吏民) 공히 신복숭배(信服崇拜)하였다. 그 전에도 경세봉(慶世封)이란 청백(清白)한 관리가 있었던 모양으로 주인(州人)은 말하기를 전에는 세봉이 있었고 후에는 지석이 있다고 하였다.

만덕(萬德)

본시 제주 양가녀(良家女)로 사정(事情)에 의하여 이름은 비록 기적(妓籍)에 붙었으나 몸은 깨끗이 가지고 생활을 절약하여 가재(家財)가 천금(千金)에 이르렀더니 정조(正祖) 갑인(甲寅; 1794년)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굶는 사람이 많이 날새 만덕이 제가 가진 전곡(錢穀)을 풀어내어 빈민을 구휼하였다. 왕이 이 상보(上報)를 들으시고 수신(守臣)에게 명하여 만덕에게 그 소원(所願)을 물으시니 만덕은 ‘다만 왕도(王都)와 금강산(金剛山)을 보고 싶을 따름이라’고, 그리하여 만덕은 상경하여 의녀(醫女)의 형식(形式)으로 상감께 배알(拜謁)하고 다시 금강산을 보고 귀향하였는데 당시의 대신(大臣) 채제공(蔡濟恭)이 만덕전(萬德傳)을 저술했다.

박연(朴燕)

화란인(和蘭人)으로 1628년 이래 조선에 감금(監禁)되어 있던 사람. 본명은 Jan Janse Weltevree, 박연(朴燕)은 조선식 이름. 연은 후에 연(延)으로 개칭되었는데 분명히 Jan의 음에 따른 자요, 한자명 호탄만(胡呑萬)은 Weltevree에 따른 글자이다. 그는 제주도에 표착하고 동료 2인과 더불어 서울에 호송되어서는 당시의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厚)

휘하(麾下)에 속하였다. 정부에 치사(致仕)함에 특히 병학(兵學)에 능통하여 군사 방면의 일에 종사하고 홍이포(紅夷炮)의 제법(製法)을 전하였다고 한다. 그의 감금생활은 조선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귀화한 셈이었다. 1653년 8월에 제주도에 표착한 화란인 하멜 일행에 대한 통역으로 이 박연이 제주에까지 파견된 것은 운명의 작난이었다.

박영호(朴泳孝)의 유배

헤이그(海牙) 밀사사건(密使事件)으로 고종제(高宗帝)가 퇴위에 이르게 된 때 선위식(禪位式)을 앞두고 일본 황제로부터의 축전(祝電)과, 여러 외국 영사(領事)로부터의 진하(進賀) 등이 있게된 기괴(奇怪)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종중유농(從中幼弄)이라하여 당시의 궁내대신(宮內大臣) 박영호(朴泳孝)가 내각에 문책(問責)하였으나 무효이고 도리어 선위 반대의 혐의로 친일파로도 볼 수 있는 독립당(獨立黨) 수령(首領) 박영호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즉 내부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광무(光武) 11년(1907년) 8월 26일부로 금능위(錦陵尉) 박영호에 대하여 정치상 불온(不穩)의 동작을 할 염려가 있다고해서 1년간 제주도에 감금하는 명령서를 발(發)하여 동 9월 3일 박영호는 애랑부처(愛娘夫妻) 외 여럿을 데리고 남해고도를 향하여 떠났다. 재도(在島) 1년후 귀경하여서는 세상사 일변(一變)되어서 박씨의 형적(形跡)은 정계에서 떠나게 되었다.

서복(徐福)

진시황의 신(臣)으로 왕의 명을 받아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靈藥)을 동국(東國)에 구하러 왔던 사람. 그 동국이란 것이 이 제주도인 모양이다. 서복은 약초는 구했지만 미인에 끌리어 체재하다가 떠날 때에 정방폭포암(正房瀑布岩)에 각자(刻字)했다는 말이 있다. 서복이 귀국하여 약초를 헌상하려던 때는 벌써 왕의 흥거(薨去)후 2년후이었다

고. 혹은 서복은 일본에 가서 죽었다고도 한다. 그 약초는 시로미(岩高蘭)이라고. 서복은 서귀(西歸)하였으니 그 항구가 서귀포(西歸浦)라는 등 여러가지의 전설이 있다.

이방익(李邦翼)

제주도가 낳은 풍운아(風雲兒)로 방익은 정조 21년(1797년)에 팽호도(澎湖島)로 가서 대만(臺灣), 하문(廈門)으로부터 남중국 지방을 두루 밟고 돌아왔는데 이 표류 견문한 바가 문호(文豪) 박연암(朴燕巖)의 손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저명(著名)한 사실이다. 또 박연암(朴燕巖)의 작품 중 출색(出色)의 대작(大作)이라고 할 ‘허생전(許生傳)’의 유도피어나 이광수(李光洙)편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의 활동무대도 모두 이방익의 사실에 유래된 것이다.

이백겸(李伯謙)과 송영(宋英)

충숙왕(忠肅王) 5년(1318년) 김성업(金成業)의 난때 적당(賊黨)은 다 이백겸(李伯謙)과 송영(宋英) 양인의 내무(來撫)를 얻으면 어찌 감(敢)히 반(叛)하겠느냐고 해서 양인이 파견되어 와서야 진정(鎮定)되었다. 이 반란의 원인이 된 폭관호군(暴官護軍) 장공윤(張公允)과 제주부사 장운화(張允和) 등과 대척(對蹠)되는 존재로 역시 제주도의 선정관이다. 이씨는 벌써 제주목사를 지낸 이요 송씨는 이때에 제주목사로 댔었다.

이원진(李元鎭)

화란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 당시(1653년)의 제주목사였고 탐라지(耽羅誌)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재수(李在守)

신축민요(辛丑民擾; 1901년)는 대정군 출신 오대현(吳大鉉)이가 두목(頭目)이 되어 도전(挑戰)을 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그 부하인 25세의 청년 이재수가 두령(頭領)이 되어 승전하였다. 최대의 민요이

었고 최다의 희생자가 생겼고 조선, 불국(佛國), 미국(美國), 일본 등이 등장한 말하자면 국제적 난(亂)이었다.

이토정(李土亭)

충남 한산인(韓山人), 명(名)은 지함(之菡) 호(號)는 토정(土亭), 이상한 풍격(風格)을 구유(具有), 행장(行狀)은 효우(孝友)를 중히 여기고 학문은 경(敬)을 주로 하고 이(理)를 궁(窮)하고 백가(百家)의 제술(諸術)에 통호(通曉)했다. 일찌기 향리(鄉里) 보령(保寧)에서 상경(上京)하는 도중 불식(不食)하되 기(飢)하지 않고 설상(雪上)에 와침(臥寢)하되 한(寒)을 불각(不覺)하였고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대표(大瓢)를 계(繫)하고 3차나 제주에 왕복, 국내 산천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명종조에 아산(牙山) 현감을 지낼 때 선정하고 10년후의 대난(大亂; 임진)을 예언도 하였다. 수삼종(數三種)의 참서(讖書)의 저자로 오히려 유명하다.

임박(林樸)

자(字)는 원질(元質)이고 안동부(安東府) 길안현인(吉安縣人)이다. 공민왕 9년(1360년)에 등제하고 동10년(1367년) 여름 4월 전교령(典校令)으로 제주에 출장(出張)하여 목호란시에 도민을 선무(宣撫)하였다. 박(樸)은 나주(羅州)에서 마실 물까지 준비(準備)해가지고 내도(來道)했으니 성인(聖人)이 내도(來道)했다고까지 주민(州民)은 찬양(讚揚)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자(聖者)도 신우(辛禰) 2년(1376년) 12월에 간신(奸臣)의 손에 죽었다.

전공지(田拱之)

고려 목종(穆宗) 10년(1007년)에 태학박사(太學博士)의 신분으로 제주도 서산(瑞山)의 분화(噴火)를 조사하러 갔던 학자이다. 이 서산이 지금 어느 지점인지 정설이 없다고도 하나 서산이 지금의 중문면과 안덕면의 양면경(兩面境)인 군산(軍山)의 구명(舊名)이고 전문가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가 있으니 전박사(田博士)가 조사한 서산은 군산으

로 해석함이 무난하다. 그는 현종 6년(1015년) 5월 25일 중추원(中樞院) 부사로 졸(卒)함. 그는 정주(靜州) 영광현인(靈光縣人), 성종조에 진사과(進士科)에 등제, 목종 말에 태학박사(太學博士)를 받음, 사명(辭命)을 잘 해서 중외(中外)에 역임한 것이 20여년, 근각(勤恪)함으로 알려졌고 졸 후(卒後)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증여(贈與)받음.

조엄(趙曷)

호는 영호(永湖), 관지이조판서(官至吏曹判書), 시 문익공(諡 文翼公), 한양부(漢陽府) 풍양현인(豐壤縣人). 숙종 45년(1719년)생. 그의 ‘해사일기(海槎日記)’와 그의 손자 조승영(趙承永)의 ‘운석유고(雲石遺稿)’에 의하면 조선에 고구마를 전래한 것은 영조 39~40년(1763~64년), 그가 45세때 건일통신정사(遣日通信正使)로 일본에 왕복할 때 츠시마(對馬島) 사수나포(佐須奈浦)로부터 2차나 갖고 온 것이 시초인데 그의 생각으로 풍토가 유사한 제주도에 전송(傳送)케 하였으니 조선서는 제주도서 처음으로 재배가 시작된 것이다.

조정철(趙貞喆)

자는 성경(成卿), 호는 정헌(靜軒), 양주인(楊州人). 영조 27년(1751년)생. 을미(乙未; 1775년) 문과(文科) 관판서(官判書), 순조(純祖) 31년(1831년) 졸(卒), 향년 80. 정조 원년(1777년) 7월에 홍국영(洪國榮)에게 미움을 사고 제주에 정배(定配)와서 재도(在島) 29년, 순조 5년(1805년) 7월에 귀환(歸還)하여 생모(生母)도 만났었다. 1807년 특청(特請)하여 제주목사로 도입하고 크게 덕정(德政)하여 구지(舊知)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은 그 적리(其謫裡)에 수시(隨時)로 심경(心境)을 시가(詩歌)로 표현하여 기록한 것으로 전후(前後) 12년에 걸쳐 유인(流人)의 생활, 제주의 풍속, 기후, 산물 등을 상세(詳載)한 귀중한 자료이다.

조정철(趙貞喆)과 홍의녀(洪義女)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과 ‘이조실록(李朝實錄)’에 의하면, 자기도 힐문(詰問)받고 상대방 홍의랑(洪義娘)은 윤 5월 15일에 장형(杖刑)으로 사망하고 6월 2일에 장사지냈는데 윤 5월 15일부터 8월 2일 까지는 한 방울의 비도 없었고 5월 15 일에는 폭풍으로 천지가 암담(暗澹)하여 옥리(獄吏)들은 여원(女冤)의 초(招)한 바라고 했다고. 또 제주 고노(古老)의 소전(所傳)은 판이(判異)하다. 즉 5월에 목사에게 밀사(密使)가 와서 적당한 죄명으로 장살(杖殺)케하여 조씨는 거의 주검으로 되어 정외(廷外)로 반출(搬出)된 것을 홍녀(洪女)가 구지(軀肢)에 아직 온기가 있는 것을 알고 오줌(尿)을 입에 주입하여 소생시켰다고 한다. 당시의 법으로는 일차 시체로 됐던 죄인이 소생했다고 다시 죽이지는 아니 하였고, 홍랑(洪娘)은 중(重)한 죄인으로 교살(絞殺)되었다고 한다. 이 양인간의 스토리는 이상 2설이 있지만 조씨 자신의 기록인 문헌에 의할 것이요 일설에 의할 것은 아니다.

최척경(崔陟卿)

의종(毅宗) 22년(1168년) 겨울 11월 적수(賊首) 양수(良守) 등이 반모(反謀)한 것을 안무사(按撫使) 조동희(趙冬曦)가 평정하고 최척경(崔陟卿)이 재차 탐라령(耽羅令)으로 부임하고야 진정(鎮定)하였다.

척경은 전주인(全州人), 성(性)이 엄개(廉介)하여 전임(轉任)한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졸(卒)년 67. 같이 공부한 최균(崔均), 최송년(崔松年)과 함께 완산삼취(完山三崔)라고 그때 불리웠었다.

최익현(崔益絃)의 유배

대원군(大院君) 집정(執政) 초기에 정론가(政論家)로 유명하던 이항로(李恒老; 華西先生)의 문인(門人)으로 호를 면암(勉庵)이라 한다. 충청도 정산(定山) 출생이었던바 강직(剛直)으로써 자임(自任)하고 후일 호조판

서(戶曹判書)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는데 때마침 민후(閔后) 일파와 결탁하여 대원군 규탄문(糾彈文)을 제출해서 대원군의 몰락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최익현은 유배를 당하였는데 이것은 대원군에 대한 체면상 마지못한 형벌이요 당시로서는 아주 경형(輕刑)이었다.

추사(秋史)

이조 순조조(純祖朝)의 문신 김정희(金正喜)의 호, 당시 외척정신(外戚廷臣)의 쟁투(爭鬪) 참소(讒疏)의 희생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제주도에선 가파도(加波島) 건너편 상모리(上墓里) 지방에 거주하여 제자가 많이 생겼다 한다. 유명한 영선(英船) Samarang호가 가파도에 표착한 것은 그때였다. 사마랑호 항해지(航海誌)에 나오는 도통사(島通事)는 이 추사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다. 또 제주읍내 관덕정 뒷쪽에 추사가 거주하였다는 고가(古家)가 있고 필자(筆者)도 보았는데 읍내에 서는 얼마동안이나 거주하였는지.

탐라민(耽羅民) 정일(貞一)

고려 현종 20년(1029년)에 정일(貞一)의 일행 21인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동남 먼 곳에 표착하니 도인(島人)이 장대(長大)하고 전신(全身)에 털이 났으며 언어가 특수한데 겁류(劫留)된지 7개월만에 정일 등 7인이 소선(小船)을 훔쳐 동북(東北)으로 일본의 나사부(那沙府)에 이르러 이에 생환(生還)함을 얻었는데 고려에 돌아온 것은 그해 7월 28일이었다.

하멜

난인(蘭人)으로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인데 그의 저(著) ‘하멜 표류기’로 유명하다. 그의 일행은 1653년 정월에 Sperwer호로 화란(和蘭)을 출발하여 동 6월 1일에 Batavia에 이르렀고 7월 16일에는 대만(臺灣)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나가사키(長崎)로 향하는 도중 폭풍에 밀려 8월 15일 밤 제주도 부근에서 파선(破船)되어 전원 64인중 28인은

익사(溺死)하고 배의 서기(書記)인 Hamel 이하 36인의 생존자가 제주도에서 표착하였던바 관원(官員)에게 잡히어 1654년 5월 그믐께 서울에 호송되었다가 그후 이곳저곳에 분배 전송(轉送)되었더니 1666년 9월에 좌수영(左水營)에 와있던 Hamel 이하 8인이 밤에 읍성(邑城)을 탈출(脫出)하여 나가사키(長崎)로 향했고 1668년 7월에는 본국 암스테르담에 돌아갔다.

허목(許穆)

당쟁(黨爭)에 있어 송시열(宋時烈)의 반대파(反對派)이며 남인(南人)의 호장(驍將)이었다. 그는 유적(流謫)된 제주도에서 그 생애를 마쳤으며, 송시열(宋時烈) 자신도 그 나이 85세 때에 참살(斬殺)되었다.

홍의녀(洪義女)

조정철(趙貞喆)이 적후(謫後) 5년 즉 정조 5년 신축(辛丑; 1781년) 제주도(勞道) 홍국영(洪國榮)이 실각(失脚)하여 강릉(江陵)에 적사(謫死)하고 남인(南人) 채재공(蔡在恭)하에 노론(老論)의 시파(時派)와 소론(少論)의 남인(南人)이 때를 만났다. 시파인 전라감사 박우원(朴佑源)과 남인인 제주목사 김기구(金耆耆)가 공모(共謀)하여 조정철 이하 노론벽파(老論僻派)의 유인(流人)을 없이하기 위하여 감시(監視)를 일층 엄히 하다가 잠간읍비(潛姦邑婢)란 구실로 잡아 힐문(詰問)하였다. 상대방인 홍의랑(洪義娘) 명(名)은 윤애(允愛), 향리처훈(鄉吏處勳)의 여(女), 조씨 입도 이래 처음부터 보아준 사람인데 김목사는 심히 고문(拷問)하였지만 홍여(洪女)는 단연 부정(否定)하고 잔장(殘杖) 70에 죽었다. 때는 윤5월 15일, 6월 2일 새벽에 성남(城南)에 장사지냄, 후(後)에 조씨(趙氏)가 목사로 재래(再來)하고는 설묘각비(設墓刻碑)하였다.

홍종우(洪鍾宇)

자는 성숙(聲肅), 호는 우정(宇井). 일찌기 도일하여 3년간 고향(苦學)

하고 다시 도불(渡佛), 파리(巴里)에 유(留)하다가 돌아온 후 사대당(事大黨)의 앞잡이로서 보부상(裸負商)을 모아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에 대항하였다. 1894년에 상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척살(刺殺)하고 그후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이 되었다가 제주도 목사로 좌천(左遷)되었다. 그는 제주도 재임시 고목(古木)을 가장 많이 남벌(濫伐)한 목사로 알려져있다.

6. 민속(民俗)

개인제(個人祭)

부락제(部落祭)와 같은 공동제(共同祭)에 대한 말이다. 무라야마 도모즈미(村山智順; 1938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개인제는 다음과 같다.

제 명	목 적	시 기
告 祀	農, 畜, 子孫, 惡疫	정월 또는 2월중
龍 王 祭	漁	정월, 2월 또는 임시
安 宅 祭	農, 子孫, 惡疫	정월, 3월 또는 임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

원시생활에 가까우니 미신(迷信)이 많은 것이 육지의 비(比)가 아니다. 숭조(崇祖)의 염(念)도 더욱 강(強)하여 계몽(啓蒙)하는 바 없이 그대로 방임(放任)하면 제주도는 분묘(墳墓)의 섬으로 화(化)할 것이다.

고인돌

최남선(崔南善)이 1932년에 제주성 밖 서쪽에서 다수의 ‘고인돌’이 일자(一字)로 행렬(行列)을 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역시 고인돌 문화권내임을 알게되었다. 고인돌은 한자로는 지석(支石)이라고 쓰고 학칭(學稱)은 돌멘(Dolmen)이라고 한다.

굿한다

육지에서는 무당 데려다 하는 행사중 ‘굿’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행사를 ‘굿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굿친다’라고 하니 반주악기(伴奏樂器)의 활동을 주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 몽고어에서는 귀양(喇嘛式經) 웃지(읽는다), 즉 ‘굿 읽는다’라고 하니 독경(讀經)을 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에 따라 그 표현의 상이(相異)가 있다.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추분(秋分)과 춘분(春分)사이 즉 겨울(冬節)에 매일 밤(每夜) 사시경(四時頃) 동남방(東南方)에서 출현하여 서남방으로 지는 청대색(靑帶色)의 큰 별이 있는데 저천일우(低天一隅)이니만큼 사람들에게 보이는 날이 적다.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는 별이니 만큼 누구나 불려고 한다. 옛부터 서귀포는 이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유명하고, 옛날 제주목사는 다 이곳을 방문했다 한다. 서귀면 토평리에 있던 유평양(劉平壤)선생의 시중에 「길래병정방 조요춘추분(吉來丙丁方 照耀春秋分)」이라고 했으니, 이 별의 방향과 시계(時季)를 짐작하겠다. 이 별에 관한 시가(詩歌)는 적지 않고 이제 그 수수(數首)를 기록코저 한다.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 식영정(息影亭)에 비취여서
 창해상전(滄海桑田)이 슬크장 뒤눕드록
 가디록 새비출내여 그물뉘를 모른다

정철(鄭澈)

남극수성(南極壽星) 도다 잇고 권주가(勸酒歌)로 축수(祝壽)로다
 오늘날 노인들은 서로 노즈 권호는고나
 이후(後)란 화조월석(花朝月夕)에 매양(每樣) 놀려 하노라

김문근(金汶根)

천지(天地)로 장막(帳幕) 삼고 일월(日月)로 등촉(燈燭) 삼아
북해(北海)를 휘여다가 주관(酒罐)에 다혀 두고
남극(南極)에 노인성(老人星) 대(對)하여 늙을 늙을 모를이라.

이안눌(李安訥)

낙성서북(洛城西北) 삼계동천(三溪洞天)에 수징청이(水澄淸而) 산수여
(山秀麗) 흐디
익연가정(翼然佳亭)에 이수화의(伊誰花矣)오 국태공지(國太公之) 언앙
(偃仰)이시라
아아 아아아 아하 아아
비느니 남극노인(南極老人) 북두성군(北斗星君)으로 향수무강(享壽死疆)
호오쇼서

박효관(朴孝寬)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 사교재(四教齋)에 드리오셔
우리님 수부귀(壽富貴)를 강녕(康寧)으로 드으셔든
우리도 덕음(德蔭)을 무르와 태평연낙(太平燕樂) 호노라

박효관(朴孝寬)

동토(動土)

변소(便所)나 담이나 혹은 흙일을 택일치 않고 하면 신(神)이 노(怒)
하여 사변(事變)이 생긴다고 한다. 만일 택일치 않고 감행(敢行)하여
사변이 생기면 곧 무당을 청해서 행사(行事)를 한다.

마라도(馬羅島)의 아미씨당

마라도의 본향(本鄉)으로 부근 사람, 더우기 해녀나 선인(船人)들의
숭배가 대단하다. 마라도 북측에 원시적 사당의 형상을 가진 석단(石段)
이 있는데 신(神)의 본체(本體)는 어린 계집애로 한 애화(哀話)의 여주인
공이다. 애화의 내용이 웅장하지 못하니 주로 부근의 해녀를 관할하는

신답다.

몽고와의 공통점

- ① 모자, 의복, 신(靴)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 ② 목마(牧馬)가 성(盛)하고 말을 잘 구사(驅使)하는 것.
- ③ 마구(馬具).
- ④ 마분(馬糞)을 연료로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
- ⑤ 피모(皮帽)는 몽고모(蒙古帽)의 형이다.
- ⑥ 전야(田野)에 있는 석퇴(石堆)는 몽고의 ‘오보’와 흡사하다.
- ⑦ 우마견(牛馬犬)의 귀를 절단하는 풍속.
- ⑧ 제견(濟犬)으로 사냥하는 것.
- ⑨ 바람으로 선곡(選穀)하는 방법.
- ⑩ 요람(搖籃)도 몽고풍에 통하는 바가 있다.
- ⑪ 언어의 공통점.

몽고유풍(蒙古遺風)

겨울에 모피모(毛皮帽), 수피의(獸皮衣) 및 수피(獸皮)버선 등을 사용하여 제견(濟犬)으로 사냥하는 것이 난국(暖國)의 제주도 같지 아니하고 실은 몽고의 유풍인가 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밖에도 몽고와의 많은 공통점은 몽고의 유풍으로 볼 수가 있다.

묘(墓)

제주인이 가장 힘 쓰는 것의 하나인 것은 육지에서와 같으나 일층 중요시하는 것 같다. 지관(地官)이 택지(擇地)하는것,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 등등 대단히 유의(留意)하고 특징으로는 높이 3척, 폭 2척 가량의 돌담을 설치하는 것과 묘의 위치에 불구(不拘)하고 비석은 서향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무당의 명칭

무리아마 도모즈미(村山智順)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쓰이는 명칭은 무자(巫者; 통칭), 무당(巫黨), 신방(神房; 통稱), 삼신녀(三神女; 女), 여원(侶員; 男), 덕(德; 女), 무당(巫堂), 심방(尋訪), 독경자(讀經者), 점자(占者) 등이라고 하나 '심방'으로 대개는 통한다.

무녀(巫女), 매복자(賣卜者), 기도자(祈禱者)의 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에 의하면 1929년 9월 말 현재로 도내에 있는 수는 다음과 같다.

무녀 190, 매복자 74, 기도자 416.

무신(巫神)

광양당한라호국신산신(廣壤堂漢拏護國神山神)의 동생으로 응신(鷹神)이 요 조정(朝廷)으로부터 광양왕(廣壤王)으로 봉작(封爵)되었다.

차귀신(遮歸神) : 사신(蛇神)으로 차귀도 차귀당에 진좌(鎮坐)하다.

무조(巫祖)의 성(性)

육지에는 여성무조(女性巫祖) 전설이 거의 전부인데 대하여 제주도에 양성(兩性)의 무조(巫祖)의 전설이 다 있다. 현실에 있어서 육지에는 무(巫)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대하여 제주도에 남자가 반반쯤 되는 것으로 보아도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 제주도 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1930년 9월 현재로 도내에는 남무(男巫)의 수 119에 대해서 여무(女巫)의 수 110로 남무수가 여무수를 능가할 뿐만아니라 수신방(首神房)이란 주무(主巫)의 지위는 항상 남무가 차지하니 육지와는 반대다.

무풍(巫風) 및 신사(神祠)

① 광양당(廣壤堂), ② 차귀당(遮歸堂), ③ 신독나희(神蠶儼戲), ④ 가상명혼(嫁塲冥婚). 차귀(遮歸)는 사귀(蛇鬼)의 오류(誤謬)일 것이다.

무격(巫覡)의 수

무라야마 도모즈미(村山智順)에 의하면 1930년 현재, 최다수의 지방으로 인구 10만에 대하여 150인 이상의 부 군 도(府郡島)로는 고양군(高陽郡; 京城), 개성군(開城郡), 부여군(扶餘郡), 해남군(海南郡), 제주도 등인데 기후적으로 경제적으로 양호한 지역들이라고 하였다.

민속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941년)에 의하면, 퇴석(堆石)의 성소(聖所)가 많고 풍신(風神)을 위시(爲始)하여 여신(女神)의 신앙이 성(盛)한 것은 제주 삼다(三多; 石多·風多·女多)의 특이한 표현의 하나로 흥미있는 민속이다.

백중(百中)

음(陰) 7월 15일 첫새벽 오전 2시경에 마우(馬牛)를 위한 잡귀(雜鬼) 제거의 의식(儀式)을 지내고 낮에는 수욕(水浴)을 하여 사람의 병을 일소(一掃)한다고 한다.

본향(本鄉)

각처 향리의 토주관(土主官) 귀신을 위하는 곳이 본향(本鄉)이고 대체로 계집귀신은 양순하나 총각귀신은 사납다고 한다. 따라서 곳곳에 그 위하는 범의 규모가 상이하나 물론 동류의 것이다.

수신방(首神房)

무당을 제주도서는 심방(神房)이라고 한다. 심방에는 남녀가 있고 오히려 남심방이 많은 편이고 물론 세력도 강한 것이 육지와는 상이하다. 수신방이란 물론 문자대로의 의의를 가진 것이다.

신산설(神山說)

일찌기 중국에는 오신산설(五神山說)이 생겼고 거기서 삼신산설(三神山說)이 파생되었다. 즉

오신산설(五神山說) : 대여산(岱輿山), 원교산(員嶠山), 방호산(方壺山), 영주산(瀛洲山), 봉래산(蓬萊山) 등 5도(島)인데 대여, 원교는 대해(大海)에 침몰되었다고.

삼신산설(三神山說) : 봉래, 방장(方丈), 영주(瀛洲) 등이고 후에 그 처소를 조선에 탁(托)하여 금강산(金剛山)을 봉래(蓬萊), 지리산(智異山)을 방장(方丈), 한라산을 영주(瀛洲)라 말하게 되었다.

신의점(神意占)

보통 ‘심방’이라는 제주도 무당이 행하는데 이하의 두 가지를 병용한다.

척미점(擲米占) : 도신미(禱神米)를 손에 집어 공중에 던져 낙하하는 것을 손바닥으로 받아 미립(米粒)을 산(算)하는데 그 수가 기수(奇數)면 흉(凶), 우수(偶數)면 길(吉)이고 흉시(凶時)는 다시 하여 우수가 되어 신이 가납(嘉納)할 때까지 계속한다.

척전점(擲錢占) : 용구(用具)는 진유제(真鑰製 : 놋쇠)이고 천문전(天門錢)은 4개, 산반(算盤) 1개, 잔배(盞杯) 1개 등이 1조인데 천문전의 개폐가 길흉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開)가 많을수록 길(吉)하고 폐(閉)가 많을수록 흉(凶)하다.

아이누족의 형적(形跡)

최남선(崔南善)이 제주도 여러 지명(地名)의 어속(語屬)을 고찰(考察)해서 한 제안(提案)으로 이때까지 누구나 생각도 꿈도 꾸어보지 않은 일이다.

연등(燃燈)

근원(根元)은 신라 진흥왕(眞興王) 33년(572년) 겨울 10월 20일에 전사한 사졸(士卒)을 위하여 외사(外寺)에서 팔관연회(八關筵會)를 마련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후 고려 태조는 득국(得國)한 것은 제불(諸佛)의 위호(衛護)에 인(因)함이라 하고 연등팔관(燃燈八關)을 설치하여 조의(朝

儀)로 정하고 국가의 대사(大事)로 삼았다. 그후 성종(成宗)에 이르러 단연 폐지하였던 것이 새로이 현종(顯宗)에 이르러 이 국속(國俗)을 부활(復活)시키며 연등회는 정월 망(望)으로부터 2야(夜) 연등하던 것을 2월 망으로 변경하고 팔관회는 태조때와 같이 11월에 마련하였다.

연등제(燃燈祭)

산북지방에서 행하던 민속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그것은 나무로 마두(馬頭)의 형상을 지어 거기 채백(彩帛)을 입히고 약마(躍馬)와 같이 뛰어다니며 그것으로 신(神)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대개는 연초에 행하는 것이고 그해의 액제행사(厄除行事)이다.

영등달

음 2월의 뜻이고 영동신모(永同神母)란 풍신(風神 : 女神)을 제(祭)하는 달이란데 유래함인지 또 2월에 하는 연등(燃燈)에서 유래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외에도 '영등'에 해당시킨 한자에는 영등(迎燈), 영등(靈登), 영동(靈童), 용등(龍燈)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사혈(蛇穴)에 대한 해석

이마무라(今村)는 전(前) 도사(島司)이고 학자이라 저서도 많다. 그의 설에는 판관 서련(徐隣)이 대사(大蛇)를 퇴치했다는 것은 전연(全然) 거짓이고 그 대사의 피해란 것은 폭풍우를 신화(神化)한 것이라고, 농신(農神)에 희생(犧牲)을 바친 일은 고대(古代)에 어디서나 한 일이고 소녀(少女)를 희생에 제공한 것도 사실이었다.

제주도 신가(神歌)

아카마츠(赤松), 아키마(秋葉 ; 1937년) 양씨(兩氏)가 채집한 것은 다음의 본해(本解) 16편(篇)인데 최초의 2편은 촌신(村神)을 모시는 신가(神歌)이고 그 밖은 통상의 무제(巫祭)에 쓰인다. 즉

- ① 서귀본향당본해(西歸本鄉堂本解)

- ② 토산당본해(兔山堂本解)
- ③ 초감제(初監祭)
- ④ 초공본해(初公本解)
- ⑤ 이공본해(二公本解)
- ⑥ 삼공본해(三公本解)
- ⑦ 세경본해(世經本解)
- ⑧ 천주왕본해(天主王本解)
- ⑨ 애천강본해(哀天綱本解)
- ⑩ 세민황제본해(世民皇帝本解)
- ⑪ 명진국생불구본해(明鎭國生佛媼本解)
- ⑫ 신승도해(神僧都解)
- ⑬ 차사본해(差使本解)
- ⑭ 칠성본해(七星本解)
- ⑮ 군웅본해(軍雄本解)
- ⑯ 문진본해(門前本解)

조리희(照里戲)

옛날 8월 15일에 부락에서 남녀가 모여 가무(歌舞)하며 놀고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줄이 중단(中斷)되어 양대(兩隊)가 다 넘어지면 관자(觀者)가 다 대소(大笑)했다. 이것을 조리희라고 했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제주도 부녀기(婦女記)

거인(居人)은 바다를 집으로 삼고 어채(漁採)하여 먹는다. 남자는 많이 표익(漂溺)하고 남소여다(男少女多)하여 일부수십처자(一夫數十妻者)가 있고 심히 가난한 자라도 십부(十婦)는 내리지 않는다. 그 부(婦)는 항상 그 부(夫)를 먹인다. 또 제주 촌항(村巷)의 여자는 매년 3월에 원병(援兵)이 입도(入島)할 때는 화장(化粧)하고 권주(勸酒)로 영접(迎接)하고 8월에

돌아갈 때는 눈물로 보낸다. 임자순(林子順)은 영랑송랑(迎郎送郎)의 곡(曲)을 지었다.

차귀(遮歸)

제주도에는 遮歸(차귀)란 말이 많다. 차귀도(遮歸島), 차귀산(遮歸山), 차귀당(遮歸堂) 등인데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932년)에 의하면 이것은 蛇鬼(사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지귀도(地歸島; 知歸島)나 서귀포(西歸浦) 등의 명칭도 이 사귀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차귀문화권(遮歸文化圈)을 제창(提唱)하였다.

차귀문화권(遮歸文化圈)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932년)가 제창(提唱)한 것으로 제주도에서 사귀(蛇鬼)를 신앙하는 산인사회(山人社會)의 문화권을 의미한다고. 과거에는 제주도 대부분에 번영(繁榮)했던 것이 차차 해인문화(海人文化)의 압박(壓迫)을 받아 그 문화권이 협소해져서 현재는 섬 동남隅(東南隅)에 국한되게 되었고 더우기 그 중심지인 토산리(兎山里)의 주민들을 말하자면 차귀족(遮歸族)이라고도 칭하리만큼 이인(異人), 이사회(異社會), 이문화(異文化)의 감(感)을 가지고 보게되었다고.

토산당(兎山堂)

남토산(南兎山)을 중심으로 제주도 남반(南半)을 지배하는 귀신이다. 근원은 육지서 건너간 사신(蛇神)이고 지방 명망가(名望家)의 처녀와 왜선인(倭船人)들과도 관련되어 제주도성(濟州島性)을 띤 신이다. 더우기 선인(船人)의 가정에서는 극진(極盡)히 숭상(崇尚)한다.

토평리(吐坪里)의 이레당과 여드레당

이레당은 본향(本鄉) 귀신을 위하는 것이고 여드레당은 토산당(兎山堂)을 위하는 것이다. 토평리의 본향 귀신은 낭신(娘神)으로 사납지 않고 생긴 날이 음11월 7일, 토산당의 생긴 날은 음3월 8일이다. 그

래서 토평리 주민은 음11월 7일에는 근린천변(近隣川邊)서 이레당이라 하여 각자가 무인(巫人)으로 빌게하고 미참자(未參者)는 11월 17일 혹은 11월 27일에 한다. 이것은 추곡(秋穀)으로 지내는 것이니 하곡(夏穀)으로 6월 7, 17, 27일에 지내는 것도 있어서 1년 2회 위한다. 주민으로 해사(海事)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드레당이라 하여 3월 8일의 것을 11월 8일로 변경하여 해안에서 이레당의 격식대로 지내는데, 6월 8, 18, 28일에도 하여 1년 2회 위하는 것이 이레당과 같다.

풍수사상(風水思想)

제주도민은 풍수사상이 농후하여 그 방면에 많은 정력(精力)을 쓴다. 필자가 재도(在島)시에도 대학시험장내의 송림(松林)이 동리(洞里)의 방허림(防虛林)이라고 해서 지방인사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애림(愛林)의 의뢰를 받았고 부근의 균지(均地)에도 모가(某家) 선조묘(先祖墓)의 맥(脈)에 관계된다고 누차 진정(陳情)을 받고 드디어 중지한 일조차 있었다. 동리 장로(長老)의 말을 존중하는 뜻으로 그 공사는 중지하였는데 그 노인의 말은 이러하다. ‘산 사람도 손톱만 아프면 불안(不安)하니 선조묘와의 거리는 멀지만 그 암석을 까내면 선조들이 평안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 식(式)대로 말한다면 제주도에서는 토지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도 계획대로 할 수 없을 것임을 느꼈다.

풍수(風水)와 유형(類形)

무라야마 도모즈미(村山智順; 1931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묘지형은 ‘방중원형(方中圓形)’이고 제주도에 있는 대지(大地)라고 불리우는 묘지형명은 다음과 같다.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 타지방에도 있다.

복룡농주형(伏龍弄珠形)

서우망월형(犀牛望月形)

황룡상천형(黃龍上天形)

청도포란형(靑島抱卵形)

평지연화유형(平地蓮花遊形) : 제주도에서만 볼 수가 있다.

풍신(風神)

풍다(風多)의 제주도에 풍신에 관한 것이 없을 리가 없다. 제주도의 풍신은 ‘영등할망’이란 여신인데, 2월은 ‘영등달’이라고 하고, 이달 전반 15일간은 신이 패류(貝類)를 먹는다고 해서 해녀들은 해중에 들어가도 패류를 채집하지 않고 해수(海水)에 세탁도 안한다고 한다. 해녀들이 이 풍신을 잘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제주도의 한 신가(神歌)에는 인문관풍신(印文官風神)의 전설이 진술되어 있다(아카마츠(赤松)·아키바(秋葉)의 朝鮮巫俗の研究, 상권, 341~357쪽; 하권 96~97쪽, 참조).

풍신제(風神祭)

경남북에서 성행하고 제주도서도 성행한다. 그 외에도 강원, 황해, 전남북, 충남의 일부에서 행하지만 경기, 충북, 평남북, 함남북에는 태무(殆無)하다. 이 풍신은 바다에 관계될 것은 물론이요 가인(家人)의 재액(災厄)도 제거한다고 해서 매년 2월 15일을 중심으로 제를 지낸다. 즉 제주도에서는 이러하다. ‘영등할망’은 2월 초에 와서 2월 15일에 가는데 그 귀환을 전송하는 것이 ‘영등제’이다. 제는 2월 13일에 시작하고 15일에 끝나는데 13일에는 수신방(首神房)이 주(主)가 되고 소무(小巫)들이 조그만 신주(神舟)를 만들고 공물(供物), 무새(舞賽)를 한다. 이날이 첫날 즉 ‘굿날’이다. 뒷날인 14일에는 심방(무당)들이 수조(數組)로 분산(分散)하여 죽간(竹竿)에 종이를 붙인 ‘영등대’와 방울을 흔들며 호호(戶戶)를 방문하고 각호에서 쌀(米) 1합(合)과 술(酒) 1배(杯)를 공출(供出)하는 것을 문외(門外)에 살포(撒布)하며 가재액(家災厄)을 쫓는다. 이날이 둘째날 즉 ‘방문날’이다. 15일에는 그 신주(神舟)에다

재액을 전부 싣고 성대한 가무기도(歌舞祈禱)로 바다에 띄워 전송을 한다. 이날이 세짚날 즉 ‘베짚날’이다. 그러나 요새는 약식으로 대강 행하여 간단하다.

7. 식의주(食衣住)

농립모(農笠帽)

보리짚(麥藁)으로 만든 것은 ‘밑낭패랭이’ 혹은 ‘보리짚패랭이’라고 하고, 목제품은 ‘낭거죽패랭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 ‘짚’은 ‘짚’의 제주어.

대울타리(竹垣)

보통 볼 수 있는 것이나 지하경(地下莖)이 이웃밭에 침범하여 곤란(困難)한 관계로 최근에는 보통 수목(樹木)인 삼(杉)같은 것으로 갈아심는 경향이 많다.

대문(大門)

육지에서 보는 대문이 아니다. 보통은 길든 짧은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즉 ‘올래’가 있고 대문으로 볼 수 있는 제주어로 ‘쌀문’ ‘살채기’ 혹은 ‘이문’이라는, 좌우에 석판(石板) 혹은 목판(木板)을 세우고 ‘정문’이라는 막대를 삽입케 된 것을 지나 집 앞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어로 ‘대문’이란 것은 ‘마루방문’이고 전연 다르다.

떡

쌀로 만든 떡은 ‘곤떡’이라 하며 귀중하고 흔히 쓰는 떡은 ‘되밀떡’이고 되밀떡만은 발달하여 그 종류가 많다. 되밀이 많이 산출하는 지방인 때문일 것이다. 이제 떡의 일람표를 만들어 보겠다.

곤떡(쌀떡)

동그랑곤떡(둥근쌀떡)=절편

수랑곤떡(北) (길죽한 쌀떡)=솔편(南)

정붓지(米粟別層의 설기)

침떡(조설기)

제편(쌀설기)

세미떡(北)=만뒤(南) (되밀송편)

은절미(떡) (되밀네모떡)

지름떡(北)=웃직(南) (조떡을 기름에 올린 것)

삼매떡(北)=상와떡(南) (상와떡)

밀삼매

보리삼매

외삼매(白色이고 商品化한 것)

빙떡(北)=전기(南) (되밀전병)

송편(北)=조개송편(南)(조개송편)

고장떡(동그랑곤떡의 刻緣 着色한 것)

수단(조떡이고 일본의 생과자형(生菓子型))

오메기(수단의 큰 것이고 권대(拳大))

적(北) (되밀떡으로 한 적)=묵(南)

전(되밀전)

약괴(사각형 약과)

중계(장형(長型) 약과)

술오매기(주(酒) 양조용(釀造用) 속병(粟餅))

물떡('세미떡'의 큰 것)

등절비(‘솔편’의 큰 것)

돌래떡(도래미(떡), 환형(丸形)이고 탕수(湯水)에 넣었다가 팔보송
이를 붙인 것)

조돌래(조도래미)

모밀돌래(모밀도래미)

과질

보시떡(北)=시리떡(南) ㄱ - 보시기형떡(巫用)

사발떡(北)=시리떡(南) ㄴ - 서발형(形)떡(巫用)

송애기떡(告祀用馬糞形餅, 고사떡)

도민의 독립성

1호(戶)에 남자 성인은 1.0인이니 독립성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1호당 인구는 현주자(現住者)가 4.0인이고, 외주자(출가인(出稼人)과 유학생)를 포함해도 5.4인이니 잡식구(雜食口)가 없는 것도 알겠다. 실제에 있어 친자(親子)가 동가동주(同家同住)이면서도 별동(別棟) 별세대(別世帶) 생활을 하는 것은 육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는 상이(相異)가 없겠고 제주도에도 효자, 효부(孝婦), 충신, 열녀(烈女)가 있었다.

도민의 생활

생활 전부가 돌과 바람에 지배되어 있고 도민의 생활은 돌과 바람과의 투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도민의 식료품

주식물은 보리와 조, 부식물(副食物)은 식물질(植物質)의 ‘매역’과 동물질의 ‘자리’를 보편적으로 풍부히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다.

변소 겸 돈사(豚舍)

인분(人糞)을 돼지의 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전도적이나 제

주도 독특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돈사를 주로 생각한 ‘돌통’, 측(廁)을 주로 생각한 ‘척간’이라는 제주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 같은 말이다. 이제 이 변소 겸 돈사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제주도 외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한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회령(會寧), 양구(楊口), 통영(統營), 거창(居昌), 합천(陝川), 광양(光陽)의 여러 지방(地方). 내몽서부(內蒙西部), 산둥성(山東省) 전부, 산서성(山西省)동·중부, 만주 용정(龍井), 류큐(琉球) 전부, 비율빈(比律賓) 전역(북부 여송(呂宋)서는 중류(中流) 이하가 변소를 앓았고 아무데나 배변(排便)하는 것을 방목하는 돼지가 먹는다).

변소(便所)와 변의(便意)

변소는 돈사이니 변소를 장시간 사용하는 이에게는 돼지의 최축(催促)과 접근으로 대곤란이라 보통은 급하게 되어 사용하는 모양으로 그 사용시간도 극히 짧다.

봉천수(奉天水)

천수(天水)를 흔히 봉천수라고 한다. 한림면 산간 부락인 저지리(楮旨里) 같은 곳에 사는 부호가(富豪家)에서는 50년 이상 저장된 봉천수가 적지 않다. 천수(泉水)는 저장한대도 하절이면 1일에 변질하지만 이 천수(天水)는 저장하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충(虫)의 유무에 불구하고 3개월 이상만 되면 천수(泉水) 이상으로 정화되어 우량한 음료수로 된다고 한다. 저수용기(貯水甕)은 청색보다도 흑색의 토기가 좋다고 한다.

부여(婦女)의 의장(衣裝)

평안도 부인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즉

- ① 쭈건 : 두건(頭巾)인데 명칭부터 같고 약간의 상위(相違)가 있으나 강풍지대임에 유래할 것이다. 즉 경척(鯨尺)으로 3척 3촌의 길이 나 되고 쓸 때 좀 단단히 매는 것이 다르다.

- ② 밑머리와 달래의 길이와 흑색을 자랑함도 공통이다.
- ③ 결발(結髮) : 평안도의 머리뿔과 테두머리의 중간형이나 머리뿔에 가깝다. 머리뿔이 중앙에 있지 않는 것이 다르다. 기생(妓生)들의 낭자는 어디서나 공통이다.
- ④ 의복 : 평안도는 경기도보다
 - ㉠ 저고리가 길고,
 - ㉡ 치마가 짧으며,
 - ㉢ 치마 아래에 바지가 나온다.

이 3점이 다 제주 여복(女服)에서 볼 수가 있다.

- ⑤ 받호장(빨간 깃, 남길손, 빨간 끈의 저고리) : 처녀나 신부시대(新婦時代)에만 입고 곧 백의(白衣)로 변경하는 것이 같다.
- ⑥ 반지(指環)는 얹는 것이 원칙인양 싶은데 근로생활에 따름일 것이다.

연료(燃料)

신재(薪材), 송엽(松葉), 낙엽(落葉), 마분(馬糞), 목탄(木炭), 곡간(穀稈), 인곡(粃穀), 잡초(雜草) 등.

엿

제주엿은 꿀과 흡사하므로 꿀을 청이라고 하는 관계로 ‘조청’이라고 한다. 조청의 ‘조’는 분명히 ‘조(造)’를 의미하지만 그 원료인 조(粟)를 의미한다는 일설도 있다.

오합주(五合酒)

최상의 보제(補劑)로 청밀(淸蜜), 참기름(眞油), 계란(鷄卵), 누룩(麴), 찹쌀(糯米) 등 5품을 합한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청밀과 참기름은 1승(升)씩 계란은 50개, 토주(土酒)는 1승의 비율로 합하여 두면 이삼일 내로 발효하는데 1일에 2~3차 여러 잔씩 마시면 된다. 가미제(加味劑)

로 생강(生薑), 후추(胡椒) 등도 가입(加入)하고 인삼(人蔘)까지 가입하면 그 이상 없다한다.

온돌과 연료

제주도는 난지(暖地)로 온돌은 본래 없던 것이 육지로부터 이입(移入)된 것이고 16세기에는 벌써 보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온돌이라야 아궁안이 조고만하게 막힌 구멍에 지나지 않으니 우마분(牛馬糞)같은 것을 땀 수밖에 없고 구들장도 제주어로는 ‘구들돌’ 혹은 ‘굴묵돌’이라 하고 수매(數枚)를 사용할 뿐이니 방 안이라야 그 부근만 따뜻할 뿐이다. 연통(煙筒)도 없고 때기도 곤란하고 부근은 연기로 불결해지는, 지극히 간단한 원시형이다. 이것은 물론 난지이므로 발달되지 못한 관계이지만 육지의 방식이 차차 이입되고 있다.

요리(料理)

요리는 발달되지 않았다. 쌀도 잘 씻지않고 특히 조(粟)는 전혀 씻지 않는다. 밥은 대체로 굳고 부식물은 극히 간단하며 손 가는 것을 만 들지 않는다. 해어(海魚)는 ‘회’로 먹는 것이 많고 돼지나 닭도 통으로 그대로 소자(燒煮)해서 먹고 별로 손질하는 요리가 없다. 돼지도 회(膾)로 먹는 부분이 많다.

의복(衣服)

난지(暖地)이니 솜의복이 있대도, 얇은 솜옷이고 겨울에도 일할 때는 겹옷을 입는다. 작업복은 대개 감물 올린 홑옷이고 이것만도 입고 혹은 보통 의복 위에 이 감옷을 껴입고 일을 한다. 이 감옷은 독특한 것이며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올렸으니 질기고 더럽지 않아서 작업복에는 맞춤이다. 한 벌로 보통 노동에는 2개년은 사용한다니 좋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보기에 색이 눈에 들지 않으나 보고나면 또 버리기 아까운 색이다.

자리회

‘자리’는 제주도 특산이라고 불만하고 여러가지로 요리해서도 먹지만 보통은 회로 해서 먹고 보편화한 것인데 특히 남부에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회를 만드는 법은 두부(頭部)와 내장(內臟)의 일부를 한 칼에 잘르고 다음엔 비늘(鱗)들을 벗겨서 양념한 찬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다. 양념엔 깨, 초, 마늘, 파 등을 사용하고 오이 같은 것도 넣는다. 자리회 먹으러 가자 하면 밥과 양념만 가지고 해안에 가서 회를 만들어 부식물로 삼아 먹는다. ‘자리’는 곧 변하는 고기다.

주택(住宅)

농가는 각각 농경지에 포위되어 있어서 올래가 길고 각호가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호수에 비하여 부락지역이 대단히 넓다. 가옥의 구조는 풍해를 많이 고려한 것이고, 특히 지붕은 ‘새’로 튼튼히 하고 ‘새배’로 잘 묶는다. 난지(暖地)인 만큼 온돌은 불완전하고 아궁 안에 공극(空隙)이 있을 뿐 연통(煙筒)도 없다. 그러니 실내가 겨울에는 의외로 춥고 여름에는 다온(多溫)하다.

지붕

제주도에 많은 ‘새’로 만드는데 다풍(多風) 우지(雨地)이니 풍우에는 특별히 고려된 것이다. 대개는 매년 늦어도 2년에 1차는 ‘새’를 가(加)하는데 여러해 후에 너무 두터워지면 상부로 부터 조금씩 내리운다. 신조(新造)해서 비가 안새는 일은 절무(絶無)이고, 따라서 수차 새를 가하여 손질한다. 재료가 나쁘다든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다우지(多雨地)인 관계라고 하겠다. 바둑판 줄 모양으로 엮어덮는 굵은 새끼도 물론 새로 만든 것이고 이 새끼만드는 기구도 극히 간단한 것이다.

즈배기

가장 보편화한 음식인데 떡국에 가장 근사하고 떡국과 특히 상이 한 것은 제주도의 모든 국물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국물에 곡분(穀粉)을 넣는 것인데, 따라서 국물이 대단히 걸쭉하다. 그릇에는 아무 제정(制定)이 없으나 아마 ‘자배기’에서 유래된 말일까 한다. 떡이 세장(細長)할 때는 ‘국쉬’라고 하지만 육지의 ‘국수’와는 다르고 ‘수제비’라고 할 정도이다. 육지의 국수에 해당하는 것은 ‘멘’이라고 하고 면(麵)의 뜻이며 당면(唐麵)은 ‘감저우동’이라고 해서 그 재료와 용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또 ‘즈배기’는 ‘새알심’의 뜻으로도 쓰인다.

8. 일상생활(日常生活)

각씨가 아까우면 처가집 주먹냥도 아까워한다

색씨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 ‘아깝다’는 ‘귀해하다’의, ‘주먹냥’은 ‘대문기둥’의 제주말.

감옷

감물 올린 옷인데 농민의 통상복은 다 이것이고 대단히 질기다. 질길뿐만 아니라 더럽는 줄도 모르겠고 여름에는 몸에도 잘 아니붙고 또 입어버릇하면 기분도 좋다고 한다. 감둥걸이, 갈적삼, 갈정뱅이, 갈중이 등 하복은 대개 이 물을 올려서 입는다. ‘중이’는 ‘바지’ ‘고의’(袴衣)의 제주어.

거릿좌수=종다리암쇠

가로(街路)에 있는 좌수(座首)란 뜻으로 만사(萬事)에 통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좌수는 이조시대에 지방에 두었던 향청(鄉廳)의 우두머리다. 또

종달리(終達里) 암소(批牛)란 뜻도 동의구(同意句)이니 종달리(終達里) 부근에는 염전(鹽田)이 많아서 생산된 식염(食鹽)을 암소에 지우고 제주부인이 여러 곳으로 행상(行商)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결혼(結婚)

대부분이 남자측에서 청혼(請婚)을 한다. 결혼식날에는 먼저 신랑 행렬이 신부택에 가는데 선두에 서는 이는 부락 하인(下人)으로 대개는 무녀(巫女)이고 약간 일행보다 선착(先着)하여 예장(禮狀)을 전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택에 도착하고는 의식(儀式)을 지내고 주식(晝食)후에 신부를 데리고 그날로 돌아오는데 준비하고 갔던 교(轎)에 태워 온다. 행렬에는 전부 말(馬)을 사용하고 신랑도 물론 승마(乘馬), 신혼교(新婚轎)도 전후 두 마리의 말이 운반하는데 물론 이 말들은 평상시의 훈련(訓練)이 있는 것들이다.

겹매움

마소 두 마리를 때울 때는 육지서는 보통 좌우에 겹매우지만 제주도서는 전후로 겹매운다.

꼭대기

제주도에서는 흔히 ‘꼭대기’란 말을 쓰지만 또 제주어로 ‘봉대기’란 말을 많이 쓰며 이 ‘봉대기’는 남포(臘浦)의 방울(口釜)도 의미한다. 더우기 다른 것은 동물들의 꼭대기는 특히 ‘상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관혼장제비(冠婚葬祭費)

제주도에서는 관혼비(冠婚費)보다 장제비(葬祭費)가 특별히 많고 특히 제비(祭費)는 지극히 많다. 전라남도 각군에 비하여 현저하고 부근의 도서인 완도(莞島), 진도(珍島) 등지와 비해도 특히 현저하다는 것보다 극단(極端)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부모 생전에 봉양이 적은 제주도에서 장제비가 특히 많다는 것은 오히려 가소(可笑)로운 일이다.

꽁

뼈(骨)의 뜻이고 과실(果實)의 심부(心部) ‘응어리’의 뜻으로도 쓴다. 또 단단한 것을 의미해서 ‘꽁냥’=‘괭꽁냥’(꽁꽁나무), 꺾배(뜯배) 등의 예도 있다.

구덕

대(竹)가 많은 곳이라 죽농(竹籠)도 많다. 육지의 바구니와 같이 쓰이는 죽농(竹籠)을 ‘구덕’이라고 하고, 세치(細緻)한 것은 ‘고는대구덕’이라고 한다. 구덕을 한자로 구덕기(九德器)라고 쓰는 이도 있지만 분명히 해당한 자를 택해서 쓴 것으로 그 발음으로나 그 뜻으로나 잘 표현된 한자이다.

그년의 바람

‘바람’은 ‘바람’의 제주어요, 참 싫은 바람이 불 때에 하는 말로 육지서면 ‘그놈의 바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로도 제주도의 여권(女權)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근로정신(勤勞精神)

도민에게는 근로정신이 강하다. 남자의 출가업(出稼業)과 여자의 잠수업(潛水業)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척박한 토지의 소산이다. 이 정신이 지극히 좋기는 하지만 좀 지나친 점이 있어서 극단의 개인주의로 되고 소위 도인근성(島人根性)이란 것이 되었다고 한다.

기시린 도야지가 ㄹ라멘 도야지 타령한다=쌍얼청이가 외얼청이 타령한다

똥물은 개가 겨물은 개를 흥본다.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도살(屠殺)할 때는 달아매고 찢러서 죽인 후에 불에다 굴려서 털을 다 태운다.

나것일코 나함박 버른다

내것 주고 뺨맞는다. 즉 이중의 손(損)이란 말. 제주도의 ‘나’에는 ‘나’와 ‘내’의 두 뜻이 있다.

남권(男權)과 여권(女權)

남녀의 권리는 분명히 경제력에 병행한다. 제주도는 여자가 생산하며 따라서 경제권을 가졌으니 남녀의 권리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혼·재혼의 풍이 강하고 따라서 그것을 그리 흠잡지도 않는다. 한림면(翰林面) 협재리(挾才里) 같은 곳에서는 초혼의 부부는 불과 2할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첩(妾)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은 여자의 수가 많은 관계이다.

남녀의 일의 구분

남자의 일로는 우경(牛耕), 파종(播種), 가옥건축(家屋建築) 및 수선(修繕), 우마차(牛馬車)의 취급, 부역(賦役) 등이고 여자는 가사(家事), 재봉(裁縫), 육아(育兒) 등 육지 일반 부녀의 일은 물론 그외 가계(家計), 농작(農作), 잠수(潛水), 음료수 운반 기타 일체의 일을 하니 여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다. 밭도 인가 근처에 집중되었고 떨어질수록 값이 떨어진다. 그러니 여자의 문화면에는 보잘 것이 없고 발달할 리도 없으며 내외의 풍(風)도 없다.

납해치

신년(申年)에 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신(申)을 ‘납신’이라고 해서 나비해에 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필자는 무신생(戊申生)이니 ‘납해치’가 되어 나비의 팔자로 이 제주도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제주도인이 말하였는데 이것이 작난의 말이 아니라고 진지(眞摯)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럴듯 하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고 ‘납’은 원숭이 고어(古語)이니 그 글자대로의 뜻에

불과하다.

넝바리

‘숯넝바리’라고도 하고 ‘숯등걸’ 혹은 ‘넝과리’의 뜻인데 혹은 기혼부인(既婚婦人)의 뜻으로도 쓴다. 그것은 처녀를 ‘비바리’라는데 대해서 한국의 도덕관(道德觀)으로 보아 구조(口調)도 같은 이 ‘넝바리’가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누어서 지름떡 먹기

누어서 떡먹기. ‘지름’은 ‘기름’의 제주어로 ‘지름떡’은 가장 맛있는 떡으로 되어있다.

대머리(禿頭)

제주어로는 여러 표현이 있다. 말하자면 민둥머리. 민둥버세기, 민둥이, 버서진더맹이, 호박대맹이 등.

도민의 특성

1948년 조사에 의하면

- ① 도민의 역사적 전설
- ② 도민은 누구나 친척 관계에 있다
- ③ 배타적이다
- ④ 과거부터 육지인이라면 거지꼴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상대를 잘 하지 않음
- ⑤ 도민의 자존심은 자기네의 수준이 한국의 어느 곳보다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 ⑥ 중간층(中間層)이라는 것은 태무(殆無)
- ⑦ 전통적 용맹성
- ⑧ 정의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는 언제나 동일보조(同一步調)를 취함
- ⑨ 생활력의 강성(強盛) 등이다

돈잠에 개꿈

‘쓸데없는 잠에 쓸데없는 꿈’이라는 뜻. 이 ‘돼지잠에 개꿈’이란 말은 제주도 특유의 표현인줄 알았더니 꼭 같은 말이 전라북도 금산(錦山)·무주(茂朱) 지방의 용담(龍潭)이란 곳에도 있고 함경북도 회령(會寧) 지방에도 있다.

돈추념(돼지추렴)

돈육(豚肉) 분할 즉 돼지추념의 제주어인데 때때로 동리(洞里) 사람들이 모여서 돼지를 잡아먹는 일이다. 분할되는 각 부분의 각 칭은 다음과 같다.

머리 뼈 : 頭骨上半

술디=알라구리 : 頭骨下半, 제1위품

접작 뼈 : 頸 및 肩胛.

전각 : 前脚, 제2위품

등 빚든 갈비 : 胸椎 含한 一便 助骨部

외 갈비 : 胸椎 不含한 他便 助骨部.

승 : 腹部, 제3위품(雌)

일론 : 腰椎部, 제1하위품

후각 : 後脚, 제4위품

비피 : 薦椎部

네복 : 內臟

이상은 전부(前部)에서 후부(後部)로 배열한 것이고 전각, 승, 후각 등은 각 2개씩이니 전체를 14분하여 대가를 적당히 배당한다. 전출한 바와 같이 제1위품은 ‘술디’, 제1하위는 ‘일론’, ‘갈비’는 제5위이다.

돌 풀아 훈냥 개풀아 닷돈하니 양반인가

개팔아 두 양반이나 즉 양반을 비웃는 말.

돌담

전(田), 답(畓), 대지(臺地)를 막론하고 주위에는 반드시 돌담이 있다. 돌담의 조성은 돌의 처치법(處置法)의 하나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곳곳에 석퇴(石堆)를 볼 수가 있다. 돌담의 효용은 ① 돌의 처치(處置). ② 경계선의 명시. ③ 우마의 탈출 방지. ④ 방풍 등등. 따라서 돌담의 기술은 발달되어 있다.

돌당바도 말방위

아무리 돌다가 보아도 말방에란 말로 개미 쳇바퀴 돌듯의 뜻, 즉 항상 진보가 없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함.

동백나무 울타리 집

남원면(南元面) 신흥리(新興里) 남단에 훌륭한 동백나무 울타리집이 있다. 가옥은 3~4동 초가로 보잘 것이 없으나 동백나무 울타리만은 참 훌륭한 것으로 아직 이 집에 살아있는 75세용(1945년)이 종묘(種苗)를 수집해서 손수 심은 것이라 한다. 삼목(插木)하는 것이 속(速)하기는 하지만 채유(採油)에는 부적(不適)이라 한다.

독발 그리듯

게발 그리듯의 뜻. 게 대신에 제주도에서는 독(鷄)을 인용한 것이 재미있다.

망태기

모양에 따라 제주어로는 명칭이 많다. 맥다리(北部語), 망탱이=멧탱이(南部語), 맥(大型, 먹서리), 멧망탱이(小型), 약도리(網型, 北部語), 약돌기(網型, 南部語).

매

여러가지 종류와 명칭이 있다. 방에(매, 절구), 남방에(나무절구), 돌방에=돌뱅이(돌절구), 물방에=물꺨레=물가리=구레(말방아, 碾子磨), 꺨레(맷돌, 매), 꺨랫돌(맷돌), 뱅이왕(방앗간).

머돌

돌담불(石堆)의 뜻이고 부근의 돌을 처치(處置)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고도 남으면 이 ‘머돌’을 만든다. 처음 보면 무슨 불고 등에 관한 석총(石塚)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모관놈

제주도내서도 제주 밖의 사람은 제주 사람을 악칭(惡稱)해서 ‘모관놈’이라고 한다. ‘모관’은 목관(牧官) 즉 목사가 있던 곳이란데서 유래해서 제주를 말한다. 지방에 가면 ‘모관놈 안자난텐 풀도 아니 돛나’, ‘모관놈 못난놈 정잇놈 좃만도 못 하다’ 등의 말이 있다. 그러나 모관 즉 제주에 가면 그 반대의 말이 물론 있고 대체로 보면 제주인(산복인)은 지방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진 것만은 사실이다.

모녀의 애정

제주도 주민은 부모와 자식이 별세대(別世帶)를 갖고 서로 독립하는 정신이 극단(極端)으로 발달은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엔 틀림이 없다. 더우기 모녀간의 애정은 육지의 것과 동일하고 많은 민요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민요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제주녀의 표현은 일층 강한 기상을 보여 준 것이 많다.

물발이 젖어야 잘산다

혼인날엔 오히려 약간 비가 와야 잘 산다는 말인데 유래는 지방인에게 들으니 다음과 같다. 택일(擇日)에 천기(天氣)를 너무 기대했다가는 실망할까 하는 염려로 생긴 말이라고.

바가지

육지서 흔히 보는 바가지는 많지 않고 흔히는 나무바가지 즉 ‘남박(새기)’을 쓴다. 이 ‘남박’에는 종류도 많고 명칭도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2종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일 흔히 곡물용기로 쓰는 타원형의 것은 손으로 다룬다고 ‘손뺑’이라고 하고 혹은 ‘솔뺑’이라고도 한다. 촌락이나 더우기 대정 지방으로 가면 ‘좁뺑’이라고도 한다.
- ② 되(升) 대신으로 쓰는 4합(合)들이는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이 있다. 즉 산북에서는 ‘되약’, 산남에서는 ‘되약새기’, ‘되약새기’ 혹은 ‘되약새기’요 정의 방면서는 ‘짐작’, 대정 방면서는 ‘짐자기’라 한다.

그외에 가정용으로 쓰는 ‘식되’는 제주어로는 ‘밥되’라고 한다.

바구니

죽제(竹製)로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이 있다. 통칭은 ‘구덕’이라 할 수 있고, 부인들이 외출할 때 휴대(携帶)하는 것이 ‘곤대구덕’ 혹은 ‘긔는대구덕’ 즉 세분(細分)한 대로 만든 ‘구덕’이요, 기타는 대부분 타원형으로 ‘애기구덕’, ‘물구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런 ‘구덕’은 부인들이 굵은 새끼로 어깨에 보통 지고 다닌다. ‘구덕’에 종이를 바른 것은 ‘보름바구리’라고 하는데 이 ‘바구리’가 ‘바구니’와 그 어원이 같을까 한다.

바농전동이 즐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바늘 복판에 잘라매서 바누질 될까의 뜻으로 너무 급하게 굴면 실패한다는 경구(警句).

발막아 농나

어긋나게 눕다의 뜻. 즉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울 때, 두족(頭足)을

상반(相反)해서 놓는 것인데 이 방식이 제주도는 대단히 흔하다. 가정에서 많이 하는 법이며 초면의 손님과도 보통 이렇게 잔다. 물론 좋은 법은 아니다.

방위(方位)

동서남북 사방을 다음과 같이 고인(古人)들이 쓴 것이지만 제주도는 현재도 보통 그렇게 쓴다.

동방(東方) : 묘방(卯方)

서방(西方) : 유방(酉方)

남방(南方) : 오방(午方)

북방(北方) : 자방(子方)

벌쫓거시다

불구멍 건드리다, 즉 일부러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거시다’는 ‘건드리다’의 제주어.

뺱

거짓말이란 것을 표할 때 내는 소리고 대포 소리를 시늉한 것이다. 따라서 ‘뺱’하는 대신에 ‘대포’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제주도는 ‘뺱보’라고 하니 ‘대포’가 ‘뺱보’로 변하였는지 일본어의 テッポウ(鐵砲)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마 후자일 것이나 여하튼 대포든 총이든 이런 무기로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고 제주도 것은 육지 것에 비해서 소규모의 표현이니 더욱 재미가 있다.

불임질

곡물을 낙하시키면서 바람에 날려서 선곡(選穀)하는 일인데 제주도는 보급된 방법ियो 바람부는 날이면 동리어구나 어느 모퉁이 적소(適所)에서는 항상 볼 수 있는 일이고, 순전히 몽고식(蒙古式)이다. 육지에서는 표준어로 ‘불림질’이라고 하고 키질을 하여 선곡함은 누구

나 항상 보는 바이다.

비온날 쇠총지 갖치

박쥐구실의 뜻. 즉 유리한 편에 붙는다는 뜻. ‘쇠’는 ‘소’의, ‘총지’는 ‘꼬리’의 제주어.

사농개 언똥 들어먹듯

게눈 감추듯, 즉 대단히 속히 먹어치우는 뜻. 사농개가 덩어리 똥을 속히 처분하는 제주도 풍경에서 유래한 말.

사름잇수까

흔히 쓰는 방문어(訪問語)로 ‘계십니까’의 뜻이다. 혹은 ‘사름 시우까’라고도 하고 원시적 표현이다. ‘사름’은 ‘사람’의 제주어요 혹은 ‘사름’이라고도 한다.

산부근해부근(山不近海不近)

이 사상(思想)이 많아서 양반 부락은 대개는 중산지대(中山地帶)에 있다. 사실 옛날에는 중산지대(中山地帶)가 생활에 편리도 하였을 것이다.

산마(產馬)에 관한 한국의 고언(古言)

망아지는 제주도에, 송아지는 거제도(巨濟島)에, 아이는 서울에 보내라.

살참보리 거죽차 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 살라

겉보리 거죽째 먹는다 할지라도 첩하고야 한 집에서 살 수가 있을까.

삼승할망

‘삼신할머니’(三神孃)의 제주어요, ‘지영할망’이라고도 한다. 애기를 주고 안주는 것은 전혀 이 여신(女神)에게 달렸다고 해석해서 애기 못 낳는 여자는 분만부(分娩婦) 옆에 가서 있다가 애기가 나올 때 ‘삼승할망 내게로 읍서’하고 모셔오면 임신한다고 한다. 미신이 많은 섬이니 이 여신을 본체로 삼는 무녀(巫女)도 많다.

삼촌

‘삼촌’의 뜻임은 물론이요 ‘삼촌댁’ 보고도 ‘삼촌’이라면 되니 편리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삼촌’은 친밀한 어른의 호칭에까지 광범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 실로 편리한 말이다.

삼무(三無)

대문(大門), 도적(盜賊), 걸인(乞人)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지에서 보는 대문이 없을 뿐이지 제주식 대문 즉 ‘올래’가 있고, 섬이니 만큼 도적이 없어 육지식 대문은 소용이 없다. 간혹 볼 수 있는 걸인은 대개 추자도(楸子島)에서 온 사람으로 ‘추자걸바시’란 것이 그것이다.

삼지방색(三地方色)

제주도는 언어, 풍속, 습관, 기타로 보아 제주, 정의, 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삼분된다. 그래서 태종 16년(1416년)에 안무사(按撫使) 오식(吳湜)이 정의, 대정 양현을 계건(啓建)하였는지 혹은 이렇게 삼분된 후에 차차 달라졌는지 미상(未詳)이나 아마 옛날부터 지방색이 보이므로 행정구역을 삼분한 것이 그 지방색을 차차 조장(助長)시킨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쌍얼챙이가 외얼챙이 타령한다=기시린 도야지가 두라멘 도야지 타령한다

똥문은 개가 겨문은 개를 흥본다. ‘얼챙이’는 ‘언칭이’의 제주어.

새끼

제주어로 ‘숙기’ ‘숫기’ ‘셋백기’란 것은 다 가는 새끼를 의미하고 굵은 새끼는 ‘배’라고 한다. ‘배’는 그대로 혹은 다시 손질해서 여러가지로 쓰이며 또 명칭도 다르다. 예를 들면

디린배 : 다시 굳게 더 끈 것.

물배 : 물 기를 때 질빵으로 씬.

상갑배 : 새곱 끈 굵은 새끼.

암패 : 새끼를 겹쳐서 끈 굵은 것 등등.

생완

생원(生員)에서 유래한 모양이고 무녀(巫女)가 남자 청년을 부를 때 쓴다. 장년(壯年)에는 ‘댁’이라고 부른다.

소도리

‘쏘개질’ ‘말질’ ‘말전주’들의 제주어인데 ‘소도리질’ ‘소드리’ ‘소드리질’이라고도 한다. ‘말질하다’를 표현할 때는 ‘소도린다’ ‘소드린다’ 혹은 ‘소도리 맞춰다’라고 하며, 제주도에는 지극히 많은 말이다.

손으로 강알막듯

낫으로 눈가리듯의 뜻. ‘강알’은 ‘살추리’의 제주어.

솔

3종이 있는데 표준어와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옹지리 : 옹솔

반솔 : 중솔

말치 : 큰솔 ㄱ 외말떼기 - 한말들이

 ㄴ 두말떼기 - 두말들이

수질

제주도서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 수질(水疾)에 틀림없다. 그러나 뱃멀미만이 아니고 기차(汽車), 기타 탈 것의 멀미도 수질이라고 할뿐만 아니라 인멀미(人醉) 조차 ‘사름수질’이라고 한다.

승능

승능과 어원이 같을 것이나 제주어에서는 제상(祭床)에 올릴 때만 사용하는 말로 되고 보통 때엔 ‘밥솔햇물’이라고 한다.

송어뛰면 복쟁이 뵈다

감당못한다를 낮추어 하는 말.

씨름

‘살바’를 안끼고 띠만을 서로 잡고하는데 일본씨름과도 다르다. 또 ‘바지씨름’이란 것이 있는데 바지와 띠만을 서로 잡고 한다. 만일 타 처(他處)를 잡든가 하면 지는 것이 된다.

실푼간에 선떡

싫은데 선떡이란 뜻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뜻.

심방

제주어로 무당의 뜻으로 남녀가 다 될 수 있고 대개는 세습적 직업이고 천민(賤民)에 속한다. 비록 근일에는 무사(巫事)를 금지하여 잠행적(潛行的)으로 하니 심방의 수가 적지만 과거에는 그 수가 대단히 많았고 곳곳에 신당(神堂)도 많았다. 어느 집이나 1년 1차의 곳을 아니한 집은 없었다하니 그 성사(盛事)는 지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

십이지(十二支)에 의한 사람의 명칭

- 쥐(子)해에 난 사람 : 쥐해치
- 소(丑)해에 난 사람 : 쇠해치
- 범(寅)해에 난 사람 : 범해치
- 토끼(卯)해에 난 사람 : 툇해치
- 용(미리룡 龍, 미리진 辰) : 미리해치
- 뱀(巳)해에 난 사람 : 배염해치
- 말(午)해에 난 사람 : 말해치
- 염소(未)해에 난 사람 : 정남해치
- 나비(납신 申)해에 난 사람 : 납해치
- 닭(酉)해에 난 사람 : 득해치

개(戌)해에 난 사람 : 개해치

돈(亥)해에 난 사람 : 돈해치

숯도덕분에 나팔불기

군불에 밥짓기. 즉 타인의 일을 해주면서 자기의 일도 하는 뜻. ‘숯도’는 사또(使道).

안반

‘떡판’을 의미한 ‘안반’은 제주어로는 ‘남뱅이’. 제주어의 ‘안반’은 ‘방춧돌’인데 목제(木製)의 것이 대부분이다. 석제(石製)의 ‘방춧돌’은 제주어로는 ‘돌안반’. 이 ‘방춧돌’을 의미하는 ‘안반’은 흔히 산북에서 쓰이고, 산남에서는 목제의 방춧돌을 ‘돛배’라고 하는데 이 ‘돛배’는 ‘도마’도 의미한다.

앙살운 암캐갓치 앙앙하지 마라

부녀(婦女)들에게 지껄이지 말라는 뜻. ‘앙살운’은 ‘사나운’의 제주어. 제주도 부녀를 사나운 개에 비해 이야기하는 것은 육지서와는 다른 감정(感情)이다.

애기구덕의 효용(效用)

‘애기구덕’은 유아용 요람(搖籃)이다. 이것을 사용하면

- ① 바쁜 부녀자가 발로 흔들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 ② 이 요람의 동요(動搖)는 후일의 뱃멀미를 일으키지 않게할 것이다.
- ③ 온난(溫暖)한 지방에 많은 뱀이나 독충(毒虫)의 해(害)를 피할 수 있다.
- ④ 운반도 용이하고 야외에 내다놓기에도 편하다.

어비아비

유아에게 어비아비할 때는 ‘고냉이고냉이’ 혹은 ‘베염베염’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흔하고도 무서운 것은 아마 고양이와 뱀뿐이므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엷수다

극히 많이 쓰이는 말로 혹은 ‘엷수다’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없습니다’와 ‘그렇지 않습니다’의 두 뜻으로 구라파어(歐羅巴語)의 부정(否定)과 같이 쓰인다. 그런데 이 발음은 한글이 생긴 후의 변화로도 생각된다. 왜그러나하면 본래의 ‘없다’의 발음을 육지서는 다만 발음하여 ‘엷다’라는데 대하여 제주도는는 스만 발음하여 ‘엇다’라 하게 된듯도 싶으니까.

에미일른 송애기

‘끈떨어진 망식중’의 뜻. 의지할 곳이 없어진 사람을 말하는 말. 송애기는 송아지의 제주어.

여드레 팔십리

옛날 제주서 서울까지는 수로(水路) 천리(千里)요, 육로(陸路) 천리라 하고, 그 교통이 불편함을 말하였다. 기실 수로는 800리 밖에 못되나 목포(木浦)까지 도착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았다. 목포·서울간 천리를 도보함에는 10일 내지 30일이 걸렸고 약한 사람은 나중에는 실로 1일 10리밖에 못걸어서 여드레에 팔십리밖에 더 못걸었다 하여 걸기 어려운 때에 이 말을 쓰게 되었다 한다.

여권(女權)

여자가 생산에 종사하니 여권이 강하다. 유교(儒敎)의 유풍(遺風)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思想)은 있지만 육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여자는 고래(古來)로 잘 일하고, 남자와도 혼합되어 일하며, 내외(內外)도 별로 없다. 고래로 여다남소(女多男少)의 현상이 있는 관계인지 축첩(蓄妾)의 풍(風)이 심하고 여자의 남자획득운동(男子獲得運動)도 심한 기록이 있다. 이조중엽에 육지로부터 위수(衛戍)의 병(兵)이 교대(交代)

하여 오면 해안에서 기다리던 도녀(島女)들은 각자의 의사로 남자를 자택에 초치하여 동서(同棲)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자가 만기(滿期)가 되어 귀환(歸還)시는 울면서 작별한 예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결혼(結婚)·이혼(離婚)은 고래(古來)로 육지에서보다 대단히 용이하다.

여자의 근로정신

제주도 여자는 육지 여성이 담당하는 일의 전부와 육지서는 남자가 담당하는 일의 태반(殆半)을 담당한다. 이 정신은 남자들의 출어(出漁)와 제주도 자연의 빈핍상(貧乏相)이 가져온 것이겠다.

여자의 명칭

비바리(치녀 계집애), 비발년(딸년), 각씨(부인, 아내), 새각씨(젊은 부인), 냉바리(부인), 예편(여편네), 예편네=예편들(아낙네), 할망(할멈).

여자의 물건 휴대

구덕에 끈을 매서 등에 지든가 바구니에 넣어서 옆에 낀다. 아이를 등에 지는 일도 보통은 일본식으로 지지만, 길 갈 때는 아기구덕에 넣어서 끈을 매서 진다. 여하튼 육지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두상(頭上)에 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여자의 주력(注力)하는 일

지방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다.

성내(城內), 정의(旌義) : 빨래

내·외도리(內·外都里) : 다드미

제주, 조천(朝天), 함덕(咸德) : 망건

구좌면(舊左面) : 해조(海藻)

한동리(漢東里), 평대리(坪岱里) : 직식(織蓆)

교래리(橋來里), 송당리(松堂里) : 피방아

대정(大靜) : 면직(綿織), 마직(麻織)

옛날 대정군(大靜郡)의 인정(人情)

인정은 흉험(凶險)하고 관헌(官憲)에 반항하는 일이 많아서 군수(郡守)가 와서도 장기체재(長期滯在)하는 일이 적었다. 본도에 누차(屢次) 봉기(蜂起)한 민란의 수괴(首魁)도 항상 본군(本郡) 출신이요 도민들도 본군 출신이 아니면 수괴되기 어렵다고 하고 본군민을 항상 외경(畏敬)하였다. 이 기풍(氣風)은 다만 사람에게 만도 아니고 말(馬)에게도 해당하는 모양으로 본군산 말은 체소(體小)하지만 강력표한(強力標悍)하고 인내성이 강하다고 한다.

오그랭이글쭈

꼬부랑글자. 알지못할 서양글자란 말인데 그 모양이 꼬불꼬불한 관계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히라가나(平假名)도 오그랭이글쭈라고 한다.

우마(牛馬)부릴 때 내는 소리.

왕 : 산북(山北)서 소를 정지시킬 때 내는 소리.

화-아-○ : 산남(山南)서 소를 정지시킬 때 내는 소리.

황왕 : 소의 방면(方面)을 변(變)할 때 하는 소리.

어려려려 : 말의 방면(方面)을 변(變)할 때 하는 소리.

이르 : 말의 동작을 최촉(催促)할 때 하는 소리 즉 ‘이랴’.

웃뜨룻놈

춘놈의 뜻이다. 제주도는 해안 부락이 발달하였고 중간 부락이 양반 부락이요 산간지대 즉 웃뜨르(上野)가 제일 떨어진 곳인 때문이다.

음(陰) 6월 20일

이날 첫새벽 해뜰 때 닭을 잡아먹으면 튼튼해진다고 한다. 남자는 암탉을, 여자는 숫탉을 먹는데 일인(一人) 일계(一鷄)를 먹으면 효과가 현저하다고 한다.

이슬에 큰 사름

밤비에 자란 사람. 즉 우인(愚人)을 말한다.

이허도(離虛島)

많은 저가(杵歌), 선가(船歌), 농가(農歌)에 ‘이여도야 이여도’ ‘이해도’ ‘이여두’ 등의 거의 무의(無意)한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은 이허도(離虛島)란 뜻으로 이 이허도는 제주도와 중국과의 중간에 있다는 가상의 섬이라 한다. 왕복 모두 이 이허도에 도착하면 안심을 하게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도 옛날에 중국과의 교통이 많았던 것을 짐작 하겠다.

인정(人情)

도민은 고래로 성질이 표한(標悍)하여 역사상 도요(島擾)가 많았다. 장점(長點)으로는 육국인(陸國人)에 비하여 기개(氣概)에 부(富)하고 근검질실(勤儉質實)의 미풍(美風)이 있어서 경제사상(經濟思想)이 발달하고 의뢰심(依賴心)이 없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하는 풍이 강한 일면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시의심(猜疑心)이 강하고, 배타성(排他性)이 농후(濃厚)하여 투서(投書)같은 일이 매우 심하여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정신이 적다.

일본과의 공통점

삼성혈(三姓穴)서 나온 삼신(三神)이 동해안(東海岸)에 유렵중(遊獵中) 표착된 일본으로부터의 삼녀(三女)와 배(配)되었다는 전설로 시작되었으니 일본과의 공통점도 적지 않다. 즉

- ① 여자의 재봉운침법(裁縫運針法)
- ② 여자의 아이업는 법
- ③ 여자가 짐을 두상(頭上)에 이지 않는 것
- ④ 여자가 근면한 것

- ⑤ 여자가 내외(內外)않는 것
 - ⑥ 부엌에 솔을 걸되 온돌(溫突)에 붙이지 않고 돌로 탄솔덕(부뚜막)을 만드는 것
 - ⑦ 고추를 애용(愛用)치 않고 찬밥도 잘 먹는 것
 - ⑧ 휘파람 부는 습관이 있는 것
 - ⑨ 여자의 얼굴이 반도 남부의 여자보다 철요(凸凹)가 좀 더 심해서 일본 여자에 가까운 것
 - ⑩ 약간의 언어의 공통점
- 등을 들 수가 있으나 크게 불만한 것들은 아니다.

입춘(立春)

이날 여자는 타가(他家)에 출입치 않는다.

잠녀(潛女)의 잠수복(潛水服)

대개는 자기의 수제(手製)인데 보통 해수욕복(海水浴服)과 상이(相異)한 점은

- ① 직물(織物)로 만든 것
- ② 우완부(右腕部)를 터쳐서 사오개소(四五個所)에 끈 혹은 단추를 달아 개폐(開閉)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전어(田魚)

‘콩쌈’이라고도 하고 대두엽(大豆葉)이다. 생엽(生葉)을 그대로 된장을 무쳐서 반찬으로 먹는데 농가에서는 흔히 이것만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콩잎을 요리까지 한다면 상당(相當)하다고 해서 전어(田魚)라고 한다고.

절구(臼)

육지의 절구와는 대단히 다르다. 즉 길이 2촌(寸)쯤, 직경 3척쯤의 목제원분(木製圓盆)의 저부(底部)에 높이 5촌쯤의 다리가 3개 붙었고 분

중앙부(盆中央部)에는 직경 7촌(寸)쯤 깊이 6~7촌의 석제(石製)의 호(壺)가 있다. 대개는 한 부인이 공이를 짚는데 넘어나오는 것은 원분(圓盆)에 놓이게 되고 다시 쓸어서 석호(石壺)에 넣으면서 짚는다. 2~3명의 부인이라도 함께 짚을 수가 있어서 여러가지 저가(杵歌: 방아짚는 소리)가 불리운다.

제주녀에 관한 민요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1933년)에 의하면 선가(船歌), 양태가(涼太歌), 망건가(網巾歌), 해녀가(海女歌), 저가(杵歌), 가정고가(家庭苦歌) 등 대부분이 비가(悲歌)이고 반면에 연가(戀歌)도 있다. 가장 많은 저가(杵歌)는 거의 전부가 비조(悲調)이고 연가(戀歌)에는 경향(京鄕)의 양반을 사모(思慕)하는 것이 많다.

제주녀의 특이한 2점

- ① 근로정신이 많은 것.
- ② 남자의 수보다 많은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 제주도는 여자의 섬 나라(島國)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조각매기 부비듯

‘똥덩이 굴리듯’의 뜻.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 ‘조각매기’는 ‘조고갱이’의, ‘부비다’는 ‘부비다’의 제주어. 제주도서는 똥은 돼지의 사료(飼料)로 귀하고 아주 소용없는 것이 조고갱이다.

종다리 암쇠=거릿좌수

전출(前出).

지나가는 비

지나가는 비의 표현은 어느 곳에서나 그 표현이 대개 동일한 모양이나, 제주도서는 ‘넘어가는 비’라고 하니 제주도의 지형이 가져온 표현이다. 제주도가 한라산(漢拏山)이요 한라산(漢拏產)이자 제주도이니

이런 표현이 생길 것이다.

지름떡먹기

‘피떡먹기’라고도 하고 ‘식은죽 먹기’ ‘약과 먹기’의 뜻. ‘지름’은 ‘기름’의 ‘피’는 ‘깨’의 제주어. 지름떡이나 피떡은 제주도는 최상품의 음식이다.

지방부녀의 성격을 나타낸 민요

득리송당 큰애기들

 피방에찌키가 일수이고

가시오름 큰애기들

 담배피기가 일수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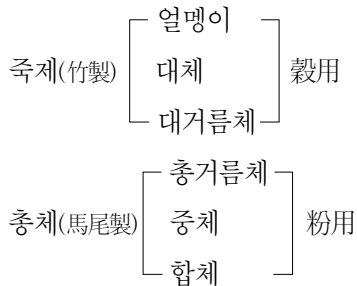
성읍리 큰애기들

 화투치기가 일수로다

즉 교래리(橋來里), 송당리(松堂里)엔 피농(稗農)이 성(盛)하고, 가시리(加時里)와 성읍리(城邑里), 더우기 성읍리(城邑里)에서는 유한부녀(有閑婦女)가 잘 노는 것을 말함이다.

체(篩)

6종이 있는데 굵은 체에서 가는 체의 순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푼다

표준어의 판다(賣)의 뜻임은 물론이나 ‘아들딸 장가 시집보낸다’를 ‘아들 딸 푼다’라고 하니 약탈결혼(掠奪結婚)의 유풍(遺風)을 말함일까.

허벅

제주여자가 항상 등에 지고 음료수를 길는 용기(容器)인데 물통과 비슷하지만 우뚝하고 입이 작은 관계로 혹시 밤에 여흥(餘興)이나 있는 때는 이 허벅을 악기(樂器)로 사용한다. 좌수(左手)로는 허벅의 입을 개폐(開閉)하여 저대음(低大音)을 내고 우수(右手)에는 막대같은 것을 잡고 허벅 외면을 쳐서 고단음(高短音)을 내게해서 소위 유명한 ‘허벅장단’으로 소리들을 한다. 이 허벅장단은 결코 장고(長鼓)만 못하지 않다. 여아용(女兒用)의 소형 허벅은 ‘대바지’라고 해서 구별한다.

회(膾)

육지의 회와 틀림이 없으나 육지에서 보는 보통회 즉 일어의 사시미(刺身)는 제주어로는 ‘강회’라 하고 제주어로 ‘회’라면 가수(加水)한 회로 육지의 냉국(冷汁) 비슷하다. 제주도에는 회에 가수한 것과 안한 것의 2종이 있으니 이 회는 제주도가 발달했다고도 할 수가 있다.

9. 지리(地理)

감산천(甘山川)

감산천(柑山川), 창천(倉川), 창고천(倉庫川), 안덕천(安德川) 등의 별칭이 있다. 감산천의 계곡미(溪谷美)를 몇몇분이 절찬(絶讚)을 하였지만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남단부(南端部)의 지역

한국의 남단이라면 제주도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제주도에서도

그 남단부라면 곧 생각이 아니 날 것이다. 제주 주도(主島)의 남단은 모슬포(慕瑟浦) 부근이고 그 남해상에 마라도(馬羅島)가 있다. 그 중간에는 가파도(加波島)가 있어서 도석(渡石)같이 되었는데, 마라도는 가파도에서 3리(裡), 가파도는 모슬포에서 3리의 거리이다. 남단은 물론 마라도이고 재미있는 것은 자연으로나 인문으로나 마라도는 가파도의, 가파도는 제주본도의 속도(屬島)의 관(觀)이 있는 것이 마치 제주도가 한반도의 속도(屬島)의 관(觀)이 있는 것과 같다.

남북(南北)과 표리(表裏)

흔히 어떤 지방을 표리(表裏)로 구별하는 수가 있다. 제주도를 표리로 2분한다면 지형으로 보아 남북으로 2분하는 수밖에 없겠고 북면을 표제주(表濟州), 남면을 이제주(裏濟州)라고 하겠다. 그리고 북부의 중앙은 제주요 남부의 중앙은 서귀포이다.

남북이분(南北二分)

한림면(翰林面) 두모리(頭毛里)가 두(頭)가 되고, 구좌면(舊左面) 종달리(終達里)가 미(尾)가 되어, 제주도는 남북으로 이분되는데 북반(北半)은 한림(翰林), 애월(涯月), 제주, 조천(朝天), 구좌(舊左)의 1읍(邑) 4개면(個面)이고, 남반(南半)은 성산(城山), 표선(表善), 남원(南元), 서귀(西歸), 중문(中文), 안덕(安德), 대정(大靜)의 7개면(個面)이다.

다도해(多島海)와 제주도(濟州島)

제주해협을 격(隔)하여 다도해의 복잡함과 제주도의 단조로움은 재미있는 대조다. 지도로 보면 제주도의 해안선은 남한해안의 조화의미를 해치고 있다. 이런 상이(相異)는 지질에 기인함은 물론인데 다도해 및 그 연안지방은 중생대(中生代) 혹은 그 이전의 고기(古期)의 암석이 복잡한 분포를 제시(提示)함에 대하여 제주도는 대체로 1개소의 화산현상의 중심으로 된 화산도요 그 생성기가 제3기 말엽 이후 현

세에 이르는 사이의 최근세에 있는 관계로 지각(地殼)의 변동도 적었고 지형조각(地形彫刻)의 윤회(輪廻)에 있어서도 그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는 화산 생성 당시의 형태를 금일까지도 다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2대 명소

전라남도가 1931년에 추천한 2대 명소는 천지연(天池淵) 폭포와 삼성혈(三姓穴)이다. 전자는 제주도의 자연을, 후자는 제주도의 인문을 각각 대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도의 특색

미수다 이치지(旃田一二)의 1933년 보고에 의하면

- ① 지하수와 환거임해취락(環裾臨海聚落)
- ② 토지이용경(利用景)의 타원환상대(橢圓環狀帶)
- ③ 인구 구성상의 특색

등을 들고 있다.

면적

대한민국통계월보(大韓民國統計月報) 창간호(1949년)에 의함

(단위 : 평방km)

남 한		북 한	
서울	133.94	경기	2,355.97
경기	12,231.11	강원	14,253.53
강원	12,009.59	황해	14,830.98
충북	7,418.38	평남	14,925.28
충남	8,106.48	평북	28,444.50
경북	18,988.82	함남	31,978.47
경남	12,304.58	함북	20,346.77
전북	8,553.27		
전남	12,025.51		
제주	1,861.86		
계	93,633.54	계	127,135.50
총계 220,769.04			

제주도의 면적과 해안선

면적……약 120평방마일(平方哩)

해안선……약 64마일(哩)

해안선은 1평방마일당 0.53마일(哩)이므로 단조(單調)한 섬이라 하겠다.

명승고적(名勝古蹟)

제주도는 옛날부터 1개의 별국(別國)이었고 그 언어풍속까지도 상이하며 알려진 명승고적도 많다. 고적으로는 삼성혈만은 제주도의 역사 그대로의 것이니 불만하고 그외는 보잘 것이 없다. 명승으로도 영주십이경(瀛州十二景)이라고 소개된 것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하나도 신통하달 것이 없다. 다만 제주도가 남해의 절도(絶島)요 고산(高山)이니 그 섬 자체 즉 한라산이 재미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물량소

조연(藻淵; 西歸面 大畚 부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淵多蘋藻 故名”이라고 기록되었으니 ‘물망’(해조(海藻)의 1종)이 ‘물량’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랑’과 ‘빨취’

‘사마랑’은 헌종(憲宗) 11년(1845)에 측량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던 영선명(英船名)인데 그 영자명은 H. M. S. Samarang이요, ‘빨취’는 동선장(同船長) 해군대령 Captain Sir Edward Belcher이다. 헌종실록에는 ‘사마랑’은 ‘撤馬啣’, ‘빨취’는 ‘黻爾撒’로 기록되어 있다.

사마랑호 항해지(航海誌)

Captain Sir Edward Belcher (Commander of the Expedition) :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1848, 2vols인데 헌종 11년(1845) 6월에 가파도에 표착한 사마랑호 선원들의 활동한 기록이다. 부근의 관측과 제주도의 기사는 유위(有爲)한 자료이다.

산북인(山北人)과 산남인(山南人)

제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북인은 산남인을 천대(賤待)한다. 사실상 산북서는 인물도 적지않게 낳지만 산남서는 출세한 인물이 적다고 한다. 평야가 넓고 물산의 여유가 있느니만큼 산북은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겠고 또 육지와와의 교통도 편한 관계이다. 그러나 육지로부터 온 사람은 산북보다도 산남이 생활에는 안정감을 준다. 이유는 산남은 북이 산이요, 남이 바다인 관계요 또 일층 따뜻한 관계이다.

삼지방명(三地方名)

이조 태종 16년(1416년)에 안무사(按撫使) 오식(吳湜)이 정의, 대정 양현을 계건(啓建)하고 제주에는 목사, 양현에는 각 현감(縣監)을 두어서 분치(分治)케 하였다. 그때부터 도민은 제주를 목관(牧官) 있는 곳이라 해서 목관이라고 할 것을 ‘모관’이라 하고, 두 현감 있는 곳을 ‘정의곶’, ‘대정곶’이라고 했다.

서양인이 명명한 여러 지명(地名)

한라산(漢拏山; 오오클란드), 조도(鳥島; 후퍼), 녹도(鹿島; 삿넷), 호도(虎島; 리취드손), 지귀도(地歸島; 마흔), 성산(城山; 던다스), 우도(牛島; 삿유포오트), 가파도(加波島; 발로), 마라도(馬羅島; 기포오트) 기타 로니·부룻프 갯(岬), 토네 준벽(峻壁), 사마랑 암(岩) 등등.

19세기말에 2외국인이 측정한 조선왕국의 면적(평방km)

융희(隆熙) 2년(1908) 농상공부기록(農商工部記錄)에 의하면

	B. Trognitz (獨人, 1883)	Stelbitzky (露人, 1889)	測 差
본 토	213,800	219,098	+ 5,298
도 서	3,000	3,379	+ 379
제주도	1,850	1,046	- 804
합 계	218,650	223,523	- 4,873

석파(石坡)

‘속밭’이라 하고 사라악(沙羅岳)과 성판악(城板岳)과의 중간에 있는 표고 약 1000m의 고원(高原)이다. 횡단 구로(舊路)가 통하는 편리한 장소에 있고 풍경이 좋은 곳이다.

양칭(洋稱)의 지명

18세기 후반으로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도록 영, 불의 탐험선에 의하여 조사되어 속도(屬島), 만(灣), 갑(岬), 단애(斷崖), 봉(峰) 등에 구명(歐名)을 붙였는데 당시 조선은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취한 때문에 상륙한 자는 없었고 1787년에 본도 남안(南岸)을 통과한 라·페루우즈(La Pérouse)의 기사와 1845년에 3주간 본도 해안을 순회하여 39만분의 1지도를 만든 벨취(E.Belcher)의 기사가 가장 상세한 것이었다.

영주(瀛洲)

영주라면 물론 제주(도)를 뜻함인줄은 누구나 다 안다. 영(瀛)자가 붙은 지명이면 대체로 제주도내의 것으로 생각할만큼 영(瀛)자와 제주도와는 인연이 깊다. 그런데 고씨의 본관이 제주임도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강릉(江陵)의 고호(古號)에도 영(瀛)자가 들어있고 또 영주(瀛州) 고씨라는 이가 있는데 이 영주는 고부(古阜)의 별호(別號)라니 고부가 현 전북 정읍군(井邑郡) 내의 일지방(一地方)임을 알 때 영(瀛)자가 반드시 제주 혹은 바다와만 관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오백장군(五百將軍)

일명 오백장군암(五百將軍岩), 오백나한(五百羅漢), 석나한(石羅漢), 영실(靈室), 영실기암(靈室奇岩) 등 종교적 의의가 있는 별칭들이다. 백록담(白鹿潭) 서남측에 있고 조면암(粗面岩)류의 한라산 용암이 몹시 풍화(風化)된 곳으로 그 명칭이 유래될만도 하다. 미신(迷信)이 많은 섬

이니 이름조차 영실(靈室)이라고 해서 몇년에 1차라도, 혹은 큰 일에는 무당을 데리고 와서 치성(致誠)을 드린 곳이다. 더우기 제주도는 전체가 천주교(天主敎)의 교구(敎區) 모양으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어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신당(神堂)과 무당이 있으니 이 영실(靈室)이 여러 신당(神堂)의 대장격(大將格)인데야 주민들은 이곳에 치성을 들고 싶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영주십이경(瀛州十二景) 혹은 제주 십경에도 끼워 고래로 선전(宣傳)되었고 유명도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적인 것이다.

용담천(龍潭川)

제주 성내 서방에 있고 용담은 그 명칭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이다. 휘석현무암(輝石玄武岩)으로 된 기암절벽(奇岩絶壁)에 끼인 심연(深淵)은 고래로 유명한 선유처(船遊處)이다.

읍면의 면적

(단위 : 方里)

濟州	16.5	中文	9.4	舊左	12.0
涯月	13.0	西歸	4.1	朝天	9.9
翰林	10.6	南元	12.0	楸子	5.0
大靜	5.6	表善	8.8		
安德	6.8	城山	7.0		

즉 면적으로는 제주읍이 제일 크고 서귀면이 제일 작다.

의항(蟻頂)

제주어로 ‘계엄지목’이고 세죽원(細竹原)이다. 장명(場名)은 지형에 의한 것이고 의두(蟻頭)에 해당하는 부분은 1711m봉이다. 경사는 족지만 상당한 면적의 평원이므로 제주항(濟州港)에서도 잘 바라다 보인다.

세죽(細竹) 뿐이고 수목(樹木)이 없는 곳이므로 하절에는 초원으로 겨울에는 설원(雪原)으로 보인다. 이곳이 중요한 등산로의 하나로도 되었고 이곳의 세죽실(細竹實)은 식용도 되는데 문헌에도 기록이 있다.

이대명소(二大名所)

야나기가와 츠토무(柳川勉; 1934년)에 의하면 전라남도 명승구적(名勝舊蹟)으로 소개한 13개소 중 삼성혈(三姓穴)과 한라산의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야나기가와(柳川)가 말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이 양자(兩者)가 관점에 의해서 제주도의 대표 명소가 된다.

일본인이 기록한 제주도의 면적

면적은 120방리(方里)이고 일본의 가가와현(香川縣)과 비슷하다. 옛적 각각 일국(一國)을 형성하였던 일본의 이키(壹岐), 츠시마(對馬), 오키(隱岐), 사도(佐渡)의 4개를 합하여야 겨우 이 섬과 비슷하다.

전남명물(全南名物)

1935년 ‘朝鮮’ 11월호에 기재된 각도의 ‘넘버·원’과 ‘온리·원’ 중의 제주도 것을 들면 제충국(除虫菊), 추용(椎茸), 패구(貝鈿), 조제옥도(粗製沃度), 한라산, 비림(樺林), 제주해녀.

제주(濟州)

제주란 말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제주도(濟州島)’ ‘제주읍(濟州郡)’ ‘성내(城內)’ 등 광협(廣狹) 여러가지의 뜻으로 사용했다. ‘성내’는 단순히 ‘제주’라고도 하고 혹은 ‘산지(山地)’ ‘모관’이라고도 한다. 산지는 산지포(山地浦)에서 유래한 것인데 산지포(山地浦)는 산저포(山底浦) 또는 건입포(健入浦)라고도 하고 사실은 제주읍내의 서안(西岸)에 국한(局限)된 명칭이다.

제주도와 브르타뉴

양화가(洋畫家) 츠루다 고로(鶴田吾郎; 1935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돌

담은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의 돌담을 연상시키는 모양이다. 이 돌담은 그림으로 하면 미적(美的)인데 제주 소학생(小學生)들의 도화(圖畵)같은데는 돌담을 그린 것은 볼 수가 없다고.

제주도와 시마국(志摩國) 아시가가미(石鏡)

시마국(志摩國)이란 일본 미에현(三重縣)에 있고 이시가가미(石鏡)란 동리 이름이다. 여다남소(女多男少)와 해녀와 남녀간의 관계 등으로는 제주도과 닮았다고.

제주도의 고립성

절해고도(絶海孤島)인데 연안엔 극히 굴곡이 적고 양항만(良港灣)이 없었으니 본토 및 외국과의 교통이 열리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빈약하게나마 자급할 정도의 요소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오래동안 독립국으로 있었다.

제주도의 구역(區域)

흔히 어떤 지방을 편의상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수가 있다. 제주도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을 들을 수가 있다. 단 어느 구분이나 한라산이 중심으로 됨은 물론이다.

- 2분(分)

산북(山北)과 산남(山南)=표제주(表濟州)와 이제주(裏濟州)…제주를 중심으로한 북부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부보다 개화(開化)되었다.

동부(東部)와 서부(西部)……서부가 많이 개화되었다.

- 3분

제주, 정의(旌義), 대정(大靜)을 중심으로 옛날 3군(郡) 시대의 구분인데 제주가 제일 개화되었고 정의가 제일 개화 안되었다.

- 4분

제주, 서귀포, 성산포(城山浦), 모슬포(慕瑟浦)를 중심으로. 동서 남북

4구역으로 자연지리적 구분이 된다.

- 5분

제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한림을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지리적 구분이 된다.

제주도의 남북

H. Lautensach(1935년)에 의하면 남북이 각각 츠시마(對馬)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다.

- ① 남안(南岸)은 북안(北岸)에 비하여 상록활엽수가 무성하고 그 지대는 400m에 달하는데 북안은 300m에 달한다.
- ② 동백나무는 남방(南方)서는 700m의 고지(高地)에서도 발견되는데 북방서는 300m까지이다.
- ③ 북방에는 낙엽수가 적는데 남방엔 거의 상록수다.
- ④ 남방 저경사지(低傾斜地) 및 저지(低地)는 경작에 있어서 북방에 비하여 온도 강수량(溫度 降水量)이 높고 생육기간은 1주간이나 더 길다.

제주도의 별칭

다라, 耽羅, 身尤羅, 純羅, 耽羅國, 耽羅島, 島夷, 瀛州, 東瀛州, 州胡, 州胡國, 涉羅, 耽牟羅, 軻牟羅國, 耽浮羅, 耽浮飛, 澹羅, 毛羅, 毛羅國, 毛羅, 屯羅, 度羅, 貪羅, 海中仙府, 켈파트 Quelpart, Quelpaert, Quilpart. 吾叱島, 日本島, 蓬萊島, 海賊島, 女護ヶ島 등등.

제주도 연해를 통과하고 한국에 관계를 가진 서양인

La Pérouse(佛人, 1787년)

W. R. Broughton(英人, 1797년)

B. Hall(英人, 1816년)

Carl Friedrich Augustus Gutzlaff와 H. H. Lindsay(獨人, 1832년)

E. Belcher(英人, 1845년)

등등. 단 연대는 제주 연해를 통과한 해.

제주십경(濟州十景)과 탐라팔경(耽羅八景)

제주십경(濟州十景) : 성산일출(城山日出), 시봉락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폭포(正方瀑布), 굴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용연야범(龍淵夜泛), 고수목마(古藪牧馬), 영실기암(靈室奇岩), 산방불사(山房佛寺).

탐라팔경(耽羅八景) : 공굴(貢橋), 답전(踏田), 직량(織涼), 채복(採鱖), 목자(牧子), 답한(沓漢), 저가(杵歌), 급수(汲水).

제주 주도(主島)의 위치 및 면적(대략)

동경(東經) : 126°8' ~ 126°57'

북위(北緯) : 33°12' ~ 33°34'

면적 : 120평방리

동서 : 200리

남북 : 100리

해안선 : 640리

한반도(韓半島)

제주인은 반도를 육지라 하고 반도인을 육지인이라고 한다.

지명(地名)

제주도의 지명에는 미부(尾部)에 내(川), 개(浦), 오름, 산(岳), 왓밭, 밭(田), 드르(野), 포(浦), 골(洞) 등이 붙는 것이 많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부(頭部)에 ‘가시(加時)’ 혹은 ‘가시’가 붙는 지명으로 예를 들면 ‘가시리’ ‘가시오름’ 혹은 ‘가소름’ ‘가시골’ ‘가시나물’ ‘가시낭봉오지’ ‘가시물’ 등 많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물’이 붙는 지명으로 예를 들면 ‘산지물’ ‘몰래물’ ‘베물’ ‘덕지물’ ‘물미(水山里)’ ‘목굴(水洞)’ ‘청수

물' '조숫물' '도래물' '무래(水望里)' '물또앗(水道里)' 등등 많다.

천제연(天帝淵)

중문 서쪽 색달천(塞達川)에 걸린 천제교(天帝橋) 밑에 있는 심연(深淵)으로 훌륭한 기암(奇岩)과 천수(泉水)와 수목(樹木)이 있다. 그위 절벽에는 대우(大雨)시에만 비폭(飛瀑)이 걸리고 상시(常時) 비폭(飛瀑)이 있는 서귀포의 천지연(天池淵)과는 다르다.

천지연(天池淵)

서귀포에 인접하여 있는 곳으로 높이 72척 너비 30척의 폭포도 있고 그 연중(淵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만(大鱧)이 있어서 유명하다. 또 부근의 자연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으니 필자의 입장으로는 제주도 제일의 풍치(風致)라고도 본다. 서귀포서는 또 부근에 있는 정방폭포(正房瀑布)와 병칭(並稱)하나 영주십이경(瀛州十二景) 혹은 제주십경(濟州十景)에는 오히려 정방폭포만이 끼워 있다. 양화가(洋畫家)의 표현에 의하면 두 폭포가 다 훌륭하고 천지연은 동양적이고 정방폭포는 서양적이라고 한다. 천지연(天池淵)은 또 천지연(天地淵)이라고도 쓴다.

China Pilot(3rd Ed. 1861년)에 나타난 지명

Mount Auchland(漢擎山), Cape Dundas(城山岬), Bullock Island(牛島), Hooper Island(鳥島), Burnet Island(蚊島), Richardson Island(虎島), Mahon(森島), Barrow(地歸島) 등등.

'켈파트'의 뜻

제주도를 서양 제국(諸國)서는 Quelpart라고 하는데 1642년 화란선(和蘭船) '켈파트·듀·빨락'에 의하여 발견된데서 유래하였다. Quelpart의 뜻은 Quel과 같이 화란어로 삼범선(三帆船)인 모양이다. 그 후 1653년에 Hamel 일행이 조난한 가파도(加波島; 蓋波島)의 이름도 이 Quelpart에 근사하고 Hamel의 표류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제주도명은 그대로 Quelpart로 되었다.

탐라(耽羅)의 어원(語源)

탐라란 국명은 탐라의 중흥조(中興祖) 3고씨가 신라 성대(盛代)에 입조(入朝)하여 왕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이름인데 그때 상륙한 곳이 탐진(耽津)이라 해서 탐진의 탐(耽)과 신라의 나(羅)를 합쳐서 호(號)한 모양으로 생각도 된다. 그러데 임태보(林泰輔)에 의하면 인도어(印度語)에는 산(山), 바다(海), 동식물(動植物), 인명(人名), 지명(地名), 기타에 나(羅)가 붙은 것이 많은 것을 본다면 탐라(耽羅)도 인도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태고조선(太古朝鮮)의 지역(地域)

권덕규(權惠奎)나 이창환(李昌煥)에 의하면, 동(東)은 대해(大海: 일본해)를 연(連)하고 남(南)은 탐라(耽羅)에 이르며 북(北)은 흑수(黑水: 黑龍江) 이북(以北) 5만여 리에 달하고 서(西)는 금아림(金阿林: 興安嶺)을 넘어 사막(沙漠)에 진(盡)하고 다시 남(南)으로 황하(黃河) 근방에 걸치니 태백산(太白山: 白頭山) 북(北) 송화강(松花江) 연안이 그 중앙이니라고 하였으니 제주도는 최초로부터 조선의 땅이었다고 할 수 있다.

La Pérouse

프랑스항해가(佛國航海家)로 1785년 7월에 본국을 출발, 마젤란해협을 경유하여 1787년 1월 마카오착(着), 대만(臺灣), 류큐(琉球) 근해를 거쳐 점차 북상하고 5월 21일에 제주도 근해에 투묘(投錨)하여 Hamel 일행의 조난(遭難)을 조위하고, 천체(天體)의 관측, 육상(陸上)의 관찰을 한 후 투묘하여 조선 반도의 육지로 향하고, 25일에 조선해협을 통과 26일에는 일본으로 향하다. 일행이 친히 조선에 상륙치 않은 것은 물론 신변(身邊)의 위험을 느낀 탓이었다.

평안도(平安道)와의 공통점

- ① 언어의 공통점
- ② 부녀의장(婦女衣裝)의 공통점(別項).
- ③ 변소(便所) 겸 돈사(豚舍)의 공통점(別項). 평안남도 일부에도 실시되어 있고, 또 명사(名詞)조차 공통된다.
- ④ 소의 거세(去勢)도 평안도와 일치한다(別項).
- ⑤ 취반(炊飯)시 좁쌀은 백미(白米) 넣은 후 끓이면서 가입하는 것.
- ⑥ 뒤주라면 의복을 넣어 두는 것이고 쌀을 넣어두는 것이 아닌 것 같다.
- ⑦ 여자의 안면이 평안도 여자의 안면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천(河川)

동서 방향으로 주행(走行)한 성판악(城板岳), 한라산(漢拏山), 어승생악(御乘生岳) 등이 분수계(分水界)가 되었으니, 대체로는 남북 방향이다. 북류(北流)하는 것은 별도(別刀), 산지(山池), 도근(都近)의 3천(川). 남류(南流)하는 것은 천미(川尾), 송(松), 효돈(孝敦), 정방(正房), 연외(淵外), 강정(江汀), 소가래(小加來), 감산(柑山) 등의 8천(川)이다. 그 중 상시(常時) 유수(流水)를 볼 수 있는 것은 도근(都近), 소가래(小加來), 강정(江汀), 연외(淵外), 정방(正房)의 5천(川)이고, 분수계(分水界)에서 해안(海岸)까지의 최장거리(最長距離)는 20천(浬)에 불과하며 물론 대하(大河)는 없다.

한라정원(漢拏庭園)

이 명칭은 필자가 1937년에 제창(提唱)한 것인데(地理學研究, 제14권, 제5호, 27~29쪽) 이것은 삼립지대 곳곳에 생긴 넓은 초원에 둥글둥글한 모양의 좋은 팡낭(팡팡나무)이 배치되었고 한라산에 많은 휘과람새, 동박새, 삼광조 기타 조류의 울음소리가 어울린 곳이다. 전기(前記) 팡

팥나무는 우마들이 그 어린 싹을 뜯어먹는 관계로 그 수형(樹形)이 인공(人工)으로 된 것같이 보인다.

해수욕장(海水浴場)

한림(翰林)의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는 협재리(挾才里)의 백사장은 유명하다. 전면(前面)에 비양도(飛揚島)도 있고 한림(翰林)의 소읍(小邑)도 근처에 있으니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해수욕장이 또 하나 있다. 화순리(和順里) 해안이 그것인데 갈색의 세사(細沙)이지만 미려(美麗)하고 부근의 풍경도 미관(美觀)이요 또 그 규모도 웅대하다.

해안선(海岸線)과 도형(島形)

제주도는 동서 200리, 남북 80리, 면적 1300평방리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선은 불과 600여리밖에 아니되니 여간 큰 지도가 아닌 이상 해안선의 출입(出入)을 볼 수가 없어 도형(島形)이 계란(鷄卵) 혹은 마령서(馬鈴薯)의 형을 나타낸다. 그러니 양항(良港)은 있을리 없다. 해안선과 병행(並行)한 일주직로(一周直路)는 삼등도로(三等道路)요 이정(里程)은 450리에 달한다.

해안선연장(海岸線延長)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2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해안선 연장은 226, 200m이니 비교적 굴곡(屈曲)이 적은 관계로 물론 짧다. 그러나 큰 섬이니 전남 전체의 도서(島嶼)의 분(分) 4,530,900m의 근 1/15이나 된다. 그리고 도서를 가진 6개도(個道) 전북(全北), 경북(慶北), 평남(平南), 강원(江原), 함남(咸南), 함북(咸北) 등 각도의 도서 전체분을 능가한다.

홍교(虹橋)

속칭 안경교(眼鏡橋)라고도 하고 성내(城內) 산지천(山池川)에 걸렸던 것인데 1925년 대홍수(大洪水)에 완전 파괴되었다는데 아베 요시시게

(安倍能成; 1932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가장 볼만한 건축물이었다고 한다.

효돈천(孝敦川) 유역(流域)

부근은 휘석현무암(輝石玄武岩)으로 되었고 미관(美觀)의 천안림(川岸林)과 심연(深淵)으로 경치도 좋은 곳이다. 더우기 미림(美林)은 제주도 제일이다.

10. 도읍(都邑) · 촌락(村落)

각리(各里)의 지형

면을 구성하는 각리의 지형은 해안에서 산간으로 뻗쳐 협장(狹長)하다. 산간지대에 많은 광대한 면적을 가진 이(里)가 약간 있는데 동부에는 교래리(橋來里)를 비롯하여 송당리(松堂里), 수망리(水望里), 가시리(加時里), 성읍리(城邑里), 수산리(水山里) 등이 있고 서부(西部)에는 청수리(淸水里), 저지리(楮旨里), 금악리(今岳里), 서광리(西廣里) 등이 있는데 그 대표로는 동부(東部)에 교래리(橋來里)요 서부(西部)에 저지리(楮旨里)다. 그 양자 중에서도 교래리는 더 크다.

대시가지(大市街地)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인구 3천 이상의 시가지는 제주 성내(城內), 화북리(禾北里), 조천리(朝天里), 김녕리(金寧里), 서귀포(西歸浦), 모슬포(慕瑟浦), 성산포(城山浦) 등 7개소이다.

대정(大靜)

보성(保城), 인성(仁城), 안성(安城)의 3개리(個里)로 되었고 옛날의 '대정꿀'이다.

세종조에 현감(縣監) 유신(兪信)이 쌓은 현성(縣城)은 아직 남아있고

이 성곽(城廓)이 3개리의 일부분씩을 차지했으니 3개리가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셈이다.

타부락과 비교하면 이 3개리가 1개리로 보이고 실제로 제주도에는 이 3개리를 합한 것 보다 더 큰 부락이 곳곳에 있다. 역시 고읍(古邑)이라 환경도 좋고 비교적 대가족도 많다.

도시(都市)

도시의 면목(面目)을 가진 것은 제주 성내 뿐이고 성읍(城邑)은 고읍(古邑)이요 따라서 고적유지(古蹟遺址)도 많고 현재도 제주도의 문화의 중심지이다. 도청(島廳), 경찰서(警察署), 세무서(稅務署), 우편국(郵便局), 무전국(無電局), 재판소(裁判所), 도립의원(道立醫院), 측후소(測候所), 중등학교(中等學校), 은행(銀行), 대공장(大工場) 등도 다 성내에 있다. 소읍(小邑)으로는 한림(翰林), 모슬포(摹瑟浦), 서귀포(西歸浦), 성산포(城山浦) 등을 들 수가 있다.

동리(洞里)

제주 주도(濟州主島)의 동리(洞里)는 12면 159리인데 한라산 남북으로 양분하면, 산북은 5면 89리이고, 산남은 7면 70리이다. 한라산정(頂)이 약간 남측(南側)에 편재(偏在)한 관계로 산북의 면(面)은 크고 동리도 많지만 산남의 면은 작고 동리도 적다.

모슬포(摹瑟浦)

대정면(大靜面) 수읍(首邑)이요 항구(港口)이다. 본래 대정(大靜) 구읍(舊邑)의 외항(外港)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이 관청, 학교가 이전되며 옛날과는 상반되게 되었다. ‘摹字’는 ‘毛字’로도 대응하나 흔히 ‘摹字’를 사용한다. 제주어명으론 ‘모슬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변하여 ‘모슬포’ ‘모실포’ 등 여러 이름으로 통용된다.

Moggan과 Mocxo

하멜의 표류기에 나오는 지명인데 양자가 다 현재의 제주 즉 성내이다. Moggan은 목관(牧官)있는 곳이란데서 유래했다고 보는 성내의 별칭인 ‘모관’에, Mocxo는 목사의 음(音)에 맞는 말이다.

‘물미’와 ‘세미’

양자가 다 재래(在來)의 지명이요, 각각 동일한 지명으로 2개소에 있다. 즉 ‘물미’의 하나는 성산면(城山面) 수산리(水山里)요, 두번째는 애월면(涯月面) 수산리(水山里)다. ‘세미’의 하나는 제주읍(濟州邑) 회천리(回泉里) 천미동(泉味洞)이요, 둘째는 대정면(大靜面) 동일리(東日里) 천미동(泉味洞)이다. ‘물미’가 수산(水山)(里)요 ‘세미’가 천미(泉味)(洞)이란 것은 물론 제주말에 한자(漢字)를 붙인 것이고 ‘물나미’ ‘세미’는 거진 보통명사화한 지명이 분명하다. 또 ‘물미’는 물의 뜻을 ‘세미’는 샘의 뜻을 포함한 것만은 사실이다.

산지(山地)와 별도(別刀)

두 항명(港名)인데 산지(山地)는 현재의 제주항이고 별도(別刀)는 제주읍에서 동으로 10여리에 위치한 항구이다. 옛날에는 산지는 풍랑을 피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내륙과의 교통은 전부 별도항이 맡았지만 200여년 전 목사 김노봉(金蘆峰)이 산지항의 수축(修築)을 기도(企圖)하고는 전도민에게 부역(賦役)을 과(課)하여 방파제(防波堤)를 축조하고 사용하였는데 1916~17년에 대수리를 하였고 1944년에야 현대식 소항으로 만들어졌다.

서귀포(西歸浦)

2천여년 전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고 사자(使者) 서복(徐福)을 시켜서 불로초(不老草)를 가져간 곳이며 그 불로초가 즉 시로미(巖高蘭)이고 이 서귀포에서 출발하여 서귀(西歸)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서귀포는 지명의 전설로도 유명하거나와 사실상 제주도 제일의 미항(美港)이며 어항(漁港)이어서 장래성이 많다. 현재도 제주도 남부 즉 이제주도(裏濟州島)의 중심이다. 이 마을은 옛날엔 진(鎭)터로서 본래는 홍로천(烘爐川; 淵外川) 상(上)에 있던 것인데 선조(宣祖) 연간 이옥(李沃)이 목사때에(1590~92년) 현재의 곳으로 옮기고 석성(石城)을 쌓고 군비(軍備)를 강화하였던 곳이다.

서귀포의 명소

- ① 화석층(化石層) : 지질학상 서귀포층(西歸浦層)이란 명칭을 가진 제주도 유일의 수성암층(水成岩層)이다.
- ② 천지연(天池淵) : 연외(淵外)에 걸린 폭포요 주위의 자연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
- ③ 정방폭(正房瀑) : 정방천 말단이고 부근에 있는 현무암(玄武岩)의 주상절리(柱狀節理)는 미관(美觀)이다.
- ④ 밀감산(蜜柑山) : 서홍리(西烘里)의 감귤원(柑橘園)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감귤류 외에 무화과(無花果) 등도 있다.
- ⑤ 대학시험장(大學試驗場) : 서울대학교부속생약연구소(生藥研究所) 제주도시험장(濟州島試驗場)인데 약초원(藥草園)이다.
- ⑥ 삼도(森島) : 넓고사리의 자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⑦ 소메이 요시노 자구라 자생지(染井吉野櫻自生地)
- ⑧ 흑송(黑松)의 거수(巨樹)

선흘(善屹)

조천면(朝天面) 중산지대(中山地帶)에는 흘자(屹字)가 든 동리가 3개 있다. 즉 선흘리(善屹里), 와흘리(臥屹里) 및 대흘리(大屹里)인데 후 2자(者)는 전자(前者)에서 분리되었다고 한다.

성읍리(城邑里)

옛날의 정의(旌義) 즉 ‘정이꽃’이다. 제주도 남부 지방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그 유물이 적지않다. 다른 곳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고적(古蹟)도 있고 구군청(舊郡廳) 부근에 있는 7주(株)의 팽나무와 전면(前面)에 있는 1주의 느티나무는 그 웅대함과 위치로 보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만 하다. 그러나 방임(放任)한대도 지방민이 보존에 열심이니 걱정될 바는 없다. 과거의 문화 도시였고 소비 도시였고 특권계급이 있었던 만큼 현재 농촌에 맞지 않는 향락기분(享樂氣分)과 부녀자의 풍기(風紀)에 불미(不美)한 점도 있으나 지방민도 그 시정(是正)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여세대주(女世帶主)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가족이 많고 노인이 많으니 분명히 쇠퇴(衰廢)해가는 부락이다.

수도(首都)의 위치

제주도의 수도(首都)는 고래로 현재의 제주이다. 그러나 우리 북반구(北半球)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제주가 지리학적으로는 부적당(不適當)하다. 남(南)에 산이 있고 북에 바다가 있으니 역광(逆光)으로 되어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방위에 착각을 일으키고 안정감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측 서귀포에 와서는 안정감을 느끼며 누구나 제주의 도읍(都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가 고래로 수도로 되어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육지에 가장 가까운 곳이요,
- ② 용수(湧水)가 많은 까닭이요,
- ③ 한라산록(漢拏山麓)이 넓은 까닭이다.

온평리(溫平里)

제주어로는 ‘열문’이라 하고 연혼포(延婚浦), 열운리(閱雲里), 여을온(餘乙溫) 등의 별칭이 있는 성산면에 속한 해안 동리인데 전설이 많은 곳이

다. 즉

- ① 양고부(良高夫) 3신인(神人)이 유렵중(遊獵中) 월랑국사(月浪國使)가 배에 싣고온 석뢰(石櫃) 중에서 월랑국 왕희(王姬) 3인과 오곡(五穀), 망아지(駒), 송아지(犢) 등을 내서 3인에게 혼인(婚姻)시켰다는 곳이 이곳이란 다. 즉 고명(古名)인 연혼(延婚)의 연(延)은 영(迎), 혼(婚)은 혼인(婚姻)의 뜻으로, 그 3신인의 혼인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 ② 제주도 최대의 신 토산당(兔山堂)이 본거(本據)인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을 떠나 도도(渡島)해서 상륙했다는 곳도 이곳.

와포(瓦浦)

제주명으로 '지새포'라 하고 한림면(翰林面)에 속한 제주도 서단(西端) 해안부락이다. 현재(1945년) 용수리(龍水里) 제1구로 약 180호가 있다. 부근에 차귀섬(遮歸島)이 있고 일명 죽도(竹島)라고 하느니만큼 옛날엔 대가 많았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없다. 그 말단은 분리되어 지실섬(馬鈴薯島)이 되었고, 그 중간에 상여섬(喪輿島)이 있어서 와포(瓦浦) 청년은 많이 죽는다고 한다. 차귀도(遮歸島)·주도(主島) 간에는 눈섬(臥島)이 있는 등 형상(形狀)으로 보아 전설이 있을만도 한 곳이다.

위미리(爲美里)

남원면에서 제일 큰 해안 부락으로 옛날에는 우미리(又美里)라고도 쓰였다. 상피병(象皮病)이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부락으로 유명하다.

정의면(旌義面)과 정의읍(旌義邑)

정의면은 현재의 성산면(城山面)의 고명(古名)이고 면사무소가 현재는 성산포에 있지만 정의면 시대에는 고성리(古城里)에 있었다. 정의읍은 현재의 표선면(表善面) 성읍리(城邑里)의 고명(古名)이고 3군(郡) 시대에 군청(郡廳) 소재지였고 또 그 전에는 현감(縣監)도 있었던 고읍

(古邑)이다. 명칭만으로는 정의읍(旌義邑)은 정의면(旌義面)에 있는 한 부락명으로 보이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주읍(濟州邑)

본래는 중면(中面)이라던 것이 1913년 12월에 제주면으로 개칭되고, 1927년 4월에는 지정면(指定面)으로 승격하고 1931년 4월에는 지방제도의 개정에 따라 제주읍으로 되었다. 그 면적은 16평방리여(餘)로 한라산정(頂)을 포함하니 면적으로는 한국 제일의 읍일 것이다.

제주읍내의 명승(名勝)

삼성혈(三姓穴), 방선문(訪仙門), 관음사(觀音寺),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 용연(龍淵)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한라산과 백록담은 다른 면과의 공통물이다.

제주의 별칭(別稱)

제주읍(濟州邑), 성내(城內), 산지(山地), Moggan(牧監), Mocxo(牧使), 모관(牧官) 등.

김병

김병(金柄)이란 고인(古人)의 성명이고 동시에 동인(同人)이 창설한 동리의 이름이었다. 이 동리는 구좌면(舊左面) 행원리(杏源里) 서남측(西南側) 중산지대(中山地帶)에 있었고 이 고동(古洞)은 후에 괴(漢東里), 어등개(魚登浦; 於等浦 즉 杏源里) 및 무주에(月汀里)의 3해촌(海村)으로 분립(分立)되었다.

한림(翰林)

도내 제일의 공업지이다.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또 부근에 도중(島中) 제일가는 넓은 면적의 수전(水田)까지도 있는 관계로 외지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되는 까닭이다. 또 양항(良港)이고 전면(前面)에 있는 비양도(飛揚島)는 강렬한 서북계절풍을 막아주고 유명한 어선

의 근거지요 부근에는 도내 일등의 해수욕장까지 있으니 한림은 발전될 요소를 구비하였다고 하겠다.

11. 산악(山岳)

각수암(角秀岩)

서귀포 서북 4km에 있는 기암(奇岩)으로 조면질안산암(粗面質安山岩)에 속하는 각수암용암(角秀岩熔岩)으로 되었다. 근처에 있는 고근산(孤根山)과 아울러 서귀포 동방(東方)에서 바라볼 때는 꼭 인상적이다.

고근산(孤根山)

서귀포 서북 6km에 있고 현무암설(玄武岩屑)의 퇴적으로 된 분석구(噴石丘)로 절두원추상(截頭圓錐狀)을 보이고 산정(山頂)에는 화구적(火口跡)이 있다. 소형의 전형적 화산으로 미관(美觀)을 보이기로는 대표적이라 하겠다. 일명 가근산(加根山)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산령유대혈 직하심불가측(山嶺有大穴 直下深不可測 : 산령에 대혈이 있는데 직하의 깊이는 헤일 수 없다)’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무혈(無穴)이고 소화구원(小火口原)일 뿐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한 명산(名山)

山之爲宗於域內者十二, 一曰三角, 二曰白頭, 三曰圓山, 四曰狼林, 五曰豆流, 六曰分水, 七曰金剛, 八曰五臺, 九曰太白, 十曰俗離, 十一曰長安, 一二曰智異라고 있는데 三曰圓山은 제주도 한라산을 뜻함이다.

『문헌찰요(文獻撮要)』에 기재된 12산(山)

전항(前項)의 12산임.

물오름(水岳)

서귀포에서 보이는 횡단도로 옆에 있다. ‘물오름’은 역시 물에 관계

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제주도에 도우처(禱雨處)가 2개소 있었다. 하나는 대천(大川)—주서리(州西里)에 있었다고 했으니 즉 현재의 용담(龍潭) 상류이다. 또 하나는 수악(水岳)—정의현(旌義縣) 서(西) 45리에 있었고 ‘봉두유용추, 심불가측 세한도우유림(峯頭有龍湫, 深不可測, 歲旱禱雨有驗)’이란 설명이 있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수악에는 화구호(火口湖)가 없어서 그 명칭을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터인데 옛날에는 있었는지?

백록담(白鹿潭)

한국 남단에 있는 한라산정(漢拏山頂)의 화구호(火口湖)이니 북단의 백두산의 천지(天池)와 더불어 옛날부터 전설로 풍경(風景)으로 선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백두산의 천지와는 비교될 바가 못되고 외륜산(外輪山) 주위는 근 4km, 화구벽(火口壁) 높이는 약 100m, 수심(水深)이 상당하다고 선전되어있지만 한천(旱天)이 계속될 때는 고갈하는 정도의 것이니 대수롭지 않다. 녹담만설(鹿潭晚雪)이라고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 혹은 제주십경(濟州十景)에 끼워 제주도서는 자랑할만하다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안될 것이다.

백록담과 산방산(山房山)

백록담은 백록담대로 산방산은 산방산대로 기관(奇觀)이니 각기(各其) 여러가지 전설을 갖고 양자가 다 영주십이경 혹은 제주십경에 끼워있다. 하나는 요(凹)요 다른 하나는 철(凸)이라 전설에도 상관된 것이 있다. 즉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떤 이가 한라산 절정(絶頂)에서 사슴을 쏘다가 잘못하여 궁초(弓鞘)로 하느님배를 건드렸더니 하느님이 대노하셔서 한라산 주봉(主峰)을 뽑아버리매 그 둘러싸진 곳이 곧 백록담이고 그 주봉은 해변에 옮겨와 산방산이 되었다고 한다.

별도봉(別刀峰)

제주 성내에서 동방 수 km의 해안에 홀립(屹立)한 화산으로 표고 136m, 북반(北半)은 해식작용(海蝕作用)으로 삭박(削剝)된 것이 그 명칭을 유래케한 모양이다. 그러나 민간에는 선인(船人)이 황해(荒海)에 출어할 때에 흔히 칼로 부인과 이별하는 무슨 표를 했다고 해서 된 이름이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 이 산에 있는 화산회(火山灰) 및 화산사(火山砂)의 퇴적층(堆積層)에는 화강암력(花崗岩礫)이 포함되어 있는데서 근거를 잡아 제주도의 기반은 화강암이라고 추정케 되었다.

산방산(山房山)

안덕면(安德面) 서단(西端)에 위치되고 경작지만 있는 해안에 도움(dome)형의 암산(岩山)이 놓여있으니 기이하다. 해발 395m이고 전산(全山) 절벽으로 되었으니 그 자연이 비교적 보존되었고 정상외 조망도 좋고 중복(中腹)에 있는 암굴(岩窟)과 천수(泉水)도 유명하다.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 혹은 제주십경에 끼워있는 산방굴사(山房窟寺)가 이것이다. 또 제주도에서는 이런 산은 대개 ‘오름’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은 산으로 되어있다. 암질(岩質)은 조면질안산암(粗面質安山岩)에 속하는 산방산용암(山房山熔岩)이다.

석다산(石多山)

이 산명으로 보면 제주도의 삼다(三多: 風多·石多·女多)와도 무슨 관계가 있는, 즉 제주도의 어떤 산명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석다산은 평안남도 증산(甞山) 서북 20리에 있는 산으로 인조실록 권 20, 인조 7년(1629년) 6월 을묘조(乙卯條)에도 기록되어 있는 산명이다.

성산기암(城山奇岩)

화산회(火山灰)로 된 일개 절벽의 소반도(小半島)로 성산포의 이름이 유래된 기암이요 구십구봉(九十九峰)이 열립(列立)하고 산색(山色)이 기

려(奇麗)하여 병풍과 흡사하다 하고 탐라지(耽羅誌)에는 세여의요(勢如蟻腰)라 하여 고래로 유명하다. 이것은 해중에 솟은 소화산이고 화산탄(火山彈)과 화산사(火山砂)는 분출하고 현무암(玄武岩)은 다량으로 유실(流失)치 않고 그 활동이 중지(終止)된 화산학상 재미있는 화산이다. 이 기암(奇岩)을 이용하여 고려 원종(元宗) 11년(1270년)에는 반도(叛徒) 김통정(金通精)이 여기에 축성(築城)한 일도 있다. 성산일출(城山日出)로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 혹은 제주십경(濟州十景)에 끼워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안우도(對岸牛島)의 해녀의 작업을 내려다 봄에도 가장 좋은 장소이다.

성판악(城板岳)

속칭 ‘성널오름’이라 하고 표고 1,215m, 한라산 동쪽에 위치되어 서귀포 부근에서 보면 한라산에서 떨어져서 제일 크게 보이는 산이다. 조면암류에 속하는 성판악 용암으로 된 산이다.

송악산(松岳山)

모슬산(摹瑟山) 동남 10리 쯤되는 해안에 홀립(屹立)한 사화산(死火山)으로 그 전면 해양에 있는 가파도(加波島) 및 마라도(馬羅島)와 아울러 일화산선(一火山線)을 이룬듯 하다. 화구(火口)는 깊고 누두상(漏斗狀)이고 화구원 중앙에는 미형(美形)의 원추화산(圓錐火山)을 형성한 복식화산(複式火山)이다. 외륜산(外輪山)의 일부는 해중에 돌출하여 해식작용(海蝕作用)을 받으므로 그 북반(北半)을 제외하고는 깎이어 단애(斷崖)를 이루고 화구원은 반월형(半月形)을 나타낸다. 그 단애는 화산체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어 화산 기구(機構)를 명확히 이해하기에 편하다. 이 산은 속칭 저별리(貯別利)라고도 한다.

솔오름(米岳)

서귀면에 있는 산명인데 제주식으로 발음한다면 ‘쫄오름’이라야 되는

데 ‘솔오름’이라하니 이 ‘솔’은 분명 ‘米’의 뜻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

어승생악(御乘生岳)

‘어스슴오름’이라 하고 표고 1,176m. 어승산(御乘山), 어승마산(御乘馬山), 어승마생악(御乘馬生岳), 올오름 등의 별칭이 있고 한라산 서북에 위치되어 한라산에서 떨어져 제일 크게 보이는 산이다. 조면암류와 조면질안산암으로 된 것으로 생각되고 좋은 수원(水源)을 가지고 있다. 이 산은 옛날부터 유명한 마산지(馬產地)이다. 제주도 삼기(三奇)의 하나인 말(馬) 노정(盧正)도 이 산 아래에서 난 것이다.

오름(兀嶺)

제주도서는 대개 산은 ‘오름’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악(岳)으로 표한다. 그러나 간혹 산(山)자가 붙은 산도 있고 ‘산’과 ‘오름’을 겸용하는 산도 있지만 단연 한라산만은 ‘오름’이라는 법이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300여 산의 왕이요 ‘산’은 ‘오름’의 종주(宗主)인 감이 있다. 또 ‘오름’보다 작은 것은 ‘동산’이라 하고 육지에서 말하는 ‘고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원(後園)에 해당하는 동산(東山)이란 말은 제주도에 는 없다.

한라산(漢拏山)

나(拏)와 나(拏)는 동자(同字)이니 한라산(漢拏山)이라고도 물론 쓰겠고 옛날부터 한국의 명산이니 별칭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한라산(漢羅山), 두무악(頭無岳), 무두악(無頭岳), 탐라산(耽羅山), 원산(圓山), 원교산(圓嶠山), 부악(釜岳), 영주산(瀛洲山), 진산(鎭山), 선산(仙山), 중악(中岳), 여장군(女將軍), 단산(端山), 봉래산(蓬萊山), 부라산(浮羅山), 혈망봉(穴望峰), 조선부사(朝鮮富士), 하늘산 등이다. 정상은 해발 1,950m 이고 제주도 중앙에서 약간 남측에 편재(偏在)되었으니 남방(南方)은 급사(急斜)이고 북방(北方)은 완사(緩斜)이며 동서 양방(兩方)은 다소 평탄광활(平坦廣闊)

하다. 이 산은 아스피이테형 화산의 고산(高山)으로 지질학상으로는 제 3기 사화산(死火山)이요 대부분 현무암을 모암(母岩)으로 한다.

정상에는 화구호(火口湖)인 백록담이 있고 설대(雪帶)와 지의대(地衣帶)만은 없지만 초본대(草本帶), 관목대(灌木帶), 교목대(喬木帶)가 분명하다. 더우기 관목대의 진달래는 자랑할만하다.

한라산의 높이

1950m. 그러나 과거의 오보(誤報)된 기록도 적지않다. 즉

- ①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 ;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 메이지(明治) 38년(1905년)—범(凡) 8000척(尺)(2424m)
- ② 다부치 토모히코(田淵友彦) ;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메이지 38년(1905년)—6558척(1,987m).
- ③ 노구치 야수오키(野口保興) ; 세계대지지(世界大地誌), あじあ洲, 메이지 38년(1905년)—2,042m 및 2,043m.
- ④ 일한서방편집부(日韓書房編輯部) ; 최신조선지지(最新朝鮮地誌), 메이지 45년(1912년)—2,700m로 백두산에 버금가는 반도 제2의 고산(高山)이라고,
- ⑤ 오니시 요타로(尾西要太郎) ; 선남발전사(鮮南發展史) 부도(附圖), 다이쇼(大正) 2년(1913년)—2,120라고 했으니 2,120m로 고증(考證)된다.
- ⑥ 나카이 다케노싱(中井猛之進) ; 제주도및완도식물조사보고서(濟州島玆莞島植物調査報告書), 다이쇼 3년(1914년)—2,010m
- ⑦ 이마무라 도모(今村 頼) ; 濟州島の漢拏山峯, 쇼오와(昭和) 6년(1931년)—2,000m.
- ⑧ 조선(朝鮮), 쇼오와 10년(1935년) 11월호, 1~79쪽 ; 各道 ナシバ・ワンとオンリ・ワン—2,010m

한라산(漢羅山)에 온 역관(曆官)

이조 세종대왕은 문치(文治)에 힘쓰고 더우기 과학 연구의 치적(治績)이 많았다. 그는 북극(北極)의 고도(高度)를 측량(量)케 하기 위하여는 역관을 백두산과 한라산에까지 파견하였다.

한라산의 위치와 높이

제주도 중앙에서 약간 남편(南偏)되어 동경 126°32', 북위 32°22', 높이는 6,785피트(6500尺) 즉 1,950m.

12. 도서(島嶼)

가파도(加波島)

모슬포(慕瑟浦) 전방(前方) 대양(大洋) 중에 있는 주위 10여 리의 평탄한 섬인데 원래 무인도로서 국유(國有) 우마의 목축장이었던 것이 현종(憲宗) 8년(1843년)에 우도와 함께 비로소 이주가 허가되었다. 지금은 100여 호나 있고 농토로는 양호하지만 협소한 관계로 대안(對岸) 모슬포에 와서 활약하는 인사(人士)도 많고 도외로 진출하여 성공한 사람도 많다. 부근은 파도가 심해서 파선(破船)한 예가 적지 않은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화난선(和蘭船) Sperwer호의 표착이었다(1653년). 서기(書記) Hendrik Hamel의 표류기(1668년)에 기재된 QuelPart란 이 가파도를 지칭한 것이라고도 보겠고 후일 그대로 제주도의 양명(洋名)으로 되고 말았다.

가파도와 외국인

제주 주도(主島)는 타원형이고 약간 경사되어 위치되었으니 주도의 남단은 모슬포 부근이다. 그 앞바다에 가파도와 마라도가 있는데, 마라도는 어업의 근거지가 될 뿐이고 가파도는 농가가 많은 곳이라 외

국선에게는 가장 먼저 눈에 띄우는 섬이다. 유명한 화란선(1653년)이 조난(遭難)해서 표착한 곳도 이 섬이요, 영국선(1845년)이 피난해서 표착한 곳도 이 섬이요, 일본인이 메이지(明治) 15년(1882년)에 처음으로 와서 근거를 잡은 곳도 이 섬이다.

갑침도(甲沈島)

다구치(田淵)의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1905년) 276쪽에 제주도 부근에는 우도, 갑침도, 비양도(飛揚島) 등이 열좌(列坐)한다고 되어있는데 갑침도는 과연 어느 섬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기록의 순과 발음으로 고찰하면 가파도가 아닐지?

로니 부룻프갑(岬) · 가파도(加波島) 사이

제주 본도의 서남각(西南角)은 ‘로니부룻프岬’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부터 2마일(浬) 앞바다에 있는 가파도와 사이에는 암초도 많고 조류도 급격하여 고래(古來)로 난선(難船)한 예가 많다. 하멜 일행의 조난(1653년), 일선남양마루(日船南洋丸)의 침몰(1895년), 영함(英艦) Betford호(5,900톤)의 침몰(1910년) 등도 다 이곳이었다. 또 가파도와 그 앞바다 5마일에 있는 마라도와의 사이도 사리 때(大潮時)의 격류로 대난소(大難所)이다.

마라도(馬羅島)

마라도(摩羅島, 麻羅島)라고도 쓰고 영명(英名)은 ‘깃프왈드’라고 하는 가파도 남방에 있는 가파도의 반쯤 되는 섬으로 사람이 살 곳은 못되나 한국 최남단(북위 33°7')이요 지리학상으로도 의미있는 곳이며,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식수, 식량 등의 부족으로 이 섬은 전혀 가파도에 의존하고 종래는 어업의 근거지이었을 뿐이었다.

문섬

한자로는 문도(蚊島) 일명 녹도(鹿島)요, 서귀포 앞에 놓인 무인도로

양어장(良漁場)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탈도(衣脫島)로 기록된 것은 이 섬일 것이다. 그리고 양명(洋名)으로는 ‘삐넛’이다.

비양도(飛揚島)

한림면 협재리 전방 대양 중에 있는 화산도(火山島)로 한라산이 분화할 때 그 한 조각이 날아 떨어져 이 섬이 되었다 하여 비양도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도 있는(고려 목종(穆宗) 5년 6월, 1002, 분화) 유일의 가장 젊은 화산인데 화구는 대소 2개가 남북으로 병재(並在)하고 비교적 전형적인 화산탄(火山彈)을 채집할만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 분석구(噴石丘)의 생성기(生成期)는 과연 1002년으로 볼 수가 있을까. 또 동음(同音)의 섬이 우도(牛島) 동편에 하나 있는데 글자가 다른 비양도로 극히 작은 섬이다.

삼도(森島)

서귀면 보목리(甫木里) 앞에 놓인 섬으로 지형이 험악한 관계로 낚시질의 근거지로는 되어 있지만 전도가 울창하고 그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섬에만 나는 ‘나무고사리(넙고사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니 이 섬이 더욱 유명하여졌다. 그러나 유명해진 반면에 중요한 이 식물은 사람들의 착난으로 절멸(絶滅)에 직면하였다. 이 섬의 암질(岩質)은 초기에 분출한 조면암류에 속하는 삼도용암(森島熔岩)이다.

새섬

한자로는 조도(鳥島) 혹은 모도(茅島)이요, 서귀포 앞에 붙은 평탄한 섬이다. 간조시에는 도보로도 건널 수 있는 이도(離島)요 수호(數戶)의 농가도 있다. 도내(島內)에는 담수(淡水)도 많아서 와류(蛙類)는 수종(數種)이나 요산(饒産)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두락도(豆落島)로 기록된 것은 이 섬일 것이다. 그리고 양명(洋名)은 ‘후피’이다.

속도(屬島)

37개중 주요한 것은 10개요 서회순기(西廻順記)하면 비양도(飛揚島), 차귀도(遮歸島; 歸島, 竹島), 가파도(加波島), 마라도(馬羅島), 호도(虎島), 조도(鳥島; 茅島), 녹도(鹿島; 蚊島), 삼도(森島), 지귀도(地歸島), 우도(牛島) 등이고, 그중 인가가 있고 큰 섬은 우도,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지귀도, 조도의 순이다. 그중 삼도와 녹도만은 사람이 살아본 일이 없고, 어업의 근거지로만 되었다. 단 본도 소속의 추자도는 제외하기로 한다.

우도(牛島)

구좌면에 속하나 성산포로 가는데 편하다. 주위 30리요 원래 무인도로 국유 우마의 목이장(牧異場)이던 것이 헌종(憲宗) 8년(1843년)에 비로소 이주가 허가되어 지금은 주민이 500호에 달하며 해녀로서 가장 유명하고 따라서 해산물이 많다. 이 도명은 와우형(臥牛形)에서 유래하였다 하며 우도를 제주어로는 ‘쇠섬’이라 아니하고 ‘소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異例)이다.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는지? 우도를 서양명으로는 Beaufort Island라고 한다.

제주도와 시칠리아도(島)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1932년)는 이 두 섬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① 7천 척에 가까운 사화산인 한라산은 1만 척 이상의 활화산인 ‘에트나’산에,
- ② 한라산의 기생화산인 400에 가까운 ‘오름’은 ‘에트나’산의 근 1백의 부성화산(副成火山)에,
- ③ 제주도의 돌담은 시칠리아도의 선인장(仙人掌)에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도와 울릉도(鬱陵島)

H. Lautensach(1935년)에 의하면,

- ① 제주도는 중세의 조선문화에 속하고 그 문화경관은 오랫동안 정적(靜的)이었는데 울릉도는 근대농업면에 활발히 발전하여 제주도의 인구 밀도가 평방미터에 223인인데 대해서 울릉도의 것은 512人이나 된다.
- ② 제주도에는 목축이 발달하였는데 울릉도에는 발전치 않았다.
- ③ 임업에 있어서는 울릉도의 70%가 삼림인데 대하여 제주도는 불과 25%에 달할 뿐이다,
- ④ 주작물은 제주도서는 조, 보리인데 울릉도서는 옥수수(玉蜀黍)와 마령서(馬鈴薯)이다.

한국의 대표도(代表島)

한국의 전 도서 3,305개중 그 과반인 1,841이 전라남도 해상에 있어서 부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다도해(多島海)를 이루었으나 전국적으로 섬이라 할만한 것은 최대의 제주도를 위시하여 동해의 울릉도, 그 밖에 거문도(巨文島), 진도(珍島), 안면도(安眠島), 강화도(江華島), 대청도(大靑島), 백령도(白翎島), 신미도(身彌島), 가도(假島) 등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육도(陸島)이고 해양도(海洋島)로는 제주도와 울릉도뿐이다. 또 문화상으로 볼 때는 그 존재가 수천년을 꾸준히 내려온 점으로 제주도가 한국의 대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이 해방이 되고서는 도(道)로 승격까지 하였으니 종래와는 의의가 달라졌다.

한국의 도서(島嶼)수

주위 500m 이상의 것이 1,930, 500m 이하의 것이 1,375, 계 3,305, 그중 저명한 것은 제주, 거제(巨濟), 진(珍), 강화(江華), 남해(南海), 완

(莞), 안면(安眠), 신미(身彌), 울릉(鬱陵), 백령(白翎), 초(椒), 자은(慈恩), 임자(荏子), 교동(喬桐), 암태(岩泰), 도초(都草), 석모(席毛), 영종(永宗) 등의 18도이나 도서 중의 왕은 물론 제주도이다.

한국의 삼대도(三大島)와 오대도(五大島)

삼대도라면 제주도, 남해도(南海島), 거제도(巨濟島)요, 오대도라면 진도(珍島)와 강화도(江華島)가 추가된다. 그리고 삼대도라면 남해의 제주도, 동해의 울릉도, 서해의 강화도를 지적하는 수도 있다.

죽도(竹島)

본도 서단에 있는 일명 귀도(歸島) 혹은 차귀도(遮歸島) 혹은 흰도(萱島)란 섬이다. 본래 대가 많았던 관계로 도명이 유래된 모양이나 현재는 대가 별로 없다. 옛날엔 왜구가 그치지 않은 곳이었으나 이조 태종 6년(1406년)에 왜구가 내습했을 때는 안무사 이원항(李元恒), 판관 진준(陳遵) 등이 격퇴한 관계로 유명하여졌다. 현재는 유명한 사신(蛇神)의 당(堂)이 있다 한다. 차귀도란 명칭은 이 사귀(蛇鬼)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지귀도(地歸島)

남원면에 속하나 보목리쪽이 편하다. 주위 약 10리나 되고 어업의 근거지이요 토지도 비옥하여 호농지(好農地)이지마는 식수와 모기때문에 하계(夏季)에만 겨우 4~5호 이주한다. 도형(島形)이 사각 평탄하니 일명 조도(組島)라도 한다.

지귀도는 知歸島라고도 쓰이고 遮歸(차귀) 내지 蛇鬼(사귀)에 관련되는 명칭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츠츠키(짓기)도(島)라고도 썼고 고서(古書)에는 금로도(金路島)라고도 쓰여있다.

추자도(楸子島)

대소 수개(數個)의 도서로 현재는 제주도의 1개 면으로 되어 있으나

(1914년부터), 과거에는 영암군(靈岩郡) 혹은 완도군(莞島郡)에 속한 때도 있었다. 어민들이 사는 극빈도(極貧島)이고 제주도에서 보이는 길인은 대부분이 추자도민이므로 ‘추자걸바시’란 말이 있고 대체로 제주도민이 추자도민을 낮추어 대하는 것이 목포 사람들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것과 같다. 현재는 제주도 13면중 최소의 1면이나 제주 주도(主島)와는 원거리이고 그 유래나 풍속·습관까지도 상이하니 본저에서는 이 이상 더 취급치 않겠다.

토도(兔島)

구좌면 하도리 해안에 인접한 소도로 문주란(文珠蘭)으로 유명한 무인의 소도이다. 도명은 1930년경 하도리 사람 윤석준(尹錫俊; 1945년, 60세 미만으로 건재)이란 사람이 사육하던 토끼를 방목함에 유래함이다. 그 후 상당히 번식되었다가 차차 감수(減數)되고 1940년경에는 전멸되었다 한다. 문주란이 세상에 선전된 것은 그 유래가 좀더 오래다고 한다.

형제도(兄弟島)

안덕면 산방산 전면 사계리 앞에 있는 무인의 2소도인데 형제암이라고 해도 좋을 섬이다. 방어 어장(鱒漁場)으로 알려져 있고 또 부근의 좋은 경치를 장식해 주는 섬이다.

호도(虎島)

서귀면 범화리 전방에 있는 주위 5리쯤 되는 섬이다. 주위는 절벽이지만 중앙은 평탄하여 경지로 되어있고 식수조차 양호하므로 1호의 농가도 있다. 섬의 한쪽이 호랑이와 흡사한 점이 있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고 호도이므로 고양이도 기를 수 없다고 한다. 암질은 조면질안산암에 속하는 서귀포용암이고 고구마가 크게 되므로도 저명하다. 별칭 ‘범도(凡島)’는 ‘범’을 ‘凡’으로 표시한 것이다.

13. 지도(地圖)

1892년(일본 메이지(明治) 25년)경의 지도

임태보(林泰輔)저 조선사부도(朝鮮史附圖)를 보면 전체로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물론 유치(幼稚)하다. 지명중 주(州)가 붙은 곳은 卅를 다 생략하였다. 지도중 제주도를 보면 일층 무리가 많은 것은 이도(離島)이므로 상세치 않은 관계였다. 도(島) 주위에 과도히 철요(凸凹)가 있고 한라산은 너무 남편(南偏)되었고 현저한 착오(錯誤)는 濟(濟州)가 성산포 부근에 위치된 것이다. 또 추자도는 무시되었고 따라서 제주도가 근거리에 위치되었다.

1902년(일본 메이지 35년)경의 지도

임태보저 조선근세사부도(朝鮮近世史附圖)를 보면 10년전 지도보다 좀 진보(進步)되어 있다. 즉 주(州)가 붙는 지명엔 卅를 다 붙였고, 제주도 지도에서는 한라산의 위치가 다소 정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추자도는 무시되었고 제주의 위치는 여전히 성산포 부근이다.

1905년(메이지 38년)경의 지도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 안내(濟州島案内)에 있는 지도를 보면(55만분지),

- ①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대정, 정의의 3군으로 되었고,
- ② 기록되어 있는 도읍(都邑)은 수도(首都)로 성내(城內), 대정(大靜), 정의(旌義)요, 항구(港口)로는 행원포(杏原浦), 함덕(咸德), 별도포(別刀浦), 곽지(郭支), 협재(挾才), 모슬포(摹瑟浦), 대평리(大坪里), 서귀포(西歸浦), 위미리(爲美里), 표선리(表善里), 성산포(城山浦) 등이다.
- ③ 부속 도명은 우도(牛島), 비양도(飛揚島), 횡도(萱島 : 竹島), 가파도(加波島), 마라도(麻羅島) 등이다.

1910년(메이지(明治) 43년)경의 지도

일본 역사지리학회 발행의 지도를 보면 제주는 서쪽으로 지나치게 위치되고 대정과 정의는 해안도시로 되어있다. 차귀(遮歸), 서귀(西歸), 수산(首山: 城山일 것)의 3진(鎭)과 조천관(朝天館)이 기재되어 있고, 우도에는 보홀트(ポーフォルト)라고 부기(附記)되어 있다.

1913년(다이쇼(大正) 2년)경의 지도

오니시 요타로(尾西要太郎)의 전남발전사부도(鮮南發展史附圖)를 보면, 한라산 높이가 2,120로 되었으니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1,950m에 비하거나 지리산(智異山) 기타 여러 산(山)의 고거리(高距離)와도 비교하면 2,120m가 분명하니 이는 물론 오산(誤算)이다. 또 정의(旌義)는 해안에 위치되었고, 기타처에도 오류가 많다.

The Times 세계대지도(世界大地圖)

제주도를 Quelpart I., 한라산을 Hal-la-San, (Mt. Auckland), 제주를 Che-ju, 대정을 Tai-jeng, 우도를 U-do, 마라도를 Gifford I., 가파도를 Barlow I., 지귀도(地歸島)(?)를 Barrow I.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부록의 지명 사전에 의하면 제주도는 한국의 속도(屬島)요 울릉도는 일본의 속도라고 하였으니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해방된 해에 출판된 지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에 인쇄된 김진복(金振福) 발행의 대한국 전도(全圖) 중의 제주도를 보면 현재의 것이 못되고 불완전한 10여년 전의 고도(古圖)이다. 즉

- ① 모슬포의 발전이 무시된 것.
- ② 감산리(柑山里)가 기재(記載)되고 화순리(和順里)는 기재되지 않은 것.

- ③ 위미리(爲美里)가 마영리(馬英里)로 오식(誤植)된 것.
- ④ 의귀리(衣貴里)와 정의(旌義)가 일주도로(一周道路)상에 위치한 것.

14. 교통 · 통신

각 등대(燈臺) 출입 및 통과(通過) 선박수(船舶數)

1923년 중의 통계에 의하면, 마라도(摩(馬)羅島)는 기선(汽船) 797, 범선(帆船) 31 ; 산지(山地)는 기선 900, 범선 3으로 전 조선 42개소 총계의 109,433에 비해서 양처(兩處)가 모두 평균의 절반씩이 못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 양처(兩處)보다 적은 곳도 많다.

교통(交通)

제주 성내를 중심으로 목·제(木濟)항로가 있고 여수(麗水), 부산(釜山)에 정기선(定期船)도 있다. 또 각면 면사무소 소재지 혹은 그 외항 기타에도 기항(寄港)하고 육상일주도로(3등국도)에는 정기버스가 있다.

이정표(里程表)

1. 해로(海路)

목포 항로 88마일(浬)

여수 항로 93마일

부산 항로 178마일

2. 육로(陸路)

해안선 650리(里)

일주로 480리

등대(燈臺)

가나기 료오노스케(金木良之助; 1926년)에 의하면,

항로표식명칭 등급 및 등질(燈質) 광달(光達)거리

우도등대	무등연섬백광(無等連閃白光)	12
마라도등대	제육등섬백광(第六等閃白光)	18
산지등대	무등연섬백광(無等連閃白光)	12

이조 말경의 교통통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직전의 상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목포·제주도간 기선왕복이 1월 5회의 예정으로 운전(運轉)되었다. 이것은 일본인이 목포우편국으로부터 1왕복에 25원씩 보조를 받고 항해했지만 제주도에는 양항(良港)도 없고 동계(冬季)에는 풍파도 격렬한 관계로 1월 1왕복일 때도 있었다.

이조 말경의 묘지(錨地)

대선거박(大船巨舶)을 위한 양호한 항만은 없고 온화(穩和)한 날 기선, 군함을 일시 정계(碇繫)시키는 데는 비양도와 우도가 묘지로 되었다. 이것도 조류가 극급(極急)하여 장시간의 정계에는 부적하였다. 기타는 50~60톤 이상의 선박도 멎을 곳이 없었고 20~30톤의 소선이 정박할 만한 곳은 도처에 있어서 그 수가 약 20에나 달하였다.

목제(木濟) 항로

옛날부터 서울서 제주까지는 육로 천리요 수로 천리라 하였다. 그 수로란 목제항로인데 기실 천리는 못되고 88마일(浬; 160km)이다.

무전(無電) 설치

제주우편수취소(郵便受取所)에서는 1906년 10월에 전신사무를 개시했지만 목포·제주간은 해저선(海底線)인 관계로 항상 고장이 생기고 불완전하던 것을 1924년 5월에 실지측량(實地測量)을 하고 동년 8월에 무전설치 공사에 착수, 1925년 4월 21일에 준공, 동년 5월 1일에 개국하고 통신을 취급하였다.

별도항(別刀港) 수축공사비(修築工事費)

총공사비(總工費) 6,300원중 국고에서 1916년도에 1,300원, 1917년도에 1,000원을 보조해서 준공하였다.

여행(旅行)

탐승(探勝) 혹은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다음의 몇 코스가 있다. 근거지는 제주 성내로 함.

- ① 도일주 : 서회(西廻)버스로 서귀포행, 숙박후 동회(東廻)버스로 제주행. 2일 이상.
- ② 등산 : 횡단도로로 서귀포행, 숙박. 서귀포발(發) 등산, 산남 혹은 산북(山北)측의 추용(椎茸)재배지에 숙박. 성내로 하산(下山). 3일 이상.
- ③ 전부(全部) : 이상의 2코스를 연속하든지 혹은 조합(組合)하든지. 5일 이상.

시계(時季)는 춘추가 좋고 그 중에서도 춘계가 더욱 좋다. 산중 숙박시는 야간 대우(大雨)로 위험하니 물 없는 하곡(河谷) 암굴(岩窟)은 피할 것.

옛날의 선박정박지

거함용(巨艦用)—우도, 비양도 등.

소선용(小船用)—별도(別刀), 조천(朝天), 성산포(城山浦), 서귀포(西歸浦), 모슬포(慕瑟浦) 등.

본도 5묘지(五錨地)—우도, 비양도, 죽도(竹島) 기타.

여하튼 우도가 옛부터 저명한 정박지요 본도 제일이었다.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의 여정(旅程)

1905년 7월 11일 오키(隱岐)에 체재중인 Anderson으로부터의 전보를 받고 동 15일에 나가사키(長崎)로 직행하여 만났다. 양인이 나가사

키를 떠난 것은 29일 조조(早朝) 5시, 동일 저녁은 츠시마(對馬島) 이즈하라(巖原)에서 먹고 30일 아침 부산(釜山)에 도착. 8월 4일 통역으로 김용수(金龍水)를 채용 동반하여 부산발, 5일 오후 목포착. 8일 목포발, 9일 제주착, 10일부터 야영(野營). 연일(連日)의 우천(雨天)과 시기의 지연(遲延)으로 나비류의 채집에는 불량조건이었다. 9월 20일 하산, 23일 제주발, 24일 목포착. 27일 앤더슨, 김씨와 작별하고 목포발, 28일 부산착발, 29일 시모노세키(下關)착.

인력궤도차(人力軌道車)

1929년 3월에 시작되어 제주도 순환인력궤도차를 계획하여 제1기 선(第一期線)으로 김녕(金寧)·협재간(挾才間) 34마일(哩)5분(分)이 9월에 완성되어 10월 1일부터 운전 개시되었다. 이 차는 6인승 트럭식의 미는 인력거인데 임금은 1마일(哩) 5전(錢) 5리(厘), 속력은 1시간 6마일, 장래는 협궤(狹軌)의 철도로 변경한다는 의도였으나 그후 그대로 수지가 안맞아서 중단폐지되었다.

인접 부읍면간(隣接 府邑面間) 거리

구좌면 우도·여수군(麗水郡) 삼산면(三山面)간 22.2km

추자면·목포간 111.0km

1904년(메이지(明治) 37년)경의 선편

목포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는 경찰과출소를 설치하고 우편국에서 는 수취소를 개설한 이래 일본형 범선(帆船)에 의하여 목포·제주간을 매월 2왕복시켰다.

1914년(다이쇼(大正) 3년) 12월 고시 제64호에 의한 면리수(面里數)

13개 면 167개리인데 추자면의 5개리를 제외하고 제주주도(主島)의 것만을 보면 12개면 162개리이다. 그리고 리명에는 현재의 것과 차이

가 없지마는 면명만은 대정, 구좌, 추자 등 3개를 제외하고는 그후 전부 개칭하였다.

1915년경의 제주도 항로

조선총독부 명령의 부산·제주도선, 목포·제주도동회선 및 서회선의 3선이 있었고 기항지는 성산포, 조천, 산지, 협재리, 모슬포, 서귀포, 표선리, 김녕, 추자도, 마라도 등지였다.

1929년경의 승합자동차 운전상황.

구간	리수	회수	임금(원)
제주-모슬포	142.0	1	4.35
제주-성산포	112.6	2	3.60
서귀포-모슬포	73.2	1	2.33
서귀포-성산포	113.5	1	3.35
제주-한림	70여	1	3

1929년경의 정기선 기항지

산지, 조천, 김녕, 성산포, 표선리, 서귀포, 모슬포, 협재, 한림, 애월, 추자도 등.

1929년경의 항로선박

회사명	기선척수	기점	항로	항해회수(월)
朝鮮郵船株式會社	2	목포	본도 일주	9
	1	부산	"	5
	1	大阪	부산, 본도 일주	2
	1	"	목포, 본도 일주	3
大阪尼崎汽船部	1	"	"	3
鹿兒島郵船株式會社	1	"	본도	약 3

1929년경의 화물운송 일본선 척수

50석적(石積) 이하	13
100석적(石積) 이하	126
200석적(石積) 이하	44
합계	183

한일합방전후의 기항지

여러 문헌에 비양도, 조천포, 우도, 제주도 등이 기록되어있는데 제주도는 분명히 제주의 뜻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기록된 비양도(飛揚島)는 飛楊島로 기록된 것도 있어서 이것이 한림면의 비양도인지 우도 인도(隣島)인 飛楊島인지 판단키 어렵다. 그러나 함께 기록된 여러 항명(港名)을 종합해보면 한림면의 비양도로 해석이 된다.

전성시대의 교통기관

1936년경이 제주도의 전성시대이었을 것인데 그때의 교통기관으로는 제주읍을 중심으로 오사카(大阪)간에는 1000톤급 기선(汽船) 2척으로 5회, 부산간에는 소기선(小汽船) 1척, 발동기선(發動機船) 3척으로 월 6~8회, 목포간에는 250톤급의 기선 1척으로 월 15회와 100톤 미만의 발동선 2척으로 월 6~7회의 항행(航行)이 있었다. 또 육상교통기관으로는 2자동차 영업소가 승용차 12량(輛), 화물차 4량을 운행하였다.

조선일본간 무역여객 항구별 조사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전 조선 17개항중 제주도 관계분은 성산포뿐이고 동향의 입항출항의 조선인·일본인수(朝日人數)는 다음과 같다(1925년 조사).

	조선인	일본인	계
입항	9,646	110	9,756
출항	15,870	190	16,060

이 숫자로 보면 활황(活況)으로는 성산포가 부산, 신의주(新義州), 인천(仁川)의 다음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1개년 평균 43,000인 내외의 조선내 이주 초과(朝鮮內 移住 超過)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최양항(最良港)

설비관계로 제주항이 제일의 양항(良港)이다. 고래(古來)로 산지항(山地港), 산지포(山地浦), 산지(山地)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추동절(秋冬節)의 서북 강풍으로 인하여 옛날에는 성산포를 이용한 일이 많았던 관계로 고래로 제일의 양항으로는 성산포가 알려져 있었다.

최초의 기선운항(汽船運航)

1890년 부산·산지간에 기선의 내왕을 시초로 이후 산지항(山地港)에는 기선이 착발케 되었다. 갑오년(1894년)에는 제주도 출신 이종문(李鍾文)이 인천에 있는 굴력상회(掘力商會)에 교섭(交涉)하여 연안항행의 기선 1척으로 1개월 1회의 부정기항로를 개시했었지만 도내에는 피난항도 없고 연안에는 암초가 많아 항해가 불안전한 데다가 수지도 맞지 않아서 3년 후에는 끝내 중지하고야 말았다.

통신사(通信史)

1903년에 한국우체사출장소(韓國郵遞司出張所) 개설.

1904년에 목포우편국 제주도우편수취소 개설. 일본형 범선으로 제주·목포간 매월 2회 왕복.

1905년 6월 목포우편국 제주출장소로 변경.

1906년 10월 전신사무 개시. 성산포—거문도(巨文島)—고흥군(高興郡)간은 해저선(海底線)에 의하는데 이것은 본래 일본인이 노일전쟁(露日戰爭)때 본도에 망루(望樓)를 설치하고 부설(敷設)한 것으로 전후에 우편국에까지 연장하여 쓰게한 것이다.

- 1907년 1월 제주우편국으로 승격.
- 1915년 6월 제주—성산포, 제주—모슬포 전화 개통
- 1915년 12월 제주—서귀포 전화 개통.
- 1916년 제주—김녕 전화개통.
- 1925년 5월 제주에 무선전신국이 개설됨.

항로목표(航路目標)

제주도는 도(島)전체가 옛부터 항로목표가 되었다. 일본 헤이안조(平安朝) 시대에 일송(日宋)교통로는 하카타(博多)·영파(寧波)간을 제주도를 유일한 목표로 하고 계절풍을 타서 왕복하였었다. 고려도 송과의 교통에 있어서는 개성(開城)을 떠난 사람은 서해안을 남하하고는 1차는 제주도에 기항하고 도송(渡宋)하였다고 한다. 그후 원의 후비라이(忽必烈)은 일송괴리(日宋乖離)의 책으로 제주를 점령하였다. 근자에 와서는 일본의 대련(大連) 항로 기타에 제주도가 목표로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으로부터 서일본을 폭격한 미국비행기 B29도 제주도를 목표로 비래(飛來)하고는 항로를 동으로 직향(直向)한 것이었다.

항로표지(航路標識) 통과 및 출입선박

1931~33년의 조선총독부 조사월보(月報)에 의하면 마라도와 산지양등대가 게재되어 있고 마라도 등대는 물론 통과하는 기선뿐, 산지등대는 통과 및 출입선박이 평균되어있다.

항만(港灣)

조선총독부 발행의 조선항만요람(朝鮮港灣要覽; 1931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항	지정항	지방항
전 조선	12	27	83
제주 주도	0	3	5

지정항—산지, 성산포, 서귀포
 지방항—조천, 김녕, 표선, 모슬포, 한림

15. 농업

감귤류와 제충국(除蟲菊)

감귤류에는 식용과 약용이 있고 옛부터 유명하다. 품질에 있어서는 일본산에 비하여 분명히 손색(損色)이 있으나 한국서는 이 제주도만이 감귤류의 산지란 점에 의의가 있다. 제충국(除蟲菊)은 근년에 수입된 것이지만 감귤류와 같은 뜻이 있는 식물이다. 두 식물이 모두 난지산(暖地産)이니만큼 서귀포가 중심지로 된다.

감귤류의 종류명

감(柑), 유(柚), 금귤(金橘), 왜귤(倭橘), 당감자(唐柑子), 지각(枳角), 지각(枳殼), 지귤(枳橘), 당유자(唐柚子), 유감(乳柑), 당금귤(唐金橘), 병귤(瓶橘), 소금귤(小金橘), 석금귤(石金橘), 산귤(山橘), 소감자(小柑子), 당귤(唐橘), 소귤(小橘), 청귤(靑橘), 동정귤(洞庭橘), 등자귤(橙子橘), 대귤(大橘), 하귤(夏橘), 소유감자(小柚子), 운주(雲州), 네불, 킹캉 등등 기타 모두 36종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그중에는 동종이명(同種異名)도 있을 것이고, 학술상으로 몇종인지는 미정(未定)이다.

감귤재배와 풍토

기온, 강수량, 토성(土性)에는 지장이 조금도 없다는 것 보다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람에 한해서는 재삼 고려하여야 될 점이 있다. 제주도의 계절풍인 북풍만 막을 수 있다면 되니 남부무풍대(南部無風帶)만 선택한다면 무방할 것이다. 감귤의 재배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데 반하여 수용(需用)만은 무한일 것이니 제

주도의 감귤재배는 전도가 양양하다.

감귤재배의 역사

문헌에 의하면 500여년 전부터 재배하여 종류도 수십종에 달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십여종에 불과하고 한일합병후는 일본의 우량품종도 수입되어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감귤의 재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연구와 노력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

고구마

매우 흔한 것이다. 감자는 지실(地實)이라고 하고 흔하지 않다. 고구마가 이 제주도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보다 바람과 토양의 탄소율(炭素率)에 잘 지배 받지 않는 고구마 재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다. 현재로는 제주도의 고구마 재배에는 질량(質量) 함께 발달의 여지가 극히 많다.

고구마의 전래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에 의하면, 메이지(明治) 33년(1900년)경 비양도(飛揚島) 재류(在留)의 일본인이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부터 다수의 고구마 종자를 구입하여 도민에게 그 재배법을 전수한데 유래하였다고. 그러나 John W. King의 The China Pilot, 3rd.(1861년)에 의하면 벌써 sweet potato가 본도 산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마재배의 현상(現狀)

‘원기(元氣)’란 품종이 제일이고 반당(反當) 300관이 평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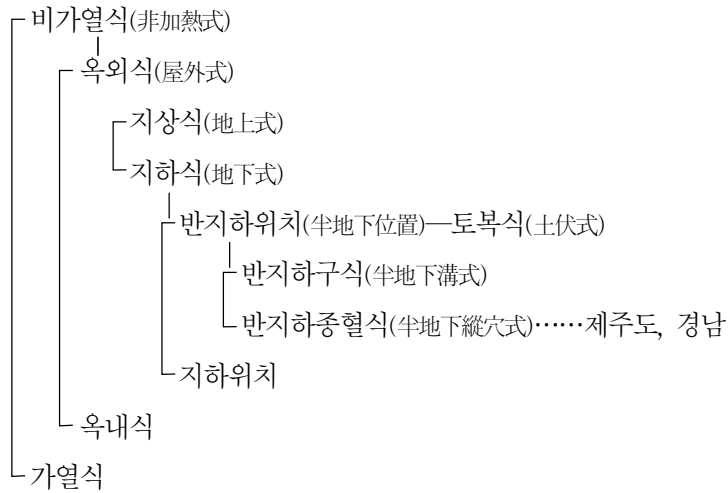
경성대학(京城大學) 부속 생약연구소(附屬生藥研究所) 제주도 시험장

1943년 4월 24일 개장식을 거행하였는데 필자는 이날 부임하였다. 약초재배시험이 목적이니 주력을 이에 주입할 것은 물론이고 초기에

는 Digitalis에 주력하였다. 그 외에 아열대식물에 관심을 갖고 1,320m 주위의 돌담 안쪽 1,230m에 1,230株의 춘지(椿枝)를 삽목(插木)한 것은 1944년 봄이고 또 지각(枳殼), 감귤, 비파(枇杷), 무화과(無花果), 다(茶), 올리브 등도 재식(栽植)하였다.

고구마 저장방식

시계무라(繁村; 1942년)에 의하면 다음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 서 시행되는 방식은 반지하종혈식(半地下縱穴式)이다.



남북의 토질과 농작

북부는 풍요하고 남부는 척박하다. 이제 도민의 주식물인 보리의 파종량과 수확량으로 한림면과 남원면을 비교하겠다.(附 : 開城分)

(단위 : 관)

	한림면	남원면	개성
1인당 1개년용의 파종량	3	10	11
1반보(反步)의 수확량	360	120	175

이 표에 의하면 남원면은 한림면에 비하여 불과 1/3의 지력(地力)밖에 없고 파종은 일층 밀파(密播)하여야 되는 것을 알겠다.

농업연구기관

연도미상(未詳)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목포지장(木浦支場) 제주도주재소(濟州島駐在所) 창설

1912년 4월 전라남도(全羅南道) 종묘장제주지장(種苗場濟州支場)으로 개칭. 1921년 폐지되었다.

농업

- ① 강풍지대이니 될수록 지하부를 이용할 수 있는 작물과 높이 자라지 않는 작물을 택할 것.
- ② 토립(土粒)이 세소경송(細小輕鬆)하니 표토(表土)가 비산(飛散)안되도록 답토(踏土)를 많이 할 것.
- ③ 종자를 밀파(密播)할 것.
- ④ 동계(冬季)에는 상주(霜柱)가 심(甚)하니 11월까지의 건전(健全)한 작물로 만들어야 월동(越冬)에 지장이 없다. 즉 8월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8월중으로 추파(秋播) 혹은 이식(移植)을 마쳐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상의 장점과 단점

아이다 주키치(會田重吉; 1926년)의 소견으로는,

- 장점 : ① 기후풍토가 온양(溫良)
- ② 건축재로 돌을 이용
 - ③ 생활비가 저렴(주로 어류)
 - ④ 지가(地價)가 저렴(中間, 山間)
 - ⑤ 농업노동과 축우마(畜牛馬)
 - ⑥ 도민의 기질(氣質) 등.

단점 : ① 물 부족

- ② 노동임금이 높고
- ③ 지가가 높고(海岸)
- ④ 돌이 많다
- ⑤ 교통 불편
- ⑥ 제주항로의 수송임(輸送賃)이 높다
- ⑦ 산화(山火) 염려 등.

농업 10개년 계획

조선총독부의 제주도개발안에 의한 것으로,

- ① 고구마를 경지 2만정보(町步), 생산고(生産高) 6천만관(貫)으로 증산할 방침으로 하고 각 농가에 고구마 절간기(切干機) 1대씩을 설치케 함.
- ② 맥주맥을 경지 1천정보, 수확(收穫) 2만석으로 증산시킬 것.
- ③ 박하(薄荷)를 경지 1천정보, 유(油) 7만근(斤)으로 증산시킬 것
- ④ ‘그린피스’를 5백정보, 생산고 75만관, 통조림 7만 5천상(箱)으로 증산시킬 것.
- ⑤ 제충국(除蟲菊)을 경지 4천정보, 간화(干花) 수확 50만관으로 증산시킬 것 등이다.

농작물의 병충해 및 기타 재해

문헌에 의하면, 풍해(風害)가 많고 작해(雀害)도 역시 많다. 참새의 제주도랄 정도는 아니나 참새는 대단히 많은 섬이다. 병피해는 의외로 적다.

농토(農土)

경작 면적의 대부분은 밭이고 논은 밭의 1%도 안된다. 이 농토는 그 위치에 따라 해안(해발 100m까지), 중간(200m까지), 산간(200m 이상)의

3지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보리와 돈비(豚肥)

변소 겸 돈사(豚舍)에서 생긴 돈비를 주로 보리밭에 사용하는데, 이것이 제주도의 농작과 비료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방법도 특이하고 대맥종(大麥種)과 돈비(豚肥)를 혼합해서 파종(播種)과 시비(施肥)를 겸행(兼行)하며 추비는 별로 아니한다.

대맥파종법(大麥播種法)

- ① 보통법(普通法).
- ② 혼비법(混肥法) : 구비(廐肥), 돈비(豚肥)와 종자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법.
- ③ 휴한지(休閑地)에 혼비법에 의한 점파(點播) : 우경(牛耕)도 아니하고 잡초 위에다 파종.

벼의 품종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조사(1913년)에 의하면 품종수는 다음과 같다.

	수도(水稻)		육도(陸稻)	
	메벼(粳)	찰벼(糯)	메벼(粳)	찰벼(糯)
제주군(濟州郡)	5	-	2	-
정익군(旌義郡)	7	2	4	1
대정군(大靜郡)	3	2	2	3

이상은 1911년 및 1912년의 2회에 걸쳐서 수집한 한국산재래종(韓國產在來種)이다.

두량(斗量)

대두(大斗) 1두(斗)는 소두(小斗) 2두 반이라니 제주도의 소두란 것은 육지의 소두보다 1승(升)이나 적은 것이다. 즉 육지의 소두는 정(正) 5승인데 제주도의 소두는 정 4승이다.

매년 계속하여 단작(單作) 또는 혼작(混作)하는 작물

조, 보리, 면(棉), 육도(陸稻), 콩, 팥, 밀, 나맥(裸麥), 교맥(蕎麥), 피(稗), 대마(大麻), 고구마.

면작(棉作)의 연혁

400여년 전에 본도 서남부(西南部)에 재배하여 그 면적 1000정보(町步) 산액(産額) 50만근 내외로 그 수용(需用)을 충당했었다. 그후 급격한 보급도 없었지만 메이지(明治) 37~38년(1904~5)경 일인(日人) 어민이 입도하여 일본식 어로(漁撈)를 수입하는 동시에 어구용 면사(棉糸)의 수용(需用)이 증가되어 1200~1300정보로 증가되었다. 그러다가 1904년 목포에서 육지 면의 시작(試作)이 성공되어 장려되면서 1910년 제주종묘장지장(濟州種苗場支場)에서 처음으로 육지면의 시작을 행한 것인데 그 성적이 양호했으므로 1914년 이래로 도내에 장려하여 다소의 곡절(曲折)을 거쳐 지금은 재래면은 태무(殆無)하게 되었다. 1919년에는 반당(反當) 160근의 수획(收獲)이 있는 호성적의 기록도 있었다.

목향(木香)의 적엽(摘葉)시험

장소 : 서귀면 토평리(대학시험장)

시일 : 1943년

공시 주수(供試 株數) : 573주

계급(階級) : 근두부(根頭部)상의 잔치엽수(殘置葉數) 4매, 6매, 8매, 화경 적거(花莖摘去), 채종주(採種株)의 5계급

성적(成績) : 채종주(採種株)가 단연 양호하고 화경 적거주와 8매 잔치주(殘置株)는 근사(近似)하고 기타는 계단적(階段的)으로 불량하다.

결론 : 이 땅에서는 그리 적엽(摘葉)할 필요는 없다.

밭(田)의 양부(良否)

동리(洞里)를 ‘가름’이라 하고 좋은 밭은 동리 내에 있는, 즉 주택 인접의 농토인데 ‘가름밭’이라 한다. 벼금이 ‘중난정’이라고 해서 동리 외의 밭이고 제일 못한 것이 ‘난전밭’이라 해서 부락에서 많이 떨어진 밭이다. 이 밭의 일은 대부분 여자의 일인데 밭이 집에서 멀수록 다 망(多忙)한 제주도 여자에게는 곤란이 된다. 토질도 대개는 그렇지만 이 거리도 관계되어 밭의 양부가 결정된다.

벼(稻)의 장려우량품종

1923년경의 각도 장려우량품종을 조사하면 제주도에 수도(水稻)로는 ‘웅정(雄町)’이고 육도(陸稻)에는 없었다. 그러나 1923년 부군별(府郡別) 우량품종 수확고(收穫高)를 보면 ‘웅정’은 없고 ‘다마니시키(多摩錦)’이 약간, ‘다카치호(高千穂)’가 미량(微量) 생산되었고 재래종 기타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복토법(覆土法)

과종후에 복토할 때는 송지(松枝)의 다발을 소가 끌게하여 배회(徘徊)케 하면 살파(撒播)된 종자는 경송(輕鬆)한 토양이니 잘 복토가 된다.

‘복개기’와 ‘벗개기’

전자는 산북어(山北語)이고 후자는 산남어(山南語)인데 헤어리벳치와 자트웁켄(Saatwicken)의 총칭이다. 헤어리벳치는 ‘조근복개기’ 혹은 ‘조근벗개기’, 자트웁켄은 ‘큰복개기’ 혹은 ‘큰벗개기’라고 해서 구별한다.

사과

사과는 섬 북측 오라리에서 재배되고 성내에도 약간 있지만 문체시 할 정도가 못된다. 마수다 이치지(柵田一二; 1937년)에 의하면 홍옥(紅玉) 품종 연산 450관이고 품질은 대구산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산뒤

밭벼를 흔히 제주도서는 ‘산뒤’라고 한다. 산도(山稻)란데서 유래한 모양인지 소위 식자(識者)란 사람들은 일부러 ‘산도’라고도 한다.

조의 품종

조는 보리에 버금가는 주식품으로 도민은 1년의 1/3은 조밥을 먹는다. 재래품종은 15이상이나 있지만 우량품종은 청미실강돌(靑味實強突)종과 무코다마시(媾欺)이다.

삼아(三檜)

1910년 3월 조선농회에서 삼아의 재식(栽植)을 제주도에 개시하고 1912년 전남종묘장 제주지장이 창설됨에 따라 이관되었었다. 그리고 적어도 1921년까지는 그 시험이 계속되었었다.

수리조합(水利組合)

수리조합몽리지(水利組合蒙利地)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으로 그 분포는 13도(道)에 걸쳐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에는 그 시설이 미급하였다.

시비요령(施肥要領)

토양에 인산(磷酸)이 극히 적고 산성(酸性)이니 먼저 반당(反當) 20관 정도의 석회(石灰)를 넣으면 후에는 인산은 얼마를 넣든지 좋을 것이다.

아열대과수(亞熱帶果樹)

아열대식물이 적지않으므로 아열대과수도 재배가능하고 기실 약간 산출한 과거의 기록도 있다. 대부분은 남반(南半)의 지역, 특히 무풍대(無風帶)에 과원(果園)이 있고 이조(李朝)에도 국영(國營)과원이 있었고 그 유적이 아직도 전도 곳곳에 볼 수 있다. 과수의 종류는 대부분이 감귤류요 기타는 무화과(無花果), 비과(枇杷) 등이다.

우경(牛耕)

돌밭은 밭들이라 양두(兩頭)의 가래(鋤)로 가는 수도 많고 간격을 두고 2회 우경하는 수도 있다. 첫번갈이는 ‘밭번흔다’라고 하고 두번 갈이는 ‘밭두인다’라고 한다.

위도(緯度)와 난국과물(暖國果物)

한국의 위도는 구라파의 이태리나 발칸 반도와 같지만 그곳에 생산되는 ‘오렌지’ 같은 것은 생산치 못하고 다만 제주도에서만 난류(暖流)의 영향으로 감귤류를 생산한다.

유자(柚子)의 어원(語源)

제주도 특히 그 남부에는 유자란 감귤이 대단히 많다. 유자를 제주 어로는 ‘유지’ 혹은 ‘뎡우지’라 하는데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년간)에 의하면 ‘유즈’라고 했으니 ‘유즈’가 육지에서는 ‘유자’로 변하는 동안 제주도는 ‘유지’로 변한 모양이다. 또 ‘뎡우지’는 당유자(唐柚子)의 뜻 일 것이다.

인삼(人蔘)의 산지(產地)

서유거(徐有渠)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나 이마무라 도모(今村 鞞)의 ‘인호신초(人護神草)’에 의하면 인삼은 한국에서 제주도 및 전라의 남면을 제외하고는 전토(全土)에 산출하고 울릉도에까지 생산되지만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윤재법(輪裁法)

도청(島廳) 기록(1924년)에 의하면,

제1식	棉	大麥	棉	大麥			} 集約(海岸)
제2식	大豆	大麥	大豆	大麥			
제3식	粟	大麥	粟	大麥			
제4식	粟	大豆	大麥	粟	大豆	大麥	
제5식	粟	小麥	粟	甘藷			
제6식	粟	小豆	麥	粟			
제7식	小豆	大麥	休	粟	休		} 粗放(山間)
제8식	粟	休	休	蕎麥	休		
제9식	陸稻	休	休	休			
제10식	稗	休	休	休			
제11식	陸稻	粟	休	休			
제12식	陸稻	休	休	休			
제13식	蕎麥	休	休	休			

1921년 통계에 의한 주요작물의 분포

극히 많이 재배되는 종류 : 보리, 조, 메밀, 고구마 등.

보통 재배되는 종류 : 쌀보리, 육지면(陸地棉), 참깨 등.

극히 적게 재배되는 종류 : 쌀, 밀, 보리, 팥, 녹두, 수수, 대마(大麻) 등.

전혀 재배 안되는 종류 : 돌피, 기장, 옥수수, 귀리, 재래면(在來棉), 모시, 닥나무, 들깨, 완초(莞草), 감자, 사과, 배, 포도 등.

이상은 가토기 야수츠구(加藤木保次; 1912년)에 의한 것이다.

1930년 현재의 농산물

극히 풍산(豊産)하는 것 : 보리, 조, 소, 돼지, 말, 녹비(綠肥).

보통 산(産)은 되는 것 : 콩, 닭, 퇴비(堆肥).

극히 적게 산(産)하는 것 : 벼, 쌀보리, 밀, 육지면(陸地棉), 배추, 참외, 감자, 견(繭).

전혀 산(産)치 않는 것 : 삼, 사과, 배, 포도, 산양(山羊).

두락(斗落)(한 마지기)

읍내(邑內) : 130평(坪).

정의(旌義), 남원면(南元面) : 150평

한림면(翰林面) : 100평

개성(開城) : 200평

개성(開城)시외 : 300평

1호당 경작면적

제주도서는 1호당 2정(町) 2단보(段步)로, 전라남도 평균의 1정 2단보에 비하면 1정보나 많다. 그러나 논은 전무한 곳이고 밭도 육지보다는 못하니 비교가 아니되리만큼 빈약한 편이다.

적작물재배상황(適作物栽培狀況)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 1926년)에 의한 1913년과 1923년의 통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는 1913년, 아래는 1923년.

	作付町步	收穫高(石)	反當數量(合)
보리	19,116 (23,034)	296,604 (299,153)	1,551 (1,298)
陸稻	1,914 (4,062)	6,003 (17,129)	656 (421)
콩	1,655 (5,183)	6,397 (24,048)	386 (464)
조	17,975 (30,162)	206,087 (255,490)	1,146 (813)
돌피	1,040 (1,295)	8,957 (669)	860 (585)
메밀	2,388 (5,326)	23,392 (36,936)	979 (726)
棉	3,156 (1,321)	2,486,560 (1,644,581)	79 (107)
고구마	600 (4,156)	1,850,143貫 (10,594,200)	308 (255)

이 통계에 의해서 10년간에 다음과 같은 변천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 ① 8작물중 면(棉)을 제외한 7종은 작부면적(作付面積) 및 수확고(收穫高)가 증진되었다. 단 돌피의 1923년 수확고가 669로 된 것은 아마 10.669의 오식(誤植)일 것이다.
- ② 그중에도 고구마는 엄청나게 늘고, 육도, 콩, 조, 메밀 등도 많이 늘었다.
- ③ 반당수량은 면(棉)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줄었다.
- ④ 그러니 면만은 적당한 장소에 낙착(落着)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전남종묘장(全南種苗場) 제주지장(濟州支場)에서 시험한 종류
 문헌에 의하면 1912년 4월 창설 당시부터 1921년까지 취급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육도(陸稻), 콩, 면화(棉花), 조, 고구마, 상묘포(桑苗圃), 명종죽(孟宗竹), 삼아(三桮), 연초(煙草), 감귤류(柑橘類), 복숭아, 배, 각종 채소류, 수도(水稻), 보리, 밀, 쌀보리, 사과, 종금(種禽) 등.

제주 바이토리(倍取)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보리중에 제주바이토리(倍取)란 품종이 있다. 이것은 종묘장(種苗場) 제주지장(濟州支場)에서 재래종으로부터 순계(純系) 분리해서 선출(選出)한 것인데 품질로나 수량으로나 한국 제일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산 우량품종을 능가하는 것으로 1924년 현재로도 총작부(總作付) 면적의 7할을 점하였다.

제주의 감귤류

300여년 전 허균(許筠)이란 이가 지은 ‘도문대작(屠門大嚼)’이란 책에 기록된 것은 금귤(金橘), 청귤(靑橘), 유감(柚柑), 감자(柑子), 유자(柚子), 감류(甘榴) 등. 기타의 저서 중에는 제주에는 36종의 감귤이 있고 그중 청귤과 병귤(瓶橘)은 제주의 특산이라고 한 이가 있다.

주요 전작물(田作物)의 분포

나카이(永井; 1931년) 등에 의하면, 제주도에 특히 많이 재배되는 것은 보리, 조, 육도(陸稻), 메밀, 고구마 등이고, 버금으로는 쌀보리, 밀, 콩, 면(棉) 등, 약간 재배되는 것으로는 돌피, 수수, 팥, 녹두(綠豆), 완두(豌豆), 감자, 들깨 등이다.

조저(趙諸)

조엄(趙嚴)이 예조참의(禮曹參議)로서 견일통신정사(遣日通信正使)를 배명(拜命)한 것은 영조 39년(1763년) 그가 45세때였다. 8월 3일 한성(漢城)을 떠나 10월 6일 츠시마(對馬島) 사수나포(佐須奈浦)에 도착, 동 10일까지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가 처음으로 저종(諸種: 씨고구마)을 부산진(釜山鎭)에 구송(求送)한 것은 이 사수나포(佐須奈浦)에 유(留)한 5일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제2차로 저종(諸種)을 좌수나포로부터 재래(載來)한 것은 뒷해 6월 18일 그의 회정(回程)시의 일이었다. 제1차분은 직시(直時)로 제주에 전송케 하고 제2차의 분은 동래부(東萊府) 교리배(校吏輩)에 위탁하여 취종후(取種後) 뒷해에 보내게 하였는데 그는 저종(諸種)을 서울로 재래(載來)하였다가 실패하면 그 종자를 얻기가 곤란하므로 기후물산(氣候物産)이 츠시마(對馬島)와 유사(類似)한 제주도에 재배하여 차차 전도에 분포시키면 문익점(文益漸)의 목면과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씨의 초지(初志)와 같이 저종의 대부분은 제주도에 전해지게 되었으며 제주인은 그것을 조저(趙諸)라고까지 하여 그 덕을 기념하였다.

지력(地力)

해안지대가 최강(最強)하고 산간지대가 최약(最弱)하며 중간지대는 중간이다(농토 참조). 대부분의 농작물은 해안지대에서 산출하고 이 지대에서는 3년에 1차 휴한하는 예도 극히 드므나, 중간지대서는 5년

1~2작, 산간지대서는 3~10년에 1작이다.

주요작물의 파종량 비교표(升 反當)

제주도와 육지의 각 1지방을 비교하기로 하고 두 지방의 숙농(熟農) 2인씩으로부터 청취하기로 한다.

작물명	開城(生藥研究所)			제주도 서귀면 토평리 (대학시험장)		
	松江氏	松本氏	平均	松原氏	金山氏	平均
보 리	5.0	10.0	7.5	8.0	8.0	8.0
밀	4.0	7.0	5.5	3.0	4.0	3.5
메 밀				3.0	4.0	3.5
조	1.0	2.0	1.5	0.48	0.4	0.44
돌 피	1.0	2.0	1.5	0.48	0.4	0.44
콩	4.0	5.0	4.5	3.0	4.0	3.5
고구마	10.0	25.0	17.5	12.0	9.0	10.5
감 자	50.0	75.0	62.5	80.0	20.0	50.0

즉 보리를 제외하고는 개성지방의 파종량이 현저히 많다.

지목(地目)

농토는 2/5, 산림도 2/5, 목장이 1/5이다. 농토는 해안(200m 이하), 산림은 산중(500~600m 이상 국유림), 목장은 그 중간지대이고 그 일부는 경작지로도 쓰인다.

지실(地實)

감자를 의미하고 이것을 산북인은 ‘지실’ 산남인은 ‘지슬’이라고 발음한다. 문헌에는 지실도 북감저(北甘藷)도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같은 것이다.

최남선(崔南善)저. 역사목감(歷史目鑑)중의 감귤재배사항

2월 22일 : 제주로부터 순천(順天) 등지에 이식(이조 태종 12년, 1412).

3월 27일 : 탐라국(耽羅國)이 세공귤자(歲貢橘子)를 100포자(包子)로 개정(改定)하여 길이 정제(定制)를 삼다(고려 문종 6년, 1052).

12월 25일 : 제주도안무사(濟州島按撫使)에게 유(諭)호대 법(法)에 의하여 감귤(柑橘)을 배양(培養)하여 상(上)으로 국용(國用)에 족(足)하고 하(下)로 민폐(民弊)없기를 무요(務要)케 하다(이조 세조 원년, 1456)

탄소율(炭素率)

미야자키 마사요시(宮崎正好)에 의하면(토지는 전부 전(田), 수자는 %, 탄소율은 탄소 질소).

	腐植	窒素	炭素	炭素率
육지부 토양	2.98	0.16	1.73	10.8
제주도 토양	8.05	0.32	5.52	17.2
제주 토양구	5.24	0.22	3.05	13.9
서귀포 토양구	23.63	0.64	13.76	21.5

이 부식질(腐植質)의 다과(多寡) 내지 탄소율의 광협(廣狹)은 우량(雨量)에 정비례(正比例)되어 있다.

토성(土性) 및 토질(土質)

지층은 제3기 고층(古層)에 속하는 사화산으로 그 모암(母岩)은 현무암이나 분화(噴火)때 유출한 용암의 응고로 된 다공질(多孔質)의 암반(岩盤)으로 돼있고 토양은 현무암이 풍화한 것과 화산회토(火山灰土)로 되었으며 전도 산성(酸性)을 나타낸다.

토양의 특징

제주도 토양은 전체로 부식질(腐植質)이 많고 인산분(磷酸分)은 적은 세식토(細植土)로 가볍고 질이 거칠고 점성(粘性)이 적다. 부식질(腐植質)

로 인해서 토성(土性)은 대체로 산성(酸性)을 정(呈)하고, 대체로 남동부는 북서부보다, 산악지대는 해안지대보다 부식질이 많다. 제주토양구 해안에는 국부적으로 미(微)알칼리성의 지대조차 있지만 서귀포 토양구에는 부식질이 36.77%나 포함된데가 있어서 흑색을 정한다. 그런데 함유 인산분은 부식질과는 대략 정반(正反)된다.

토양의 분류.

미야자키 마사요시(宮崎正好)에 의하면

- | | | |
|---------------------------|---|------------------------|
| 제주토양구(濟州土壤區)
(북부 및 서부) | } | 1. 해안지대토양.....100m 이하 |
| | | 2. 중간지대토양.....100~200m |
| | | 3. 산간지대토양.....200~300m |
| | | 4. 산악지대토양.....300m 이상 |
| 서귀포토양구(西歸浦土壤區)..... | | ” |
| (남부 및 동부) | | |

토지 개량

제주도 토지는 부식질이 과다하고 인산이 극빈(極貧)한 것이 결점인데 남부가 더욱 심하다. 그러니 개량할 수밖에 없는데 무난한 방법은 소토(燒土)와 양계(養鷄)다. 서귀면 토평리 같은 곳은 부식질이 30%이니 대단한 부식토로 소토하면 3할이나 감량(減量)된다. 양계를 하면 1수(首) 1년에 6관(貫)의 계분(鷄糞)을 산출하니 양계는 제주도에서는 무한히 장려해도 좋겠다. 양계에는 기술과 사료가 문제되겠으나 곤란한 문제는 아니다.

토지 개량에 좋은 참고서

농업박사 호소다 가즈미(細田克己) : 本邦ニ於ケル 所謂 黒土ノ研

究 ; 日本鳥取高等農林學校學術報告 第6卷, 第1號, 昭和 13년(1938년).

토질(土質)과 소변(小便)

제주도의 땅은 전체가 부식질이 많고 남측에서는 부식질이 30% 이상에 달하는 곳도 적지않다. 그래서 소변의 효과가 적고 따라서, 남측에서는 소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이 소변의 용부(用否)로 남북 양지대를 구분한다면 동부 구좌면 종달리와 서남부 중문면 하원리(河源里)가 경계로 된다.

특용작물(特用作物)

제주도의 특용작물로는 감귤, 대(竹), 제충국(除虫菊), 표고(椎茸) 등을 들 수가 있다.

파종 후(播種後)의 답압작업(踏壓作業)

조(粟), 육도(陸稻), 면(棉) 등은 파종 후에 반드시 우마를 달려서 답압하는데 만일 답압지 않으면 발아(發芽), 성장(成長), 발임(發稔)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계답(繫踏), 둘째는 방답(放踏)이요. 대개 3~10두(頭)를 사용할 때는 계답, 10두 이상일 때는 방답을 채용(採用)하는데, 우마혼성대(牛馬混成隊)로는 능률이 안오르므로 대개는 순마군(純馬群)을 사용한다.

곤마(葛麻)의 재배시험

장소 : 서귀면 토평리(吐坪里 : 大學試驗場)

시일(時日) : 1943~44년

공시주수(供試株數) : 1,131주

품종(品種) : 식물색(植物色)의 적청(赤靑), 과실(果實)의 형상(形狀)에 의해 4분.

성적(成績) : ① 적(赤)은 청(靑)에 대해서, 망(芒)은 환(丸)에 대해서 우성(優性).

② 종자의 입수(粒數) 및 중량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
기 어려움.

결론(結論) : 재시험할 수밖에 없다.

피(稗)와 면(棉)

피(稗)는 동부 제주에 주로 있고 면(棉)은 서부 제주에만 있다. 피와 면은 서로 길항성(拮抗性)이 있다는 것 보다 우량(雨量) 관계로 면은 서부에만 되는 것 같고 양토(良土)인 서부에서는 돌피를 재배치 않는 관계인지도 모르겠다.

현저(顯著)한 감귤의 15종

문헌에 의하면 유감(乳柑), 별귤(別橘), 대귤(大橘), 당금귤(唐金橘), 동정귤(桐庭橘), 소귤(小橘), 당유자(唐柚子), 유자(柚子), 금귤(金橘), 유자(柚子)(앞의 것과 별개), 산귤(山橘), 청귤(靑橘), 지귤(枳橘), 등자귤(橙子橘), 석금귤(石金橘) 등인데 각종의 설명은 방종현(方鍾鉉)의 세시풍속집(歲時風俗集), 126~128쪽(1946년)에 보라. 그러나 현재는 그리 많은 종류를 볼 수가 없다.

호미

제주어로 ‘호미’라면 육지의 낫(鎌)을 의미하고 한국 농민이 흔히 쓰는 ‘호미’는 제주도에는 없다. 육지서 쓰는 ‘호미’와 같이 쓰고 형상도 근사(近似)한 것은, ‘굴개’ 혹은 ‘굴갱이’란 것인데 ‘호미’의 엽(葉)이 자루와 같이 좁게 되어 갈고리 비슷이 되어 있다. 돌이 많고 흙이 가볍고 질(質)이 거칠은 곳에서 제초(除草)하는 데는 이 형상이 유리할 것으로 자연히 이런 변형의 농구가 생겼을 것이다.

화전경작자수(火田耕作者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6년)에 의하면, 화전경작자(火田耕作者)가 제일 많은 도(道)는 평북(平北)의 55,955호 279,266人, 다음으로 함남(咸

南)이 45,084호 248,731인, 제일 적은 도가 충남(忠南)의 342호 1,358인 이고, 전남(全南)은 5,899호 26,427인인데 그중 제주도가 1,127호 4,240인이다.

화전(火田) 면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19년)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내의 화전 면적은 다음과 같다. 물론 차차 적어가는 것을 보였다.

1919년말	2,004단(段)	1920년말	2,004단
1921년말	2,004단	1922년말	2,004단
1923년말	1,708단	1924년말	1,413단

휴한재배(休閑栽培)와 윤재(輪栽)

산간지대로 갈수록 휴한재배를 한다. 해안지대라도 5년에 1차는 휴한하고 이 산간지대서는 10년에 1차 밖에 재배치 못하니 제주도 농업은 전체가 휴한재배이다. 이 휴한재배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윤재(輪栽)이다. 이 윤재 양식은 수십종이 있다는 것보다 수의변환법(隨意變換法)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맥(大麥)과 속(粟)을 주로 하는 것과 개간(開墾)할 때나 잡초를 제거하려는 때는 메밀을 재배하는 것만은 결정적이다.

16. 임업(林業)

균심(菌葦)의 통계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수 량(斤)	가 격(원)	주요산지
송용(松茸)(生)	134,161	70,162	황해, 강원, 함남북
추용(椎茸)(乾)	93,427	198,548	제주도
목용(木茸)(乾)	131,223	17,501	경북, 평북, 강원
기 타	213,047	15,308	전북, 강원
합 계	572,358	301,519	

본도산의 조선적 물산(朝鮮的 物産)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편 ‘朝鮮의物産’(1935년)에 의하면, 추용(椎茸: 표고) 1종뿐.

북산산(北鮮産) 삼림수목과의 공통종

이시도야 츠토무(石戸谷勉; 1922년)에 의하면 열거한 131종중 제주도에도 나는 것이 42종이라고 되어 있다.

비자림(榧子林)

구좌면에 있고 면적 45정보(町步)의 평지림이며 1936년 5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 800년의 것이 2500주 있으나 차차 고사(枯死)해서 그 수가 줄어간다. 그러나 아직 그 수와 면적으로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이 비자나무(榧, 榧子)는 일위과(一位科)에 속하고 일견(一見) 전나무(檜)와 비슷하나 수형(樹形)이 둥그러워서 판연(判然)하다. 목질(木質)이 물에도 강하니 그 용도는 많고 더우기 비자바둑판(榧碁盤)은 유명하다.

삼림의 폐멸(廢滅)

현재 한라산 중복(中腹) 이상부에 있는 국유림도 원시림은 아니고 후생림(後生林)이다. 그러나 이것도 도민의 방화와 추용재배(椎茸栽培)로 인하여 연년이 폐멸의 도정(途程)을 밟고 있다.

야마시(山師)

추용재배기술(椎茸栽培技術)을 말함인데 추용재배기술중 최난점(最難點)은

- ① 벌목기(伐木期)를 틀리지 않을 것.
- ② 추용용건법(椎茸熔乾法)에 능할 것 등이다.

을종요존림(乙種要存林)

중문면 도순교(道順橋) 부근의 아열대 식물의 하안림(河岸林)인데 분명히 효돈천봉림(孝敦川峯林)만은 못하다.

임산물(林產物)

통나무, 목재,薪木, 지초(芝草), 목탄(木炭), 추용(椎茸), 훈유(樅油), 약초 등등.

임야면적

83,000정보(町步)로 제주도 전면적의 약 4할.

임업의 장래목표

도청(島廳; 1924년) 발표에 의하면,

- ① 신탄용재(薪炭用材)의 자작자급(自作自給).
- ② 추용재배 사업의 발달생산증수(發達生產增收).
- ③ 수원(水源) 함양을 하고 경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킴.
- ④ 방풍림(防風林)으로 농경지의 피해를 감쇠(減殺).
- ⑤ 어부림(魚附林)의 조성으로 어족(魚族)의 집중과 번식을 도모함.

임정사(林政史)

1912년 제주도에 삼림보호구를 설치.

1920년 제주도에 임업묘포(林業苗圃)를 설치.

1922년 제주도 묘포(苗圃)를 폐지.

1925년 제주도에 삼림조합을 설치.

전남(全南)의 죽림(竹林)과 제주도

전남은 죽림에는 호적(好適)한 장소로 전국 죽림의 6할이나 점령하고 있다. 제주도도 여기 포함은 될 것이나 제주도의 죽림은 아주 보잘 것이 못된다. 모두가 세죽(細竹)이요 세죽의 가공품은 생산되지만은 대수롭지 않고 그 죽림도 많지 않다.

한국적 임야의 부산물(副產物)

다카하시 기히치로(高橋喜七郎; 1923년)에 의하면 55종 열거한 중 제주도산으로는 추용(椎茸), 춘유(椿油), 비실(樾實), 목줄(木櫛), 양태(涼台) 등 5개이다. 그러나 현재로 본다면 추용(표고)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 춘유(동백기름)까지나 들 수 있겠다.

초기

버섯 중에도 특히 표고버섯을 의미한다. 산림 곧 국유림에서 재배하는데 그 재배목인 ‘물참나무’나 ‘서나무’를 연년 채벌(採伐)하는 관계로 재배장소가 해마다登高(登高)하여 현재는 운임관계로 대곤란이다. 한라산의 삼림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목(材木)의 중심은 부식(腐蝕)하여 중공(中空)해서 다른 용재(用材)로는 부적(不適)하니 삼림의 8할을 점한 ‘서나무’를 절약적(節約的) 채벌목(採伐木)으로 표고재배를 장기 계속시킴은 제주도의 복이다.

추용재배(推茸栽培)의 연혁

한라산 삼림대에 많은 서나무, 물참나무 등의 풍절난벌(風折亂伐)된 수목(樹木)에 자연발생한 표고버섯이 극히 우수하므로 지방인들은 이를 채취일건(採取日乾)하여 시장에 반출함이 많았었다. 당시 제주도에 와 있던 일본인 후지타 간지로(藤田寬二郎), 모치즈키 류타로(望月龍太郎), 가미야 다쿠오(神谷卓男) 등 제씨(諸氏)는 표고버섯의 인공재배로 제주도특산품 산출을 유망시(有望視)하고 메이지(明治) 38년(1905년)에

동영사(東瀛社)를 조직한뒤 익년(1906년) 11월에는 다나카 초레이(田中長嶺)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시험후에 성공하게 되었다. 1910년에는 일인(日人)이 한국정부로부터 자재(資材)의 불하(拂下)를 얻어서 본사업을 조직적으로 개시하였다. 다이쇼(大正) 8년(1919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특산품을 편입(編入)하여 장려하게 됨에 본사업은 일층 번창하게되어 다이쇼(大正) 말경에는 일인만도 10여 명이 경영하고 수인(數人)의 한국인도 흉내내는 정도로 허가되었다. 그리고 그 판매는 종래는 나가사키(長崎)를 경유하여 상해(上海), 홍콩(香港), 광둥(廣東) 지방 등이었는데 쇼와년대(昭和年代)에 들어서는 오사카(大阪) 방면에도 많이 수출되었었다.

한라산 국유림

한라산 중복(中腹) 이상부의 자연림은 28만정보인데 전라남도 유일의 요존림(要存林)이다. 전국을 통해서 어느 영림서(營林署) 관할하에 있는 국유림으로도 적자(赤字)가 나는 삼림은 없지만 이 한라산 삼림만은 적자가 난다. 그러나 학술적 기타의 가치가 있어서 요존림(要存林)으로 보호되어 있다. 한라산 삼림의 산물로는 표고버섯과 신탄재(薪炭材)뿐이다.

17. 축산(畜産)

구비전설(口碑傳説)에 의한 목축의 기원

중국 원조(元朝)에서 그 태자(太子)가 내도(來島)하여 방성(房星 : 房은 28성(星)의 하나이고 房이 보이는 나라는 가축이 번식한다고 전함)을 보고 장래를 축망(矚望)하여 지세지정(地勢地情)을 상세히 시찰하고 귀국하였는데 고려 충렬왕(忠烈王) 3년 정축(丁丑)(1277년)에 원(元)으로부터 다로

가치(達魯花赤)는 우(牛), 마(馬), 타(駝: 낙타), 여(驢: 당나귀), 양(羊) 등 19두를 휴대(携來)하고 조천 부근에 상륙해서 10개소의 목장을 설정하였다 한다.

녹산장(鹿山場)

표선면(表善面) 산간의 고원평야(高原平野)요 면적 1천정보(町步)로 제주 제일의 평야이니 만큼 고래(古來)로 목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토지가 척박하고 강풍으로 그 개척은 용이치 않을 것이며 더우기 다우(多雨) 지점이니 목장으로도 의심된다. 그러나 팔과 감자는 윤작(輪作)하면 연작(連作)도 가능하고 제주도산의 우마(牛馬)는 이런 환경에도 견딜 수 있다하니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도산봉밀(島產蜂蜜)의 질

1923년 10월 조선부업품공진회(朝鮮副業品共進會)에서 봉밀(蜂蜜) 중에서 본도산이 최고위(最高位)로 입상하였다.

도산주요축산물(島產主要畜產物)

개량우피(改良牛皮), 재래우피(在來牛皮), 우골(牛骨), 우지(牛脂), 돈지(豚脂), 봉밀(蜂蜜), 밀납(蜜蠟), 우유(牛乳), 계란(鷄卵) 등.

돼지

제주어로는 ‘돛’ 혹은 ‘도새기’로, 체색(體色)에 의해서 품위가 결정된다. 즉 거문돈(검은돼지)이 제1위, 어럭돈(얼럭 돼지)는 제2위, 백돈(흰 돼지)와 숙돈(흔색 돼지)은 열등품이다.

말(馬)의 종류

1. 가라말(眞黑) ㄱ 먹가라(眞黑)……등마(等馬)
 - ㄴ 췌가라(茶褐色)
2. 청초마(黑白混色에 靑艷있는 말)

- 3. 적다물(赤)
 - 고치적다(眞赤)
 - 구렁적다(고치적다와 적초다의 중간)
 - 초적다(淡赤, 모시갈기와 모시총이 생김)
- 4. 올라물(斑)
 - 거문올아(黑白斑)
 - 노린올아(黃白斑)
- 5. 유마(褐)
 - 줄유마(赤褐), 갈기총(黑色)……유마 중 1등마
 - 가문유마(黑褐)
 - 부인유마(黃褐)
- 6. 벽마(白)
- 7. 고라물(灰)
- 8. 거을물(各足 上部가 白色)……최열등마(最劣等馬)

1914년경의 소(牛)의 개량사업

- ① 1911년 평남산(平南産) 종모우(種牡牛) 1두를 원제주군(元濟州郡)에 배부.
- ② 1912년 본도산 모우(牡牛) 2두를 보조종모우로 선정하고 족류료(足留料)를 지급.
- ③ 또 종모우를 각군(3郡)에서 4두씩 매상(買上)하여 무상대여.
- ④ 동년 축산기사(畜産技師) 1명을 배치.

목산지대

흑토(黑土)로 모밀(蕎麥)과 산도(육도)나 수년에 1작(作)하는 지대인데 제주도에 는 많다. 대개는 목장으로 쓰인다.

무위의 나이(牛馬의 年齡)

표준어의 우마의 연령	濟州牛	濟州馬
1. 하릅	금승(쇠)	금승마
2. 이듬	다간	이수매
3. 사릅	사릅	삼수매
4. 나릅	나릅	사수매
5. 다습	다습	오수매
6. 여습	여습	육수매
7. 이릅	일곱	칠수매
8. 여늬	여덟	팔수매
9. 아습	아홉	구수매
10. 열릅	열	십수매

목장(牧場)과 개간(開墾)

10여년간 목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조춘(早春)에 소원(燒原)하고 1개월후쯤 전후 양두(兩頭)로 때운 서(鋤:가래)를 이용하여 춘경을 하고 하계에는 재차 우경(牛耕)한 후 메밀을 경작한다. 뒷해엔 제초 안하고 육도재배(陸稻栽培)가 가능하며 3년차에는 조를 경작한다. 이상의 3년작을 2회 혹은 1회반쯤 계속해서 지력(地力)이 적어지면 2년간쯤 목초(牧草)를 수확하고 그 후는 목장으로 사용하면서 지붕용 새를 수확해서 10여년 휴경(休耕)이 되어 지력이 생기면 또다시 전기(前記)한대로 반복한다.

병신말

제주어로는 ‘병신말’이라 하고 다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

하동이 : 척(脊:등)이 요입(凹入)

고부랭이 : 척이 철출(凸出)

삼둥이 : 척이 요철요입출(凹凸凹入出)

족바리 : 발이 척행(蹠行)하는 모양으로 된 병신

갈뛰다리 : 후각탈구(後脚脫臼)

정진거 : 전각탈구(前脚脫臼)

복시다리 : 요추(腰椎)가 상(傷)한 말

병신소

제주어로는 ‘병신쇠’라 하고 다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

특잘래기 : 전모무(前髦無)

하둥이 : 척(脊)이 요입(凹入)

족바리 : 발이 척행(蹠行)하는 모양으로 된 병신

갈뛰다리 : 후각탈구(後脚脫臼)

접진거 : 전각탈구(前脚脫臼)

복시다리 : 요추(腰椎)가 상한 소

사대가축(四大家畜)

소(牛), 말(馬), 돼지(豚), 닭(鷄).

상중하장성(上中下場城)

옛날 목장지대에 있었던 돌담을 상장성(上場城), 하장성(下場城)이라 하였고 그 중간에 중장성(中場城)을 축조(築造)하여 하부(下部)를 경작(耕作)할 때는 우마는 상부(上部)에 방목케하고, 상부를 경작할 때는 하부에 방목케 하였다. 지금도 그 장성(場城)의 형적(形跡)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소(牛)

제주어로 ‘쇠’라 하고 색에 따라 품위가 결정된다. 즉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황쇠=뇌린쇠 : 황우(黃牛)
2. 거문쇠 : 흑우(黑牛)
3. 검노린쇠 : 대흑황우(帶黑黃牛)
4. 노린신쇠 : 황우인데 두미부(頭尾部)에 흑모(黑毛)가 약간 있음
5. 거문신쇠 : 흑우(黑牛)인데 척부(脊部)에 황모(黃毛)가 약간 있음
6. 제노린쇠 : 담황우(淡黃牛)
7. 어력쇠 : 반우(斑牛)
8. 식쇠 : 흑황혼색우(黑黃混色牛)

(1-8은 우열(優劣)의 순)

신편집성(新編集成) 우마의방(牛馬醫方)

한국 의학·박물학(博物學) 내지 문화사(文化史)상 특필대서(特筆大書) 할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의 전구(前驅)인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에 부간(附刊)된 것인데 그 원간본(原刊本)은 망일(亡佚)된 듯하고 만력(萬曆) 8년 전주부간(全州府刊)과 만력(萬曆) 4년 의주간(義州刊)과 승정(崇禎) 6년(1633년) 제주간(濟州刊)이 전해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제주간만은 수책(數冊)이나 원간본이 현존한다.

양계(養鷄)

아직 보급될 여유가 많은 유망한 산업이다. 인산분(磷酸分)은 계분(鷄糞)에 의하는 것이 상책(上策)일 것이고 양계에 이대 난점(二大 難點) 중 기술은 수입하기도 용이하고 사료는 도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곡물의 겨는 양계에 쓰고 단백질(蛋白質)은 알콜공장의 잔재물(殘滓物)에 의존할 것이고 칼슘원은 처치에 곤란한 구공장폐기물(鉤工場廢棄物)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가축에 불급(不及)할 겨는 목초로 보충할 것이고, 퇴비는 육지에서와 같이 그다지 권장치 않아도 좋을 것이다.

양계사업의 역사

- ① 1921년 8월 본도축산 일반방침안을 정하고 축산조합은 제1회 이입(移入)으로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으로부터 나고야종(名古屋種) 닭(鷄) 300수(首)를 이입.
- ② 1925년 8월 각면에 양계조합을 설치.
- ③ 1928년 4월 일본가금협회(日本家禽協會) 15주년기념사업 전국양계공로자 표창자 51명중 본도 계란 이출조합장(移出組合長)이 조선에서는 단(單) 1인으로 표창받았음.
- ④ 1818~19년경부터 부산에 많이 이출되어 제주란(濟州卵)이란 명칭이 생겼지만 입소(粒小)와 진구란(陳舊卵)이 많아서 불량란의 평이 생겼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양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23년이요 현재는 쇠퇴되었지만 비교적 활발한 역사를 가졌다.

양계장려요항(養鷄獎勵要項)

1924년에 도청(島廳)에서 發表한 것을 보면

- ① 나고야(名古屋)코오친, 로오드아일랜드레드의 2품종의 혼입(混入)을 방지할 것.
- ② 종계종란(種鷄種卵)의 공급을 안가(安價), 풍부(豐富)히 할 것.
- ③ 재래종의 구축(驅逐), 거세(去勢)를 보급할 것.
- ④ 농가부업양계(農家副業養鷄), 학교양계(學校養鷄), 가정, 경찰양계(警察養鷄), 청년회양계(青年會養鷄) 등등을 장려할 것.
- ⑤ 축산조합(畜産組合)의 종금부화장(種禽孵化場), 위탁양계장(委託養鷄場)을 설치할 것.
- ⑥ 1호당 6~10수(首)를 제1기 계획으로 할 것.

- ⑦ 품평회를 정기로 개최할 것.
- ⑧ 계란, 육계(肉鷄)의 위탁판매 및 공동판매의 사무 개시.
- ⑨ 종용(種用) 이외는 중량(重量)으로 매매케 할 것.
- ⑩ 1926년 이후 소립란(小粒卵)의 이출(移出)을 금할 것.

양봉(養蜂)

양봉의 역사는 50여년이지만 양봉 호적지(好適地)이니 지도만 잘하면 장래 희망이 많다. 1923년도부터 조사하여 영국 황금종(黃金種)을 장려품종으로 정하고 장려한 결과 1926년에는 개량종이 1,000군(群)에 달하고 산밀(産蜜) 40,000내외로 조선양봉계에 두각을 내놓았던 것이다. 1925년 3월에는 양봉협회가 되어 활동하고 밀원식물(蜜源植物)은 많고, 밀원기(蜜源期)는 길고, 월동기한(越冬期限)은 짧음으로 일층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다.

양봉(養蜂)의 이불이점(利不利點)

이점(利點)

- ① 기후온화(氣候溫和)
- ② 유밀기(流蜜期)가 길다
- ③ 월동기(越冬期)가 짧아 월동이 용이
- ④ 밀원(蜜源)의 종류가 많다.

불리점(不利點)

바람이 강다(強多)한 것이 유일한 결점이다.

양잠(養蠶)에 유리하다는 조건

- ① 뽕나무에 상동해(霜凍害)가 전무(全無)
- ② 극고온(極高溫)에 이르지 않아서 하추잠(夏秋蠶) 사육에 최적
- ③ 토지 및 노력이 풍부
- ④ 상전 단당수건고(桑田 段當收繭高)가 높음(1石). 전국평균은 단당 6두(斗)

⑤ 토질이 상재배(桑栽培)에는 쓸 수 있는 정도이다.

양잠(養蠶)의 역사

그 기원은 실로 오래여서 이조초에 상묘(桑苗)의 식재(植栽)가 있는 모양이나 기록은 없다. 고건축물(古建築物)에는 상재(桑材)가 많고 고손목(枯損木)의 상수구간(桑樹軀幹)은 10여척에 달하는 것이 발견되고 아직도 야상(野桑)의 점재(點在)함을 볼 수가 있다. 그후 여러 변천(變遷)이 있었고 그간 총독부의 반강제적 수단이 있었지만 그리 많은 편은 못된다. 바람이 많은 곳이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 천혜의 제주도라고 하지만 기대될 바가 적다.

얼럭소(斑牛)

제주어로는 ‘어럭쇠’ 혹은 ‘어랙이’라고 하고 열등품에 속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거문어럭쇠 : 흑백반우(黑白斑牛)

노린어럭쇠 : 황백반우(黃白斑牛)

제노린어럭쇠 : 담황(淡黃)과 백(白)의 반우(斑牛)

검노린어럭쇠 : 대흑황(帶黑黃)과 백(白)의 반우(斑牛)

식어럭쇠 : 흑황혼색(黑黃混色)과 백(白)의 반우(斑牛)

옛날의 목장표

所在	馬牧場	牛牧場
제주군	1~6所	黃泰場(1所內)
대정군	7~8所	毛洞場(7所內)
정의군	9~10所	川尾場(10所近)

기타 제주, 정의(旌義) 양군계(兩郡界)에서 한라산에 걸쳐 산장(山場 :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이 있다.

우각(牛角)

여러 형(型)이 있고 각각 제주어의 명칭이 있고 그 각형(角型)에 의하여 소의 품위에 영향이 있다. 이제 우형(優型)에서 열품(劣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각뿔 : 은백색각(銀白色角)
- ② 건지뿔 : 후향장각(後向長角)
- ③ 접뿔 : 횡향장각(橫向長角)
- ④ 대뿔 : 상횡향장각(上橫向長角)
- ⑤ 산대뿔 : 전향장각(前向長角)
- ⑥ 묘족뿔 : 단각(短角)

이 분류에 의하면 보기좋은 뿔이 우형(優型)임을 알겠다.

우마(牛馬)

밀도로 한국 제일이요, 특히 말은 전국 말의 약 반을 점하여 옛부터, 마다(馬多)를 제주 삼다(三多)에 넣어서 환전(喧傳)해왔다. 제주의 목축은 고려시대에 비롯한 것으로 오래동안 국가관리로 되어왔지만 우마의 계통은 반도(半島)의 것이 아니며 소는 만주철령(滿洲鐵嶺) 이북의 것이고 말은 절강성(浙江省)의 것이라 한다. 특히 말은 소형으로 일견 특징이 보인다. 말은 몽고마(蒙古馬)란 설명도 있지만 사실상 원(元)시대에 수입된 몽고마는 초원형(草原型)이니 그후 도태(淘汰)되었고 재래종만이 잔재하였는데 다소 몽고종의 혼혈도 되었을 것이다.

우마(牛馬)와 목초(牧草)

이(齒)의 상위(相違)로 말은 소보다도 목초를 일층 깊이, 즉 목초의 근부(根部)에서 짧게 뜯어먹는다. 제주도에는 1924년 현재로 소 4만, 말 2만, 도합 6만두나 있으니 목초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고로 일반적으로 소는 영양불량(營養不良)이고 말은 영양양호(營養良好)하다.

우마(牛馬)와 방목(放牧)

항상 말을 주로 삼아 생각하므로 제주도에는 ‘말은 산에 갖다매고 사람은 서울에 보내야 한다’란 말이 있는데 산에는 진드기가 적은 탓이다. 그리고 제철(蹄鐵)이나 비환(鼻環), 비망(鼻網) 등은 절대로 볼 수가 없으니 우마의 방목은 자연 그대로이다.

우마의 사육

- ① 연중 야초(野草)를 사료로 하고 방목할 뿐.
- ② 야간(夜間)은 소는 구사(廐舍)에 넣고 말은 옥외(屋外)에 맨다.
- ③ 동기간(冬期間)은 소는 건초(乾草)를 먹이고 말은 산중에 방목한다.

우색(牛色)의 결점(缺點)

소의 품위는 대개는 체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기(大忌)하는 체색의 소는 다음의 형(型)이다

베아락쇠 : 복부백색(腹部白色)

총아락쇠 : 미백색(尾白色)

태상배기 : 액백(額白)

여하튼 반우(斑牛)는 열품(劣品)에 속하는데 그중에도 상기 3형은 최열품(最劣品)에 속한다.

우(牛)의 거세(去勢)의 효시(嚆矢)

1919년으로부터 열등모우(劣等牡牛) 거세장려계획(去勢獎勵計劃)이 실시되어 초년에 20두의 계획이 72두나 실시된 것이 본도에 있어서의 소의 거세의 효시이다.

원(元)으로부터 지래(持來)한 타 러 양(駝 驢 羊)

고려 원종은 원의 힘을 빌어서 삼별초(三別抄)의 난(亂)을 제주도에 서 완정(完定)하니 원의 세력이 제주도에 미쳤는지라 충렬왕 2년(1276년)에는 원이 군민총관부(軍民總官府)를 설치하고 3년(1277년)에는 동서

아막(東西阿幕)을 세우고 우마타려양(牛馬駝驢羊 : 소·말·낙타·당나귀·양)을 방목하고는 다로가치(達魯花赤)을 파견하여 이를 감독케 하였다. 그후도 우마만은 여러가지 변천을 경유하여 금일에 이르렀지만 타·려·양(駝驢羊)만은 그대로 전멸되었는지 그후의 기록은 전연 볼 수가 없다. 즉 타려양의 가축 3종은 원으로부터 들어온 일이 있었지만 번식은 되지않은 모양이었다.

유우사 유키히라(遊佐幸平)의 제주도개량안(濟州島改良案)

재래마(在來馬)를 근절시키고 다른 우량종을 이식시키자는 안인데 이에 요하는 이식품종은 홋카이도(北海道) 동부 및 이도산(離島産)의 소격만계마(小格輓系馬)를 주체로 하고 일부 개량 몽빈(蒙牝)을 섞는 것도 한 수단이라고.

유용산양(乳用山羊) 이입(移入)의 효시(嚆矢)

1923년 5월에 자아넨종 2두를 장흥(長興)으로부터 이입한 것이 처음이다.

1905년경의 주민(住民)과 축산(畜産)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 안내에 의하면 도민 10만 인구에 대하여 우(牛) 4만, 마(馬) 2만2천, 돈(豚) 6만5천이니 목축이 얼마나 번성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1926년경의 양계(養鷄)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에 의하면, 통계상으론 5만수쯤이라고 하나 해마다 3백만 내외의 계란을 수출하는 점으로 보아 12~15만수로 추찰(推察)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주민은 어느 집이나 4~5수의 닭을 사육하고 사료는 안주며 완전 방사(放飼)하는데 산란수는 70~100개라고.

제주마(濟州馬)의 용도(用途)

현재 도내서는 승용(乘用), 태용(馱用), 답용(踏用), 정지용(整地用), 제

곡용(製穀用), 비토용(肥土用) 등이고 그 능력은 승용 1일 행정(行程) 100~150리, 태용(馱用) 약 25관(貫)의 하물(荷物)을 100리 내외 운반. 그러나 광산(鑛山)의 갱도내용(坑道內用), 산지(山地) 혹은 시가지(市街地) 내의 운반용, 소경지(小耕地)의 경작용, 소년 및 부인의 승용, 등산용 등으로 호적하니 다량 이출(移出)하여도 좋을 것이다.

제주마의 장점과 단점

나카야마 시게루(中山 蕃; 1931년)에 의하면,

장점 : ① 성(性)이 온순(性溫順)하고 악벽(惡癖)이 없다.

② 지체(肢蹄)가 강인(強韌).

③ 사양(飼養) 관리가 조야(粗野)함에도 견디고 목초로만도 사육이 가능.

④ 물의 결핍(缺乏)에 견딤.

⑤ 험로(險路)를 능보(能步).

⑥ 역질(疫疾)에 견딤.

단점 : ① 체구(體軀)가 작아 체고(體高) 1m 20에 달하는 것이 없음. 따라서 부담량(負擔量)이 적다.

② 지구력(持久力)에 모자람.

③ 대부분이 요척(凹脊), 요장(腰長), 고단(尻短).

④ 성이 겁나(怯懦)하고 잘놀래므로 사고가 많이 발생.

제주마의 특징

제주마는 극도로 퇴화해서 마격(馬格), 마품(馬品)이 열악하지만 체격 왜소에 비하여 강력(強力)이고 지구력도 많다. 또 공포심도 적고 조식(粗食)하고 발굽(蹄)의 강인한 점 등으로 세계 제일이라 한다. 그런데 옛날 원(元)의 세조(世祖)는 탐라국에 목장을 신설하여 호마(胡馬)를 방

목하고 그 번식을 도모한 사적(事蹟)이 있었지만 그 산마(産馬)를 전부 본국에 수송하였으니 재래마와 혼혈된 것이 있다해도 열악한 개체만 남긴 모양, 제주마는 의연(依然) 양마(良馬)와는 물교섭(沒交涉)이다.

제주마명(濟州馬名)과 일본마명(日本馬名)의 대조

濟州名	日本名
1. 적다(赤多)	아카구리게(栗毛(赤馬))
2. 가라(加羅)	아오게(靑毛(眞黑))
3. 유가라(驪加羅)	가와라게(河原毛(薄黑))
4. 자류(紫驪)	아카시카게(紅鹿毛(全體毛, 頭四肢尾黑毛))
5. 현류(玄驪)	구로시카게(黑鹿毛(全體赤黑色이고 前同))
6. 적다월라(赤多月羅)	아카시로마다라(赤白斑)
7. 가라월라(加羅月羅)	구로시로마다라(黑白斑)

제주 십삼장(十三場)

300여년전 서중면(西中面) 김만일(金萬鎰) 부자가 말 7백두를 헌납한 이래 관영(官營)으로 전도(全島) 중복(中腹)에 광대한 환상목장(環狀牧場)을 설치하고 산마장(産馬場) 외로 일소장(一所場)으로 십소장(十所場)까지 구분하고 다음에 가파도(加波島 : 後 毛洞場으로 변경), 손당장(孫堂場 : 松堂)을 가해서 전도 내에 13장을 두게되어 활발히 국유마필 및 축우(畜牛)를 생산 사육하였다.

제주우(濟州牛)의 특징

체구 왜소하고 심히 만숙(晩熟)이니 자연히 살찌지 못한다. 육질도 물론 불량하니 육용(肉用)으로는 가치가 적다. 또 비운(鼻輪)을 장치하는 습관도 없으니 역용(役用)으로도 불리하다. 그러나 사사(舍飼)함으로만도 상당히 개량되는 것이고 보통대로 방목한 것이라도, 즉 지방(脂肪)이 적은 조강(粗剛)한 육질이라도 통조림용엔 상관이 없다. 또

- ① 체질의 강건,
- ② 제질(蹄質) 견인(堅韌),
- ③ 조식(粗食) 조야(粗野)한 관리에 견디고,
- ④ 성질 온순 등의 장점이 있다.

축산(畜産)

제주도에는 우마가 많으니 축산의 이상향(理想郷)으로도 보이나 그렇지도 않다. 외지(外地)의 우마를 이입한다면 풍다(風多), 우다(雨多), 만다(蝻多)로 전멸될 것이다. 그 환경에 잘 견디는 제주도 재래의 우마를 양육하는 수밖에 없겠고 목장 외로는 쓸 길이 없는 땅이 많으니 축산은 그대로 크게 장려할 수밖에 없겠다.

축우(畜牛)에 대한 당국의 시설계획요항(施設計劃要項)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 ① 지도기술자(指導技術者)의 충실(充實).
- ② 축산조합의 목장총영(牧場總營) 개량, 격년(隔年) 전환식 방목, 목초는 루산, 백추(白萩), 클로버를 주로 함.
- ③ 벽슬(壁蝨)의 구제(驅除).
- ④ 우마적(牛馬籍)의 정리 개량 실시.
- ⑤ 축우(畜牛)의 이출(移出) 검사 시행.
- ⑥ 가축시장의 개설경영 칭량거래(秤量取引) 중개(仲介).
- ⑦ 열등모우(劣等牡牛)의 거세정리계획(去勢整理計劃) 수행.
- ⑧ 사료작물의 재배장려.
- ⑨ 도수장(屠獸場)의 개선 및 냉장장치의 설치.
- ⑩ 수역예방(獸疫豫防) 병축(病畜) 치료.

축산의 10개년 계획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개발안에 의하면,

- ① 면양(綿羊)을 부업으로 2만두, 목장 경영으로 3만두, 합 5만두 증식시킬 것.
- ② 소 2만 9천여두를 4만 4천두로 증식시키고 제유(製乳)공장을 설치하여 공업화를 도모할 것.
- ③ 돼지를 6만 6천두로 증식시킬 것.

축산장려기관(畜產獎勵機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4년)에 의하면, 축산동업조합(畜產同業組合), 계란이출조합(鷄卵移出組合), 양봉협회(養蜂協會), 양계조합(養鷄組合), 보통학교아동양계회(普通學校兒童養鷄會), 양계청년회(養鷄青年會), 근린농가단(近隣農家團) 등. 이 근린농가단이란 것은 수호(數戶) 내지 십수호가 일단(一團)이 되고 일단 중의 어떤 한 사람씩이 교대로 각 농가의 우마를 모아서 방목하는 것인데 대개는 이 일은 아동들이 담당하고 조조(早朝) 일몰(日沒)에 광막평야(廣漠平野)에서 2척 내외의 채찍을 갖고 남동(男童)이 목가를 부르면서 우마를 몰고 왕복함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축산행정의 방침

1924년에 발표한 도청(島廳)의 방침을 보면,

- ① 관헌(官憲) 감독하에 우육(牛肉)통조림 공업을 장려할 것.
- ② 사사(舍飼)를 장려하고 방목을 제한하여 목초를 증산할 것.
- ③ 번식용 모우(牡牛) 이외는 거세할 것.
- ④ 농가의 사우(飼牛)는 전부 빈우(牝牛)로 할 것.
- ⑤ 진드기 박멸책(撲滅策)을 강구(講究)하며 전염병 방지에 노력할 것.
- ⑥ 우적제도(牛籍制度)를 확립할 것.

[附] 가축시장의 개설, 축산교육의 보급, 사양(飼養)관리의 개선, 강습강화(講習講話), 품평회(品評會), 공진회(共進會) 등.

18. 수산(水産)

가장 중요한 해조(海藻)

	용도	채집계절
감태	沃度原料	5~10월
미역	食用	"
녹미채	"	"
우뭇가사리	寒天製造用	3~4월
풀가사리	食用	4월

고기잡이

섬이니 고기잡이는 발달하여 여러 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괴기낚음 : 보통고기잡이.

낚음질 : 배 타고 하는 낚시질의 일종이고 ‘주낚질’에 비해서 정적(靜的)이다.

바룻칠 : 배를 사용하는 고기잡이.

주낚질 : 주낚배를 사용하는 고기잡이 등등.

기세(磯洗 : 개뎁기)

해조(海藻) 발생구역의 암석을 소제(掃除)하여 해조의 번식을 조장하는 것인데 지방비(地方費)의 보조로 철저히 시행한다.

대표적 수산물

조선문(朝鮮文) ‘朝鮮’ 소화(昭和) 4년(1929년) 12월호 뒷표지(裏表紙)에 인쇄된 수산물분포도에 의하면 제주도산으로는 우뭇가사리, 멸치, 고등어, 도미, 전복, 상어, 방어 등이 기입되어 있다.

1909년경의 어업근거지

고마츠 에즈지(小松悅二)의 신찬한국사정(新撰韓國事情; 1909년)에 의하면 성산포(城山浦), 육두포(六頭浦), 사귀포(四歸浦), 비양포(飛揚浦)의 네 곳이라고 했는데, 육두포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사귀포란 서귀포일 것이며, 비양포란 비양도일 것이다.

수산물(水產物)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멸치, 고등어, 아지, 다랑어, 가다랭이, 방어, 넙치, 삼치, 참돔, 황돔, 청돔, 갈치, 황옥돔, 자리돔, 조기, 아구, 불락, 용치놀래기, 성대, 갯장어, 상어, 은어, 뱀장어, 오징어, 전복, 소라, 대하(大蝦), 미역, 도포(摺布), 우뭇가사리, 풀가사리, 녹미채(鹿尾菜), 모자반, 석이 등.

수산(水產)의 15개년 계획

조선총독부의 제주도개발안에 의하면, 우뭇가사리는 25배로, 미역은 7배로 증산시키고 기타의 수산물은 자연증식을 도모할 것.

어족(魚族), 어장(漁場) 및 어기(漁期)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2년)에 의하여 제주도 관계분만을 발기(拔記)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어 5~10월 대구어 4~12월 도미 주년(周年)

이조말경의 재제주도(在濟州島) 일본인의 어업통계

년차	納屋數	潛水器	鰲繩	鯛繩	一本鉤	裸體蟹	乘込人員
1900	11	18	25	30	-	-	457
1901	16	23	32	35	15	10	846
1902	18	23	40	45	20	12	1007
1903	22	30	50	50	20	12	1160

비고 : 잠수기(潛水器) 1척은 보통 9인승(人乘). 양승(鰲繩)은 7인, 조승(鯛繩)은 4인, 일본구(日本鉤)는 4인, 나체단(裸體蟹)은 20인승(人乘).

온어(鱚漁 : 멸치잡이)

제주도의 하천은 긴 것이라야 40리, 짧은 것은 10리쯤이고 대개는 공천(空川)이니 강우시에는 해수를 혼탁(混濁)시켜 멸치잡이에 편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래지 않아서 해수가 청징(淸澄)하니 어족의 체류기(滯留期)를 짧게하여 멸치잡이에는 대단히 불리하다. 또 근래엔 수목(樹木) 남벌로 인한 점도 있으므로 어부림(魚附林) 설치에도 당국은 노력한다. 어부림 설치를 강화하여 어류를 많이 연안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조말경의 저명한 어구(漁區)

비양도(飛揚島 ; 翰林面), 성산포(城山浦), 방두포(方頭浦), 당포(堂浦 ; 舊左面), 우도(牛島).

이조말경의 해산물

상어, 복어, 도미, 해삼, 포해태(布海苔), 우뭇가시리, 미역, 암고래, 다랑어, 방어, 삼치, 감태 등이며, 그 중에서도 저명한 것은 멸치, 마른전복, 조가비, 미역, 우뭇가사리 등이다.

1903년중의 일본인의 어획고(漁獲高)

전복	67,500근(斤)	50,000원(圓)
도미	60,000근	40,000원
상어	75,000근	18,000원
해삼	86,400斤	51,000원

1905년경의 일본어선

제주도에 출어하는 일본어선은 실로 200척이나 되었다.

1911년경의 4대 수산물

전복, 해삼, 도미, 멸치 등.

1914년 도청(島廳) 통계로 본 어획고

22만 5,270원인데 그중에 부녀자(婦女子)의 어획고만은 13만 5,470원 이니 여 6 : 남 4의 비(比)로 줄저(拙著; 1946년)의 현주자(現住者) 비와 같다. 그러나 이 어획고의 남녀의 비는 해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그 전년인 1913년도 통계로는 남녀의 비가 거의 같았다.

제주도수산의 특이점

- ① 면적에 비하여 해안선이 짧고 연장(延長)이 불과 105마일(浬).
- ② 화산도(火山島)이니 연안에 양항(良港)이 없지만 유용조류(有用藻類)의 양호한 부착면(附着面)이 많다.
- ③ 또 조류(潮流)의 속도가 빠르니 해조(海藻) 번식에 좋고 전복, 소라 등 패류(貝類)의 절호의 번식지가 되어 전국 굴지(屈指)의 산지로 되었다.
- ④ 츠시마(對馬) 난류(暖流)의 관계로 다랑어, 가다랭이 등의 난류 어족을 연안에 유치(誘致)하고 고등어, 삼치, 아지, 멸치 등의 난류를 좋아하고 한류(寒流)를 불공(不恐)하는 어족이 많다.
- ⑤ 창조(漲潮)는 서류(西流), 낙조(落潮)는 동류(東流)한다.
- ⑥ 하천은 10~14리의 길이 정도요 평시는 유수(流水)를 못보는 것이 강우시는 탁수(濁水)가 해수와 혼탁(混濁)하여 멸치류의 어획을 편케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어족의 체류기는 짧다.

최초의 팽대(膨大)한 수산조사서(水産調査書)

융희(隆熙) 2년(1908년) 2~1월에 한국정부 농상공부(農商工部)는 전국을 17구역으로 나누어 수십 명을 동원시켜 전국수산조사를 행하였는데 농상공부 기수(技手) 요시자키 켄타로(吉崎建太郎)는 제주도 구역을 담당하여 조사하고 제주도 수산조사복명서(水産調査復命書)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3집 380~473쪽(1910년)에

‘濟州島’란 제목하에 게재되었다. 이 조사서에는 다만 수산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자료도 많고 더우기 도민으로부터 들어서 기록한 것이 많으니 전편(全篇)이 귀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해벌(海筏)

해어(海魚)의 자리를 잡는 배인데 글자대로의 형상이다. 즉 몽둥이를 모아서 배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는 아마 세계 유일의 것일 것이다. ‘자리’가 제주도 물산의 어류이고 그 어선(漁船)조차 특이한 것이니 제주도의 특이성으로는 100%의 것이다.

화산암(火山岩)과 어업

본도의 화산암은 해저 멀리 연장되어 있는 관계로 유용조류(有用藻類)의 양호한 부착면을 제공하고 조류의 속도도 빠른 관계로 해조(海藻) 번식에는 천여(天輿)의 장소이다. 이 해조(海藻)의 번식과 아울러 전복이나 소라의 번식지가 되어 조류(藻類)와 패류(貝類)의 어업은 발달한다.

19. 기타 산업

강화하여야 될 산업

금후로 일층 확충강화하여야 할 산업의 각 종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농업 : 보리, 조, 감자, 메밀, 면화.

수산업 : 자리, 멸치, 황옥돔, 참돔, 복어, 소라, 미역, 다랑어, 갈치.

임업 : 소나무, 동백나무, 벗나무, 삼나무, 노송나무, 표고버섯.

원에 : 귤, 제충국(除虫菊), 약초.

축산업 : 소, 말, 돼지, 닭.

양충업(養虫業) : 가잠(家蠶), 양봉(養蜂).

공업 : 주정(酒精), 옥도정기(沃度丁幾), 전분(澱粉), 패구(貝鉤 : 조개단추), 통조림

개발문제(開發問題)

- ① 우수한 과학자가 10년 이상 체재(滯在)할 것.
- ② 먼저 물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 ③ 석다(石多), 풍다(風多)의 응용을 생각할 것.
- ④ 수산(水産), 임산(林産)에 진력(盡力)할 것.
- ⑤ 고구마의 시험장을 설치할 것.
- ⑥ 소토법(燒土法)과 계분(鷄糞)을 이용하여 토지개량을 도모할 것.
- ⑦ 위생사상(衛生思想)과 그 시설의 보급을 도모할 것.

고정경모(高頂輕帽)

메이지(明治)말에 발행된 일인(日人)의 저서에 의하면 죽(竹) 혹은 마모(馬毛)로 엮고 안에는 죽(竹) 혹은 포(布)를 바른 것이라고 소개되었고 고 북의 박천(博川)과 남의 제주도(濟州道)가 특산지라고 하였다.

공업(工業)

공업으로는 한림의 통조림공업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엔 성내에 알콜공장이 생기고 규모가 커서 급속히 제주도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것은 일정(日政)말에 전시(戰時)산업의 형식으로 생겼지만 장래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도 제주도의 알콜생산이란 합리적이겠다.

공장(工場)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공장이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위보면 통조림공장, 패구(貝鉤)공장, 양조장(釀造場), 추용(椎茸)제조공장 등이 산재했을 뿐. 그러나 근대식의 대공장으로는 성내에 있는 주정공장(酒精工場) 1개소뿐이다.

공장후보지(工場候補地)

무로이(室井) 등에 의하면,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공장은 수원(水源), 교통 및 부지(敷地) 등을 고려하여 제주 성내, 애월리, 한림리(翰林里), 모슬포(慕瑟浦), 서귀포(西歸浦), 함덕리(咸德里) 등이라고 결론하였다.

관물(冠物)

제주도는 옛부터 관물로 유명하다. 그 원료는 우마모(牛馬毛)·죽(竹) 등인데 과거에는 북선(北鮮), 간도(間島), 시베리아에 까지 수출하였고 그 수출액은 1921년경에는 30만원에까지 달했었고 차차 감소되어 1924년경에는 반액 15만원이 되던 것이 최근에는 전혀 없어졌다. 이것은 물론 시대의 변천으로 관물이 소용되지 않게 된 때문이다. 이 관물이 중심지는 조천이었다.

1912~26년간의 거래항(去來港)

부산(釜山) 6할, 목포(木浦) 4할이었는데 1923년도에 오사카(大阪) 항로가 생긴 후로는 차차 변경되었다.

대중(對中)무역품

해삼(海參), 건포(乾鮑), 양기(鱸鰭), 추용(椎茸) 등.

마모제립(馬毛製笠 : 갓)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의 기록(1926년)에도 중요한 부녀의 부업이라고 하던 것이 점차 단발(斷髮)한 관계로 최근은 전연 무용(無用)의 것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이 부업은 없어졌다. 여기 부기(附記)할 것은,

- ① 아이다(會田)도 그 당시 이 부업이 쇠미(衰微)할 운명을 가진 것을 기록하였고,
- ② 이 부업은 마모의 산지이니 생긴 것이겠지만 원료는 전부 오사카(大阪)에서 왔었다고 한다.

이조말경의 수용품(需用品)

김건(金巾), 목면(木綿), 어류(魚類), 철류(鐵類), 도기(陶器), 석유(石油), 성냥, 지류(紙類) 등.

모시

‘모시’는 한자로는 모치(毛紬)라고 쓰고 저포(紵布; 苧布)를 말함인데 ‘모시’라면 벌써 ‘한산(韓山)모시’라고 하여 충남 한산을 중심으로 부근 여러 군(郡)에서 산출하는 것이 유명하고 제주도 같은 곳은 산지로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원사(元史)에 ‘탐라세진모시백필(耽羅歲進毛施百匹)’이란 구(句)가 있으니 고려때에는 분명히 제주도가 모시의 산지였음을 짐작하겠다.

무역관계(貿易關係)

1929년경을 경계로 이전에는 이출입(移出入) 공히 목포(木浦) 4할, 부산(釜山) 6할이던 것이 오사카(大阪)항로가 개통되고는 이출입(移出入) 공히 한신(阪神) 및 시모노세키(下關)방면으로 옮기게 되었다. 주요 무역항은 산지(山地), 한림(翰林), 모슬포(慕瑟浦), 서귀포(西歸浦), 성산포(城山浦) 등이다.

무역품(貿易品)

1926년의 일본과의 무역품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 선어(鮮魚), 선패(鮮貝), 추옹(椎茸), 포관힐(鮑罐詰: 전복통조림), 만관힐(鰻罐詰: 장어통조림), 영라관힐(螺螺罐詰: 소라통조림), 우피(牛皮), 기타 피모골각(皮毛骨殼), 어류(魚類) 및 동제품(同製品), 도포회(搗布灰), 기타 약재화학약(藥材化學藥) 및 폭발약(爆發藥), 조면(縲綿), 기타 힐품(詰品).

수입품 : 쌀 및 나락, 대만미(臺灣米), 동 외국미(外國米), 소맥분(小麥粉), 사탕(砂糖), 청주(淸酒), 미림(味淋), 소주(燒酎), 맥주(麥

酒), 청량음료(清涼飲料), 안전성냥(安全燐寸), 면직물(綿織物), 평직포생(平織布生)시이팅, 평직포생세포(細布), 동 쇠금건(同晒金巾), 동 쇠세포(同晒細布), 모자(帽子), 엽철(葉鐵) 및 엽강(葉鋼), 기계 및 동 부분품, 기타 제품.

미개(未開)의 보고(寶庫)

이 말은 많이 들리는 말이고, 당국자(當局者)는 항상 하는 말이다. 그러나 산해(山海) 공히 그 자원은 차차 감소해가고 본래도 풍양(豐穰)한 섬은 아니니 오히려 개척보다는 배양을 필요로 하는 섬이다.

부업(副業)

본업 아닌 어업, 고세공(藁細工), 목세공(木細工), 죽세공(竹細工), 제탄(製炭), 채신(採薪) 등.

사냥

사냥의 뜻이고 흔히 있는 노루와 꿩이 대상이다. 대개 노리사냥(노루사냥)은 겨울 강설시 하산한 노루를, 꿩사냥은 봄 환우기(換羽期)에 잘 날지 못하는 꿩을 제견(濟犬)으로 잡게하는 것이다.

산업단체 일람표

1926년 6월말 현재, 해녀어업조합 1, 어업조합 3, 축산동업조합 1, 양계조합 11, 계란수출조합 1, 삼림조합 1, 농회(農會) 1.

산업의 대개발

1924년 도(島) 발표에 의하면,

- ① 농산(農産)의 대폭 증가를 기획하여 도외에 이출(移出)할 것.
- ② 중간부락을 늘리고 휴한지를 목축, 임업, 면작(棉作)에 이용케 함.
- ③ 면작의 대보급(大普及)을 단행.
- ④ 조면공장(縲綿工場)의 설치.
- ⑤ 감귤원(柑橋園)을 장려(獎勵).

- ⑥ 식림경영자(殖林經營者)를 환영함.
- ⑦ 추용(椎茸)재배업을 장려함.
- ⑧ 목우(牧牛)를 장려하고 열등 모우(牡牛)의 거세를 단행.
- ⑨ 우육(牛肉)통조림의 계획과 생우(生牛)의 이출(移出)을 계획함.
- ⑩ 이주어민을 장려함.
- ⑪ 근해어업을 장려함.

상업(商業)

발달이 안되고 따라서 큰 상점도 적다. 또 시장거래도 적고, 농민 및 어민과 행상인(行商人)간에 거래 혹은 물물교환이 아직 많다고 볼 수가 있다.

상업도읍(商業都邑)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5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서 상업도읍이라고 할만한 곳은 전국을 통해서 91개소인데 그중 전라남도분(分)이 8개소이고 제주도로는 제주 1개소가 포함되었을 뿐이다.

수산제품검사원회의(水産製品檢査員會議)

1920년 12월에 조선총독부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전조선 12개소에서 수산 기수(技手) 1명씩이 참가하였는데 그중 제주도 성산포서도 1명이 파견되었다. 또 1922년 11월에 개최된 동회(同會)에는 전선(全鮮) 13개소중 제주에서 1명이 파견되었다.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의 제주도경영론(濟州島經營論)(明治 38년, 1905년)

내용은

- 第一. 교통경영(交通經營)
- 第二. 어업적 식민(漁業的 殖民)
- 第三. 농업적 경영(農業的 經營)

등 이상의 3항에 의하여 논하였는데 전혀 착취적(擄取的) 경영안(經營案)이어서 우리 국민으로는 일독(一讀)의 가치도 없다. 또 일본인 표준으로 한대도 제주도의 풍토를 인식하지 못하고 만든 경영안이어서 가치가 극히 적다.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가 본 도(島) 당국이 취할 조치

1. 도로의 개착(開鑿) 및 개수(改修).
2. 산화단속(山火團束).
3. 급수시설(給水施設).
4. 농산물의 도외(島外) 판로 확장.
5. 농사의 개량 장려.
 - ① 녹비(綠肥) 및 사료작물(飼料作物)의 보급 장려
 - ② 맥작(麥作) 개량
 - ③ 고구마의 보급 장려
 - ④ 감귤의 보급 장려
 - ⑤ 구약(藟藟) 및 제충국(除虫菊)의 장려
 - ⑥ 면작(棉作) 및 양잠(養蠶)의 보급 장려
 - ⑦ 가축가금(家畜家禽)의 개량증식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가 본 유망한 사업

- ① 보리의 이용
- ② 고구마의 이용
- ③ 식림(植林)
- ④ 감귤재배(柑橘栽培)
- ⑤ 축육가공(畜肉加工)
- ⑥ 면가공(棉加工)
- ⑦ 추용조제(椎茸調製)

- ⑧ 제충국(除虫菊)의 재배가공(栽培加工)
- ⑨ 양봉(養蜂)
- ⑩ 구약(蒟蒻)의 재배가공
- ⑪ 소채류(蔬菜類)의 축성(促成)재배
- ⑫ 채종(採種)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가 본 제주(濟州) 부원(富源)

- ① 우마돈(牛馬豚) 및 우돈육가공업(牛豚肉加工業)
- ② 어족(魚族), 패류(貝類), 조류(藻類)의 대어장(大漁場)
- ③ 임업경영(林業經營)
- ④ 추용재배(椎茸栽培)
- ⑤ 어패(魚貝)통조림업, 온업공장(鱈業工場), 패구공장(貝鉤工場)
- ⑥ 감귤, 구약재배(蒟蒻栽培) 및 축성재배(促成栽培)
- ⑦ 면화(棉花), 양잠(養蠶), 약용식물재배(藥用植物栽培)
- ⑧ 양계(養鷄), 양봉(養蜂).

어시장(魚市場)

제주도에는 전문어시장은 없고 목포 육시장(旭市場)에 흡수되어 주로 경향(京鄉) 방면 및 호남지방에 판매되었다.

이조말경의 조선적 산물

관(冠)과 즐(櫛: 빗).

이조말기의 수입상품(輸入商品)

주로 잡화였는데 청일(淸日)전쟁경까지는 상해 지방에서 오던 것이 그후로는 일본상품이 들어오게 되었다. 노일(露日)전쟁 직전에 수입되던 주요 일본상품은 도기(陶器), 화금건(和金巾), 석유(石油), 성냥, 연초(煙草), 일본면(日本棉), 과자(菓子) 등이었다.

이입품(移入品) 및 구매장소(購買場所)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6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곡(米穀), 식염(食鹽), 연초(煙草)……목포(木浦), 여수(麗水)

재목(材木), 포목(布木)……부산(釜山)

포목(布木), 잡화(雜貨)……오사카(大阪)

이출입물(移出入物)

1924년 도청(島廳) 발표에 의하면,

이출물(移出物) : 통조림, 조개단추(貝釘), 명포(明鮑), 해삼, 상어지느러미, 우뚝가사리, 관물(冠物), 우피(牛皮), 석류(蓆類) 도포회(搗布灰), 조(粟), 보리, 메밀, 고구마, 실면(實棉), 누에고치, 표고버섯, 약초, 선어(鮮魚), 염건어(鹽乾魚), 말린 멸치, 착박(搾粕), 생포(生鮑), 미역, 은행초(銀杏草), 앵초(櫻草), 기초(磯草), 김, 생우(生牛), 우피(牛皮), 계란, 세죽(細竹), 양말 등등.

이입물(移入物) : 백미, 썰미(碎米), 맥분(麥粉), 면포(綿布), 담배, 성냥, 석유, 사탕, 과자, 약재(藥材), 문구류(文具類), 도기(陶器), 냄비, 솥, 곤로(棍爐), 양등(洋燈), 고무신, 양산(洋傘), 모자, 백분(白粉), 향유(香油), 잡화(雜貨), 건축용재(建築用材), 철재(鐵材) 등등.

일본포경회사(日本捕鯨會社)

서귀포에는 고래의 해부장(解剖場)이 있는데 즉 이 회사의 사업장이 다. 동 회사의 이러한 포경근거지는 서귀포 외에 강원도(江原道) 장진(長箭), 경북 울산(慶北蔚山) 전남 대흑산도(全南大黑山島), 황해도(黃海道) 대청도(大靑島) 등의 4개소에도 또 있고 서귀포에는 매년 어기인 9~12월에는 활기를 띠운다. 이전에는 함북(咸北) 유진(楡津)에도 있었지

만 성적(成績) 불량으로 폐지되었다. 이상의 5개소도 8·15 직전에는 활동이 중지되었었다.

잠수기어업자(潛水器漁業者)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잠수기는 도내에 13대가 있고 행원(杏源), 성산(城山), 서귀포(西歸浦), 모슬포(募瑟浦), 추자도(楸子島)를 근거로 전복과 해삼을 주로 잡는다. 제품으로 나가사키(長崎)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데 전복의 일부는 산채로 한신(阪神) 방면에 직송도 하였다.

제량(濟涼)

제주말로 ‘양태’이고 한국 재래의 ‘망건’(網巾)이다. 제주도는 마산지(馬產地)이니 말총으로 만드는 것이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었을 것이며 조천을 중심으로 한 부근 부녀자의 특수한 수공업이었다. 그러나 신시대의 모자가 나오고는 소멸된 산업이다.

제주도개발(濟州島開發)

산업개발방침에 의해서 1937년 벽두에 5대 정책 중의 하나로 제주도개발을 지시하였다. 전라남도 당국과 총독부는 협동하여 본부 농림·내무 관계 및 각 방면의 권위(權威)들을 동원시켜 상세히 실지(實地) 조사를 행하고 제주도개발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에 의하여 1937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제주도를 개발기로 결정하고 1937년도는 예산 2만원으로 기초조사를 행하고 1938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개발계획은 생산부문, 가공판매부문, 시설부문의 3부이고 이제 요건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1937년도부터 축산 및 농업은 10개년, 수산업은 1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력은 용력(湧力)을 이용하여 수력전기에 의하고 남은 물은 농목장(農牧場) 개발(開發)에 이용, 음료수는 저수지, 여과지(濾過池),

제방(堤防) 등 25개소 신설, 목장용수(牧場用水)는 250개소에 저수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면양(緬羊)과 무수(無水)알콜은 국책(國策)에 호응하여 1938년도부터 전면적(全面的)으로 증산을 도모케 하였다.

제주도 개발상업으로의 생산 부문

(一) 농업 방면

- ① 축산, 면양, 축우, 돈(豚) 등의 증식
- ② 전작(田作), 고구마, 맥주맥(麥酒麥), 박하(薄荷), 제충국(除虫菊), 청두(靑荳) 등의 증산(增産)

(二) 수산물 방면

- ① 연안어업, 패조류(貝藻類)의 증식
- ② 원양어업

제주도 개발상업으로의 가공판매부문

개발로 인해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은 전부 도내에서 처리, 제조, 가공할 계획으로 수이출(輸移出)은 모두 제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무수(無水)알콜공장을 비롯하여 흡스편제직공장(製織工場), 정유공장(精乳工場), 통조림공장, 제빙동(製氷凍)공장 등의 여러 공장(工場)의 점차 건설을 계획하였다.

제주도 개발상업으로의 시설부문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총독부와 진라남도 당국에서 하기로 함. 공장 설치에 불가결의 요소인 용수설비, 전력발전, 제주항 기타의 상항(商港), 어항의 수축(修築), 도로의 개수(改修), 방풍림(防風林), 사방림(砂防林)의 설치, 목포 및 여수간 연락선의 확충 및 강화, 종량장(種羊場), 농사시험장 등의 시설 등을 계획.

제주도와 인연이 적은 산업

광산(鑛山)과 농장(農場)이다. 광업(鑛業)은 제주도에서는 싹도 못나

보았는데 세계 제2차대전 말경에는 텅스텐광 운운(云云)으로 움직이는 광산부로우커가 수명(數名)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섬에는 큰 자철광(磁鐵鑛)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농장도 토지가 나쁘니 별로 없다. 전선내(全鮮內) 곳곳에 일본이민부락이니 농장이니한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1개도 없다. 이런 박지(薄地)에 적용할 비능률적 식민정책은 물론 없을 것이다. 다만 서귀면에는 일인 니시하라모(西原某)가 기독교 사업에 쓰라고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에게 제공한 풍행(豊幸)농장이 하나 있었다.

제주도의 자원(財源)

해륙산물(海陸産物), 출가인(出稼人)의 송금, 해녀의 도외 원정 등.

제주의 통조림

1926년경에 나온 한림의 다케나가 신타로(竹中新太郎)공장산 통조림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우육보래자(牛肉寶來煮), 우육연승자(牛肉連勝煮), 우육대화자(牛肉大和煮), 우육진태고(牛肉陣太鼓), 우육시대자(牛肉時代煮), 쇠고기스미다자(すみだ煮), 우육축전자(牛肉筑前煮), 우육시우자(牛肉時雨煮).

주요한 무역품

다이쇼(大正) 말경의 일본과의 주요 무역품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 수산물통조림, 패구(貝鉤), 명포(明鮑), 해삼(海蔘), 양기(魷鱈), 천초(天草), 관물(冠物), 우육(牛肉)통조림, 염어(鹽魚), 추용(椎茸), 실면(實棉), 잠건(蠶繭), 조, 보리, 고구마등. 금액으로 100만원여.

수입품 : 백미(白米), 쇠미(碎米), 석유(石油), 사탕(砂糖), 일용잡화, 직물(織物), 화장품(化粧品), 고무화(靴), 건구재료(建具材料) 등 금액으로 약 130만원.

중요금융기관의 창설

- ① 조선식산은행제주지점(朝鮮殖産銀行濟州支店) : 1918년 발표(發布)된 제령(制令)에 바탕을 두어 종래 개개(個個) 분립했던 농공은행(農工銀行)을 합병한 것인데 당 지점은 광주농공은행제주지점(光州農工銀行濟州支店)의 후신인 셈이다.
- ② 제주금융조합(濟州金融組合) : 1907년 7월 3일에 설립되었고 뒤해인 1908년 3월 10일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직업(職業)

본도민의 직업은 농업, 목축업, 어업, 상업, 기타라고 할 수 있으나 주요한 직업으로는 농업과 어업이고 목축이 버금이다.

최초의 소라통조림제조소

제조지	소재지	창업년월	1년간생산고	관로
吉村罐詰製造所	加波島	1909년 5월	8,640	오사카(大阪)
山口罐詰製造所	城山浦	1911년 7월	7,200	오사카(大阪)

깡사냥

다니가와 세이이치(谷川清一 ; 1944년)에 의하면,

- ① 평강(平康) 중심의 엽장(獵場)의 깡은 그 옛날 이조(李朝)의 어료(御料)에 공(供)하였으리만큼 유명한 명물이고,
- ② 서선산(西鮮産)도 대형미미(大形美味)로 전자(前者)의 버금이요
- ③ 남조선(南朝鮮)의 깡은 소형(小形)이요 맛도 앞의 양자(兩者)에 비하여 떨어진다.
- ④ 목포(木浦) 및 부근 소도(小島)의 깡은 작으나 제주도산은 대형이고 경북 영덕(盈德) 부근산도 대형이라고.

통조림공업

제주도의 자원은 수산, 축산 및 임산에 있으니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곳이 고도(孤島)이니만큼 통조림공업이 발달하여야 할 것이다. 벌써 한림항(翰林港)은 그 중심이 되었고 장래 발전의 기초가 완성되어있다.

특산품거래통계(特產品去來統計)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5년)에 의하면,

품 명	年産額(원)	중요거래지
櫛	6,000	江景, 大邱
毛帽子	120,000	京城, 統營, 大邱, 元山
笠子	50,000	同上
宕巾	3,000	平壤

특산물(特産物)

마(馬), 추옹(椎茸), 감귤류(柑橘類), 봉밀(蜂蜜), 흑산호(黑珊瑚), 춘유(椿油), 미역, 해삼, 녹미채, 전복, 소라 등이고 옛날 공물(貢物)에도 주요한 것은 마(馬), 감귤류(柑橘類) 및 전복 등이었다.

조개단추공업(貝釦工業)

전복, 소라의 패각(貝殼)을 재료로 하니 이 공업이 발달할 것이다. 수공업 정도의 공장은 곳곳에 있고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은 서귀포에만 있는데 장래 전국적 존재로 될 것이다.

해녀작업(海女作業)

이것은 잠수라고도 하며 가장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해안부락의 부녀는 전부가 해녀이고 12~3세에 시작하여 55세경까지 종사하지만 그 범위 외의 부녀도 있다. 잠수 수심은 보통 4~5심(尋)이나 10심(尋)에도 달하며 잠수 시간은 1~2분이나 10분에도 달한다. 1일 1회

혹은 2회 간조(干潮)를 이용하여 출해(出海)하고 약 1시간후 만조(滿潮)를 이용하여 돌아오는데 남안(南岸)에서는 연중 무휴의 곳도 있다. 작업중의 해녀를 멀리서 바라보면 시적(詩的)으로 봐이나 가까이 보면 심각(深刻)한 생활전선임을 알게된다. 제주도의 부녀는 '바다의 딸'들이다.

행상인(行商人)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행상인의 2/3강(強)은 본도 출신이고 1/3약(弱)은 외래자(外來者)이다. 그리고 외래행상인은 대부분이 전남인(全南人)이고 더우기 가장 근거리인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형무소수인(刑務所囚人)의 작업

1924년경의 제주도형무지소(濟州島刑務支所)의 수인의 작업은 구루메 가스리병(久留米餅), 패구(貝釘), 지물(指物: 나무細工), 아연(亞鉛), 고세공(藁細工) 및 경운(耕耘) 등의 6종이었는데 역시 수인의 작업에도 지방색이 풍부하였다.

회사(會社)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조선식산은행제주지점(朝鮮殖産銀行濟州支店)

제주상선주식회사(濟州商船株式會社)

제주면업주식회사(濟州棉業株式會社)

제주전기주식회사(濟州電氣株式會社)

제주통운주식회사(濟州通運株式會社)

요코하마생명보험주식회사제주도대리점(橫濱生命保險株式會社濟州島代理店)

다이헤이생명보험주식회사제주도대리점(太平生命保險株式會社濟州島代

理店)

다이쇼생명보험주식회사제주도대리점(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濟州島代理店)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제주도대리점(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濟州島代

理店)

20. 정치(政治) · 행정(行政)

경찰서(警察署)

고종(高宗) 31년(1894)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함에 시작되어 광무(光武) 10년(1906년) 광주경무고문(光州警務顧問)의 소속인 제주분파소(濟州分派出所)를 설치하였고 광무 11년(1907년) 목포경찰서제주분서(木浦警察署濟州分署)를 설치, 광무 12년(1908년) 경찰서로 승격하였다. 당시의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는 3, 1923년경의 경찰관주재소는 15였다. 1945년에는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위한 강화로 인하여 서장을 도사(島司) 겸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어 성산포(城山浦), 모슬포(慕瑟浦), 서귀포(西歸浦)에는 지서격(支署格)의 파출소(派出所)를 두었다.

도사(島司)

제주도통할관명(濟州島統轄官名)이 누차 변하다가 1915년에 군수(郡守)를 폐(廢)하고 도사(島司)의 관제가 발포(發布)되었다. 초기부터 도사가 경찰서장을 겸하다가 1945년에는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의 전국(戰局)의 변천으로 4월에는 경찰서장이 분리되고 5월에는 제주도주재관(濟州島駐在官)과 보좌관(補佐官)의 2인이 그 상위(上位)에 부임되었다. 과거에는 도사는 경찰서장을 겸할뿐만 아니라 종묘장제주공장장(種苗場濟州工場長), 기타 사설기관으로 수산조합장(水產組合長), 해녀어업조합장(海女漁業組合長) 등 수십단체의 장을 겸하였다.

면명(面名)과 면사무소 소재지

제주주도(濟州主島)에 있는 12읍면중 다음의 3면을 제외한 9읍면은 면명(面名)과 읍면사무소 소재지명이 일치한다.

구좌면(舊左面) : 평대리(坪垈里)

대정면(大靜面) : 모슬포(募瑟浦)

안덕면(安德面) : 화순리(和順里)

신구면명(新舊面名)

제주면은 제주읍으로, 대정(大靜), 구좌(舊左), 추자(楸子)의 여러 면명(面名)은 종래대로 되고 기타는 모두 변경되었다. 더우기 정의면(旌義面)은 일변(一變)하여 정의를 표선면(表善面)에 넣었다.

新	舊
제주읍(濟州邑)	제주면(濟州面)
애월면(涯月面)	신우면(新右面)
한림면(翰林面)	구우면(舊右面)
대정면(大靜面)	대정면(大靜面)
안덕면(安德面)	중면(中面)
중문면(中文面)	좌면(左面)
서귀면(西歸面)	우면(右面)
남원면(南元面)	서중면(西中面)
표선면(表善面)	동중면(東中面)
성산면(城山面)	정의면(旌義面)
구좌면(舊左面)	구좌면(舊左面)
조천면(朝天面)	신좌면(新左面)
추자면(楸子面)	추자면(楸子面)

여러 관청(官廳)의 창설년(創設年)

제주도청(濟州島廳) : 그 전신(前身)은 고려 숙종왕시(肅宗王時) 1105년

경찰서 : 이태왕(李太王) 31년(1894년)(경무청)

지방법원 : 1906년(제주재판소)

형무지소(刑務支所) : 1921년

도립의원(道立醫院) : 1912년(慈惠醫院)

측후소(測候所) : 1923년

영림서(營林署) : 1921년(山林課 出張所)

수산제조품검사소(水産製造品檢査所) : 1918년(城山浦)→1921년(濟州)

전라남도종묘장제주도지장(全羅南道種苗場濟州島支場) : 권업모범장목포지장(勸業模範場木浦支場)의 출장소가 1912년에 개칭되었다.

부산세관제주출장소(釜山稅關濟州出張所) : 1922년

제주도경찰청(濟州道警察廳)

1946년 미군정(美軍政)하에서 제주도(濟州島)가 제주도(濟州道)로 승격(昇格)되어 남한(南韓) 8도가 9도로 된후 각도 경찰청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제일관구경찰청(第一管區警察廳) : 경기도(京畿道)

제이관구경찰청(第二管區警察廳) : 강원도(江原道)

제삼관구경찰청(第三管區警察廳) : 충청도(忠南道)

제사관구경찰청(第四管區警察廳) : 충북도(忠北道)

제오관구경찰청(第五管區警察廳) : 경북도(慶北道)

제육관구경찰청(第六管區警察廳) : 전북도(全北道)

제칠관구경찰청(第七管區警察廳) : 경남도(慶南道)

제팔관구경찰청(第八管區警察廳) : 전남도(全南道)

제주도경찰청(濟州島警察廳)

지방법원(地方法院)

1906년 제주재판소(濟州裁判所)

1910년 제주구재판소(濟州區裁判所)

1912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1945년 해방되자 지방법원으로 승격.

지세(地勢)와 행정구역(行政區域)

제주 주도(主島) 북반(北半)의 1읍 4면은 약 90개리를 포함하는데 대해서 남반(南半)의 7개면은 불과 70여개리를 포함한다. 이것은 한라산 정(漢拏山頂)이 남에 편재(偏在)하여 북면은 광대한 산록을 형성하고 남면은 급경사인 관계로 자연히 북반엔 소수의 대면(大面)이 형성되고 남반엔 다수의 소면(小面)이 형성된 것이다.

행정구역(行政區域)

제주도는 1945년 현재로 1읍 12면 167리이다. 그러나 추자면(楸子面)을 제(除)한 제주 주도(主島)는 1읍 11면 160개리이고 제주도란 흔히 이 주도(主島)를 의미하는 것이다.

21. 사회(社會)

가족제도(家族制度)

독립성이 강하여 대개는 장자(長子)라도 별거(別居)한다. 애정에는 다름이 없으나 육지사람으로 보면 이상한 감이 생긴다. 별거하니 자연히 고독한 노부(老婦)의 고생함을 흔히 목격할 수가 있다.

거지

거지 즉 동냥아치는 극히 드물다. 해산물이 많고 온난한 지방이여

서 최저한도의 생활은 이 환경이 보장하는 때문이다. 해에 따라 추자도 사람이 걸식하러 온다하여 걸인이라면 추자도 사람을 연상하는 형편이다. 거지를 남부어로는 ‘걸바시’ 혹은 ‘동영밭치’, 북부어로는 ‘동녕밭치’, 추자도서 온 거지는 ‘추자걸바시’ 혹은 ‘추제동녕밭치’라고 한다.

건축물(建築物)

많은 석재(石材)를 이용할 것이고 특히 바람에 유의할 것이다. 바람은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바람을 겸한 경우는 건축물의 벽을 상하게 한다. 대개 비는 누어서온다고 표현할 수 있는 형편이다. 문도 될수록은 돌저귀를 사용말고 밀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혼연령

16~20세 사이가 가장 많고 유복(裕福)한 사람은 조기(早期)에, 빈천(貧賤)한 사람은 늦게 결혼하는데 옛날 양반에는 8~9세의 아들을 18~19세의 처녀에 장가보낸 일이 있다. 대개는 부인이 5세쯤은 연장이고 부모 분위의 결혼이었다. 그러나 요새는 대개 여자가 연하로 된 것은 외래풍의 관계이고 출산상태 등으로 보면 추장(推獎)할만한 결혼 연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쯤이다.

서울의 제우회(濟友會)

제주도 출신은 어디를 가드라도 동향인이 모이면 제우회(濟友會)를 조직한다. 일본에서도 오사카(大阪)을 비롯하여 교토(京都), 고베(神戸), 도쿄(東京) 등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때까지 진출한 사람이 없다가 1945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 일본에 있던 제주도 출신의 적지않은 수가 서울에 이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주도 출신이기는 하지만 귀향할 의사는 없는 이들이고 역시 문화도시인 서울

에 모여드는 것도 필연이다. 1946년에 벌써 2,000명이나 되어 제우회도 조직되어있다.

경제상태(經濟狀態)

1935년도의 읍내의 일례를 보면 이입초과액(移入超過額) 38만 2천원에 대하여 일본 출가인(出稼人)으로부터의 송금액(送金額)이 33만 2천원이니 읍내의 경제는 조절되어 있다.

계(契)의 통계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6년)에 의하면, 부조(扶助)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17,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98,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4, 계 119이니 전남(全南) 총계 2,088의 1/18쯤 된다.

남소여다(男少女多)에 관한 고설(古說)

탐라사실(耽羅事實)에 의하면,

- ① 선승자(船乘者)가 많고 수난자(水難者)도 많은 관계라고.
- ② 도민도역(島民逃役)을 위하여 남자의 누적자(漏籍者)가 많다. 그러나 이 제2설은 실제의 수를 설명하는 자료가 못된다.

또 정의읍(旌義邑) 고지(古誌)의 풍속항에는,

- ③ 여다남소(女多男少), 속칭, 산악다자봉고운(山岳多雌峯故云)이라고 풍수설(風水說)을 기록했다. 즉 결첨원추형(缺尖圓錐形)의 화산이 많은 관계라고.

남소여다(男少女多)에 관한 속설(俗說)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933년)에 의하면 도내(島內) 박식자(博識者)의 말은 도녀(島女)는 남국생(南國生)으로 조숙(早熟)인데 결혼연령은 대개 남자보다 4~5년 내지 6~7년 연상이니 남자를 많이 낳는다고, 일부의 영양설(榮養說)로 조혼(早婚)하는 제주 도민에 해당한다고 볼 점도

없지 않지만 사실(事實)에 있어서는 출생은 남다(男多)이니 문제가 안되는 일이다.

노동가능(勞動可能)의 연령

나는 제주도에 있어서 청년기(青年期)를 16~40세, 중년기(中年期)를 41~55세로 보고 이 양기(兩期)를 노동가능기로 보았다.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가 노동가능연령을 남자는 15~55세, 여자는 15~45세로 가정한 것은 전 조선적으로 본 관계이다.

노동임금이 고가(高價)인 원인

- ① 순수(純粹)한 노동자가 태무(殆無).
- ② 소작농(小作農)이 대단히 적고 자작농이 대부분임.
- ③ 어업이 성(盛)함.
- ④ 일본에 출가자가 많음.

등의 원인으로 과잉노력이 적은 관계이다.

대성(大姓)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 있는 성은 90이고, 대성으로는 총수 50,534세대중, 김씨(金氏)가 12,137, 고씨(高氏)가 5,168, 이씨(李氏) 4,416, 강(姜)씨 3,365, 양씨(梁氏) 2,715, 오씨(吳氏) 2,178, 강씨(康氏) 2,164, 박씨(朴氏) 1,684 등의 8성이다.

오사카부하(大阪府下)와 제주인의 단체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4년)에 의하면, 단체명으로 분명한 것은 제주도우면서호리청년단회(濟州島右面西好里青年團會), 영주공제회(瀛洲共濟會), 조선인영주친목회(朝鮮人瀛洲親睦會) 등이 많은 단체명 중에서 발견된다.

도민(島民)의 경제

제주도의 생산고(生産高)는 농산물(農産物), 해산물(海産物), 공산물(工

產物), 축산물(畜產物), 임산물(林產物)의 순서로 도민의 생계는 농어(農漁)에 의존함을 알 수가 있다. 소작농은 극소하고 주위는 해면(海面)이고 기후는 온난하니 척박한 토지에 호부(豪富)는 없지마는 걸인은 전무하여 도민의 경제가 균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도민(島民)의 연령에 의한 구분

출산율(出產率)과 인구구성상태(人口構成狀態)로 보아 4기로 구분된다.

노년기 : 56 이상

중년기 : 41~55

청년기 : 16~40

유년기 : 15 이하

도로 수리(道路修理)

대개는 암반(岩盤) 상면(上面)에 살토(撒土)하는 것이 육지에서 소석(小石)을 살포(撒布)하는 것과 같아서 정반(正反)이다.

도적(盜賊)

자작자급(自作自給)되는 섬이니만큼 별로 없었고 약간이 있다면 보통 ‘육짓놈’이란 옛장사들의 작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도적이 생겨가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도선증(渡船證)의 판매

1927년 5월 17일 동아일보에 게재되고 또 조선총독부조사자료, 제 21집, 274~275쪽(1927년)에 전재(轉載)된 기사인데 생활고로 생긴 유리민(流離民)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서 제주도 당국자는 동년 4월 26일에 ‘제주도일본도항자조합(濟州島日本渡航者組合)’을 조직하고, 도항증(渡航證) 1매 1원씩에 판매하여 연수(年收) 1만 2천여원을 수입케 되었으므로 이 조합폐지 여론이 생겨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던 것이다.

동족(同族)집단수 50 이상의 성씨(姓氏)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전 조선의 57중 제주도 관계분은 제주고씨(高氏) 1성이 집단수 95로 가입(加入)되었다. 여기서도 제1위는 김해김씨(金海金氏)의 1,256이다. 그러니 제주를 본관(本貫)으로 한 성씨는 고씨의 세력이 제일 큰 것이 분명하다.

메이지말경(明治末頃)의 지가(地價)

해안지대의 밭은 1석(石) 즉 15두락(斗落)에 800~1,000양(兩), 목장 개간의 밭은 30~60양이었다.(이와나가 주우까(岩永重華) 저,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 1905년)

범죄(犯罪)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8년)에 의하면 1921~25년의 5개년간 범죄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제주도에에는 도박범(賭博犯)이 최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하다. 도별로 보면 황해도가 제1위 충남이 최하위이다. 외설(猥褻)·간음(姦淫)·중혼(重婚)은 의외로 적은데 이것으로 풍기(風紀)가 좋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부락(部落)

음료수 관계로 해안선에 연(沿)하여 분포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산간부락이라 해도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이 산간부락들이 인구의 변동이 많은 해안부락에 비하여 옛날부터 양반부락으로 되어 있다.

세대(世帶)

자식(子息)은 별거독립(別居獨立)시키는데 장자까지도 별세대로 된다. 대개 장자에겐 내동(內棟)을 주고 부모는 외동(外棟)에서 별거하는데 육지인이 외양(外樣)으로 볼 때는 동가옥(同家屋)에서 거주하는 것 같지만 전연 별세대이다. 역시 섬의 특성으로 도민의 독립성이 발달한

관계이다.

소작료(小作料)의 독특한 예

소작료는 대개는 육지에서와 같이 전답(田畓) 공히 절반(折半)한다. 그러나 지주(地主)가 소작인에게 특정한 밭을 지정하여 좁쌀을 파종시켰을 때는 그 전작(前作)인 보리의 소작료는 징수치 않고 좁쌀을 전납(全納)시키든지 혹은 2/3를 납입시킨다.

소작쟁의(小作爭議)

1924년도 전라남도 조사에 의하면 각군에 걸쳐 541건이 발생하였지만 제주도에만은 1건도 없었다. 제주도에도 지주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작농뿐이기 때문이다.

시일(市日)의 분류

진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는 장날을 13으로 분류했는데 제주도의 시장은 3개가 모두 제일류인 음력(陰曆)으로 5일마다 개시(開市)되는 부류에 속한다. 차류(此類)는 가장 보통형으로 전 조선 1,300여 시(市: 장)중의 1,177시가 여기 속한다.

어업조합(漁業組合)

명 칭	위 치	창설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성내삼도리	1920년
동 조합지부	각면 12개소	
월정리어업조합	월정리	1916년
추자도어업조합	추자도	1918년
서귀어업조합	서귀포	1925년

五圓짜리 지폐(紙幣)와 고구마 없는 집이 없다

1918년의 일이었다. 농산물은 풍수(豐收)하고 수산물의 가액(價額)은

등귀(騰貴)하였는데 이태왕(李太王) 붕어(崩御)로 백립(白笠)이 2~3개월에 17~18만원(萬圓)이나 이출되고 도내의 민간경제는 최고조에 달하여 채목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다.

그해에는 토지값은 것도 1914년경에 100평 15원하던 것이 100원으로 등귀하였었다.

외주자(外住者)

대부분은 출가인이고 유년기의 그것은 그 부수자(附隨者)요, 유학생(留學生)은 약간명 뿐이다.

인구의 조밀도와 농업의 집약도

양자(兩者)는 병행(並行)하여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표고(標高)에 지배받는다. 해안지대에는 2모작이 안되는 데가 없고 중간지대에 가면 2년 1작하는 토지도 적지 않다. 산간지대에 가면 5년 1작, 10년 1작하는 토지가 우마(牛馬)의 방목지로 겸용되고 산악지대에 가면 순수한 목야 내지 삼림이다.

인구 1만인에 대한 5개년간의 범죄 건수

1921~25년의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관내에는(팔호 내에는 전남군도(全南群島) 평균)

문서위조(文書偽造)	3.61(6.89)
도박(賭博)	20.52(28.40)
외설간음중혼(猥褻姦淫重婚)	2.44(3.26)
살인(殺人)	0.29(0.77)
상해(傷害)	40.84(31.42)
강도(強盜)	0.15(2.53)
절도(竊盜)	35.28(74.61)
사기(詐欺)	19.79(41.66)

공갈(恐喝) 1.66(2.06)

횡령(橫領) 11.45(22.02)

이상 거의 전부가 제주분(分)은 전남 평균보다 적지만 상해죄만은 반대로 많다. 뿐만 아니라 상해죄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에 속한다.

1909년 현재의 시장

당시 한국정부 탁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 조사에 의하면, 제주군 주성시장(州城市場) 1개가 등록되었다. 주요 거래품은 탕건(宕巾), 백미(白米), 양태(涼太), 망건(網巾), 입(笠), 모자(帽子), 당목(唐木), 옥양목(玉洋木), 어(魚), 양대포(洋大布), 마포(麻布), 석유(石油), 성냥, 염(鹽), 청목(靑木), 금속제품(金屬製品), 석(蓆), 우마(牛馬) 등이고 화물(貨物)의 집산(集散) 지역은 제주, 전 조선 제처(諸處), 하관(下關), 나가사키(長崎) 등이었다.

1922년말 현재의 시장

조선의 총시장수는 1,200여인데 그중 전라남도의 분(分)은 117, 제주도의 것은 주성(州城), 삼양(三陽), 조천(朝天)의 3시(市)였는데 3개소가 모두 1호 공설(公設)의 것이었고, 그중 최대의 것은 주성시(州城市; 邑內)였다.

1926년경의 지가(地價)

아이다 주우키치(會田重吉)에 의하면 반당(反當) 해안지대는 60원 내외, 중간지대는 3원 내외, 산간지대는 60전(錢)~1원 20전이라고 하니, 해안지대는 고가(高價)여서 여지가 없고 중간, 산간지대에는 토지에 투자해도 좋겠다고 했다.

일주도로(一周道路)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본래는 제주도내 여러 도로와 같이 돌 때문에 인마(人馬)의 통행도 불편하였고 차륜(車輪)의 통행은 거의 불가능

하였다. 그런 가운데 1912~13년에 걸쳐 도민에게 부역(賦役)을 과하여 개수하고는 약간 면목을 고쳤지만 교량(橋梁)이 없는 관계로 아직 불편하였다. 그후 군(郡)당국은 경찰서와 협력하여 성내시구(城內市區) 개정(改正)을 단행하는 동시에 1914년 3월에 기공하여 1917년까지 3개년의 계속사업으로 일주도로를 완성하였고 그후도 교량을 추진(追建)하여 3등(等) 도로의 국도로 드디어 완성한 것인데 지금은 훌륭한 ‘드라이브 웨이’이다.

자(尺)

제주도의 1척(尺)은 육지의 1척보다 곡척(曲尺) 2촌(寸)쯤 짜르다.

제주도와 오사카(大阪)

1922년부터 오사카·제주간 직접 항로가 개시되어 도항자가 격증하여 1940년경에는 6만 3천 이상. 오사카 재주(在住) 조선인 총수 20만인중 3할 2분(分)에 해당한다. 1939년도 출가인(出稼人) 송금 및 지참금(持參金)이 1,656,329원(인원 52,798명)이고 이 돈과 같이 오사카 사투리(大阪辯)가 수입되었다.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1912년에 형성되었지만 본격적 활동은 1920년에 설립 인가를 얻은 후이다. 전국산업경제기관중 독특한 존재이고 해녀는 경남을 비롯하여 전조선 연안에 출연(出演)할뿐 아니라 일본 전국은 물론이고, 노영(露嶺)에서 중국 연해까지 활동무대로 하고 있었다. 동조합(同組合)의 시설사업은 ① 공동판매사업, ② 조난구출사업, ③ 조합원 숙사(宿舍).

제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姓)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김(金), 박(朴), 정(鄭), 최(崔), 한(韓), 오(吳), 안(安), 허(許), 임(林), 양(梁), 우(禹), 나(羅), 노(盧), 변(卞), 백(白), 전(全), 강(康), 고(高), 현(玄), 하(河), 지(池), 진(陳), 주

(朱), 반(潘), 마(馬), 표(表), 피(皮), 부(夫), 천(千), 양(良), 구(裘) 등 수십성이 있고, 원나라 귀화인(歸化人)으로 이(李), 정(鄭), 조(趙), 강(姜), 장(張), 송(宋), 주(周), 진(秦), 석(石), 초(肖) 등 10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좌(左)씨가 있다.

족보(族譜)간행으로 본 제주본관의 성

1924~33년 10년간의 족보간행의 통계를 보면, 총계 1,953회 중 수위(首位)가 김해김씨의 125, 제주양씨의 11과 제주고씨의 8은 중위(中位)나 되었고 기타의 제주본관의 성은 없다. 그러니 양, 고 양(兩)씨가 성(盛)해 있고 부(夫) 기타의 성씨는 빈약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주요시장(主要市場)

1개년 2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시장은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1926년)에 의하면 145개이고(1923년 현재) 그중 전라남도분(分)은 6개인데 제주도에서 제일 큰 주성(州城)시장도 여기는 섞이지 못한다.

지하수와 환거임해취락(環裾臨海聚落)

해안으로부터 약 4km 사이에 대개 부락이 위치되고 전부가 집촌(集村)이다. 이 부락의 위치 결정과 집촌 양식은 전혀 지하수에 관계되어 있다.

최초의 해녀의 출가(出稼)

1892년에 경남 울산(蔚山), 기장(機張) 양군(兩郡) 연해지방(沿海地方)에 한하여 출어하였는데, 조선어선 1척에 해녀 8~12인, 조종자(縱者), 선원 기타의 남자 5~6인이 승선하고, 부산을 경과하여 울산지방에 도착하였고 체류 약 6개월만에 귀도(歸途)에 올랐다.

축첩(蓄妾)

축첩이라도 육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첩으로 간대도 호강을 원해서 간다는 것보다 여다(女多)현상의 결과에 따름이라고 보는 것이

지당하다. 1905년 발행의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를 보면, 특이한 것은 도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출생되는 것으로 도처에 여자의 수는 남자의 수를 초과하고 걸개자(乞丐者)라도 처첩병축(妻妾並蓄)함에 있어서는 일기(一畝)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의 표현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출생된다는 근거는 없다.

출가인(出稼人)

남자가 4/5를 점하고 그 대부분이 오사카(大阪) 방면에서 활약하여 제주도의 지구(地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일부가 도쿄 방면에 가 있다. 여자는 1/5을 점하고 해녀로 전 일본에까지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또 연령으로보면 대부분이 청년기 및 중년기이고 청년기는 극성(極盛)하고 중년기에는 조금씩 귀향하며 노년기에 들기전에 거의 전부가 귀향한다.

해녀어업조합의 목적

1920년에 창설되었고

- ① 해조(海藻) 번식 보호,
- ② 해녀의 동반인(同伴人) 및 선원의 제폐(除弊),
- ③ 해녀의 풍기(風紀) 개선,
- ④ 해녀의 구제(救濟) 보호,
- ⑤ 객주(客主)의 박멸(撲滅) 등인데 더우기 악질 객주는 암(癌)이므로 박멸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1933년 현재 부산(釜山) 목도(牧島)에 있는 객주의 수는 60여명이고 그중 40여명이 본도 출신이다. 이 기관은 해녀조합이라고 속칭되고 제주도 독특한 것이다.

해녀와 객주(客主)

객주란 제주도 출신의 남자로 해녀나 무역상의 사정에 통(通)하고 해녀를 모집하여 출어지로 안내할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처분까지도

해주는 1종의 중개업자인데 1915년경에는 이들의 수가 16명이었고 부산 절영도(絶影島)에 주거를 가졌었다. 결국 객주가 중개가 되어 해녀는 무역상으로부터 그 전동(前冬)에 전차(前借)를 하는 것인데 이같이 차금(借金)치 않고 독립 출가하는 해녀도 많다.

해방후의 제주도 동난사(動亂史)

1947년 3·1 사건

1948년 2·7 사건

1948년 4·3사건(최대)

1948년 4월 27일 경비대 전투 개시(警備隊戰鬥開始)

1949년 3월 30일 현재의 피해상황 : 400부락중 295부락 전소(全燒), 13,250호 소실(燒失).

1949년 4월 23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소탕전(掃蕩戰) 완전 종결을 선포.

도지사(道知事)가 발표한 피해상황 : 사자(死者) 약 2만, 주택은 117,000호중 소실가옥이 35,500, 가축 46,000필, 전도민의 1년간의 생업 휴지(休止), 5천 해녀의 휴업, 20여 개소의 대소공장이 휴업, 농토의 황폐.

1949년 4월 29일 제주도지구 19~26일간의 전과(戰果) 발표.

혼비(婚費)와 장비(葬費)

양자(兩者)가 근사하지만 오히려 장비(葬費)가 좀 더 많을 것이다. 양자가 다 중대사로 전력을 다 하는 것은 육지에서와 같지만 역시 섬이니만큼 소규모이다.

22. 인구 · 특수부락

각 군도별(郡島別) 동족부락(同族部落) 분포상황

1933년 현재로 다음과 같다.

전 조선 총계	14,672
전남 합계(최다도)	1,990
제주도	283
최소도(最少道)(충북)	507
최다군(最多郡)(安東)	183
최소군(最少郡)(加平, 寧遠)	12

이 숫자로만도 제주도의 지방색을 알 수가 있겠다.

남다동리(男多洞里)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제주도 167개리중 추자면의 5개리는 전부요 기타의 남다여소의 동리는 다음과 같다.

제주 : 월평(月坪), 영평(寧坪), 노형(老衡)

애월(涯月) : 어음(於音)

한림(翰林) : 상대(上大), 금악(今岳), 신창(新昌), 판포(板浦), 월령(月令),
금릉(金陵), 옹포(瓮浦).

대정(大靜) : 인성(仁城), 보성(保城), 안성(安城), 구억(九億), 동일(東日),
일과(日果), 영낙(永樂), 무릉(武陵), 신도(新桃), 신평(新坪).

안덕(安德) : 광평(廣坪)

중문(中文) : 영남(瀛南), 상예(上猊), 하예(下猊)

서귀(西歸) : 보목(甫木), 법환(法還)

성산(城山) : 시흥(始興)

조천(朝天) : 교래(橋來)

등 9면 29개리는 남다여소의 동리로 제주도의 자태(姿態)인 남소여다의 풍이 아니보이는 동리이다. 더우기 한림면 금능리는 남 659 : 여 253이니 그때에 무슨 공사나 기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외의 남원(南元), 표선(表善), 구좌(舊左)의 3면은 면전체로나 각동리 개별적으로나 남소여다로 제주도형이다.

남다면(男多面)

추자면(楸子面)만은 면 전체로나 5개리 개별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남다여소요, 한림(翰林), 대정(大靜) 양면(兩面)은 면으로 남다여소이다. 추자면은 행정상 제주도에 속하여 있을 뿐이고 역사적으로나 자연과 인문 아무점으로 보든지 제주도같지는 않은 곳이다. 한림, 대정 양면은 제주도 서단(西端)에 위치되어 풍토상으로 보아 가장 제주도같지 않은 곳이다. 그 반대로 면 전체로나 동리 개별적으로나 남소여다의 곳은 남원(南元), 표선(表善), 구좌(舊左)의 3면으로 제주도형인데 이 3개면은 제주도 동단(東端)에 위치되어 있고 풍토상으로도 제주형이다.

노인과 청년이 많은 부락

노인이 많은 부락 : 신하효리(新下孝里), 성읍리(城邑里), 토산리(兔山里) 등.
청년이 많은 부락 : 명월리(明月里), 화순리(和順里) 등.

오사카부하(大阪府下) 재주(在住) 조선인

1923년 4월 말일 현재로 오사카부(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자 15,222명, 여자 2,969명, 계 18,191명, 동년말에는 2만 이상에 달했다. 그중 남자 1,000에 대한 본적지별을 보면 제주도 609, 전남 192, 경남 85, 경북 55, 경기 18, 충남 17, 전북 9, 강원 4, 평남, 충북, 함남이 각 3명씩, 함북 2이고 평북 및 황해는 1명도 없다. 즉 제주도가 6할여, 전남이 1할 9분이고 북상함에 따라 점감(漸減)한다.

도별호구(道別戶口)의 소장(消長)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여 이조 각 시대의 도별 호구를 보면, 제주목(濟州牧)으로 경(京) 5부(部)와 함께 8도(道)1부(部)1목(牧)의 호구가 헌종(憲宗) 3년(1837년)과 이태왕(李太王) 원년(1864년)의 2회나 기재되었다. 즉,

	1837년	1864년
호구	10,799	11,887
인구	75,858	85,778
인구/호구	7.02	7.22

동족부락(同族部落)

1부락 20세대 이상의 집단을 만든 곳이 243부락인데 동족의 본관(本貫)을 보면, 제주고씨(濟州高氏)가 42부락, 제주양씨(濟州梁氏)가 19, 전주이씨(全州李氏) 16, 진주강씨(晉州姜氏) 및 군위오씨(軍威吳氏)가 각 15, 광산김씨(光山金氏) 13, 곡산강씨(谷山康氏) 12, 연주현씨(延州玄氏) 11, 김해김씨(金海金氏) 및 경주김씨(慶州金氏)의 각 10부락의 순서이다.

동족부락(同族部落)이 많은 읍면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제주도분(分)만은 다음과 같다.

읍면명	집단수
제주읍(濟州邑)	22
구우면(舊右面)	89
중면(中面)	11
우면(右面)	49

동중면(東中面)	32
정의면(旌義面)	15
구좌면(舊左面)	35

이 수는 전선적(全鮮的)으로 단연 많은 수인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관계이든지 근대경제 및 교통문화의 영향이 적어서 이 동쪽부락 형태가 아직 붕괴 과정에 아니들어간 까닭이다. 더우기 구좌면은 심하다.

면별(面別) 인구밀도(人口密度)

1925년 10월 1일 현재로 최저로는 1평방리 800~1000인의 남원면(南元面) 및 표선면(表善面)이요, 최고로는 2,500~2,800인의 한림면(翰林面)과 5,000~10,000인의 추자면(楸子面)이다.

동족집단(同族集團) 분포상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1933년 현재로 다음과 같다.

	제주고씨(濟州高氏)	제주부씨(濟州夫氏)
경기	7	-
충북	-	-
충남	-	-
전북	13	-
전남	49	7
경북	-	-
경남	2	-
황해	5	-
평남	3	-
평북	2	-
강원	-	-
합남	13	-
합북	1	-
계	95	7

이 통계로 보면 제주고씨가 함남(咸南)에 많이 진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범부락(模範部落)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3년)에 의하면, 모범부락은 1930년 현재로 전 조선에 257, 전남은 33, 그중 제주도엔 다음의 3개 부락이 있다고 한다.

부락명	중심인물	모범될 점
서귀면 서호리(西好里)	김익규(金益奎)	식상양잠(植桑養蠶), 저축(貯蓄)
한림면 금성리(錦城里)	김도원(金道元)	민풍(民風) 개선, 농사 개량
안덕면 창천리(倉川里)	오만홍(吳萬弘)	민풍, 농사, 양계 보급

모범부락과 우량부락

모범부락으로는 서귀면 서호리를 들 수가 있고, 특기할 만한 것은 1924년에 조직된 잠상조합(蠶桑組合)이 중심이 되어 부락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우량부락(優良部落)으로는 한림면(翰林面) 금성리(錦城里)를 들 수가 있고 특기할만한 것은 1928년에 조직된 권농공제조합(勸農共濟組合)이 중심이 되어 부락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성비(性比)

남 : 여

- ① 출산 자녀 52 : 48
- ② 도민(島民)(외주자 포함) 48 : 52
- ③ 현주자(現住者)(외주자 제(除)) 45 : 55
- ④ 외외주자(外外住者)(출가인 · 유학생) 87.5 : 12.5
- ⑤ 16세 이상의 현주자 40 : 60

① ②는 안정성(安定性)이 있는 숫자요 ③ ④ ⑤는 세상(世相)에 지배되는 숫자이다.

쇠퇴(衰廢)해가는 부락

법환리(法還里), 함덕리(咸德里), 성읍리(城邑里)는 여세대주(女世帶主)가 많아서 분명히 쇠퇴해가는 부락들임을 알겠다. 그것은 근린(近隣)에 발달해가는 부락이 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서귀포, 조천리, 표선리 등이 있는 관계다.

시가지(市街地)의 성장(生長)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1910년말에는 인구 3천 이상의 시가지는 1개소도 없던 것이 1925년말에는 1만 미만의 제주와 5천 미만 3천 이상의 화북(禾北), 조천(朝天), 함덕(咸德), 김녕(金寧)의 4개리를 헤아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 전 조선의 3천인 이상의 시가지의 총계는 171개이다.

여다부락(女多部落)

제주도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여다(女多)의 부락은 어디어디일까. 유년기(15세 이하)를 제외한 청년기 이상의 현주자의 성비(性比)를 보고 가장 차가 많은 부락을 들면 다음과 같다.

남 : 여

법환리(法還里) 36 : 64

함덕리(咸德里) 37 : 63

용수리(龍水里) 37 : 63

여다지방(女多地方)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여자 100에 대하여 남자가 90대의 군·도(郡 島)는 12이고, 80대는 단 1개이다. 이 80대의 군·도란 것이 제주도이고 86.9이다. 또 80대의 면은 전조선에 12, 70대의 면은 1인데 그중 80대의 8면과 70대의 1면이 제주도에 속하였다. 실로 제주도 신좌면(新左面)은 남자 100에 대하여 여자 79.5로 조

선의 기록이다.

여다현상(女多現象)

- ① 출산아(出産兒)는 남>여이지만 그 이상 고을의 남>여로 남자가 죽고,
- ② 남>여의 출가인(出稼人)과,
- ③ 여자가 활동적이니 육지와는 이풍(異風)이므로 사람들의 눈에 띄우는 등의 관계로 이 여다현상(女多現象)이 나타난다. 옛날부터 제주 도서는 승(僧)이 절 옆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여다현상과 상 관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장래 육지의 문화가 농후히 이입될 때는 희미해질 운명을 가진 현상이다.

50호 이상의 저명한 동족부락(同族部落)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1930년 현재로 전 조선 1,685부락중 제주도분(分)으로는 남원면(南元面) 신례리(新禮里) 1부락만 끼워있다. 동부락이 발생한 것은 300년전, 동족 성씨는 제주양씨(濟州 梁氏), 동족호수 145, 인구 789, 동족외 호수 113, 인구 660, 부락총호 수 258호이다.

이조(李朝) 현종(顯宗) 13년(1672년)의 호구통계(戶口統計)

이조실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한성부(漢城府)의 식년(式年) 호구(戶口)로 계상(計上)된 것이다.

	호	남		여
경중(京中) 5部	24,800	98,713	>	93,441
경외(京外) 도합(都合)	1,176,917	2,541,552	>	2,154,059
제주 3읍	8,490	12,557	<	17,021

이때도 제주도는 여다남소로, 또 여자에는 누적자(漏籍者)가 심다(甚多)하다고 부기(附記)되어있다.

이조말엽(李朝末葉)의 제주도 호수

이태왕(李太王) 초기에 편찬된 ‘여재촬요(輿載撮要)’에 의하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계
7,200	1,600	1,000	9,800

즉 근 만호(萬戶)였다.

이조 세종시대의 제주도의 호구

세종실록에 의하여 발기(拔記)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계
호	527	685	1,357	2,569
구	8,324	2,073	8,500	18,897
구/호	15.8	3.0	6.3	7.4

이 실록의 자료로 산출한 1호당 인구에는, 구분된 3개처의 것이 피차 너무 차가 많은데 놀랄 수밖에 없다. 제주 부근만은 정배(定配)은 사람도 많아 육지류(陸地流)로 대가족이 특히 많았는지?

이조 정조(正祖) 13년(1789년)의 제주도 호구

정조시대(正祖時代)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여 발기(拔記)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계	구/호
6,700	17,052	22,710	39,762	5.9

이 숫자는 비교적 신뢰할만 하다고 하나 남자수가 몹시 적은 것은 이조식(李朝式)이다.

이조 순조(純祖) 16년(1816년)의 호구 총수

순종실록(純宗實錄), 일성록(日省錄)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기초로 한 조선사(1934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한성부오부도원(漢城府五部都元)	45,748	102,126	106,056
팔도도원(八道都元)	1,499,945	3,132,200	3,193,191
오도(五都) 및 팔도도원(八道都元)	1,545,693	3,234,326	3,299,247
제주삼읍도원(濟州三邑都元)	10,305	27,370	34,425

전체로 여다남소이지만 제주도분(分)만은 각별하다.

이조 헌종(憲宗) 2년(1836년)의 호구총수(戶口總數)

헌종실록(憲宗實錄)과 일성록(日省錄)을 기초로 한 조선사(朝鮮史·1935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오부(五部) 및 팔도도원(八道都元)	1,559,651	3,272,626	3,265,581
제주삼읍도원(濟州三邑都元)	15,760	35,953	39,167

역시 제주도에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조 헌종(憲宗) 3년(1837년)의 호구총수(戶口總數)

헌종실록과 일성록(日省錄)을 기초로 한 조선사(1935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오부(五部) 및 팔도도원(八道都元)	1,581,162	3,325,032	3,307,609
제주삼읍도원(濟州三邑都元)	10,789	35,194	40,737

역시 제주도에는 여자가 훨씬 많다.

이조 철종(哲宗) 원년(1859년)의 제주호구

철종실록과 일성록을 기초로 한 조선사(1936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11,124	37,771	42,139

역시 여(女)가 단연 많다.

이조 철종 14년(1863년)의 제주호구

일성록과 승정원개수일기(承政院改修日記)를 기초로 한 조선사(1936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	남	여
7,258	23,962	25,814

이태왕(李太王) 연간(1864~1877년)의 호구

일성록을 기초로 한 조선사(1938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	호	남	여
1864	11,696	42,005	44,627
1868	12,086	43,342	44,079
1874	12,169	39,948	47,935
1876	12,129	40,079	48,122
1877	12,250	38,238	50,009

인구구성도(人口構成圖)

제주도 전체도(全體圖)나 각부락도가 다 군함형(軍艦型)의 그림으로 된다. 그것은 가족 총출(總出)의 출가인(出稼人) 즉 이주자로 볼 사람이 많은 관계다. 더우기 법환리(法還里), 신하효리(新下孝里), 함덕리(咸德里), 성읍리(城邑里), 대정(大靜), 토산리(兎山里) 등은 이 이출자(移出者)가 많은 부락으로 보인다.

인구구성상의 특색

	남	여	여 과잉
1925년 국세(國勢) 조사	95,537	109,757	14,320
1930년 국세(國勢) 조사	92,206	112,111	15,905
성비(性比)	100	116.5	16.5%
출산비(1922~31의 10년 평균)	100	93.7	
사망률(1922~31의 10년 평균)	100	82.2	

요컨대 출산, 사망이 모두 여자는 적고 절대수는 여자가 많다.

인구 구성에 특이점 있는 부락

연령에 의한 구성도를 작성하면 구좌면(舊左面) 상도리(上道里)와 함림면(翰林面) 저지리(楮旨里)만은 특이하다. 즉 1945년 현재로 상도리에는 26~30세 계층이, 저지리에는 41~45세 계층이 각각 특별히 적은 것이다. 단순히 이주 문제만으로도 해석키 어렵고 과거의 맹렬한 소아의 유행병과 관련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인구밀도(人口密度)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5년)에 의하면, 도시(都市), 평야(平野), 저명도서(著名島嶼), 연해지방, 산간지대의 순으로 되었다. 그중 저명한 도서(島嶼)의 9개를 비교하여 밀도순으로 보면 남해(南海), 강화(江華), 거제(巨濟), 완(莞), 울릉(鬱陵), 진(珍), 제주와 신미(身彌), 안면(安眠)의 순으로 제주도의 인구밀도는 저명도서 중에선 하위(下位)다.

인구의 자연증가율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1개년 인구 1,000에 대하여 22인 이상의 지방은 전 조선에 30개소, 10인 이하의 지방은 37개소인데, 제주도는 그 중간층에 속한다. 제주도의 증가율은 11~21인씩 매년 증가하는 셈이 된다고. 최고(最高)의 군(郡)은 박천군(博川郡)의

33.33, 최저(最低)의 군(郡)은 고창군(高敞郡)의 0.65이고, 인천(仁川), 원산(元山), 양부(兩府)는 오히려 감소(減少)하는 도시이다.

1915년경의 출가해녀(出稼海女)의 수

약 2,500명인데 출가지별로는 경남에 1,700, 전남 다도해 방면에 300, 기타에 500이고, 그 출신지로는 우도의 약 400명을 필두로 종달리(終達里), 행원리(杏源里), 법환리(法還里), 위미리(爲美里) 등의 각 약 100명씩과 기타이다.

1927년의 외국인 집단지

제주에 일본인은 300~500명, 중국인은 20~50명이 있었다.

1946년 8월 25일 현재의 인구

보건후생부(保健厚生部) 발표로 1946년 12월 18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데 의하면 다음의 숫자와 같다. 즉 38선 이남은 전체로 약 2천만 중 약간 남다(男多)인데 제주도 인구는 30만 미만으로 여다(女多)이다.

	남	여	계
제주도(濟州道)	126,679	146,469	276,148
38선 이남 전부	9,791,707	9,577,563	19,369,270

1947년도 남한인구 개수(概數)

지역	남	여	총수
서울시	612,559	566,392	1,178,951
경기	1,285,643	1,244,091	2,529,734
경북(최다도)	1,651,649	1,593,467	3,245,116
강원(최소도)	530,983	477,918	1,008,901
제주	112,703	120,742	233,445
기타	-	-	-
총계	9,298,966	8,817,321	18,116,287

1947년도 남한의 추정인구

지 역	남	여	총 수
서울시	663,687	648,822	1,312,509
경기	1,303,795	1,258,003	2,561,798
경남(최다도)	1,634,489	1,610,551	3,245,040
충북(최소도)	575,815	554,786	1,130,601
제주	129,562	146,337	275,899
기타	-	-	-
총계	10,053,752	9,832,482	19,886,234

1면 100세대 이상의 동족 거주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에 의하면 1933년 현재로 다음과 같다.

김해김씨(金海金氏) : 제주읍(濟州邑), 신좌면(新左面)

경주김씨(慶州金氏) : 우면(右面), 동중면(東中面)

광산김씨(光山金氏) : 제주읍(濟州邑), 정의면(旌義面), 구좌면(舊左面)

전주이씨(全州李氏) : 구우면(舊右面)

경주이씨(慶州李氏) : 구우면(舊右面)

고부이씨(古阜李氏) : 대정면(大靜面)

밀양박씨(密陽朴氏) : 구우면(舊右面)

동래정씨(東萊鄭氏) : 정의면(旌義面)

진주강씨(晉州姜氏) : 신우면(新右面), 구우면(舊右面), 좌면(左面)

인동장씨(仁同張氏) : 구우면(舊右面)

청주한씨(淸州韓氏) : 우면(右面), 구좌면(舊左面)

군위오씨(軍威吳氏) : 우면(右面), 정의면(旌義面), 구좌면(舊左面)

남양홍씨(南陽洪氏) : 구좌면(舊左面)

제주고씨(濟州高氏) : 제주읍(濟州邑), 구우면(舊右面), 구좌면(舊左面)

제주양씨(濟州梁氏) : 구우면(舊右面), 서중면(西中面)

양천허씨(陽川許氏) : 우면(右面)

곡산강씨(谷山康氏) : 동중면(東中面), 정의면(旌義面), 구좌면(舊左面)

신천강씨(信川康氏) : 우면(右面)

연주현씨(延州玄氏) : 제주읍(濟州邑), 우면(右面)

제주부씨(濟州夫氏) : 구좌면(舊左面)

이와같이 많은 것은 단지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선적(全鮮的)인 것인데 이것은 봉건제도(封建制度)가 없는 대신에 지방의 세력이 지방호족(地方豪族)의 수중에 있었고 경제조직이 복잡하지 않아서 이 형태가 파괴되지 않은 관계였다.

1호당 가족수

평균 5인이고 출가인에 관계안된 집은 거의 없다. 약간의 숫자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주자	외주자	계
평균	4.9	0.5	5.4
최다부락			
대정	6.3	0.5	6.8
오라리	5.5	0.4	5.9
교래리	5.5	0.2	5.7
용수리	5.3	0.5	5.8
최소부락			
성읍리	4.4	0.3	4.7
저지리	4.5	0.4	4.9
토평리	4.6	0.2	4.8

1호당 인구의 소장(消長)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자료로 계산하여 최근의 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837년	1864년	1945년
제주도(濟州島)	7.02	7.22	5.40
전조선(全朝鮮)	4.21	4.01	?

이 숫자를 보면 이조시대의 호적은 국민의 신고를 기초로 한 것이니 징병을 피하고 조공부역(租貢賦役)을 면할려고 허위 신고한 것이 많고 행정사무의 불철저로 누적(漏籍)된 것이 많고 또 지방관리가 사리(私利)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허위 신고한 것도 많으니 믿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것만은 소지역이니 만큼 철저히 되었을 것으로 믿을만한 숫자일 것이다. 전(前)세기중의 제주도의 1호당 인구는 7인강(強)이니 제주도에서 소세대를 많이 분리시킴은 최근에 생긴 현상일는지?

일본으로 출가한 도민(島民)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9년)에 의하면 1926년말의 제주도민의 일본출가자수는 23,584인인데 그중 남자가 13,600, 여자가 9,984이다. 출가처는 일본 한신(阪神) 지방이 주고 대부분은 노동자이다. 출가인 으로부터 제주도에 송금한 액수는 1개년 남자는 176,900원, 여자는 70,899원 계 237,799원이었다.

일본 재주(在住) 조선인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오사카부(大阪府)의 3만여가 제1위, 후쿠오카(福岡), 도쿄(東京)의 1만여, 다음으로 아이치(愛知), 효고(兵庫), 교토(京都), 가나가와(神奈川),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홋카이도(北海道)의 순이다. 그 조선인의 원적지(原籍地)를 보면 전남,

그중에서도 제주도, 경남, 경북 출신이 많고, 경기, 전북, 충남, 충북의 순이다. 그러니 오사카의 제주인의 집단부락이란 유명한 것이다.

저명(著名)한 동족부락(同族部落)

조선총독부조사월보(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5권 제1호(1934년)에 의하면, 제주도분(分)으로는 서중면(西中面) 신례리(新禮里) 1개 부락이 실렸을 뿐으로 동족 본관 성씨는 제주양씨(濟州梁氏), 동족호수(同族戶數)는 145, 동족외호수(同族外戶數)는 113이다. 이것은 쥬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사에 의한 것이고 1929년 현재로 100호 이상의 동족집단부락 124집단 중의 1이니 가장 저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남(全南)의 남녀성비

1930년 10월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남다지방은 여자 100에 대하여 남자가 목포 120, 영광(靈光) 106, 장성(長城)·여수(麗水) 104.

여다지방은 제주도 85, 완도(莞島)·고흥(高興) 98, 진도(珍島)·강진(康津)·무안(務安) 99 등이다.

대개 고밀도의 지방에 남다고, 밀도저의 지방엔 여다이다. 이것은 인구수용력이 큰 지방에는 생산력이 우수한 남자의 수요가 큰 탓이다.

전남의 동족집단중 최다의 성씨(姓氏)

- 김해김씨(金海金氏) 221부락
- 밀양박씨(密陽朴氏) 123 "
- 전주이씨(全州李氏) 105 "
- 광산김씨(光山金氏) 76 "
- 진주강씨(晉州姜氏) 50 "
- 제주고씨(濟州高氏) 49 "
- 경주이씨(慶州李氏) 46 "

남평문씨(南平文氏) 43 "

제주도의 인구밀도

1925년 10월 1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1평방리 평균 인구가 1,676으로 도서(島嶼) 중에서는 하위이다. 도서에서 제1위는 남해도(南海島)의 3,378인, 저명 도서(島嶼) 중에서 말위(末位)는 백령도(白翎島)의 1,468인이다. 제주도가 하위에 속하는 것은 그 생활 적소(適所)가 해안에 국한된 까닭이다.

제주도통계

대한민국공보처통계국(大韓民國公報處統計局) 발행의 통계월보(統計月報; 1949년)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어서 ① 1세 미만아의 최저의 사망률, ② 인구자연감소, ③ 사산(死産)의 전무(全無), ④ 출생률의 최저, ⑤ 사망률의 최저 등 모두 신뢰할 수 없는 통계들이다.

제주도 호구의 변천

	호	구	호/구
세종시대	2,569	18,897	7.4
정조년(1789)	6,700	39,762	5.9
헌종 3년(1837)	10,799	75,858	7.0
이태왕원년(1864)	11,887	85,778	7.0

제주인의 오사카(大阪) 도항자(渡航者)

1934년중의 조선에서 오사카에 도착한 조선인 21,989인중 20,366인이 제주인이요 오사카에서 조선으로 발항(發航)한 조선인 17,664인중 15,992인은 제주인으로 그 비례가 절대다수이다.

조선인의 성비(性比)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2년)에 의하면 男 : 女 = 100 : 97이고 대체

로 전 조선 각지가 다 남>여이지만 예외로 개성(開城) 부근, 제주도 및 남조선(南朝鮮) 연안지방서는 남<여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풍습과 민도(民度)를 생각할 때 100 : 97의 숫자를 그대로 신용키는 어렵다.

출산율(出產率)

제주도의 완전한 남자는 일생에 6.19인의 자녀를 생산하니 상당히 많은 수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부락은 함덕리(咸德里)이고, 의귀리(衣貴里), 저지리(楮旨里), 상도리(上道里), 용수리(龍水里), 토평리(吐坪里) 등의 순이 된다.

출산자녀의 성비

	남 : 여
평균	52 : 48
남다여소의 부락	
저지리	54 : 46
함덕리, 상도리, 성읍리, 오라리	53 : 47
남소여다의 부락	
의귀리	48.5 : 51.5
용수리	49.5 : 50.5

통어부락(通漁部落)

어업기절(漁業期節)에는 활황(活況)을 나타내고 외지로부터 많은 어업자 및 상인이 집중하는 부락인데 이런 부락은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3년)에 의하면 제주 본도로는 성산포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양도(飛揚島)나 모슬포(慕瑟浦)도 분명히 통어부락에 속한다. 젠쇼의 저서는 분명히 부분적으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

화전민(火田民)통계

임근주(林根周; 1932년)에 의하면,

	영림서별	호수	면적(町)
최다	江 界	8,089	28,466
	咸 興	9,177	15,344
최소	제주도	21	17
계	(19개서)	75,735	133,863

23. 위생(衛生)

고령자(高齡者)

81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균 주민의 1.5%가 있고 부락에 따라서 0.7~2.3%의 동요(動搖)가 있다. 사망률이 낮은 여자에게 장수자(長壽者)가 단연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사망률이 높은 제주도에 비교적 고령자가 많은 원인은 무엇일까?

- ① 격렬한 자연도태의 결과로 강장(強壯)한 사람이 남는다.
- ② 식품엔 동물질의 ‘자리’와 식물질의 ‘미역’이 풍부하다.
- ③ 정신적 충동이 없는 원시적 생활을 한다.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나의 생명조사와 전소 에이스케(善生永助 ; 1927년)의 조선의 인구현상과의 공통점

- 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죽는 것.
- ② 다산(多産)지방은 다사(多死)지방이고, 소산(少産)지방은 소사(少死)지방이다.
- ③ 병사자(病死者) 병류(病類)를 보면 신경계병이 최다이고, 소화기 병과 호흡기병도 적지 않다.

남녀별 출생률의 소장(消長)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1개년 인구 1,000에 대해서)

	제주도		전남평균	
	남	여	남	여
1921	5.22	4.54	10.95	8.88
1922	5.88	4.95	12.41	10.40
1923	14.37	13.84	19.05	17.09
1924	14.07	12.90	15.39	12.69
1925	17.89	16.89	16.00	13.84
평균	11.59	10.73	14.80	12.62
계	22.32		27.42	

제주도분(分)이 전남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은 신고누락이 원인이다. 그러나 차츰 평균에 가까와오는 것은 그만큼 신고가 철저해진 것을 의미한다.

남녀수의 지배선(支配線)

사망률은 유령계급(幼齡階級)일수록 고율이고 항상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의 것보다 고율이니 출산시의 성비는 남>여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여자는 남자를 추급(追及)하고 후에는 남자의 수를 능가하게 된다. 이 여자의 수가 남자와 같아질 때가 이 지배선의 위치다. 이 선을 경계로 그 이상의 연령으로 가면 여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느 부락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남녀수의 지배선의 일람표

토평리(吐坪里) : 5·6세간(間)

법환리(法還里) : 40·41세간

신하효리(新下孝里) : 35·36세간

함덕리(咸德里) : 15 · 16세간
교래리(橋來里) : 15 · 16세간
상도리(上道里) : 50 · 51세간
송당리(松堂里) : 5 · 6세간
성읍리(城邑里) : 25 · 26세간
오라리(吾羅里) : 25 · 26세간
명월리(明月里) : 10 · 11세간
대정(大靜) : 15 · 16세간
화순리(和順里) : 10 · 11세간
의귀리(衣貴里) : 0 · 1세간
토산리(兔山里) : 5 · 6세간
저지리(楮旨里) : 40 · 41세간
용수리(龍水里) : 0 · 1세간
평균(平均) : 18 · 19세간

똥뀐다

방구뀐다란 말이고 보리밥(麥飯)과 고구마가 많은 관계라 방구는 대단히 흔하다.

디기탈리스

Digitalis purpurea의 재배는 높이 성장하는 식물이니 만큼 강풍지대에 불리함은 물론이나 재배는 확실히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약초에 비하여 유리하다.

말라리아

이 병의 이름이 여덟이 있으니 즉 학질, 초약, 날걸리, 피뎡, 물먹는병, 터는병, 쫓터는병, 신용병 등이다.

모체(母體)와 소아(小兒)의 사망률

모(母)의 분만경험 내지 육아경험은 소아의 사망률에 관계가 없다. 또 1~2세의 유아와 3~5세의 유아간에도 별로 차이가 없다.

문인주(文仁柱)의 학위논문 '象皮病의 研究'

- ① 유행지는 2개소가 판명되었는데 1은 충남 전역, 전북 북부, 전남·충북·경기의 일부이고 2는 제주도·남해안 동반(東半) 일대이다.
- ② 타지방것과 같이 음부(陰部), 유방, 안면에 나타나는 일은 없고 요(尿)의 이상도 없다. 또 임파관류(淋巴管瘤)의 증상도 없다.
- ③ 병원성용혈성연쇄상구균(病原性溶血性連鎖狀球菌)은 도처에 보편적으로 있으니 이것으로 인한 단독양(丹毒樣) 발작 및 그 후유증(後遺症)으로 볼 수 있는 상피병이 지방병성을 띠고 있는 것은 급성 발작의 제1조건인 Wuchereria bancrofti의 감염(感染)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때문이다.

백세 이상의 고령자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1931년)에 의하면 당시에 제주도내에는 7인 이상이 있었다고 한다.

사망률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1921~25년간의 5개년 평균의 1년간 인구 1천인에 대한 사망자수는,

	남	여	평균
제주도(濟州道)	13.39	10.76	12.04
전남도(全南道)	15.79	14.50	15.16

그리고 전남도의 숫자는 조선 전도 중에서 최저의 숫자로 최고는 강원도의 25.42이다. 그러나 전남이 최저의 사망률이고 그중에서도 제주

도분(分)이 전남 각 군도(郡島)의 평균에 미급(未及)하다는 것은 나는 믿기 어렵다.

사망률의 성비(性比)

사망자의 대부분은 소아가 차지하고 어느때나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의 것을 능가한다. 극단의 비위생적 생활과 극단의 남존여비의 풍습과의 관련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인가 한다.

산물

재래(厓)귤의 1종으로 과피(果皮)는 진피(陳皮)라고 해서 약용에 많이 쓰인다. 맛은 감산(甘酸)이나 훌륭한 것은 못되고 약용으로 많이 재배된 것이며 과거에는 많이 경향(京鄕)에 이출(移出)한 것이다.

산아(産兒)에 대한 희망

산남(産男)후는 15년 경과하면 또 못낳아도 산녀 후는 20년후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상피병(象皮病)

사상충(糸狀虫·Micro Filaria)으로 인한 병으로 M. Malayi에 의한 것은 한국서는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이 제주도뿐이다. 남양(南洋)과 상해(上海) 등지에 분포되어 있고 뛰어서 한국에 분포되었으니 재미 있는 사실이다. 제주도에서는 전도적 병이고 해안 지방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으나 남원면 위미리가 중심이 되어 가장 많다. 모기의 전파에 인한 것으로 모기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으나 음료수에 염분이 혼합될 기회가 많은 지방에 국한된 듯 싶은 것만은 사실이다.

쌍둥(雙童)의 조사

9면 16개리에서 수집한 66인 67예(例)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다.

① 사망률은 더욱 고율이고 그 거의 전부를 1~5세가 점한다. 장수

자도 더욱 적다.

- ② 출산아의 성비는 남 53 : 여 47
- ③ 생존자의 성비는 여자가 더욱 많고 사망자의 성비는 남자가 더욱 많다.
- ④ 요컨대 이 조사는 생명조사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향(傾向)을 일층 현저히 나타낸다.

생명조사(生命調査)

소아의 사망률이 높은 곳이니 도민에게는 ‘5세까지는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관념(觀念)이 있고 출생신고에도 태만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호적은 전혀 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그 양친에게 묻는 수밖에 없는데 여자에게 묻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남자에게 묻는 수밖에 없다. 부(父) 혹은 부이었던 남자에게 1매의 조사표를 배부하고 그 사람의 자녀를 전부 순기(順記)한다. 이와같이 남자 본위로 조사한대도 그 자녀는 자연의 성비를 가질 것이고 병행해서 조사한 인구 구성을 비교하면 여러가지 진(眞)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조사이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했다.

소아의 사망률

출산자녀 전체의 사망률을 100으로 하면(연령은 計年).

	1~5세	6~10세	계
평균	73%	10%	83%
최고부락			
송당리(松堂里)	84%	6%	90%
토평리(吐評里)	78%	11%	89%
함덕리(咸德里)	77%	10%	87%
최저부락			
법환리(法還里)	62%	12%	74%
교래리(橋來里)	67%	8%	75%

소아의 사인(死因)

어린애는 대개 경풍으로 죽는다고 한다. 동계(冬季)의 경풍은 호흡기병에서, 하계(夏季)의 경풍은 소화기병(消化器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증상이 심하게 되니 신경증상을 수반할 것이다. 분만한 날도 폐문(閉門)에 유의치 않고 2~3일이 안되어 애업고 외출하기가 예사이고 제초 기타 과로 직후에도 외처(外處)에 놓은 ‘애기구덕’의 애기에게 수유(授乳)하는 등 그 이유가 명료하다.

수질(水質)

기암(基岩) 및 토양이 산성(酸性)이니 대개는 약산성(弱酸性)을 드러낸다. 또 염소(鹽素) 함유량도 많고 따라서 총경도(總硬度)도 크다. 더우기 정수(井水)의 염소 함유량은 더 많고 총경도는 더 크다. 그래서 표류수(表流水)나 용수(湧水)는 그대로 음료수 및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정도이다. 정수(井水)에는 연화(軟化) 및 여과장치(濾過裝置)를 요하는 것이 적잖다.

시가 기요시(志賀 潔) 박사의 위생상태 시찰

동 박사(同博士)가 1928년 5월에 위생상태 시찰차로 입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마에다(前田) 도사(島司) 기타의 안내로 가마타고 월산(越山)도 하고 자동차로 일주하는 등의 3일간의 일정이니 유람(遊覽) 여행에 불과하였다.

약초(藥草)

식물의 종류가 많으니 약초도 많고 또 옛부터 약초가 많다고 해서 유명한 섬이다. 진시황의 불로초도 제주도의 시로미(岩高蘭)이라고 하고 성읍리(城邑里) 북측에는 백약산(百藥山)이란 유명한 약(岳)이 있다. 이것은 도민(島民)의 대부분을 점한 농민이 원시생활을 하며 인축(人畜)의 약용으로 이 산의 각종 식물을 이용함에 원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열대산(熱帶產) 약용식물(藥用植物)

녹나무(樟木) 1종을 들 수가 있고 제주도는 이 녹나무의 생산지이니 증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물

성내의 정수(井水)는 지하 20미터의 암반에 닿지 않으면 불갈정(不渴井)이 못된다.

우치이환율(齶齒罹患率)

미야자키 하루오(宮崎晴雄; 1923년)에 의하면,

제주(濟州) : 43%

경성(京城) : 48.8%(柳樂, 1919)

일본(日本) : 85.5%(吉川)~98%(松井)

구미(歐美) : 81~95%

음료수(飲料水)

대체로 대단히 불편하고 불편할수록 사용량이 제한될 것이고, 제한될수록 병이 많이 생기고 병이 많을수록 사망률, 그 중에서 유아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제 음료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도설비 있는 곳 : 서귀면 일부
- ② 정수(井水)를 이용하는 곳 : 수개처(數個處)
- ③ 해안용수를 이용하는 곳 : 대부분
- ④ 유수(溜水) : 중산지대(中山地帶)의 대부분
- ⑤ 하수(河水)
- ⑥ 저수지(貯水池) : 천수(天水)
- ⑦ 수목에 권승(卷繩)하여 모은 우수(雨水)

음식(飮食)

여자가 활동하는 곳이니 음식이 발달될 리가 없다. 주식물은 보리와

좁쌀이고 버금으로 메밀과 고구마를 먹는다. 백미(白米)는 경절(慶節)에나 사용할 뿐. 부식물은 극히 적고 첫째로 소반이 작다. 떡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특히 메밀로 된 떡의 종류가 극히 많다. 섬이니 물론 해산물은 많이 사용되어 좋고 ‘회’가 발달되었다는 것보다 회로 많이 먹는다. 특히 ‘자리회’는 아주 보편화한 것이다.

인구천명당 사망률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제주도는 12~13인으로 19계급중 밑으로 제3위이다. 제주도와 동위(同位)의 부군(府郡)을 찾아보면 진도(珍島), 완도(莞島), 고흥(高興), 여수(麗水), 광양(光陽), 무안(務安), 통영(統營) 등지이다.

인구 천명당 출생률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제주도는 20~23인으로 17계급중 밑으로 제2위이다. 제주도와 동위의 부군을 찾아보면 영암(靈岩), 곡성(谷城), 부안(扶安), 부산(釜山) 등이다.

인후(咽喉)의 경련(痙攣)

제주도인 중에는 말할때 가벼운 경련(痙攣)을 하는 이가 많다. 즉 말하는 도중에 때때로 피겁질 비슷이 하는 이가 많은 것은 분명히 기현상(奇現象)이라고 할 수가 있다.

1908년경의 도내 위생시설

제주읍내에 제주병원이라는 일인(日人) 의사 1인뿐인 불완전한 병원이 1개소 있었을 뿐이었다. 그외에 모슬포에 수산물 중매업자(仲買業者)인 일인 1명이 부업으로 매약조제(賣藥調劑)에 종사하였고 성산포에 일인 1명의 매약상(賣藥商)이 있었다.

1947년 제주도에 있어서의 성비의 역전(逆轉)

대한민국공보처통계국(大韓民國公報處統計局)의 통계월보(1949년)에 의

하면, (남 : 여)

	제주도	남한 전역
출생아수	965(53) : 840(47)	233,050(53) : 204,982(47)
추정인구	129,562(47) : 146,337(53)	10,053,752(51) : 9,832,482(49)

입덧나는 현상

이 현상은 해조(海藻)를 많이 먹는 지방인 관계인지 극히 드물며 그 말조차 없다. 노력하여 알아보니 ‘유태증있다(태기가 있다)’란 말이 나 ‘머음살난다’(임부(妊婦)가 혹시 음식물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한다)란 말이 있는 정도다.

전남(全南)의 고령자(高齡者)

1933년 전라남도의 조사에 의하면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남자 11인, 여자 26인중, 제주인이 그 태반으로 남자 6인, 여자 14인이었다고. 최고령자는 구우면(舊右面) 귀덕리(歸德里)의 김곽지(金廓支)란 노구(老嫗) 116세, 다음이 동면(同面)의 조정낭(趙貞娘) 115세.

제주도 상피병(象皮病)의 특징

제주도의 상피병은 충남것과 동일하고 외국것과 상이한 점은 다음의 2점이다.

- ① 임파관류(淋巴管瘤)의 증상이 결여.
- ② 외국것은 4지(肢) 말초(末梢)에 한(限)치 않고 음부(陰部), 유방(乳房)에도 미치지만 한국 것은 주로 하지(下肢) 족부(足部)이고 드물게 전박수(前膊手)에도 멈춘다.

이 2점으로 보면 한국 것은 외국 것에 비하여 대체로 경증(輕症)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生命調査書)(제주도인구론)

이 책은 저자가 1949년 봄에 발간한 것으로 그 내용에 실린 16개 부락중 반 이상이 벌써 폐허가 되었으니 이 책은 출판과 동시에 고전(古典)으로 되었다. 이제 그 16개 부락중 폐허로 된 것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坪리(吐坪里)), 법환리(法還里), 신하효리(新下孝里), 함덕리(咸德里), (교래리(橋來里)), 상도리(上道里), (송당리(松堂里)), (성읍리(城邑里)), (오라리(吾羅里)), (명월리(明月里)), 대정(大靜), 화순리(和順里), (의귀리(衣貴里)), (토산리(兎山里 1구, 2구)), (저지리(楮旨里)), 용수리(龍水里).

제주도 출생률의 전선적(全鮮的) 위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년)에 의하면 1개년 인구 1,000에 대해서 출생수 35 이상의 지방과 30인 미만의 지방으로 2분(分)하였는데 제주도는 22.32이니 물론 하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불완전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제주의학(濟州醫學)

이조 상세(上世)에 나병자(癩病者)들은 제주도에 모여서 치료했으니 지금의 나병자 격리(隔離)의 법이다. 그런데 본도인은 병이 나도 의술자(醫術者)가 없어서 구료(救療)할 수 없더니 세종조에 이조(吏曹)가 계청(啓請)하여 제주의학(濟州醫學) 교수(教授) 구임(久任)의 법으로 생도(生徒)를 교훈(教訓)하고 병인(病人)을 구료(救療)하였으니 선정(善政)이었다고 하겠다.

청년기의 사망률

부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어느 부락이나 대개는 16~35세간에 사망곡선이 상승하는 때가 있는데 더우기 남자가 현저하다. 이것은 폐결핵(肺結核)으로 죽는 까닭이다.

출산과 육아의 기록

다산(多産) : 상호리(上孝里)의 74세 노인이 1부인에게서 15인을 출산한 것과 함덕리(咸德里)의 55세의 중노인(中老人)이 4인의 처첩(妻妾)에게서 19인을 출산(出産)한 것.

육아성적의 최량(最良) : 법환리(法還里)와 신하효리(新下孝里)에 있는 노인 중에는 10인의 자녀를 전부 육성한 예가 있다.

육아성적의 최악(最惡) : 함덕리(咸德里)의 74세 노인은 1부인에게서 13인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모두 죽었다. 이 예는 8남이 연생(連生)하고 후에 5녀가 연실(連失)했는데 모두가 3세만 되면 죽었다고 한다.

출생자녀의 사망률과 음료수

평균 : 30%(남 16 : 여 14)

최저부락(最低部落)

신하효리(新下孝里), 대정(大靜) : 25%

법환리(法還里), 용수리(龍水里) : 26%

최고부락(最高部落)

의귀리(衣貴里) : 37%

토평리(吐坪里), 송당리(松堂里) : 36%

함덕리(咸德里) : 35%

사망률의 저율부락(低率部落)은 음료수가 편리한 곳들이다. 단 토평리의 상수도 설비는 최근의 것이다.

특히 많은 병

경풍 : 대부분 소아의 사인(死因)이 되는 것으로 위생(衛生) 사상의 저열(低劣)로 인함이다. 동계(冬季)의 경풍은 호흡기병에서, 하계의 경풍은 소화기병에서 유래하는 신경증상이다.

피부병 : 다풍(多風)과 경송(輕鬆)한 토양의 관계이고 해안지방을 제

외하고는 목욕(沐浴)하는 기회가 적은 때문이다.

폐결핵(肺結核) : 일본 출가인이 이병귀환(罹病歸還)하는 관계이다.

정신병 : 동계(冬季)에도 혹한(酷寒)이 없고 해산물로 최저생활은 보
증되기 때문이다.

폐흡충(肺吸蟲)의 중간숙주(中間宿主)

황해(黃海)에 면(面)한 제지방(諸地方)의 종(種)은 *Eriocheir sinensis*
(참게)로 중국산과 동일종이고 제주도에서 대한해협을 경유하여 동해에
면(面)하는 여러 지방의 종은 *E. japonicus*(게)로 일본산과 동일종이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폐(肺)디스토마’가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이다.

풍토(風土)와 건강

고율(高率)의 소아 사망률은 도민의 위생사상의 저열(低劣)로 인함이
지만 풍다(風多)와 경송(輕鬆)한 토양, 우다(雨多)와 벼룩, 모기 기타의
관계로 제주도가 절대로 건강지대가 아니다. 위생사상과 그 시설의
보급으로 도민의 생활을 윤택케 할 여유는 대단히 많다. 현재로는 페
스트 기타의 전염병이 침입한다면 그 희생은 클 것이고 과거에도 참
혹(慘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호열자(虎列刺 : 콜레라)의 침입

1946년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1년된 해인데 질서가 아
직 서지 않은 관계로 호열자가 만연되었다. 제주도에도 호열자가 침
입하여 8월에는 평균 1일에 신환자(新患者)가 50명이나 계속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제주도 북부의 일이고 1920년에도
같은 계절인 7~10월에 우면(右面; 西歸面)을 제외한 전도에 호열자가
극성하여 사자(死者)가 수천에 달하였었다.

24. 교육 · 종교

관음사(觀音寺)

속칭 ‘세미털’이란 곳에 있었으므로 관음사를 ‘세미털’이라고도 한다. 제주도내 여러 사찰중 제일 크고 중심이요 등산 요로(要路)에 있어 등산자에게 편의를 주는 곳이 된다.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大興寺)에 속하고 1910년 불교의 독신자(篤信者) 주인(州人) 안씨(安氏) 봉려관(蓬廬觀)이란 비구니(比丘尼)의 창건인데 물론 창건 삽화(挿話)도 있다. 임제종(臨濟宗)에 속한다.

남강(南崗)과 제주도

한국신교육사에 있어서 거성(巨星)인 남강(南崗) 이승훈(李昇薰 ; 1864~1929년)이 후반생(後半生)에 들어 1911년 북간도무관학교사건(北間島武官學校事件), 1912년 테라우치총독암살미수사건(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 1919년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 등 3차에 걸쳐 전후 10년간이나 영어(囹圄)의 생활을 하였는데 1911년 사건때에는 제주도에서 1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당(堂)오백 · 절(寺)오백

제주도에는 옛날에 당(堂)이 오백(五百), 사찰(寺刹)이 오백이 있었다고 한다. 즉 그만큼 미신에 젖어 있었고 전설의 섬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어떤 때인지 서판관(徐判官)이란 젊은 관리가 부임하고 16세때에 이 당오백 절오백을 다 파괴하고 미신 타파를 고취(鼓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도민의 유교사상(儒敎思想)

도민의 유교사상이 의외로 강한 것은 이 고도(孤島)에 정배(定配)은 유학의 대가인 고관대작이 많이 출입하였고, 서울 정계(政界)에서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둔래(遁來)한 촌부자(村夫子) 연(然)한 지사(志士)들의 ‘남자 당세(當世)에 뜻을 얻지 못하면 하야(下野)하여 영재(英才)를 기른다’라는 기개가 도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영향을 준 때문이다.

보천교(普天教)와 천도교(天道教)

무라야마 도모즈미(村山智順; 1935년)에 의하여 양교(兩教)의 분포 상태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1933년말 현재로 보면 천도교(天道教)는 전조선적(全朝鮮的)이고 보천교(普天教)는 조금 남선(南鮮)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보천교(普天教) 뿐이 들어왔는데 이 양교(兩教)의 최성시(最盛時)를 조사하면 천도교는 1919년경이고, 보천교는 1928년경이다.

이제 그 보천교의 유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 초에 정읍인(井邑人) 의사(醫師) 강증산(姜甞山)이란 자가 우치교(吡哆教)란 것을 선도교(仙道教)로 바꾸고 의술(醫術)로써 우민(愚民)을 농(弄)하고 자기가 교조(教祖)로 되었다. 그 후에 강(姜)이 병몰(病歿)하니 그의 고제(高弟) 차경석(車京錫)이가 대를 이어 우민(愚民)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여러가지 책(策)을 농(弄)하였다. 그러던 중 당국의 주목하는 바가 되어 차(車)는 다시 보천교(普天教)라고 개칭하였고 제주도에 1922년 성내(城內)에 진정원정교부(眞正院正教部)를 설치하고 1924년 3월에는 진정원으로 승격, 장용견(張容堅)이 원장(院長)이 되고 문창래(文昌來) 이하 4~5명의 간부(幹部)가 활동하여 일시는 그 교도(教徒) 수만에 달하는 상황이었어서 그 피해는 대단하였었다. 미신이 많은 곳이니 일시에 보천교가 성했던 것도 제주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불교 성시(盛時)의 제주군내의 저명한 사찰

존자암(尊者庵), 월계사(月溪寺), 수정사(水精寺), 묘련사(妙蓮寺), 문수암(文殊庵), 해륜사(海輪寺), 만수사(萬壽寺), 강림사(江臨寺), 보문사(普門

寺), 서천암(逝川庵), 소림사(小林寺), 관음사(觀音寺), 안심사(安心寺), 괘지사(郭支寺), 원당사(元堂寺), 돈수암(頓水庵) 등. 그외 대정(大靜), 정의(旌義) 2군에도 십여개의 명찰(名刹)이 있었다.

불교와 사당(祠堂)의 수난(受難)

이조 명종(明宗) 을축(乙丑)년(1565년)에 목사 곽홀(郭訥)이 등임(登任)하여 도내에 불사(佛寺)가 많은 것을 보고 불사를 훼(毀)하고 불상을 분(焚)했다. 그후 숙종(肅宗) 28년(1702년)에는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역시 음사(淫祠) 및 불찰(佛刹)을 철(撤)하였다. 이형상때에는 일층 심하여 먼저 광양당(廣壤堂)을 훼철(毀撤)하고 도내의 음사(淫祠)를 화염(火焰)에 불이며 무격(巫覡) 수백 명을 모조리 태장(笞杖)하여 귀농(歸農)케 하는 통에 130여 사찰도 일시에 없어지고 노소승려(老少僧侶)를 구축(驅逐)하여 불교는 대타격(大打擊)을 받았었다.

사우서원(祠宇書院)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은 지방양반 유림세력의 근거처였다. 이태왕 8년(1871년) 현재로 봉사(奉祀)된 거유(巨儒)의 수는 1,349이고 그중 많은 곳에 봉사(奉祀)된 이가 송시열(宋時烈)의 36개소이다. 그러니 전국에 분포된 사우서원(祠宇書院)의 수는 기천(幾千)에 달하였고 그중 제주에 있는 것은 다음의 3개소였다.

祠院名	創建年	奉祀者
굴림서원(橋林書院)	1668	김정(金淨), 송인수(宋麟壽), 김상헌(金尙憲) 정은(鄭蘊), 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	?	이약동(李約東), 이회(李繪)
삼성사(三姓祠)	1763	탐라고을나(耽羅高乙那), 부을나(夫乙那) 양을나(良乙那)

그러나 현재는 공인(公認)된 사원(祠院)이 44개 있지만 제주도에 1개도 없고 다만 삼성사(三姓祠)만이 그 자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산천단(山川壇)

관음사(觀音寺) 아래 5리쯤 되는 곳, 10그루 가까운 노송이 우거진 곳에 있다. 삼천당(三川堂) 혹은 삼천당(三天堂)이라고도 하니 분명히 예(例)의 우리의 고교(古敎) 내지 유교와 불교가 혼효(混淆)된 형태의 것이다. 물론 한라산신(神)을 봉안(奉安)하고 본시는 산상(山上)에 있는 것을 산상 행제(行祭)에 왕왕(往往) 동사(凍死)의 불행을 보게 됨으로 이조 성종조에 목사 이약동(李約東; 1470~73년)이 이 곳으로 이안(移安)하였다.

삼신산(三神山)

1. 봉래(蓬萊; 金剛山), 2. 방장(方丈; 智異山), 3. 영주(瀛洲; 漢拏山).

서교(西敎)의 동방전래설(東方傳來說)

이선근(李瑄根)에 의하면 기독교가 동방(東方) 즉 일본으로부터 전래했다는 설을 소개하였다. 즉 하나는 J. Ross씨설로 임진난(壬辰亂)시 일본군대중에 많은 서교도(西敎徒)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설로 1600년 상반기말로부터 일본서 탄압 받던 서교도의 일부는 대주(對州), 제주 등 도서(島嶼)에 피우(避寓)도 하였고 후에는 반도 연안(半島 沿岸)에도 전교지(傳敎地)를 발견하였다고.

성소(聖所)

제주도에는 많다. 말하자면 가시락당, 천외당(川外堂), 각씨당(閻氏堂), 광양당(廣壤堂), 운주당(運籌堂), 연등당(燃燈堂), 토산당(兔山堂), 칠일당(七日堂) 등등.

손실된 대동불(大銅佛)

태종(太宗) 6년(1406년) 전국에 걸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

을 혁파하는 통에 명나라에서 대감(大監) 황엄(黃嚴)을 시켜 제주도의 유명한 대동불(大銅佛)을 가져간 일이 있다.

승 보우(僧 普雨)

이조 명종(明宗; 1546~67년)때의 거승(巨僧)으로, 태조(太祖) 이래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는 정부와 학자의 배척(排斥)을 받아 쇠퇴(衰頹)해 가던 때다. 그런데 보우(普雨)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신임을 얻어 크게 불교를 확장하고 드디어 양종(兩宗)을 세우고 선과(禪科)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관학(館學) 유생(儒生)은 동맹과업(同盟罷業)을 단행했으므로 왕은 드디어 보우를 제주로 보내서 죽이고 또 양종(兩宗) 선과(禪科)를 파(罷)하였다. 당시의 유불 2교의 세력 여하를 알 수 있겠고 제주도는 역시 유명한 유배지임을 알 수가 있겠다.

승(僧) 역기(釋器)

고려 충혜왕(忠惠王)은 궁인(宮人) 임씨(林氏)를 행(幸)하여 역기(釋器)를 산(産)하다. 충정(忠定)은 축발(祝髮)시키고 만덕사(萬德寺)에 치(置)했더니 공민왕(恭愍王)은 5년(1356년) 6월에 역기(釋器)를 제주에 보내기로 하고 해중(海中)에서 없이하기로 했으나 다행히 역기는 죽지 않고 피신하였다. 그후 공민왕 22년(1373년) 12월 평양윤(平壤尹) 전녹생(田祿生)이 승역기(僧釋器)를 포살(捕殺)했다고 하나 그 진부(眞否)는 확실치 않다.

승(僧) 혜일(慧日)

많은 제주도 승려 중 가장 이름난 이고 시서(詩書)도 잘하고 유서(遺書)도 많다. 그의 행장(行狀)에 산방법승(山房法僧)이라 한 것이 있으니 아마 산방굴사(山房窟寺)의 주인공은 혜일(慧日)이던 모양이다.

신교육 최초의 학교

제주공립보통학교(濟州公立普通學校)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창립.

제주공립농림학교(濟州公立農林學敎) : 융희(隆熙) 4년(1910) 6월 창립.

유생의 수(數)

1928년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 조선 총계 : 22,546

전남 합계 : 32,509

제주도 : 9,036

최다도(最多道; 慶北) : 33,458

최소도(最少道; 忠北) : 3,233

최다군(最多郡; 奉化) : 6,518

최소군(最少郡; 長湍) : 32

즉 도별(道別)로는 전남은 경북의 다음으로 제2위요 제주도는 전남 부군도별(府郡島別)로 제1위요 그 수가 전남 전체의 근 3할이나 되니 그 추세(趨勢)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상의 숫자만으로도 제주도에는 아직 양반사상(兩班思想)이 농후한 것을 알 수가 있겠다.

‘教育史年表’에 오른 제주도사항(濟州島事項).

1392. 이태조(李太祖) 원년(元年) 남으로 제주, 북으로 갑산(甲山)까지 학교를 세우고 학도(學徒)를 모으다.

1445. 세종(世宗) 27년 제주학교(濟州學校)에 서적(書籍)을 주다.

이조(李朝) 과거(科擧)의 종류

형식 본위의 종류로는

I. 식년시(式年試) : 3년마다 1회씩 정기(定期).

II. 특별시(特別試) : ① 증광시(增廣試), ② 별시(別試), ③ 정시(庭試), ④ 알성시(謁聖試), ⑤ 춘당대시(春塘臺試), ⑥ 중시(重試), ⑦ 문관정시(文官庭試), ⑧ 절일제(節日製), ⑨ 황감제(黃柑製), ⑩ 지방별과(地方別科),

⑪ 통독(通讀), ⑫ 승보(陞補), ⑬ 사학합제(四學合製), ⑭ 공도회(公都會), ⑮ 도기과(到記科)

그중 특히 제주와 관계있는 것으로

황감제(黃柑製) : 매년 제주에서 밀감(蜜柑)을 공납하면 대제학(大提學)과 승지(承旨)를 반궁(伴宮)에 보내어 밀감을 성균관생(成均館生)에게 하사하고 절일제(節日製)와 같이 시험을 보아 급제시켰다.

지방별과(地方別科) : 평안(平安), 함경(咸鏡) 양도와 강화(江華), 제주 등지에 특지(特旨)로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시험하고 시지(試紙)는 상도(上道)하였고 급제한 자는 곧 전시(殿試)를 볼 수 있었다.

승보(陞補) : 매년 대사성(大司成)이 사학유생(四學儒生)을 십차(十次) 시험하여 통계한 성적으로 생진초시(生進初試)를 면제(免除)하고 곧 생진복시(生進覆試)에 응할 자격을 주었다. 그런데 정원(定員)은 사학(四學) 10, 개성(開城) 4, 제주 2.

1916년 현재의 도내공립학교(島內公立學校)

간이농업학교 1, 보통학교 3, 일본인소학교 1.

1926년 현재의 전남 도내의 중학교수

광주에 사범(師範), 고보(高普), 중학, 농업, 고여(高女)의 5교, 목포에 상업, 고여의 2교, 여수에 수산, 제주도에 농업 등 9교였다. 직각적(直覺的)으로 눈에 띄우는 것은 조선 여성을 위한 여고보(女高普) 기타는 1교도 없는 것이다.

1938년도의 학교 통계

제주도내의 학교는 농업 1, 실업 1, 원소학(元小學) 5, 원보교(元普校) 18, 간이(簡易) 7, 사보(私普) 5, 기타 사(私) 1, 합 38교로 전남 전체

523의 7분(分)에 불과하니 그 면적과 인구로 보아 일층 조홀(粗忽)히 취급을 받았다.

1947년 9월 말 현재 공립국민학교 도별 통계표

	학교수	학급수	아동수	교원수
계	3,354	40,030	2,493,462	36,382
제주도	96	618	40,288	556
%	3	2	2	2

이 통계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학교수만은 비교적 많다는 것을 알겠다.

1948년도의 대학의 입학경쟁

전국 각 대학의 총수용력 : 7,255

예과(豫科) 및 전문2년생(專門二年生) 총수 : 8,517

고급중학(高級中學) 6년생 총수 : 3,379

제주도고급중학 6년 1학급생 : 34

이상의 숫자로 보면 전문부 2년생 전원이 학부 1년으로 편입한다면 고급중학 졸업생은 1명도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겠다. 전문부도 그대로 진학 졸업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고급중학 졸업생의 진로가 열리겠는데 그중에는 제주도 출신도 34명이 있다.

1948년 현재의 제주도내 중등학교

교 명	경영체제	소재지	설립년
대정초급중학(大靜初級中學)	공립	대정	1946
제주농업중학(濟州農業中學)	공립	제주	1946
서귀초급중학(西歸初級中學)	공립	서귀포	1946
오현초급중학(五賢初級中學)	사립	제주	1946
제주초급중학(濟州初級中學)	사립	제주	1946

일본인의 학교조합(學校組合)

그 목적은 선내(鮮內) 재주(在住)의 일인자제 교육사업이고 필요에 의하여는 부대사업으로 위생사무도 처리한다고 하는 자치단체인데 물론 현저한 침략기관의 하나이었다. 이 조합이 한국합병 당시에 벌써 137개의 다수에 달하였고 그중의 하나는 제주에도 있었다.

일어(日語)의 정식 교수(正式 教授)

1908년 4월에 하시구치 류타로(橋口龍太郎)가 보통학교장으로 부임하고 일어(日語)를 학과로 교수한데서 시작되었다.

제주문묘(濟州文廟)

550여년전 이태조(李太祖) 원년 일도리(一徒里) 교동(校洞)에 건설했던 것을 약 120년전에 현재의 용담리(龍潭里)로 이건(移建)한 것이다. 성내에는 공손수(公孫樹)의 대목(大木)이 있고, 육지의 문묘에 비해 손색이 없고 본도 내에서는 물론 제일일뿐더러 본도 내에서는 최고(最高)·최대(最大)·최미(最美)의 건물이다.

제주 본관(本貫)인 유력유생(有力儒生)의 분포상태

전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梁氏	高氏	夫氏
경기	-	92	-
충북	-	-	-
충남	-	-	-
전북	1	19	-
전남	1,740	833	153
경북	-	-	-
경남	3	133	-
황해	2	91	-
평남	4	78	-

	梁氏	高氏	夫氏
평북	35	49	-
강원	5	31	-
함남	2	251	-
함북	1	62	-
계	1,793	1,639	153

이 양(梁)·고(高)·부(夫) 3성중 수로는 양씨가 제일이나 고씨가 훨씬 활동적이고 세력이 큰 것을 알겠고 부씨는 아주 소극적으로 도내에서 겨우 현상을 유지함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나 고씨의 함남 진출은 무슨 이유가 있겠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지방문묘(地方文廟)

1933년말 현재로 전 조선에 329개있었는데 그중 최다도가 41개소의 경북, 최소도가 11개소의 함북, 전남은 32개소로 중위, 제주도에는 제주, 대정, 정의의 3문묘가 있는데 그중 제주문묘가 제일 크다.

천주교(天主教)

광무(光武) 3년(1899년)에 불국인(佛國人) 배가록(裴加綠) 선교사가 시전(始傳)하고 상당히 성(盛)하였다. 교도(教徒)의 횡포(橫暴)가 원인으로 신축민요(辛丑民擾; 1901년)를 겪은바 있으며 성내와 서귀면 서흥리(西烘里)에 본거가 있다.

최초의 일어학당(日語學堂)

목포 재류(在留)의 일인(日人) 하라모(原某)가 메이지(明治) 36년(1903년) 봄에 도도(渡島)하여 설립한 것이 최초이었다. 그러나 모양이 학교이지 당시의 일인의 하는 짓이라 누구라 감각(感覺)지 못할바 아니어서 목사 홍종우(洪鍾宇)는 일본인 퇴거의 영을 발(發)하였다. 그 결과

로 일본군함 ‘사이영(濟遠)’의 급행(急行), 목포 영사(領事)의 출장, 최후에는 목포영사관에서 하라교사(原教師)를 소환(召喚)하는 것으로 학당은 폐쇄(閉鎖)되었다.

25. 문 화

관계문헌

상고시대(上古時代)나 중고시대(中古時代)로 말하면 시대가 시대일뿐 아니라 겹하여 지대(地帶)가 불리한 중에 세력조차 강대치 못하여서 혹은 민난 혹은 외적(外賊)의 침범으로 인하여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부절(不絶)하였다. 그러므로 사적(史籍)의 대부분이 병화(兵火)로 소멸되었고 겹하여 설상가상으로 500여년전 세종(世宗) 17년(1435년) 겨울에 당시 안무사(按撫使) 최해산(崔海山)의 주관으로 홍화각(弘化閣) 건축시 실화(失火)로 인하여 무참히 문적(文籍)이 소실(燒失)되었으므로 지금까지는 참고의 재료가 전혀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복수(金福壽)의 로맨스(傳說)

제주 출신 김복수란 사람이 안남(安南)에 표류하여 역시 그곳에 온 류큐(琉球) 여자 임춘향(林春香)에게 강가를 들었다. 유자생여(有子生女)하고 살다가 뒤에 일본 가는 사자(使者)를 따라서 오사카(大阪)로 가 객관(客館)에서 구라과(仇羅婆) 국사(國使)를 만나 방서(方書) 12권과 길이 사단(吉伊斯端: 가톨릭의 일파)의 도(道)를 듣기도 하고 마침 류큐 사자를 만나니 자기 마누라의 오라범이라 그 누이동생의 소식을 전하고 일이 끝난 후 다시 안남(安南)으로 가다가 한라산을 바라보고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져서 담수(淡水)를 얻어온다는 핑계로 혼자서 작은 배로 제주에

돌아왔는데 늙도록 류큐(琉球) 마누라를 잊지 못하여 가끔 산에 올라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김윤식(金允植)의 운양집(雲養集)

그의 저(著) 운양집 16권 8책은 한말(韓末) 정변(政變)으로 인하여 14~5년간이나 제주도에 유배된 동안에 쓴 것이었다.

다카하시 도오루(高橋 亨) 수집의 민요(民謠)

- ① 육구가(六句歌),
- ② 팔구가(八句歌),
- ③ 장구가(長句歌)

등인데 1932년 1월 15일에 써서 동 2월호 '朝鮮'에 게재하였다. 원문과 일역(日譯)이 있는데 감명 받을만한 역문(譯文)이 아니나 대의(大意)를 알 수가 있다.

대표적 민요

'오돌뫌'이란 노래가 육지의 '아리랑'에 해당하는데 아리랑은 본도 내에서 별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그외에 농부가(農夫歌), 마추가(馬追歌), 선부가(船夫歌)들이 있는데 대개는 간단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많고 애조를 띠었다.

도내전화(島內電話)

현재 일주도로 연선(沿線)의 시가지에는 대부분 통해있고 제주와 서귀포에는 시내전화의 시설도 있다. 제주 성내 전화는 1924년 12월에 개통되었다.

도민의 취미

도민의 대부분은 역시 농민이다. 농촌오락이 태무하다는 것보다 전무한 곳이요 민도(民度)가 낮으니 미신(迷信)이 많고 주초(酒草)는 과용한다. 해변에서 '자리회'에 소주(燒酎)나 먹으면 최상의 행낙(行樂)이라

하겠다.

도리이 류우조(島居龍藏)의 강연요지(講演要旨)

1914년 여름 인류학자인 그가 제주에서 한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본도인의 혈통(血統)은 신화(神話), 용모(容貌), 골격(骨骼) 및 기질(氣質)로 보아 반일인(半日人)이라고,
- ② 일본고사기(日本古事記)에 나오는 상세국(常世(夏)國)은 본도로 추정한다고.
- ③ 목축의 방법 기타로 보아 몽고의 목축업자의 도래를 확증할 수가 있다고.

‘동문선(東文選)’에 게재된 권근(權近)의 탐라에 대한 유일한 칠언율시(七言律詩)

蒼蒼一點漢羅山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
 遠在洪濤浩渺間 멀리 큰 물결 아득한 곳에
 人動星芒來海國 별빛이 움직인 뒤 이 바닷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고
 馬生龍種入天閑 용종으로 낳은 말은 궁궐 마굿간으로 들어온다네
 地偏民業猶生遂 땅은 비탈지나 백성들은 농사지어 살아가고
 風便商帆僅往復 바람이 편할 땐 장삿배 근근히 오고가는 곳
 聖代職方修版籍 융성한 나라에서 각 지방 조공물 틀을 짤 때에
 此方雖陋不須刪 이 나라 촌스럽지만 깎아버리지 않았으니

메이지말경의 일본인의 제주도관(濟州島觀)

고마츠 에츠조(小松悅二)에 의하면(신찬(新撰) 한국사정(韓國事情), 15쪽, 1909년), 제주도는 금일까지 범죄자의 유형지(流刑地)이고 그 주민은 폭만불결방사(暴慢不潔放肆)의 풍습으로써 저명하다고.

민요(民謠)

한국은 고래(古來)로 봉건제도가 없었고 중앙집권으로 강력한 통일

적 정치를 하여왔으므로 도회(都會)의 세력이 절대하였다. 따라서 각 지방의 민요도 그 존재가 관용(寬容)되지 않고 지방농부들도 중앙에서 유행하는 유행가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만은 1개의 속국 취급을 받아왔고 완전히 본토화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남녀의 관계, 의복제도(衣服制度), 가옥의 구조, 무격(巫覡)의 의(儀), 사당신(祠堂神) 등 의연구태(衣然舊態)이니 제주도는 실로 한국 민요의 보고(寶庫)이다.

조윤제(趙潤濟; 1941년)에 의하면 민요는 노동과 불가리(不可離)의 관계가 있고 노동 중에도 가내사(家內事)에 동반하는 것이요 그중에도 ‘방아노래’가 가장 많다고. 또 그 가조(歌調)는 애상적(哀想的)이고 듣기에 고산(苦酸)하다. 그 형식은 사오조(四五調)를 주로 하여 사사조를 주로 한 육지의 것과 상이(相異)하다 운운(云云).

이시카와 요시이치(石川義一; 1923년)에 의하면 제주도의 독특한 민요는

- ① 해녀의 노래(해양에 관한 것·연가(戀歌))
- ② 마추가(馬追歌),
- ③ 마사가(馬使歌)의 3종이고, 해녀의 노래는 동로지방(東露地方)의 속가(俗歌)에, 마추가는 북구(北歐)의 소야악(小夜樂)에, 마사가(馬使歌)는 서양오페라에 근사하다고 했다. 그중 마사가는 일본의 분용가(盆踊歌)와 전연 일치한다고.

방종현(方鍾鉉)의 제주도 특수관(特殊觀)

풍다(風多), 석다(石多), 여다(女多)의 삼다(三多)를 고래(古來)로 말하지만 바람이며 돌이 어딘들 없으며 여자가 어찌 제주도에만 많으리오. 그러나 ‘ㄹ’음만은 한국의 13도를 통하여 오직 이 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수도설비(水道設備)

서귀면에 있는 서귀리(西歸里) : 서호리(西好里), 호근리(好近里) : 토평리(吐坪里), 신호리(新孝里), 하호리(下孝里) 등 1면 6개리 뿐이고 시설은 3개처이다.

양화가(洋畫家)가 본 제주도

츠루다 고로오(鶴田吾郎 ; 1935년)에 의하면, 금강산(金剛山)을 조선의 최대 자연미라고 하겠지만 제주도는 금강산과 비해도 손색이 없겠고 금강산의 형제분(分)으로 생각하여야겠다고. 물론 금강산대(金剛山大)의 규모는 없지만 극히 자연한 생활상태가 보존되어서 자연과 인생을 아직 원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더우기 돌담이 인상적이고 부인은 미인형이며 풍경으로는 서귀포가 도내 제일이라고.

오돌뚝

제주도 대표민요의 제명(題名). 육지의 '아리랑'에 해당하고 기실 아리랑과 같은 맛이 있는 애조를 띤 노래다. 이제 한절만 기록한다.

오돌뚝이 저기 춘향 보소

달도 밝은데 연자머리로 갈거나

둥구데당실 둥구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달도 밝은데 내가 머리로 갈거나

[註] 오돌뚝 : 어떤 상상(想像)의 미남(美男)의 이름일까?

춘향(春香) : 한국의 로만스에 나오는 이도령의 상대인 남원의 성춘향일까, 혹은 제주도의 로만스에 나오는 김복수(金福壽)의 상대인 류큐녀(琉球女) 임춘향(林春香)일까, 또 혹은 보통명사화한佳人(佳人)의 대명사인 춘향일까? 아마 마지막 뜻의 춘향일 것 같다.

연자 : 사랑.

연자머리 : 밀회(蜜會)의 장소. 물론 상상의 곳일 것이나 지도에서 찾아보면 서귀면 중산지대에 연자골(鸞子洞)이라고 있고, 지금은 무인 지경이지만 옛날엔 소부락(小部落)이 있었다고 한다.

등구데 당실, 여도당실 : 의미가 없다.

내가 머리로 : 내가 먼저.

온돌(溫突)

한국온돌은 한자로는 온돌(溫突; 정약용(丁若鏞)의 필언각비(訖言覺非)) 또는 ‘구들’(세종대왕(世宗大王) 칙찬(勅撰) 구황촬요언해(救荒撮要諺解))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이 온돌은 5,6세기경에 고구려에 발생하여 남북으로 전파되었는데 제주도에도 16세기 이전에 전파되었다고 한다(패관잡기(裨官雜記)). 그러나 제주도의 온돌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물론 기후가 온난한 관계일 것이며 그 구조는 아궁이 안에 갱(坑)이 있을뿐, 그 위에 구들장이 1개 놓였을 뿐이며 구들골이나 굴뚝은 없다. 그러니 혼로(焜爐)를 1개 문은 셈이 된다.

온돌의 전파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 권4 류큐국(琉球國) 풍속조(風俗條)에 보면 제주인 박손(朴孫) 등이 류큐에 표도하여 4년이나 머물고 중국을 거쳐 돌아와 만든 기록에 「항방(炕房)을 부설(不設)」이란 문구가 있으니 16세기 이전에 벌써 북방계의 온돌이 제주도에까지 전파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와다 이치로(和田一郎)와 제주도삼다(濟州島三多)

여(女), 석(石), 파리(蠅)(다비(旅), 조선특집호(朝鮮特輯號), 40~51쪽, 쇼와(昭和) 10년 7월, 1935).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의 제주도관(濟州島觀)

제주도가 한반도에 대한 관계는 시실리섬이 이태리 반도에 대한 것과도 같고 한라산은 즉 에트나산에도 비할 수가 있다고 한다. 또 받을 구획한 석벽(石壁)은 아프리카 서안(西岸)의 Azores島の 그것을 연상(聯想)시킨다고.

전등설비(電燈設備)

제주 성내, 서귀포 및 모슬포뿐이다.

제주도공원(濟州島公園)

아오야기(靑柳)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 1905년)에 있는 사진관에 제주도공원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삼성사(三姓祠)이다. 지금 와서 제주도공원이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문헌에서도 볼 수도 없으니 그때 저자가 보고 마음대로 명명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공원이란 명칭에 해당도 된다.

제주도 관계의 대표적 문헌

1800년까지에는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1900년까지에는 Barth S. Ohlinger의 제주도

1910년까지에는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의 제주도안내(濟州島案内)

1920년까지에는 고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제주도방언(濟州島方言)

나카이 타케노싱(中井猛之進)의 식물조사서(植物調査書)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

1930년까지에는 요코야마 마타지로(橫山又次郎)의 패화석(貝化石)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의 곤충상(昆蟲相)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의 하계대학(夏季大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고정중(高禎鍾)의 제주도편람(濟州島便覽)

1940년까지에는 하라구치 큐우망(原口九萬)의 제주도지질(濟州島地質)
도세요람(島勢要覽)

최남선(崔南善)의 문화사관(文化史觀)

이병도(李丙燾)역 하멜표류기

문인주(文仁柱)의 상피병(象皮病)연구

1941년 이후에는 문화조선지(文化朝鮮誌)의 제주도특집호(濟州島特輯號)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접류(濟州島蝶類)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방언(濟州島方言)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인구론(濟州島人口論)

첩해신어(捷解新語)

이조(李朝)에서 일본어 독본(讀本)으로 쓰인 10권의 책으로 임진난에
부로(俘虜)로 일본에 가서 10년 재류(在留)한 강우성(康遇聖)이 엮은 것이
다. 원고(原稿)는 1618년경에 되었으나 근 60년후 강희(康熙) 15년(1676
년)에야 출판되었다. 그후 여러번 복각(複刻)되었고 경진(庚辰; 1700년)에
는 제주에서 간행된 일도 있다. 그후 최학령(崔鶴齡)·최수인(崔壽仁) 공
편(共編)의 개수첩해신어(改修捷解新語; 12권, 건륭(乾隆) 13년, 1748년),
최학령편의 중간첩해신어(重刊捷解新語; 12권, 건륭(乾隆) 46년 1781년),
김건서(金健瑞)편의 첩해신어문석(捷解新語文釋; 12卷, 가경(嘉慶) 원년,
1796년) 등이 간행되어 약 200년의 긴 생명(生命)을 가졌던, 일본어학
연구에 공헌(貢獻)을 남긴 저서이다.

최초로 소개된 민요

고려 충선왕(忠宣王)에서 공민왕(恭愍王)에 걸친 문신(文臣) 익제(益齊)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 칠절(小樂府 七絶) 일장(一章)이다. 익제난고 사
(益齊亂藁 四).

都近川頽制水防	도근천에 물막는 제방이 무너져
水精寺裏亦滄浪	수정사 안에도 또한 푸른 물결
上房此夜藏仙子	오늘 밤도 상방엔 신선(뱃사람)이 숨겨져 있으니
社主還爲黃帽郎	절 주인이 도리어 황모랑이 되었네
從教藟麥倒離披	보리는 두둑에 넘어져 이리 저리 흩어졌고
亦任丘麻生兩岐	삼은 언덕에 자라 가지가 갈릴 때에
滿載靑瓷兼白米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실은 배를
北風船子望來時	북풍 타고 뱃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다카하시 도오루(高橋 亨)——조선, 쇼와(昭和) 8년 1월호)

향토오락(鄉土娛樂)의 수(粹)

향토오락으로 유명무실한 것까지 들면 여러가지이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가무회(歌舞會)라고도 할 수가 있을까 한다. 남녀가 합석 혹은 별석(別席)에서 ‘허벅장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다. 이 허벅장단은 극히 보편화하고도 제주도의 독특한 것이다. 또 하나는 용왕제(龍王祭)라고 할까. 심방(무당)을 데려다 오락을 겸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향토오락이라고는 보잘 것이 없고 원시적인 것이 약간 있을 뿐. 허벅장단만은 특이한 점으로 육지인들의 주의를 끌기에 족하다.

‘힐버트’와 ‘벨츠’ 양씨의 제주도민관(濟州島民觀)

힐버트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조선 지방 주민은 언어, 체질, 풍속, 말(馬) 등으로 대만(臺灣) 주민과 같이 남인도의 Dravida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벨츠는 기원설에 지극히 찬성하기는 하나 드라비다까지 가져갈 것은 아니고 조선의 동방 및 남방의 여러 대도(大島) 혹은 남지(南支)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힐버트는 Homer B.

Hulbert로 미국인(美國人), 구한국정부(舊韓國政府)의 고문이었고 벨츠는 E. Baelz로 일본에 와있던 독일인 의학자이었다.

호식(豪食)

쌀반(米飯)은 1년에 2~3회를 먹을 뿐이었는데 최근에는 육도(陸稻) 혹은 이입미(移入米)를 약간 사용한다. 상식(常食)하는 것은 보리와 좁쌀, 부식물로 최기(最嗜)하는 것은 돈육(豚肉), 내놓는 요리로는 돈육(豚肉), 계육(鷄肉), 계란(鷄卵), 우육(牛肉), 어육(魚肉) 등의 순. 거기에 메밀 전병 같은 떡과 속소주(粟燒酎), 조미료(調味料)로는 고추, 깨, 참기름, 생강, 소금 등. 대체로 고추가루는 육지에서와 같이 많이 안쓴다.

跋 文

나비와 같이 왔다 나비와 같이 가신 오빠! 오빠 가신지도 어언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 의지력이 강한데다가 과감성 있게 무슨 일이나 손에 잡으면 끝을 맺고야 마는 그 끈기와 정력은 같은 동기간에도 감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성격인 동시에 쾌활하고 솔직한 분이어서 뉘에게서나 존경을 받아왔고 집안에서도 석주명(石宙明)선생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었습니다.

억만년이나 사실 것 같은 생각에서 자신의 향락을 모르고 그저 학문에만 열중하시던 모습, 다(茶) 한잔 마시는 시간조차 애석해 하시던, 학문에 대한 그 애착심이야 뉘라서 감히 흉낸들 내오리까. 지금 생각하면 43년 평생에 너무나 많은 일을 남기셨고 못 다 사신 일까지도 하시고 가신듯 싶사옵니다.

철부지인 동생이었습시다만은 오빠 말씀 하나 하나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금언(金言)이었습니다. 언젠가 오빠는 저에게 ‘나는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3만 마리의 나비를 만져 본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 생활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6·25동란에도 오빠와 같이 피난살이를 하면서 그 고달픈 속에서도 원고 정리를 하시곤 하였지요. 원고가 들어 있는 룩색은 조금도 오빠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1·4후퇴를 당하고보니 이미 오빠는 가신 뒤라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몰라 오빠 체온도 가지지 않은 룩색을 둘러메고 뒷덜미를 땡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부산까지 내려갔었지요.

그 당시 누가 석(石)선생 유고(遺稿)가 남아 있느냐고 몇 차례 문의를 받았으나 유고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유고의 내용은 제주도총서(濟州島叢書) 6권중 제주도방언집(濟州島方言集), 제주도생명조사서(濟州島生命調查書), 제주도문헌집(濟州島文獻集)은 이미 6·25전에 서울신문사에서 출간되고 아직 미간(未刊)인 제주도자료집(濟州島資料集), 제주도곤충상(濟州島昆蟲相), 제주도수필(濟州島隨筆), 한국산접류(韓國產蝶類)의 연구, 한국산접류(韓國產蝶類)의 연구사(研究史), 한국산접류분포도(韓國產蝶類分布圖), 외국산접류분포도(外國產蝶類分布圖), 세계박물학년표(世界博物學年表) 등입니다.

철이 바뀌면 원고를 한 두번 거풍(擧風) 쏘이는 정도로 별 볼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는 음 9월 23일(1968년 11월 13일)이 바로 오빠의 회갑(回甲)이어요. 회갑이 되기 전에 오빠의 유고를 정리했으면 해 보았읍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한채 고민하고 있던 중 오빠의 친우(親友) 김교영(金敎瑛) 선생님의 정성으로 제주도총서 중에 하나인 제주도수필이 출간케 되었읍니다.

남기고 가신 유고를 하나라도 정리하는 것이 오빠를 위로해 드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옵고 오빠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오빠와 가장 가까웠던 분들께 뜻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회갑을 맞이하여 삼가 영전에 손수 쓰신 책을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1968년 11월

石 宙 善

▣ 저자 소개



石宙明 (1908~1950)

곤충학자.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26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 모교인 송도중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하여 10여년간 근무하면서 나비연구에만 전념하였다. 1943년 경성제국대학 부속 제주도생약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는 제주도의 곤충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제주도방언집』(1947), 『제주도관계문헌집』(1949),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등을 출판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수원농사시험장 병리곤충부장에 취임하였다. 1946년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연구생활을 계속하였는데 그간에 제작된 귀중한 표본과 연구업적은 범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고로는 『한국산접류연구』, 『한국산접류분포도』 이외에 『제주도의 인문과 자연』이라는 수필집과 『제주도자료집』을 남겼다.

濟州島隨筆

1968년 11월 10일 초판 발행

발행처 : 보진재(寶晉齋)印刷所

저 자 : 石宙明

2008년 12월 15일 재판 인쇄

2008년 12월 30일 재판 발행

발행처 : 서귀포문화원

인쇄처 : 경신인쇄사
